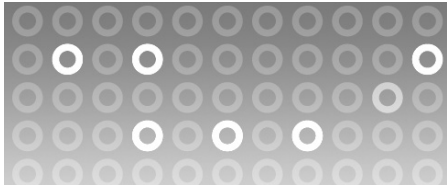


강원도 공고 제2012-209호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된 강원도종합계획
(2012~2020)을 국토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강 원 도 지 사



목 차

제1편 계획의 개요	1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3
제1절 계획의 배경	3
제2절 계획의 목적	4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5
제1절 계획의 성격	5
제2절 계획의 범위	6
제3장 도의 여건 및 전망	7
제1절 현황 및 특성	7
제2절 여건변화 전망	11
제3절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 평가	21
제4절 도민의 강원발전 기대	24
제5절 강원도의 현안 및 전략방향	28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31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33
제1절 비전	34
제2절 계획목표	35
제3절 계획의 기조	36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	37
제1절 인구지표	37
제2절 경제-산업지표	44
제3절 건강-환경-복지지표	49

제3장 공간구조의 설정	52
제1절 발전축의 설정	52
제2절 국가 광역경제권 전략과 연계한 글로벌 성장거점 형성	58
제3절 생활권 구상	68
제4장 추진전략	71
제1절 전략부문의 도출	71
제2절 전략부문의 구성	72
제3절 핵심전략사업 추진	79

제3편 부문별 추진계획 83

제1장 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85
제1절 목표와 과제	85
제2절 『그레이트 강원』 범도민 운동 추진	88
제3절 ‘3+15’ 개발전략 추진	91
제4절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기반 확충	105
제5절 강원문화 르네상스 사업추진	111
제2장 고속물류·교통망 구축	114
제1절 목표와 과제	114
제2절 북극항로의 개척과 강원권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117
제3절 「目」자형 철도망 구축	128
제4절 공항기능 활성화	134
제5절 광역경제권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138
제6절 국토종단 내륙물류축 개발	145
제3장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고	149
제1절 목표와 과제	149
제2절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153
제3절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160
제4절 거점도시기능 강화	165
제5절 동해안발전계획 추진	169
제6절 창조지역사업의 추진	174

제4장 지속성장 산업기반 형성	176
제1절 목표와 과제	176
제2절 R&D·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80
제3절 쾌적·관광산업 창출	195
제4절 융복합으로 농산촌 산업의 고도화	208
제5절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산업화	218
제5장 생명다양성 환경기반 확충	229
제1절 목표와 과제	229
제2절 녹색정주환경의 조성	231
제3절 생명다양성 확충	240
제4절 물자원의 확보와 가치증진	243
제5절 생활폐기물 관리와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	251
제6장 스마트·문화삶터 조성	259
제1절 목표와 과제	259
제2절 스마트한 도시생활공간의 형성	261
제3절 쾌적한 정주공간 형성	271
제4절 전통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향상	279
제5절 스마트·문화삶터를 형성하는 토지이용 관리	285
제7장 저출산·고령화 대응사회 형성	292
제1절 목표와 과제	292
제2절 지속가능한 일자리생태계 형성	295
제3절 여성의 사회경제활동기반 확충	303
제4절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310
제5절 건강보건환경 구축	319
제6절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329
제8장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	340
제1절 목표와 과제	340
제2절 재난관리체계 강화	344
제3절 지역사회 방재력 강화	350
제4절 사람 중심의 안심공간 조성	357

제4편 계획의 집행 및 관리 363

제1장 행정계획 365

제1절 계획추진체계 구축 365

제2절 주민참여 지역 뉴 거버넌스 구축 371

제3절 국제관계 위상강화 374

제2장 재정계획 378

제1절 재정 여건 378

제2절 강원도 재정전망 382

제3절 투자자원 조달 385

제5편 시군별 특성화 발전방향 395

동해안권 초광역벨트

설악·금강 국제관광지대 (GT씨티)

접경지역 종합개발

DMZ국제지구도시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

플라즈마산업단지

농식품바이오산업육성

생물·중자산업R&D육성

지오파크

설악동계개발

속초

속초항

해양수산산업육성

양양신항만

양양국제공항

양양공항배후단지

북극항로

설악·단오문화권

강릉과학산업단지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마그네슘 제련단지

옥계항

침단소재 및 R&D특구

목포항

동해항

페로알로이 제련단지

호산항

복합에너지거점

퓨전에너지지대

희소금속 클러스터

강원생약단지

그린 바이오시티

객적관광 브런드 사업

로하스T-산업화

생물건강 산업도시

프리미엄 박람회유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원주철강공항

강원아트밸리

기상기후R&D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메디 융복합 클러스터

서울

오송

내륙첨단산업벨트

범례	
고속도로	기존
	계획선
철도	기존
	계획선



제1편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제3장 도의 여건 및 전망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계획의 배경

-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수정계획 포함)에 따라 도 단위 종합계획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2020)」,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 수립
-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등을 골간으로 2011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공고함에 따라, 그 기조에 부응하여 기존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을 변경·재수립¹⁾
 - 민선5기 출범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강원도 장기발전전략 마련

강원도 종합계획 연혁

구 분	1차계획 강원도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	2차계획 강원도건설종합계획 (10개년 계획)	3차 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20년 계획)	3차 수정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계획기간	1982~1991	1992~2001	2000~2020	2008~2020
개발전략	· 성장거점도시 · 개발 전략권	· 다핵구조 · 특수지역개발	· 7대지역 특성화촉 ·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 강원 7+6플랜 · 지속성장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인구지표	208만명	170만명	187만명	200만명
관 련 상위계획	제2차국토종합계획 (1982~1991)	제3차국토종합개발 계획(1992~2001)	제 4 차 국 토 종 합 계 획 (2000~2020)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기간에는 도 단위 계획이 없었음. 4차 국토 계획부터 계획기간을 20년 단위로 수립			

1) 민선시대 이후 최초의 강원도 장기발전계획인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강원도의 비전21』(1996년 도 자율계획)과 국토 종합계획 등 국가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강원광역경제권계획(2009) 등 최근 도 단위 계획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수립

제2절 계획의 목적

- 동북아 등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정책에 따른 강원도 발전전략의 보완수정 및 재구축

- 2000년대 들어 국토공간은 급속히 ‘고속화, 개방화, 광역화’ 방향으로 진전
- 1998년 세계금융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국가경제체제의 급속한 글로벌화 진행 및 이와 부응하여 국토의 개방화 진전 가속화
- KTX개통으로 인한 고속화와 광역경제권 형성전략의 추진 등 국토공간 개편 추세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강원발전 전략의 재구축	국토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은 KTX망 전국화, 남북관계의 변화,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가시화 등 주변정세에 맞춰 강원발전의 틀을 전면적으로 보완, 현실화
--------------------------------	---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민선5기 도정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을 반영

- 지방자치의 진전으로 지역 고유의 발전구상과 비전에 대한 기획력 및 추진력 향상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마련 및 비개최지역 균형발전 추진

⇒ 자치도정 1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정방향 재설계	1995년 출범한 자치도정의 15년 성과를 토대로 도정방향을 새롭게 가다듬는 역할
-------------------------------	---

- 강원도 주도의 인적·물적 기반 확충 및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발전을 견인

-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고유 자원 발굴에 따른 내발적 발전전략 강화

⇒ 지방자치시대 지역역량 강화	자치 시스템 정비 및 자치역량 강화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 자치시대의 중요한 지역발전 성장 동력화
------------------	--

- 「소득2배 행복2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통하여 도민 삶의 질 개선

- 민선5기 정책방향의 구체화 추진

⇒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 걸 맞는 도민 삶의 질 확보	강원도의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
----------------------------------	---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제1절 계획의 성격

○ 국토계획 실현을 위한 도 단위 실천계획

-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의 장기발전 구상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국토의 효율적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 국토종합계획의 전략기조 및 정책방향을 이어받으면서 강원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

○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이 법정화 되어 있어 확정 이후 법정계획으로서 효력을 가짐 (국토기본법 제13조)
- 자치도정의 철학적 기조 위에 세우는 종합발전 틀

○ 지역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2020년까지 지역 내 공간구조,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개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

○ 도정 방향을 선도하는 전략계획

- 도의 선도산업 등 종합발전을 이끌어가는 기본적 전략계획
- 성과 지향의 조정 관리계획으로 다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유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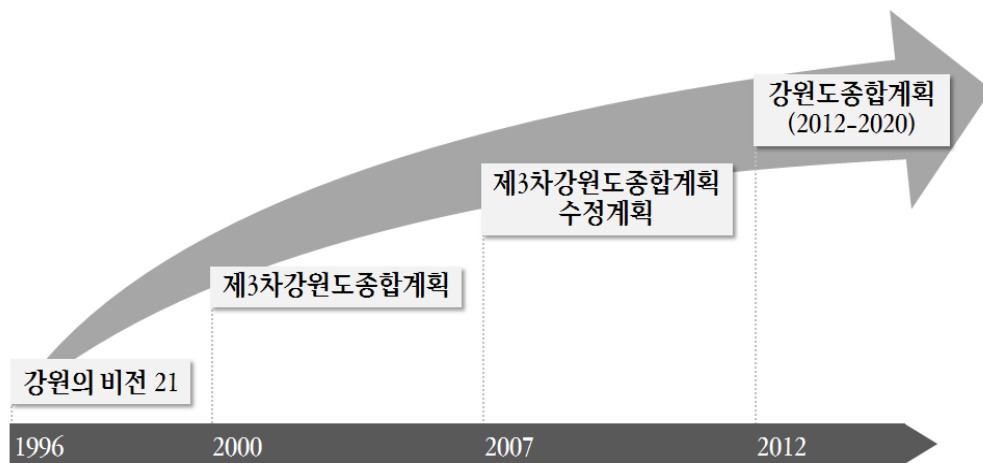
○ 부문별 계획 및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계획

- 도정의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한 상위 지침계획
- 시군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공공·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방향을 유도하는 지침 성격의 계획

제2절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2020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을 대체하는 계획
- 1995년 자치도정 수립 이후 도정의 방향을 이끌어 온 강원비전21,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초를 잇는 연동계획



○ 공간적 범위 : 강원도 전역

- 7개 시, 11개 군 총 16,874km²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여건전망에서는 강원도와 연계된 동북아권 및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망
- 발전축 및 교통망 등 공간구상에서는 인접시도를 포함하여 계획

○ 내용적 범위 : 종합적 내용을 포괄

- 비전과 목표의 설정 : 강원도의 현실 및 여건 전망을 토대로 202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
- 산업 구상 : 강원도의 성장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전략
- 공간 구상 : 강원도의 거점도시와 성장축 및 생활권을 토대로 하는 공간발전 구상
- 삶의 질 구상 : 주거, 문화, 통신,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전략
- 환경보전 및 개선 : 환경의 질 개선전략
- 방재 및 재해예방 :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공간형성 전략

제3장 도의 여건 및 전망

제1절 현황 및 특성

1. 지정학적 특성

○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지대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쪽은 약 318.1km에 이르는 동해와 접하며 5도 3시, 13군과 경계를 이룸
 - * 총면적 16,874km²(전국의 16.9%), 임야 81%, 농경지 10%, 기타 9%
- 환황해권에 위치한 수도권으로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각축을 이루는 동해바다의 진출로를 담당

강원도행정구역



○ 접경지역으로서 대북방 교류 거점

- 5개 군이 145km의 비무장 지대에 접하고 있는 남북접경지역으로서, DMZ와 민통선 지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결정짓는 세계적 관심 지역
- 대북교류 및 북방향로 개척의 중심지로 높은 발전 잠재력 보유

○ 동고서저(東高西低) 지형으로 청정자원의 보고

- 한반도를 동서로 분리하는 백두대간이 강원도의 골격을 이루므로서 환경·생태우수 지역 및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
- 우수한 산림과 한강 및 낙동강의 발원지, 257개 하천이 통과하는 국토 생명의 시원

○ 중소도시 중심의 공간 구조 형성

- 산림계와 수계를 중심으로 다기능형 공간체계를 형성
- 생활권 중심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이 정립(鼎立)한 네트워크형 구조

2. 인문·사회적 특성

□ 인구감소의 추세

- 2010년도 강원도의 통계청 조사 상주인구는 1,472천명으로써, 지난 10년간 15천명(-1%)이 감소
 - 2000년 1,487천명 → 2005년 1,465천명 → 2010년 1,472천명
 - 전국인구에서 비중은 2000년 3.2%에서 2010년 3.0%로 하락
 - 강원도 추정인구(통계청) : 2015년 1,394천명, 2020년 1,340천명
- 제조업 기반을 갖춘 중심 대도시가 발달되지 못하고 막강한 흡인력의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강원도 인구감소의 큰 원인
 - 강원도 인구는 1985년 전국인구의 4.3%를 차지하였으나, 도시화·산업화 현상으로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가 본격화된 1989년과 1990년, 약 10만 9천명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

□ 농림수산업 부문이 크고 제조업이 미발달한 경제·산업 구조

- 강원도의 2010년 총산업 생산액은 29.1조원으로써 전국 생산액의 2.5%를 차지
 - 생산액 규모는 절대액에서 계속 증가 추세지만, 상대적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로 1985년 4% 수준에서 2009년 2.6%(27.6조), 2010년 현재 2.5%
 - 1인당 생산액은 2000년 1,119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87.2%였으며, 2010년 현재 2,0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울산의 37.4%로 차이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
- 산업생산구조는 제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림어업 및 광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높은 구조
 - 80년대 이후 광업부문을 계속 감소 추세로써 2000년 4.7%, 2009년 3.1%
 - 제조업은 2000년 13.7%에서 감소 추세이나 2008년 이후 반등하여 2009년 현재 11.4% 수준이나 여전히 전국 27.8% 수준에 비해서는 현격한 격차
 - 전국에 비하여 강원도의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은 광업(15.5배), 농림어업(2.1배), 건설업(1.5배)이며, 낮은 것은 제조업(41% 불과)임

3. 특성의 요약과 시사점(SWO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권 중심적 입지 - 대규모 시장의 인접 - 자연생태자원의 풍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고원, 바다, 내수면, 수질 ▸ 소재자원으로서 지하자원 풍부 - 청정성, 향토성의 좋은 이미지 - 관광·리조트 명성과 방문객 증가 - 다원적 문화·지리자원 	S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막다른 골목(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낙후 ▸ 의식의 낙후 : 피해의식 - 적은 인구, 분산적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이 많고 들이 적은 지형구조 - 내부자본형성의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경제활동 저조 - 급속한 고령화, 지역의 활력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 환동해경제권 부상 - 시공간의 동조화, 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극형 국토공간으로의 발전 - 정체성 확립과 전통가치의 재조명 - 가치관 다양화와 로하스족의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변화, 창조적 계급 성장 ▸ 경제발전, 개인향유시간의 증대 - 지구 온난화와 환경생태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경제로의 전환확산 -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 강원도 자원가치의 재조명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불안정성, 북중관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동해진출 가속화 - 글로벌화 심화 - 지역간 경쟁의 격화 및 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KTX 건설 ▸ 수도권, 충청권의 성장 ▸ 서남해안권 개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간척지(1억3천만평)개발 : 영암해남지역 대규모개발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빈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다양성 위기와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압력심화 - 자원의 고갈 - 국토 내 전반적 환경수준의 향상

○ 강원도는 청정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이 지금까지 가장 큰 강점

- 1980년대까지 주력산업이던 농림수산업 및 광업, 이후 발전하는 관광, 휴양, 레포츠 산업의 바탕도 자연환경
- 국민의 강원도 상징이미지도 자연환경에서 출발(설악산, 동해, 백사장 등)

○ 산이 많고 들이 적은 넓은 지형, 적은 인구, 취약한 연계·접근망과 SOC기반, 1950년대 이후 오랫동안 국토의 냉전적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

- 거점도시 분산 등 도시발달이 미약
- 제조업 기반 취약, 수출산업 빈약,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부재
-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

○ 전국비중에서 인구는 3%, 총생산액은 2.5%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

- 2010년 센서스 인구 1,472천명(전국 48,580천명의 3.0%)
- 2009년 지역총생산액 27조(전국 1,066조의 2.6%), 2010년 29.1조(전국1,175조의 2.5%)
- 2010년 1인당 총생산액 2,020만원(전국의 84.0%, 시도 중 가장 높은 울산의 37.4%)
- 1인당 개인소득 1,198만원(전국의 88.7%, 제일 높은 울산의 73.6% 수준)
→ 전국과의 차이(gap)는 확대추세

○ 주변국 등 국내·외 정세 변화는 위기이면서 곧 기회

-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새만금 간척지, 무안영암권 개발사업, 여수엑스포 등 대규모 사업으로 국토의 서남해안권이 산업·관광권으로 급부상
-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의 협력관계 증가, 중국 동해안과 한국 서해안(환황해권) 활성화로 인한 자본·자원의 서해안권 집중현상 등으로 강원도의 남북접경지대 위상이 고착화 될 우려
- 남북관계 신뢰확보와 교류 협력확대, 대륙철도, 북극항로 개설 등 국제적 여건이 개선되면 접경지역의 위상강화, 동해안 항만 및 에너지 산업경쟁력의 증대, 물류·관광 산업 활성화 기회 부상

○ 그간 산업화·공장화 시대의 변방으로 잘 보존된 산림, 수자원 등 각종 청정자원은 새로운 쾌적산업 육성 등 굴뚝시대를 뛰어넘는 도약기회의 도래

- 녹색도시 건설, 4도 3촌 시대 도래에 따른 농산촌의 6차산업 공간화, 새로운 도농 복합형 정주공간 형성 등 21세기 행복삶터로 재조명

제2절 여건변화 전망

1.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대외 여건변화 전망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7대원칙(흑자, 민생, 균형, 환경, 평화, 문화, 휴먼웨어) 실현 추진

－ 주요 도입기능 : 동계올림픽, 관광문화, 산업·R&D, 도시기반

- 개최시군을 지속발전 가능한 자족도시로 육성, 환경친화적 경기장 건설
 - 경기장 건설 재정투입 및 환경훼손 최소화, 개최이후 관광자원 활용 방안 등
-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소외지역 동반발전 및 남북화해분위기 조성
 - 지방비 집중 투자방안, 금강산 관광재개, DMZ투어, 남북스포츠 교류 등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글로벌 복합 교통망(SOC) 확충
- 올림픽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창출, 지역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 IT·통신, 스포츠, 관광, 신소재, 건설산업 등 지역업체 육성 및 기업유치
 -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장, 도로 등 지역업체 참여, 관광·숙박 인프라 구축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현황



자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동계올림픽특구(평창군 및 인근 지역) 조성 등 전분야의 비약적 발전 기대

- 비 전 : 아시아동계스포츠 및 첨단 쾌적산업 거점
- 동계올림픽특구의 범위 : 알펜시아클러스터 일원 62.3km² 대상

○ 경기장, 비경기장 시설, 접근도로망 확충 등 직접투자 6조 5,390억원

- 경기장 시설(5,404억원), 비경기장 시설(1조 2,555억원), 접근 도로망(4조 7,431억원)

2010년 기준 동계올림픽 대회운영 소요예산 현황(잠정)

세 입			세 출			
항 목	금액(USD,백만\$)	비 고	항 목	금 액 (USD,백만\$)	항 목	금 액 (USD,백만\$)
IOC 지원금	353		경기장운영	214	의 료	20
TOP 스폰서	160		M P C	60	수 송	74
스폰서 수입	530		I B C	26	보 안	33
입장권 판매	212		하스피텔리티	16	패럴림픽	61
라 이 센 스	35		인 력	189	홍보·광고	55
복 권	15		정보통신	379	기 타	312
기 부 금	22		개·폐막식	92	합 계	1,531
보 조 금	130	정부60, 도40, 시군30				
기 타	74					
합 계	1,531					

자료 :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 개최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성장동력으로 견인

○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4. 산업연구원)²⁾

- 총생산유발 20조 4,973억원, 부가가치 유발 8조 7,546억원, 고용유발 23만명

○ 동계올림픽의 직·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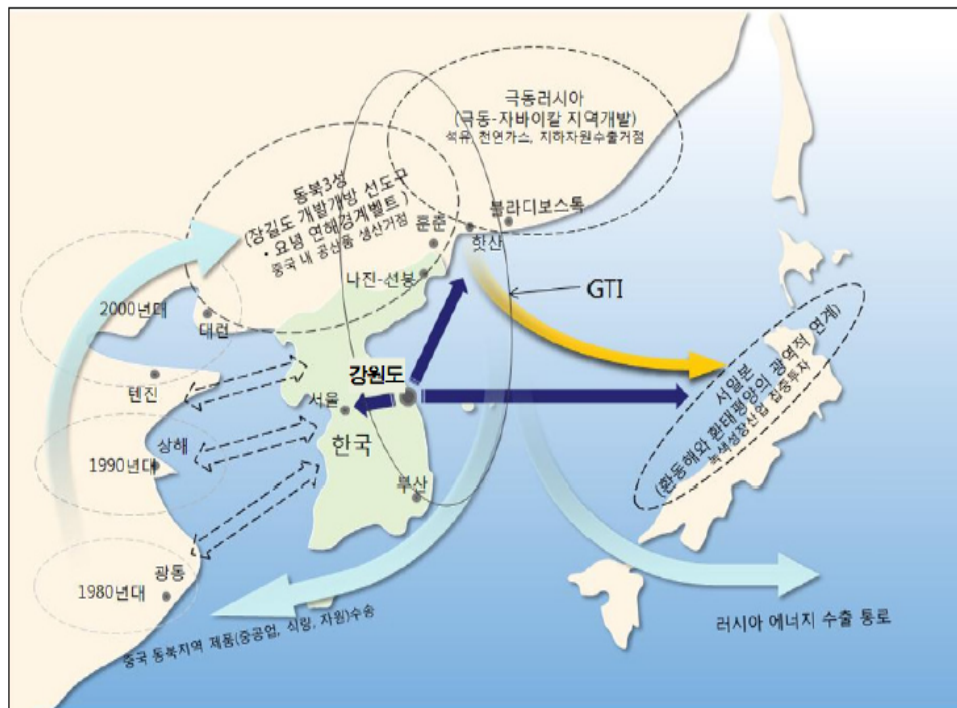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제고 : 국가 브랜드 및 부가가치 등
- 국내경제 활성화 : 대회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최첨단 산업촉진 및 세계시장 주도 : IT·환경· 녹색산업 등
-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 국가발전 에너지로 승화

2) 2011.7.6. 현대경제연구원의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분석 결과 : 총 64조9,000억원(직접효과 21조 1천억원) 간접적 효과(43조 8천억원)으로 발표

□ 동북아로의 경제권 이동추세

- 세계경제 블록화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쟁시대 도래
- 북미와 유럽에 비해 경제통합속도가 늦었지만 동북아지역은 환동해권 및 환동해권 중심으로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여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환동해경제권은 인구 1억 5천만명, GRDP 1조달러의 거대시장 형성
 -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권 무역 및 투자 등 실물 부문 교역 확대³⁾
- 동북진흥정책에 따라 중국의 개발축 북상(광둥 → 상해 → 톈진 → 동북3성)
 - 동북3성 산업구조변화로 물동량이 2020년까지 연 8~9% 증가 전망
- 창·지·투⁴⁾ 개발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대두만강 일대 인프라 구축
 -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의 두만강 개발을 통한 수출입 구조 개편 전망

중국의 성장축 이동과 환동해 진출전망



3) 환동해권 경제규모는 2007년 5조8천억 달러에서 2020년 12조2천억 달러로 EU 경제(24조532억달러)의 51% 규모

4) 창지투 : 창춘(長春), 지린(吉林), 투먼(圖們)

두만강 일대 인프라 구축상황



○ 다양한 광물과 에너지원의 대표 생산지대로 부상

-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및 다양한 광물 등 에너지·자원 지대로 부상 중
- 북한은 국토의 80%에 광물자원 분포(마그네사이트, 흑연, 철광, 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광 종	기준품위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조원)	비 고
금속	금	금속기준 톤	2,000	19.1	금, 은, 동은 북한 전역에 골고루 매장
	은	금속기준 천톤	5,000	7.4	
	동	금속기준 천톤	2,900	2.0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	1.2	연, 아연은 강원, 함남 집중 매장
	아연	금속기준 백만톤	21,100	15.3	
	철	Fe 50% 천톤	5,000	213.5	함북 무산군 집중매장
	중석	WO ₃ 65% 천톤	246	0.2	황해북도 집중매장
	몰리브덴	MoS ₂ 90% 천톤	54	-	평남, 함남, 황북, 강원
	망간	Mn 40% 천톤	300	-	강원, 함북 등
	니켈	금속기준 천톤	36	1.2	함북, 함북 등
	티탄철	-	-	-	강원, 함북 등
비금속	알루미나	-	-	-	함북, 평남, 황남, 황북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	3.9	평북, 함남, 함북 등
	석회석	각급 억톤	1,000	1,092	평남, 황북, 황남, 강원 등
석탄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	189	전 세계의 50%(함북, 함남 집중)
	무연탄	각급 억톤	45	340	평남, 함남, 강원 등
탄	갈탄	각급 억톤	160	1,007	평남, 함북, 함남 집중

자료 : 김종민·김석중·김인중, '북한의 지하자원과 강원 동해안의 줄기물질 허브',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2011.6.30(원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료)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영향력 증대를 도모
 - 환황해경제권의 활성화, 문화역사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두만강 개발사업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노력
-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촉진되는 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⁵⁾
 - 남북회담 등 한반도 당사자 사이의 대화보다는 주변국, 특히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 안정화된 남북관계 구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륙국가가 되기 위해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최대한 활용 필요
- 일본과 러시아, 미국 등의 참여를 통하여 환동해경제권의 활성화 기대
 - 주변국의 연계를 통하여 일방의 힘 있는 지배적 국제·경제관계가 아니라 상호 공존 공영의 경제공동체 구축 전략

□ 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 보전의 국제적 표준 강화

- 산업사회에 무한한 자원으로 가정하였던 화석연료를 비롯하여 자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
 - 전통적 광물 이외에 첨단산업 발전에 불가결한 자원인 희토류 등 확보를 위한 자원 전쟁의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기술의 비약적 발전 및 국제표준화 선점이 주요이슈
-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생태계 종의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세계적인 종 다양성과 자연생태 보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다양하게 표출

*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유엔 종 다양성회의(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0차 당사국회의(COP 10 : Conference of the Parties) 개최⁶⁾

5)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 2005년 39%, 2008년 49.5%, 2010년 56.7%. 2010년 북중교역 34.7억달러, 남북교역 19.1억달러.(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축소, 대중의존도 급상승)

6) COP 10 에서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제시. 각국은 이 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종 다양성 확보에 대한 목표와 행동전략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명시

2. 대내적 여건변화 전망

☐ 국토의 고속화와 시공간의 동조화 현상 급진전

- KTX 등 전국적 철도망체계 구축이 본격화
 - 강원도 교통체계는 경춘선 전철, 서울~원주 전철의 개통과 춘천~속초 고속철도, 원주~강릉철도 부설 등으로 전철화 진행
- 철도망뿐만 아니라 항공, 해로 등 교통수단의 고속화, 다양화가 진전
 - 항공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항공 개발의 활성화
 - 위그(WIG) 선, 수상비행장 등 바다의 고속화 욕구도 빠르게 진전
- 도내 고속교통망, 철도망 구축은 타 권역과 기능적 연계관계를 촉진
 - 동서 고속도로, 원주~강릉간 철도 등 SOC의 확충은 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간 수평적(기능적 관계)으로 대등한 연계관계 형성에 촉매제 역할

☐ 국내 경쟁지역의 급속한 성장

-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새만금 간척지, 무안영암권 개발사업, 여수엑스포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서남해안권이 산업·관광지역으로 급부상
 - 호남권 고속철의 건설은 국토 내 대도시권과 호남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욱 크게 국내 관광시장을 점유할 가능성
- 전국의 자연환경 수준향상 추세와 맞물려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강원도의 관광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 도내 거점도시의 성장과 도농 불균형 심화

- 춘천~원주축, 철원의 수도권화 진행
 - 서울~춘천간, 서울~원주간 전철의 개통으로 춘천~원주축은 새로운 수도권으로 진행
 - 춘천권과 연계체계가 취약한 철원은 의정부권의 성장과 더불어 수도권화 진행

○ 동서교통망의 고속화와 연계거점도시(결절도시, node)의 성장

- 춘천~속초 철도, 춘천/홍천~양양 고속도로, 원주~강릉 철도, 제천/영월~삼척/동해 국도의 고속화 등 동서교통망의 고속화는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도시와 속초, 삼척 등 연계도시 성장을 촉진
- 동계올림픽 전후로 영동지역 관광·산업도시 발전 촉진

○ 백두대간축을 비롯한 내륙 산간지역, 접경지역의 공동화 우려

- 결절도시의 성장은 주변 농산어촌의 인구를 흡입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산간 지역과 접경지역의 공동화 현상 우려

□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 기술의 융복합과 신기술 창조

- 차세대 기술혁명에 IT,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간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
- 융합기술은 의료건강, 안전, 에너지 및 환경 등 미래의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술의 융합은 동종기술간 융합을 넘어 문제해결 위주의 파급효과가 큰 이종기술간 융합으로 진보하는 추세

○ 융합기술은 무궁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연계

- 융합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개체들(학문, 기술, 제품, 서비스, 산업 등)이 결합을 통해 가치가 더 커진 새로운 개체를 창조
- 필연적으로 기술융합은 산업융합으로 귀결

* IPTV(방송+인터넷+콘텐츠), 크루즈 여행(조선+건축+호텔+관광), 스마트폰으로 촉진되는 '일과 놀이의 융합' 현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 산업구조 개편의 가속화

○ 지구적 환경위기 인식과 함께 녹색산업체제로 재구성 가속화

- 녹색경제체제, 녹색성장체제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주택 및 도시 건설 등 활성화
- 새로운 에너지 개발, 특히 석탄이나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의 재활용

○ 산업체계의 소프트화, 고기술 및 융합화 진전

-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산업 등 성장
- 농어업의 첨단 기술화, 고부가가치화 진전(6차 산업)

○ 관광산업의 구조혁신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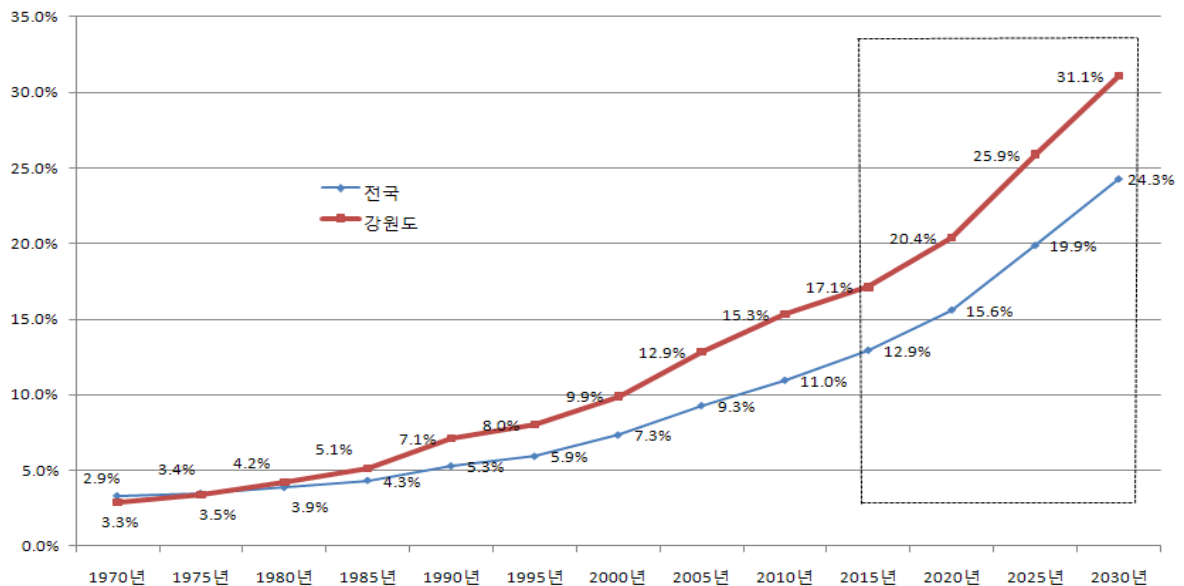
- 경제사회의 소프트화 진전과 함께 문화관광, 콘텐츠 관광의 활성화
- 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정체성(identity) 확보
- 지구 온난화에 따라 겨울관광 프로그램 재편 및 여름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 1990년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였으나, 2010년 15%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
- 2020년이면 20%를 초과, 초고령 사회 전망(고령인구 27만 예상)

고령화 추세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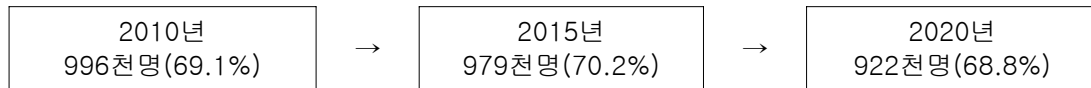


주) 점선부분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범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고령화는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체제의 저생산성 구조화 및 지역의 활력저하로 연결

강원도 생산가능인구 추계



□ 다문화 가정의 증가

- 2006년 강원도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하여 1,70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3,047명, 2010년에는 4,504명으로 증가
 - 정부는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진행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합 계
강 원	3,034	1,470	4,504
전 국	125,087	56,584	18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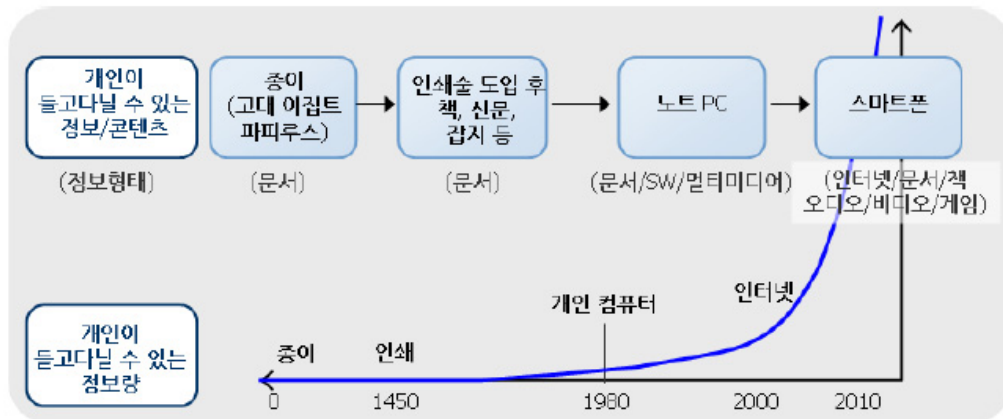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다문화가정 대열에 합류
 - 화천지역에 제2 하나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화 할 가능성 상존
 -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강원도는 항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

□ 개인역량의 증대와 가치체계의 다양화, 다원화

-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힘의 중심이 이동
 - 종래 국가나 지역의 힘은 도로, 인프라, 공장 등 하드파워에 의존
 - 현재는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화, 기술·인재, 가치관, 제도 등 소프트파워가 모든 힘의 원천
- 인터넷, 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확대
 - 개인능력의 증대는 근무행태, 생산방식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

개인휴대가능 정보의 확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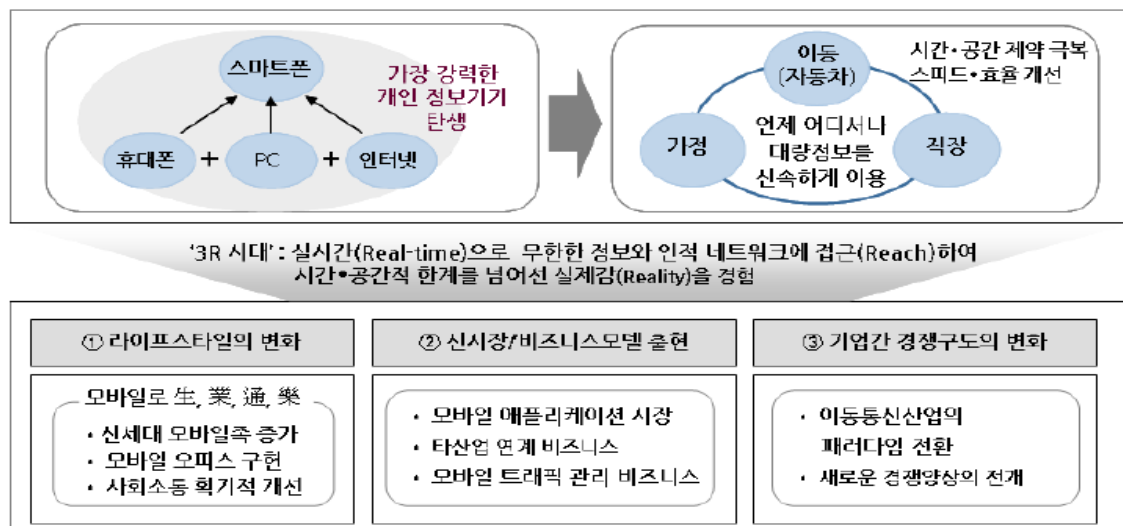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 CEO 인포메이션(2010.2.3.)

○ 로하스 생활방식(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⁷⁾의 확산

- 개별성, 체험, 느낌, 감성, 정신 등 가치인식의 키워드가 전환추세
- 종래의 대중관광, 자연관광, 단순한 숙박시설 위주의 관광은 경쟁력 상실

○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 일상생활 속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가 도래

스마트폰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 CEO 인포메이션(2010.2.3.)

7) 경험, 참여, 우정, 정신, 진실성, 자연주의를 추구

제3절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평가

1. 계획의 수립

○ 1995년 7월 1일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강원도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자치도정 주요 중장기발전계획 경과

계획명칭	배 경	비 전	목 표	추진전략
강원의 비전 21 (1996- 2011)	자치도정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비 전 및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도정을 추진하고자 수립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21세기 도시민의 고향	도민의 기대에 부응 하고 21세기 사회조 류 변화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발전체계를 구축	1. 경제강원을 실현하는 다양한 산업활동 진흥 2. 교류강원을 실현하는 지역교류기반 조성 3. 환경강원을 실현하는 생활환경기반 확충 4. 복지강원을 실현하는 문화복지기반 정비 5. 자치강원을 실현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축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2000- 2020)	4차국도종합계획 의 하위계획으로 서 자치도정의 장 기비전을 구체화 하는 법정계획	-	자연과 지식이 조화된 21세기 전국 제1의 삶터 만들기	1. 정주기반이 갖춰진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2. 다차원적인 교통망 확충 3.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활성화 4. 관광휴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5. 강원도 가치자원의 보전과 창조 6. 다양한 남북 및 국제교류기반 확충 7. 새로운 삶의 질을 창출하는 문화복지기반 8.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합방재체계 구축
지역혁신 발전 5개년계획 (2004- 2008)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지역산 업구조 혁신에 초 점을 맞춰 작성	생명건강 산업수도	1. GDP 증대 2. 지식기반제조업 기 반형성 3. 시군마다 대표상품 1개 개발	1. 생명건강산업 브랜드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및 시장규모 확대 2. 삼각테크노밸리 산업의 정착과 효과 확산 3.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확대·내실화로 농산어촌 기반산업 육성 4. 혁신주체 육성에 의한 관광산업기반의 강화 5. 대학역할을 통한 네트워킹 및 R&D기반확충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 2020)	참여정부의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 신도시 등 국가균 형발전사업을 반 영하는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부응	생명건강 수도, 약동하는 강원도	1. 활기찬 삶터 조성 2.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3. 더불어 사는 공동 체 형성	1.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 2. 사회간접자본 확충 3. 자연환경의 고부가가치화 4. 부문별 산업의 지식기반화 5. 문화관광자원의 성장선도산업화 6. 주민 삶의 질 제고 7. 행복한 복지공동체사회 조성 8.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강원광역 경제권 발전계획 (2009- 2013)	MB정부의 지역정 책인 5+2광역경제 권 정책추진에 부 응하여 수립	동북아 녹색성장의 신발전지대- 생명건강 중심-	1. 생명건강산업 육성 2. 녹색성장을 주도할 신성장거점 조성 3. 타 권역 연계 국제 경쟁력 제고 4. SOC 확충	1.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명건강산업 육성 2.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전환 3. 수출비중 증대와 외투유치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 4. 5대축 중심의 발전전략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 추진에 의한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한 계획

＊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충청권 행정복합도시 건설, 지역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포함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주요계획지표	내용	2005	2010	2015	2020
	정주인구	150만	156만	175만	192만
	유동인구	4.3만	5.3만	6.5만	8만
	지역총생산	22조	36조	55조	80조
	1인당총생산	1489만원	2340만원	3127만원	4156만원
	산업구조(%) <1차/2차/3차>	6.1/24.9/65.5	4.4/25.5/70.1	3.4/24.6/72.0	2.8/23.1/74.1
생활공간조성	7대성장축 전략, 생활권 구상, 광역개발권, 도시·농산어촌 개발, 토지수급				
사회간접자본	광역 고속복합교통망, 물류체계, 정보화, 인적자원개발				
자연환경보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물자원의 합리적 보전이용, 오염관리, 경관형성				
산 업 부 문	농림축산업, 수산자원, 제조업,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				
문화관광부문	지역밀착형 문화의 육성 및 창조, 지역성장을 선도하는 관광개발				
주민 삶의질	쾌적한 주거환경, 건강·체육·여가생활				
복지 공동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생애전반에 걸친 보건의료 지원				
안전한강원도	위기관리체제 구축, 지역방재력 강화				

2. 계획의 평가

○ 지속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하였지만 정부의 국토계획은 강원도를 계속 교통망의 ‘막다른 골목’으로 보는 공간구상의 한계

－ 정부의 국토발전 인식이 남한에 머물면서 강원도를 개방형 국토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

－ KTX 등 철도망 구상에서 강원도를 배제하는 공간인식의 한계를 노정

- 수정계획의 산업발전 구상에서도 기존산업과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강구
 - 정부 전략산업이 시도별 4개로 한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함
- 수정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추진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나, 예산, 각종규제, 경제 여건변화로 인해 한계 노출
 - 85.5%가 정상 추진, 14.5%는 변경 또는 취소(단위사업 기준)
- 향후 강원도종합계획(2012~2020)에서는 국비 등 예산확보, 남북관계 변화, 경제 여건 불확실에 따른 민간투자, 중첩된 개발규제 등 추진시기별 발생하는 각종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재원조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세밀한 계획수립이 과제로 제시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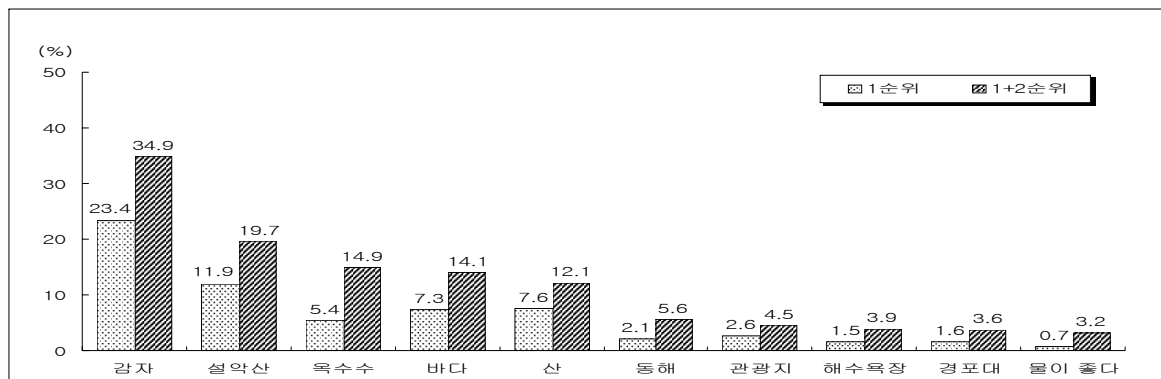
- 시행원년인 2008년도는 8대 계획과제 26개 추진전략 516개 사업으로 8조 119억원(국비 2조 8,289억원 35.3%, 도비 6,120억원 7.6%, 시군비 7,199억원 9.0%, 기타(민자등) 3조 8,511억원 48.1%)으로 수립
 - 정상추진 461개 사업, 개선·보완필요 55개 사업(국비 등 미확보, 정부계획 미반영, 각종 규제 등의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
- 2009년 2년차 실행계획은 8대 계획과제 26개 추진전략 491개 단위사업(2008년 대비 추가 17, 제외 42 → 순감 25)으로, 총사업비 8조 248억원(국비 3조 6,107억원 45.0%, 도비 5,402억원 6.7%, 시군비 8,869억원 11.1%, 기타 2조9,870억원 37.2%)으로 수립
 - 정상추진 393개 사업, 완료 3개 사업, 개선·보완 95개 사업으로 2008년도 대비 국비 등 정부지원 사업과 민자 유치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정책 및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민간투자 지연 등으로 불투명 사업 발생
- 2010년도 실행계획은 8대 계획과제 26개 추진전략 496개 사업(2009년 대비 추가 52, 제외 47 → 순증 5개)으로 총사업비 6조 5071억원(국비 3조 7,396억원 57.5%, 도비 4,118억원 6.3%, 시군비 9,119억원 14%, 기타 1조 4,438억원 22.2%)으로 수립
 - 정상추진 418개 사업, 완료12개 사업, 개선 보완 필요 66개 사업으로 2008~2009년도 와 유사한 지연사례 반복

제4절 도민의 강원발전 기대

1. 국민의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

- 2004년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강원도에 대한 인식은 자연과 농산물이 주도
 - 특히, 강원도 하면 감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설악산, 옥수수 등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조사됨(중복응답 기준)⁸⁾
 - 중요자원 인식에 있어서는 깨끗한 자연환경(44.2%) 및 관광지, 휴양지 등 다양한 관광시설(41.1%) 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강원도 자유연상 이미지



- 2011년 4월 서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원도에 대한 자유연상 이미지는 자연경관(30.0%), 청정환경(27.4%), 관광(15.8%) 이미지로 응답하였으며, 주요 응답은 산(11.2%), 깨끗하다(10.2%), 바다/청정지역(9.0%), 순박하다(6.2%), 설악산(5.2%) 등의 순(중복응답 기준)⁹⁾
- 2011년 동 조사에서의 강원도 이미지 평가는 ‘전원적인’ 92.6%, ‘친근한’ 89.0%, ‘방문하고 싶은’ 88.6% 등 속성에서 긍정적 반응이 88% 이상으로 평가되며, 농수특산품의 이미지 조사결과는 감자(83.6%), 옥수수(72.0%), 오징어(47.8%) 순으로 나타남

8)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민의식조사(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516명, 조사기간 : 2004. 7. 15.~7.31, 통계신뢰 : 표본오차 ±2.5%, 신뢰수준 95%)

9) 한국리서치 강원도 홍보광고효과 조사(조사대상 : 서울지역 거주 만20~54세 남녀 500명, 조사기간 2011.4.6.~4.22, 통계신뢰 ± 4.38%, 신뢰수준 95%)

2. 도민 의식

- 도민은 강원도를 자연과 환경이 아름다운 청정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관광 휴양지역이라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도민의 강원도 이미지 인식¹⁰⁾

2009년 조사	2005년 조사	1995년 조사
자연과 환경이 아름다운 청정지역 74.5%	자연과 환경이 아름다운 청정지역 56.2%	문화의 고장 3.9%
관광휴양지역 17.6%	관광휴양지역 25.6%	교육의 고장 3.3%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생산지역 5%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생산지역 9.8%	생산의 고장 10.8%
남북교류협력을 이끄는 견인지역 0.7%	남북교류협력을 이끄는 견인지역 3.4%	관광·유람의 고장 53.5%
한동해교류협력 선도하는 국제교류지역 0.7%	기타 4.9%	별 특징 없다 26.5%
유행과 정보에 앞서가는 첨단산업지역 0.6%		모르겠다 2.0%
기타 0.8%		

- 지역발전의 낙후의식은 여전히 높지만 개선되는 추세이나 발전정도에 대한 의식은 2005년 평가보다 낮음

도민들의 강원도에 대한 낙후도 의식

2009년 조사	2005년 조사	1995년 조사
매우 낙후되었다 11.6%	낙후되었다 45.5%	낙후되었다 88.0%
낙후되었다 45.1%	발전되었다 23.3%	발전되었다 0.8%
보통이다 28.8%	보통이다 31.2%	보통이다 8.2%
발전되었다 12.2%		모르겠다 3.0%
매우 발전되었다 2.2%		

- 강원도민의 자긍심 정도는 50% 내외로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강원도민의 자긍심 정도

2009년 조사	2005년 조사	1995년 조사
매우 자랑스럽다 9.9%	자랑스럽다 52.7%	자부심을 느낀다 48.5%
자랑스러운 편 40.4%	자랑스럽지 않다 0.4%	자부심을 안 느낀다 7.6%
그저 그렇다 41.4%	그저 그렇다 36.9%	그저 그렇다 39.4%
자랑스럽지 않은 편 6.6%		모르겠다 4.5%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1.7%		

10)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도민의식조사』, 2009년(유효표본 : 2000개), 2005년(유효표본 1970개) 및 1995년(유효표본 3102개)

○ 2009년 조사결과 도민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우선순위는 광역연계 기간교통망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

-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필요성이 첫째 순위
- 국도·지방도와 함께 도시 내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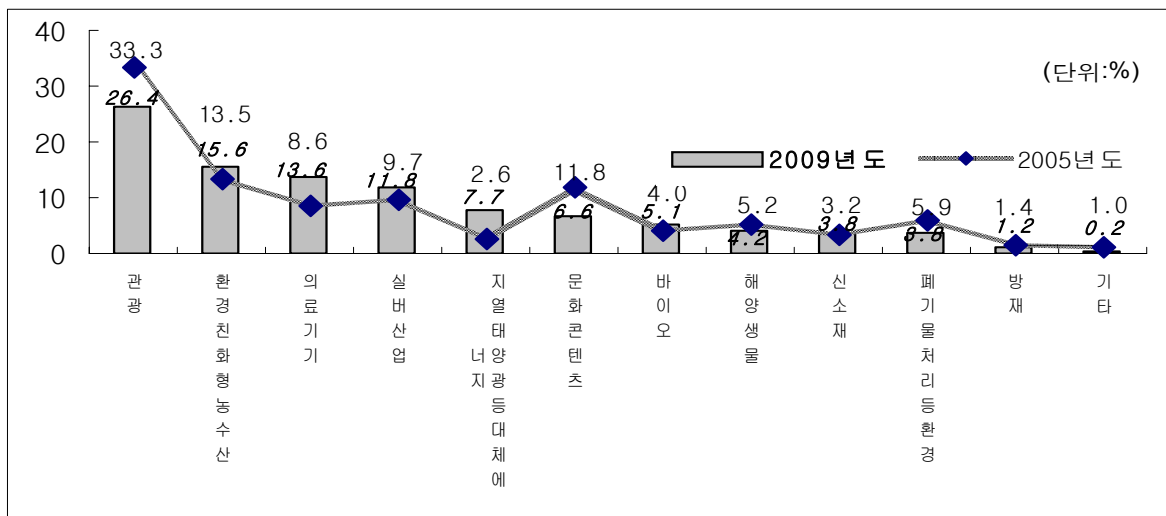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망 확충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중복응답]

결 과	1순위백분율	2순위백분율	가중치백분율
고속도로 확장 및 확충	30.1	13.4	24.5
고속철도 건설	27.8	14.6	23.4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15.8	21.9	17.8
도심교통 및 주차난 해소	12.0	15.8	13.3
대중교통체계정비	7.3	13.4	9.3
동해안 항만 확충 및 정비	2.8	9.2	4.9
공항 유치 및 활성화	2.6	5.5	3.6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1.5	6.1	3.0
기타	0.2	0.2	0.2
계(R=3,943)	100.0	100.0	100.0

○ 향후 강원도가 육성할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표출

- 2005년에 비하여 관광은 크게 감소한 반면 환경친화형 농수산물, 실버, 의료기기, 대체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 부문이 크게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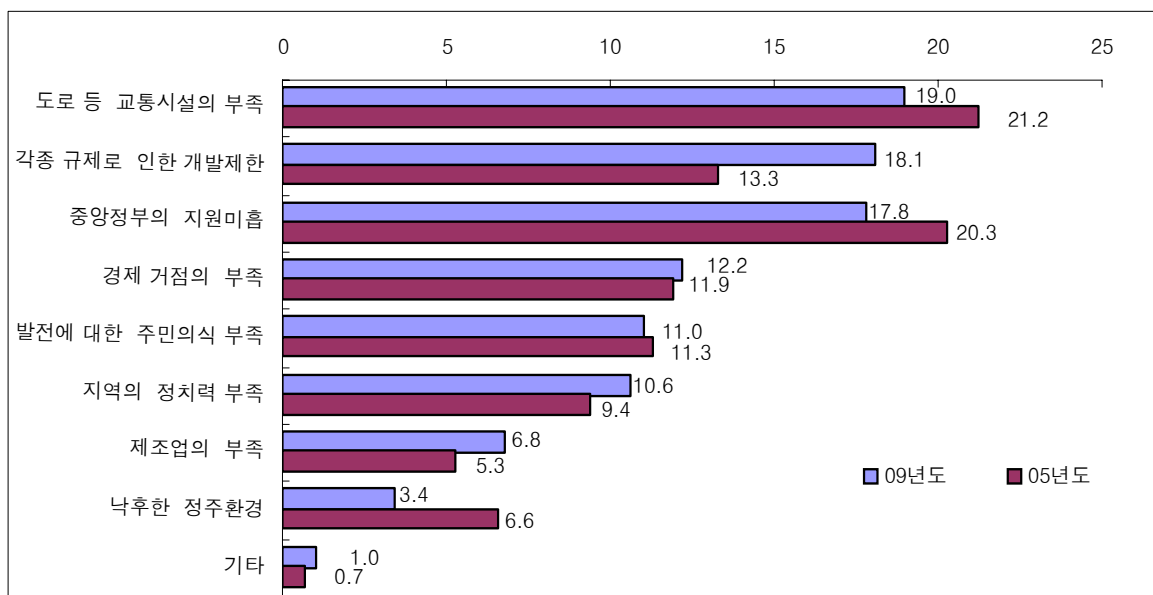
강원도에서 육성하여야 할 주력산업 분야



3. 강원도 이미지 및 도민의식 시사점

- 국민의 강원도 정체성은 자연과 농산촌, 관광지 등 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미지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도 환경우수지역은 보전정책, 이미 파괴된 지역(기 개발지역)은 개발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자연이 오히려 개발의 족쇄라는 인식
- 문화적 전통성이나 산업과 관련된 이미지도 적어 도민들의 정체성 의식이나 자긍심이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
- 도민의 강원도 발전 장애요인 인식은 여전히 교통 접근망이나 규제 등 요인이 높은 가운데 내적 역량발휘와 관련된 내용인식이 커지는 변화

강원도 발전 장애요인 인식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 2009년 강원도민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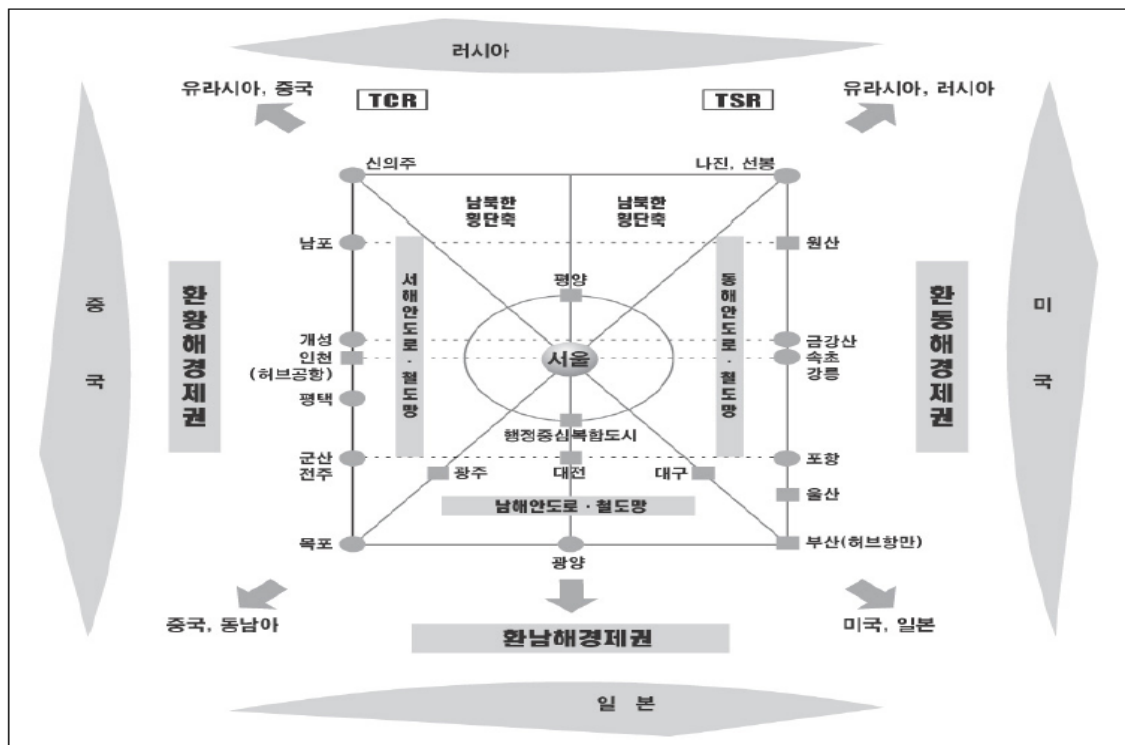
- 자치라는 측면에서 외부(특히 중앙)에 의존하기보다 자발적인 동기와 내부역량을 동원하여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 의식변화, 지식기반 사회의 성장동력이 첨단 기술산업이라는 인식 증대

제5절 강원도의 현안 및 전략방향

1.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균형발전 추진

- 강원도는 동북아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및 EATOF 등 국제협의 기구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이끌고 있으며, GTI총회 등을 유치하면서 동북아 시대를 대비
- 대내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해 오면서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인식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해 왔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의 국제화 노력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
- 동계올림픽 개최, 고속화되는 교통망 등에 따라 강원도민에게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성
 - 도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추진동력 창출 계기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성과 균형발전 전략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성과 균형발전전략, 2005

2.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약전략」 추진

○ 1995년 전면 지방자치 이후 강원도의 발전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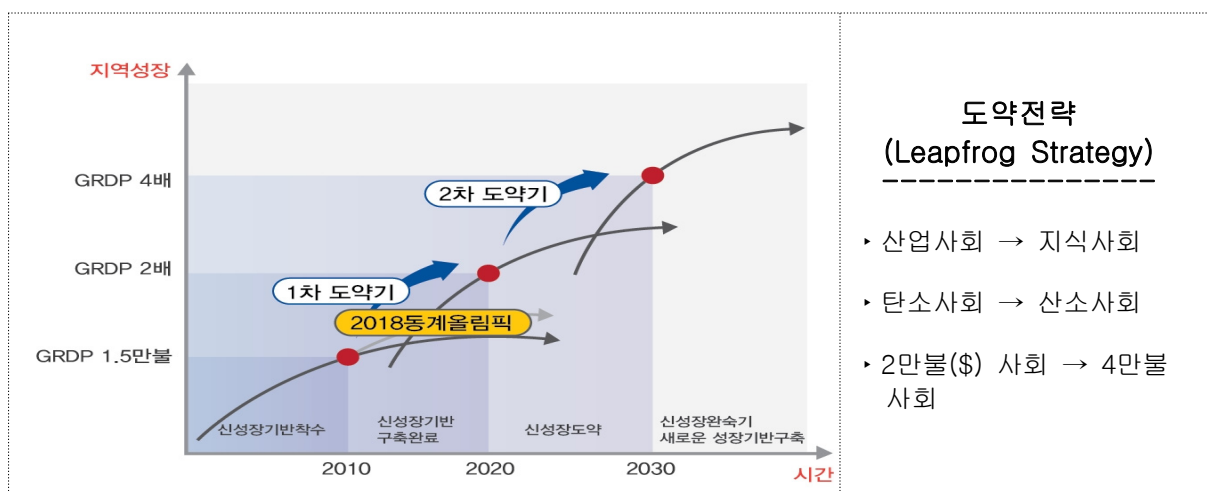
- <1> 정체성(identity) 확보 : 접근교통망 확충 및 물 자원 등 자연자원의 가치화를 통한 도 통합성 및 정체성 확보노력
- <2>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 : 삼각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 <3> 환경자원을 토대로 한 녹색성장 추구
- <4> 낙후지역 재생 : 폐광지역 재생, 접경지역 개발, 농촌지역 활성화 등
- <5> 국제표준준로의 비상(세계화) :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 국토 계획에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 거점 육성, 전국의 고속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 관광지나 국가안보의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인식이 달라지지 않아 강원도의 국토 내 위상은 크게 변화되지 못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 전략¹¹⁾ 추진

- 인프라 혁신의 기회 : 도로 → 철도 및 항공 등 고속교통망
- 의식혁신의 기회 : 소극적, 과거 의식적 → 진취적, 미래 지향적
- 브랜드 이미지 혁신의 기회 : 로컬 → 글로벌
- 산업혁신의 기회 : 1차 산업 중심 → 지식기반의 2차, 3차 산업

새로운 도약전략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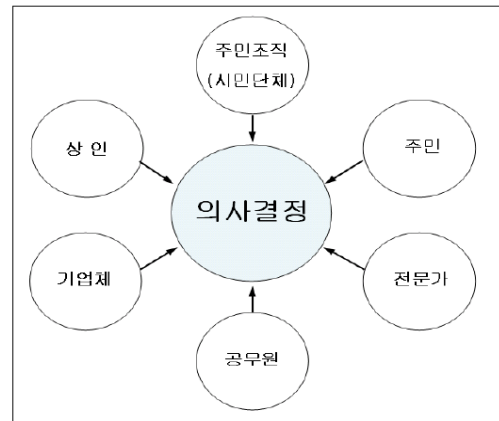
11) 개구리 뿔뿔기 전략(Leapfrog Strategy) : 목표로 가기 위하여 걸림돌을 우회하는 군사적 전술 또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앞선 단계로 건너뛰는 마케팅 및 산업발전전략 개념(예, 산업화를 건너뛴 중국의 지식기반화 전략)

3. 스마트 성장 전략¹²⁾ 실행

○ 강원도는 타 지역보다 낙후되었지만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므로 커뮤니티를 통한 스마트 성장 접근으로 보완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성장실현

* 전통적인 계획과 접근방법으로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에 효과 한계

- 지구 온난화의 위기, 자원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탄소 사회, 자연 순환형 사회,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스마트 성장 전략 실행
- 지역수준의 정책방향을 형성·제시하는 스마트 성장 네트워크 구성 필요



자료 : 국토연구원, 스마트성장 이해하기 2011. 6.10, (원저 : 스마트 성장 네트워크)

스마트 성장 원칙

1. 복합적 토지이용
2. 고밀 건축설계방식의 이점 활용
3. 다양한 주거기회와 선택권 제공
4. 걷기 편리한 근린지역 조성
5. 확실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6. 오픈페이스, 농지, 아름다운 자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존
7. 기존 커뮤니티를 위한 개발강화와 유도
8.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9.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효율적인 방향으로 개발 결정
10. 개발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와 다양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촉진

12) 참고 : 스마트 성장개론 국토연구원 2006, 경제성장이 더 많은 선택과 개인의 자유, 공공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 커뮤니티 전반에서의 기회확대, 자연환경의 건전성 증가, 그리고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줄 유산과 함께 훌륭한 커뮤니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 성장은 스마트 하다고 봄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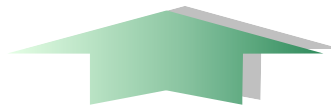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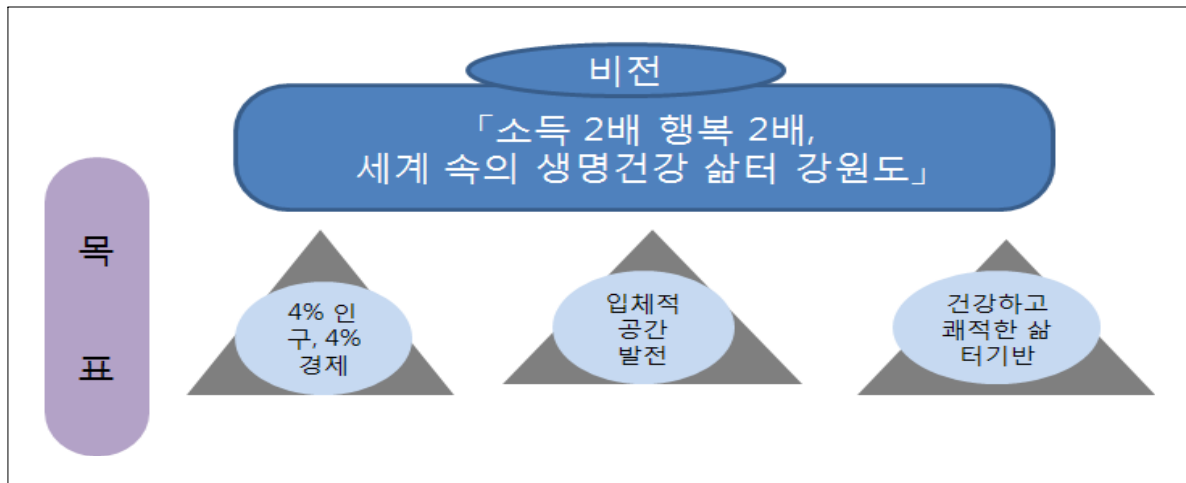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장 계획 지표의 설정

제3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4장 추진전략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계획의 기조

- ☐ 내부적 정체(正體)성을 토대로 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추구
 - 내발적 동력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개인 및 지역 역량 실현
 - 품격 높은 삶터, 삶의 질 향상
- ☐ 미래사회 대응형 공간기반구축
 - 고속화, 스마트화, 자연생태의 효율성 높은 미래사회 공간형성
 - 지역간, 산업부문간 연계·협력, 융합의 시너지로 동북아 소통 촉발
- ☐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 강원도 산업구조 혁신체계 완성
 - 녹색성장기반의 형성
-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도시 강원도의 실현
 - 강원도의 혁신과 선진화 달성의 전기 마련

제1절 비전 : 『소득 2배 행복 2배』, 세계 속의 생명·건강 삶터 강원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명시된 강원도의 공간적 위상에 대한 비전은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 남북한 관계, 동북아 주변의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국토수호의 최전방에 위치해 온 강원도의 역사적 소명과 상통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에 따라 강원도민 소망을 담아 비전 수정
 - 동계올림픽은 강원발전의 목표가 아닌 수단
 - 올림픽 유치를 도민이 염원했던 배경은 낙후된 강원경제를 혁신시켜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희망
 - 올림픽 유치로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야겠다는 도정의 책무를 반영
 - * ‘행복’은 물질적 욕구(소득 등)의 충족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감정까지 고려한 인본주의적 정책비전



"소득 2배 행복 2배" 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

- ‘소득 2배 행복 2배’는 계획의 결과 도민이 누리게 될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비전이라고 할 때 강원도 권역의 공간적 비전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
- 본 계획의 지향점은 행복한 도민의 삶을 담은 그릇을 형성하는 계획으로 삶의 의미가 나타나는 지향점으로서 비전이 중요
 - 과거, 현재, 미래를 통관하여 강원도가 가지는 강점은 청정자연환경
 - 강원도가 지난 산업화, 공장화 사회를 뛰어넘어 지식기반사회에 앞장 설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자연생태의 강점을 더욱 키워나가는 일
 -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강점도 바로 강원도의 자연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풍부한 생명과 건강성을 성장기반으로 시장화 하는 공간적 삶터 지향



"생명·건강 삶터" 를 공간적 병행비전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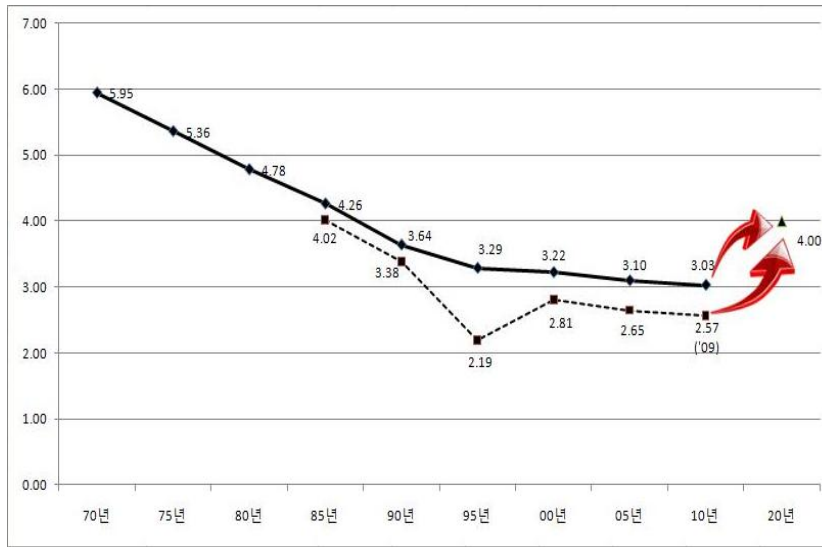
13)

13) 「생명·건강 삶터 강원도」는 청정환경이라는 국민적 이미지와 도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강원도의 기능적·내용적 공간위상을 포괄적으로 표현, 여기에는 강원도가 추구해 오던 생명건강산업의 개념(‘생명’을 키우고 지키는 활동을 기반으로 사람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산업을 총체적으로 의미)을 내포,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속의 강원도 표방

제2절 계획목표

○ 국가 내 비중 ‘4% 인구, 4% 경제’ 달성

- 총체적 성장전략을 통하여 ‘3% 인구, 2.6% 경제비중’을 탈피



— 전국인구에서 비중

... 전국 GRDP에서
비중

○ 강원도 공간의 입체적 발전

- 지역간, 산업부문간 연계협력, 융합의 시너지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되는 고속교통통신망의 구축이 선결될 필요
- 강원도 전역의 소통과 교류의 촉진 및 연계 경쟁력 제고
- 남한의 변경, 막다른 골목을 탈피하여 환동해권 및 동북아와 소통하는 관문기능 강화
- 도시와 농촌이 기능적으로 연계, 상생하는 도농복합생활권 구축

○ 건강하고 쾌적한 삶터기반 구축

- 개인과 개별지역의 역량은 전체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원초적 기반
- 우수한 인재가 집적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생활환경 기반조성
- 고령화 사회의 저활력을 탈피하여 현장에서 행복한 100세 건강사회 실현
- 녹색경제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녹색거주환경 및 주민의식 성숙화 추진

제3절 계획의 기초

○ 내재적 가치를 토대로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지향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글로벌경제의 진전은 시공간의 동조화 현상 초래
- 동조화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가치관, 제도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수렴을 요구
- 내재적 가치와 내발적 동력을 토대로 개인과 지역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시키고, 품격 높은 삶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세계 속의 강원도 실현

○ 미래사회 대응형 공간기반구축

- 강원도의 세계화·선진화는 고속화, 스마트화, 높은 자연생태 수준 등 하드웨어의 기반이 중요
- 하드웨어를 토대로 지역간, 산업부문간 연계·협력, 융합의 시너지 촉발
-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미래 도약을 위한 길은 녹색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선도
- 녹색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삶터 만들기 추진으로 '녹색성장사회 강원도' 구현

○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 강원도의 녹색경제체제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적 성장동력산업 육성
- 강원도 전역을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마다의 경제적 활력과 자립능력 제고를 촉발하고 전체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할 연계산업의 육성
- 강원도 관광혁신을 통한 성장동력기반 구축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하락추세를 반전시켜 '4% 인구, 4% 경제'를 달성할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기대
- 개최도시만의 올림픽이 아닌 강원도 18개 시군의 올림픽으로 승화
-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전체 공간기반과 주민들의 의식 및 시스템까지도 한 단계 발전하는 혁신동력으로 활용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

제1절 인가지표

1. 인구추세

□ 인구 감소추세의 둔화

- 산업화시대에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국토 내 인구 분포 불균형 추세가 지속
 - 수도권 인구는 2010년 전국인구의 49%를 나타내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52.3% 전망¹⁴⁾
 - 아래 표에 보듯이 호남권과 더불어 강원권의 인구가 가장 큰 폭 감소

권역별 센서스 인구변화추세

(단위 : 명)

지역 연도	전국	강원도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충청권(대전· 충북·충남)	호남권(광주· 전북·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경남)	제주도
70년	30,882,386	1,837,015	8,730,148	4,262,244	6,318,921	4,476,067	4,899,906	358,085
80년	37,436,315	1,790,954	13,298,241	4,380,297	6,067,425	4,954,559	6,481,898	462,941
90년	43,410,899	1,580,430	18,586,128	4,453,190	5,716,402	5,089,635	7,470,509	514,605
00년	46,136,101	1,487,011	21,354,490	4,680,095	5,239,922	5,205,509	7,655,814	513,260
10년	48,580,293	1,471,513	23,836,272	5,042,018	4,994,464	5,046,450	7,657,671	531,905
지수1	1.573	0.801	2.730	1.183	0.790	1.127	1.563	1.485
20년	49,325,689	1,339,807	25,786,378	5,027,102	4,490,780	4,707,345	7,430,061	544,288
지수2	1.015	0.910	1.082	0.997	0.899	0.933	0.970	1.023

주) 지수1 = (2010년 인구)/(1970년 인구), 지수2 = (2020년 추계인구)/(2010년 인구)

자료 : 통계청 KOSIS

14) 2003년 주민등록상 인구 1천만명을 돌파한 경기도는 2010년에 상주인구 1138만명 실현

- 강원도의 상주인구는 1980년대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1990년을 전후하여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 감소세는 크게 둔화되는 추세
 - 아래 표에 보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총 30만명에 달하는 급격한 인구감소세 이후 2000년대의 인구감소율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
 - 지난 10년 동안 15천명, 1%의 인구감소율
 - 표에서 2010~2020년 기간 중 인구감소전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2005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2007년 추계라는 점에 기인
 - * 2020년 강원도 인구는 통계청 추계대로라면 전국인구의 2.7%(2010년 3%)로 하락
 - 당초 추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10년 인구를 1,443천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10년 센서스 인구는 147만명으로 3만명이나 높게 나타났음.
 - 이는 꾸준한 강원도의 지역개발 등 노력으로 인구유입 환경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2012년에 발표될 통계청의 2020년 인구추계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강원도 상주인구의 감소세 둔화추세

연대별	인구지수 ¹⁾	인구 감소수(명)	인구감소율(%)
1970-1980	0.975	-46,061	-2.5
1980-1990	0.882	-210,524	-11.8
1990-2000	0.941	-93,419	-5.9
2000-2010	0.990	-15,498	-1.0
2010-2020 ²⁾	0.910	-131,706	-9.0

주) ¹⁾ 후기연도 인구/전기연도 인구 ²⁾ 통계청 2007년 추계인구 기준

- 강원도 인구의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주민등록인구 추세
 -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70년대 이후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IMF 경제 위기를 전후하여 일시 증가
 - 2000년 155만명 수준에서 다시 계속 감소추세에서 2007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차이나는 것은 해외거주, 부동산 취득 등 목적에 의한 위장전입 등이 원인
 - 주민등록인구 증가는 강원도에 정주거점을 두는 것이 개인의 활동이나 생활에 유리하다는 것으로, 강원도의 정주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반증

강원도 주민등록인구 증가세 동향

(단위 : 명)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54,688	1,513,110 (감 41,578)	1,505,420 (감 7,690)	1,515,800 (증 10,380)	1,521,467 (증 5,667)	1,525,542 (증 4,075)	1,543,555 (증 18,013)

□ 인구구조의 변화추세 :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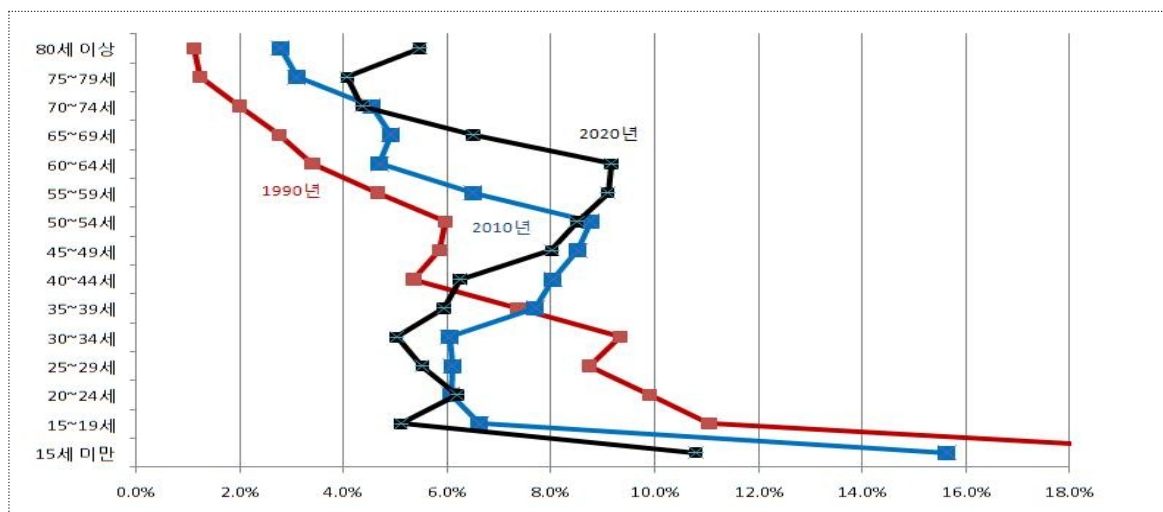
○ 노령 인구의 증가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될 전망

- 2010년 100만명 수준인 15세 이상인구가 2020년에 92만명 수준으로 감소
- 경제활동과 산업구조, 학교운영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파급영향 예상

인구구조의 변화전망

연도	지역	15세 미만	경제활동대상인구							65세 이상
			15-19	20-29	30-39	40-49	50-59	60-64	소계	
2010	전국(%)	16.2	7.2	13.7	16.2	17.1	13.7	4.5	72.5	11.3
	강원 %	15.7	7.0	12.2	13.8	16.3	14.8	4.8	68.9	15.5
	천명	229	102	178	201	238	217	69	1,007	226
2020	전국(%)	12.4	4.9	13.1	13.7	16.1	16.6	12.8	72.0	15.6
	강원 %	10.8	5.1	11.7	11.0	14.3	17.6	15.7	68.8	20.4
	천명	144	68	156	146	191	235	209	921	273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



2.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상 인구지표 검토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의 인구지표 설정방법은 자연적 증가인구에 사회적 증가인구를 합쳐 정주민구로 계산하고 상시 체류하게 될 유동인구를 별도로 계산하여 계획인구에 포함하는 방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면서 강원도의 지역개발 효과 및 강원도에 많은 관광 유발 유동인구까지 감안할 수 있는 현실적 추계방식
- 수정계획의 계획인구 지표실태
 - 목표연도인 2020년 200만명, 2015년 180만, 2010년 160만명으로 설정
 - 2010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상주민구는 1,471,513명으로 계획상 정주민구지표 1562천명보다 9만명 정도 미달
 - 계획과 실제 2010년 인구지표의 괴리는 1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사회적 인구증가가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
 - 2010년 계획인구지표는 상주민구보다 주민등록인구에 근접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계획인구

(단위: 천명)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	1,600	1,800	2,000
추계인구		1,543	1,615	1,815	1,994
정주민구	소 계	1,500	1,562	1,750	1,916
	자연적 증가인구	1,481	1,441	1,398	1,351
	사회적 증가인구 (도시개발/산업개발/군인 등)	19	121	352	565
유동인구	소 계	43	53	65	78
	당일유동인구	33	18	23	28
	숙박유동인구	10	34	42	50

3. 본 강원도종합계획(2012~2020)의 계획인구 산출

- 본 계획에서 인구지표 설정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인구지표¹⁵⁾ 설정방법을 따르되, 최근 강원도의 인구증가동향 및 동계올림픽 등 인구증가요인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¹⁶⁾

- 계획인구의 구분을 수정계획과 동일하게 정주민구와 유동인구로 구분
- 통계청 추계인구는 일반적 개념에서 자연증가와 사회증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인구를 추세인구로, 사회적 증가인구를 전략적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유발인구』로 변경
- 통계청 추계인구는 2005년 센서스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강원도의 최근 인구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현재 강원도 인구의 전국인구 비중인 3%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추정
- 유발인구는 동계올림픽 등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효과를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로 추정
- 유동인구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새로운 추정치를 기반으로 관광유동인구를 산정하고, 강원도 특성상 군인 등 숨겨진 인구를 포함하여 조정
- 주민등록인구를 참고지표로 함께 제시

○ 『추세인구』의 조정

- － 통계청 2005년 센서스를 기초로 2007년 5월 발표한 추계자료에 최근 강원도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

강원도 추세인구 조정

(단위 : 천명)

구 분		2010	2015	2020
전국인구 추정		48,875 (실제 48,580)	49,277	49,326
강원도	당초추계	1,443(2.95%)	1,394(2.8%)	1,340(2.7%)
	본계획 추정	실제 1,472(3%)	1,478(3%)	1,480(3%)

참고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07.5월)

15) 2007년 수립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계획인구 산출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결과와 도내 광역권 도시개발, 산업활성화, 문화관광개발 계획 강원도 주둔 군부대의 미전입 인구,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등 사회적 증가분을 합산하여 정주민구를 추계하고, 도내 관광객과 상주하는 군인인구 까지 유동인구로 합산하여 계획 인구 산출

16) 실제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및 스포츠시설 건립의 경우 공사가 피크에 이르렀던 2008년에는 하루 2천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준공 이후 현재는 712명의 지속고용 발생(강원발전연구원 OGI연구팀, 『올림픽게임 영향연구』, 2011. 2, p.20)

- 동계올림픽, 각종 도시개발, 도내 주둔 군 및 전입 대학생 등으로 유발인구 설정
 - 한국은행 발표 고용유발계수 적용 : 최종수요 10억원 증가시 2007년 전산업 9.4명, 제조업 9.2명, 건설업 15명, 서비스업 12명
 -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고려 12인의 계수가정

강원도 유발인구 추정 내역

(단위 : 천명)

구 분	2010	2015	2020	산정방식
계	25	168	373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	45	90	총 10조원 직접연계투자 가정, 유발인구 12만명, 이들의 50%, 6만명 및 가구원수 1.5명을 가정하여 유입인구 산정. 2015년까지 50%의 인구가 유입하는 것으로 가정
각종 도시개발 및 산업 활성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산단 기업유치 등)	15	101	248	기간중 GRDP 증가액을 최종수요 증가로 가정(2010-2015 15조, 2015-2020 20조), 위와 동일한 가정에 따라 계산된 유발인구에서 동계올림픽 유발인구 차감 (GRDP 상승에 동계올림픽 직접투자분을 감안하여 이중계산 배제하는 조치)
도 주둔 영외거주 군인 도내 대학 외지입학생	10	20	30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전략 가정
기타	-	2	5	

주) 기타 : 정주여건 개선으로 귀농, 은퇴자 전원생활 등 전입인구

○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 추계를 이용하여 유동인구의 조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계한 관광수요 예측치에 의하면 강원도의 2020년 일년간 관광총량은 84,234천명(숙박 72,223천명, 당일 12,010천명)¹⁷⁾
- 동일인에 의한 여가통행량과 전체 여가통행량에서 강원도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조정
 - * 국가교통 DB의 여가목적통행량을 기초로 추정된 결과 : 동일인에 의한 여가통행량 2.44, 전체 여가통행량에서 강원도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 23%¹⁸⁾

17) 관광총량 지표는 개별관광지에 모이는 관광객을 각각 집계하여 합산하는 자료를 기초로 함으로써,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방문할 경우 중복 집계되는 수치로 관광활동지표가 아닌 인구지표로 잡기 위해 통행량에 따른 조정과정 진행

18) 김재진·이영주, 『강원도 여가통행수요 추정모형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10

강원도 유동인구 설정 내역

(단위 : 천명)

구 분	산 정	2010	2015	2020
관광유동인구 추정	관광총량 추계치(A)	51,430	67,199	84,234
	여가통행량으로 보정 ($B=A/2.44$)	21,078	27,540	34,522
	강원도 관광객 제외 ($C=B \times 75\%$)	15,808	20,655	25,891
관광유동인구	매일 체류인구로 전환($D=C/365$)	43	56	70
기타유동인구	군인 등 숨겨진 인구	200	200	200
유동인구 계		243	256	270

○ 본 계획에서의 계획인구

- 인구지표는 2007년 수립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동일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표를 제시
- 현 추세에 따른 실질적인 인구전망은 2020년 148만명이나 계획의 실현 여부에 따라 37만명의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계획의 성취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수치)
- 강원도가 경제발전을 통하여 선진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인구지표가 200만명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의 계획인구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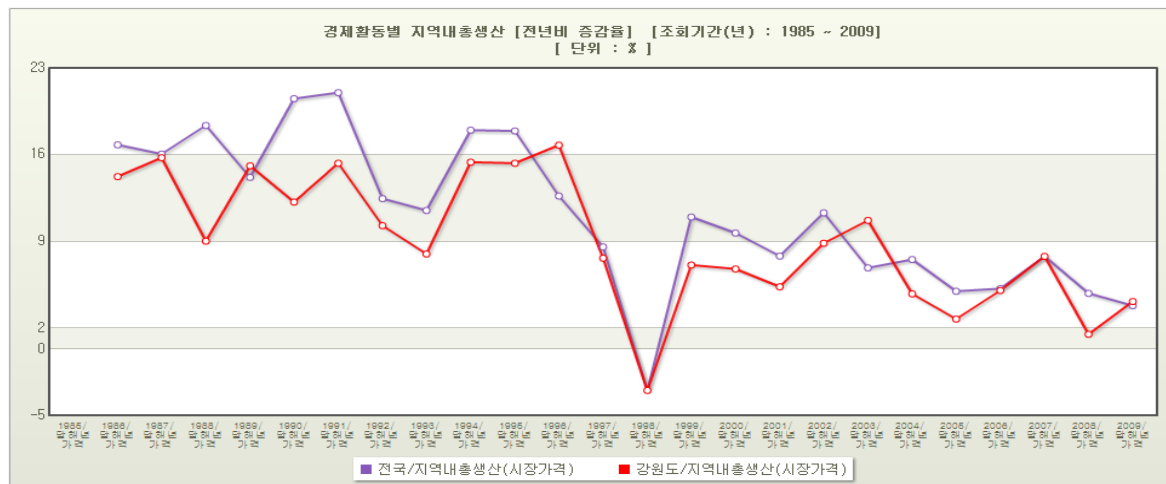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숨겨진 인구 포함)		1,515 (1,715)	1,700 (1,900)	2,000 (2,200)
추계인구		1,515	1,702	1,923
정주인구	소 계	1,472	1,646	1,853
	추세인구	실 정주인구 1,472	1,478	1,480
	유발인구		168	373
관광목적 등 유동인구 (군인 등 숨겨진 유동인구)		43 (200)	56 (200)	70 (200)
참고: 주민등록인구 지표		1,544	1,647	1,945

주) 주민등록인구 지표는 현재 정주인구의 5% 정도 많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여, 추정정주인구에 5%를 곱하여 산출. 관광유동인구로 인하여 숨겨진 인구를 제외한 계획인구지표와 유사하게 도출

제2절 경제 · 산업지표

- 강원도의 지역총생산은 2010년 기준 29.1조원, 전국의 2.5% 수준으로 점유비율 하향추세
 - 1985년 4%, 2000년 2.8%에서 지속적 하향추세
 -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전국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2000년대 이후 그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

전국과 비교한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액 증감률(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국과 비교한 강원도 산업생산구조의 특징은 제조업 취약(전국의 41% 수준), 광업(15.5배)과 농림수산업(2.1배) 및 건설업 비중(1.5배)이 높다는 것

전국과 비교한 강원도의 산업생산구조 특징(강원도/전국)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농림어업	1.73	2.08	1.97	2.00	2.00	2.11
제조업	0.49	0.47	0.45	0.38	0.39	0.41
광업	15.66	11.67	14.5	15.00	16.50	15.50
전기·가스·수도	1.12	0.85	0.88	1.04	1.23	1.39
건설업	1.49	1.54	1.62	1.67	1.48	1.50
서비스업	1.05	1.05	1.08	1.10	1.12	1.10

주) 강원도의 부문별 비중(%)을 전국의 부문별 비중으로 나눈 수치

○ 강원도 산업생산구조는 종전 기간산업이던 광업의 사양화 이후 더욱 취약화

- 위의 표와 같이 전국과 비교할 때 총생산구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작아지는 추세
- 2000년 제조업 및 광업의 비중이 18.5%였으나 현재(2009년)는 14% 수준
-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육성에 노력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농림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세
- 상대적으로 공공부문(국방,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과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부문이 중요한 비중을 구성

산업활동 지수 요약

(단위 : 조원,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지역총생산	강원(A)	17.0	19.4	22.5	24.1	26.3	27.6	4.8
	전국(B)	603.7	723.5	829.5	912.9	1028.5	1066.1	5.9
	A/B(%)	2.81	2.68	2.71	2.64	2.56	2.59	-0.02
1인당 생산액 (만원)	강원도 (전국비중 %)	1119 (87.2)	1285 (84.6)	1501 (86.9)	1631 (86.3)	1801 (85.1)	1883 (86.1)	4.60
	전 국	1284	1519	1727	1890	2116	2186	3.32
전년대비 GRDP 성장률	강원도	6.6	8.8	4.6	4.9	1.2	3.9	5.6
	전국	9.6	11.3	7.4	5.0	4.6	3.6	6.8
산업생산 구조	농림어업	8.3	8.1	7.1	6.2	5.2	5.7	-0.28
	제조·광업	18.5	15.5	15.4	13.3	14.1	14.5	-0.44
	전기가스 수도건설	13.1	13.2	14.7	14.9	12.1	13.0	-
	서비스업	60.1	63.2	62.9	65.6	68.6	66.8	0.74

자료 : 통계청, 「2009년 지역소득통계」, 2011년 발행 및 KOSIS

○ 강원도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119만명 중 69만명(약 58%)

-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세하게 하락하는 추세
- 여성참가율은 더욱 저조한 실정

경제활동지수 요약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연평균 증가율
강원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인구	1,169	1,166	1,158	1,169	1,168	1,189	0.18%
	경제활동 인구	687	696	684	689	686	685	-0.03%
경제활동 참가율	강원도	58.8	59.7	59.1	59.0	58.7	57.6	
	전국	61.2	62.0	62.1	61.9	61.5	61.0	
여성 참가율	강원도	48.2	49.3	48.7	48.7	48.5	47.9	
	전국	48.8	49.8	49.9	50.3	50.0	49.4	

○ 경제활동 인구구성은 연차별로 계속 고령화 양상

- 전국의 40대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47.2%, 2005년 53%, 2010년 58.5%. 강원도는 각각 53.5%, 59.9%, 64.5%로 크게 상승
- 전국 30대 미만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추세, 40대 이상 장노년층의 참가율은 상승추세, 반면 강원도 장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추세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구성 및 참가율

(단위 : %)

연령구조	2000				2005				2010			
	전국	참가율	강원	참가율	전국	참가율	강원	참가율	전국	참가율	강원	참가율
전체	100.0	61.2	100.0	58.8	100.0	62.0	100.0	58.5	100.0	61.0	100.0	57.6
15 - 19	2.1	12.0	1.2	6.6	1.2	9.1	1.2	8.7	0.9	6.9	0.7	4.8
20 - 29	21.9	64.9	18.9	62.8	19.2	66.3	14.6	60.1	16.2	63.2	13.1	61.0
30 - 39	28.8	75.2	26.5	74.9	26.7	74.8	24.3	73.4	24.4	74.6	21.8	75.4
40 - 49	24.7	79.2	24.9	77.0	27.2	79.1	28.3	77.8	27.2	79.8	27.1	77.2
50 - 59	13.5	68.7	14.9	68.5	15.6	69.9	17.1	68.0	19.9	72.7	21.8	67.8
60세이상	9.0	38.2	13.7	41.4	10.2	37.4	14.5	37.6	11.4	37.0	15.6	37.0

○ 통계청의 2007년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강원도 인구구조를 연차별로 예측하면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는 2010년 996천명에서 2015년 979천명, 2020년 922천명으로 감소

- 25세에서 54세 사이의 핵심 생산연령층은 652천명에서 526천명으로 감소

연령별 계층별 인구추계

(단위 : 천명, %)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443 (100%)	1,434 (100%)	1,424 (100%)	1,414 (100%)	1,404 (100%)	1,394 (100%)	1,384 (100%)	1,373 (100%)	1,362 (100%)	1,351 (100%)	1,340 (100%)
0-14세	226 (15.7%)	215 (14.9%)	205 (14.4%)	195 (13.8%)	186 (13.2%)	176 (12.6%)	167 (12.1%)	160 (11.6%)	155 (11.4%)	149 (11.1%)	145 (10.7%)
15-24세	183 (12.7%)	181 (12.6%)	180 (12.7%)	180 (12.7%)	179 (12.7%)	178 (12.7%)	175 (12.7%)	171 (12.4%)	165 (12.1%)	158 (11.8%)	151 (11.3%)
25-54세	652 (45.1%)	641 (44.8%)	628 (44.0%)	614 (43.3%)	599 (42.6%)	584 (41.9%)	570 (41.1%)	557 (40.6%)	546 (40.1%)	535 (39.5%)	526 (39.1%)
55-64세	161 (11.2%)	171 (11.9%)	181 (12.8%)	192 (13.6%)	204 (14.5%)	217 (15.6%)	229 (16.6%)	236 (17.2%)	241 (17.7%)	244 (18.1%)	245 (18.3%)
65세이상	221 (15.3%)	226 (15.8%)	230 (16.1%)	234 (16.6%)	237 (16.9%)	239 (17.1%)	242 (17.4%)	249 (18.1%)	257 (18.8%)	264 (19.5%)	273 (20.5%)

- 강원도의 취업구조는 농림어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소매, 숙박음식, 공공행정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 매우 취약

취업구조 추이(2010년/2008년)

(단위 : %)

전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¹	하수 등 ²	건설업	도소매
2010년 694천명 ↑ 2008년 707천명	17.9/20.9	1.0/1.1	6.3/6.6	1.0/0.8	0.4/0.3	7.8/7.9	12.4/12.4
	운수	숙박음식점	출판영상 ³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⁴	사업시설 ⁵
	3.9/3.8	11.0/11.3	1.2/1.3	3.2/2.7	1.6/1.6	1.7/1.4	2.9/2.4
	공공행정 ⁶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⁷	예술스포츠 ⁸	협회단체 ⁹	자가소비 ¹⁰	국제외국 ¹¹
	7.1/5.7	7.6/8.1	5.9/4.4	2.0/1.8	4.9/4.8	0.4/0.4	0.0/0.0

- 주) 1. 전기가스증기수도, 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9.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 10. 가구내고용활동·자가소비, 11.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KOSIS

○ 강원도의 취약한 취업구조는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귀결

-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으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고용구조의 안정성은 항상 추세

강원도 취업의 안정성 관련지표

(단위 : %)

구분	지역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자영업자 비중	강원	32.8	33.3	31.8	31.6	32.2	27.2
	전국	27.6	28.1	27.0	26.5	25.4	23.6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강원	14.3	12.3	9.6	10.2	8.4	6.5
	전국	9.5	8.4	7.1	6.5	6.4	5.5
임금근로자 비중	강원	52.8	54.6	58.6	58.2	59.4	66.5
	전국	62.8	63.6	65.9	67.0	68.5	70.9
상용근로자 비중	강원	29.1	27.3	29.6	31.3	33.9	35.5
	전국	29.8	30.6	33.4	34.8	37.6	41.6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0. 2/4분기 기준)

○ 강원도의 전반적인 산업경제활동은 매우 취약한 상황

-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과 연계하여 볼 때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향후 강원도의 산업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
- 강원도 산업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도전적인 계획지표의 설정이 필수적

○ 본 계획의 산업경제부문 도전지표

강원도 산업경제부문 도전 계획지표

지표추정		2010	2015	2020
GRDP	총GRDP	29.1조원	46조원	68조원
	전국비중	2.5%	3%	4% 이상
	인당GRDP	2,020만원(17천불)	2,820만원(25천불)	3,300만원(3만불)
	성장률	2018년까지 연평균 9%, 이후 7% 수준		
경제활동	사업체수	118천개('09)	13만개	15만개
	일자리 창출	총 경제활동인구 69만명 (주 18시간 미만 근로 4만명, 실업자 17천명)	2011-2015 신규누적 '반듯한 일자리 10만개'	2011-2020 신규누적 '반듯한 일자리 20만개'
	경제활동 참가율	58% (60대 이상 37%, 여성 48%)	60% (60대 이상 40%, 여성 52%)	68% (60대 이상 50%, 여성 58%)

제3절 건강·환경·복지지표

- 2009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기대수명)은 80.5세(남 77.0세, 여 83.8세)
 - 여자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6.8년이 더 김
 - 2008년 강원도는 79.01세(남 75.19, 여 82.68)

한국인의 기대수명 현황

연 도	1999	2008	2009	증감	
				'09-'99	'09-'08
전 체	75.6	80.1	80.5	4.9	0.4
남자(A)	71.7	76.5	77.0	5.3	0.5
여자(B)	79.2	83.3	83.8	4.6	0.5
남녀차이(B-A)	7.5	6.8	6.8	-0.7	0.0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0.12.10.), 「2009년도 생명표」

-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2020년 건강수명 목표는 75세(남자 71, 여자 74)
 - 2005년도 강원도민의 평균수명은 77.6세지만 건강수명은 68.6세로 9세 차이, 건강한 삶이 고령화 사회의 최우선과제로 대두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수명 목표

구분	건강수명					평균수명			
	2002년	2005년	2007년	HP2010 (목표)	HP2020 (목표)	2001년	2005년	2007년	2008년
전체	66.0	67.8	71	72.0	75.0	76.5	78.6	79.6	80.1
남자	63.2	64.8	68	69.7	73.2	72.8	75.1	76.1	76.5
여자	68.8	70.8	74	74.2	76.6	80.8	81.9	82.7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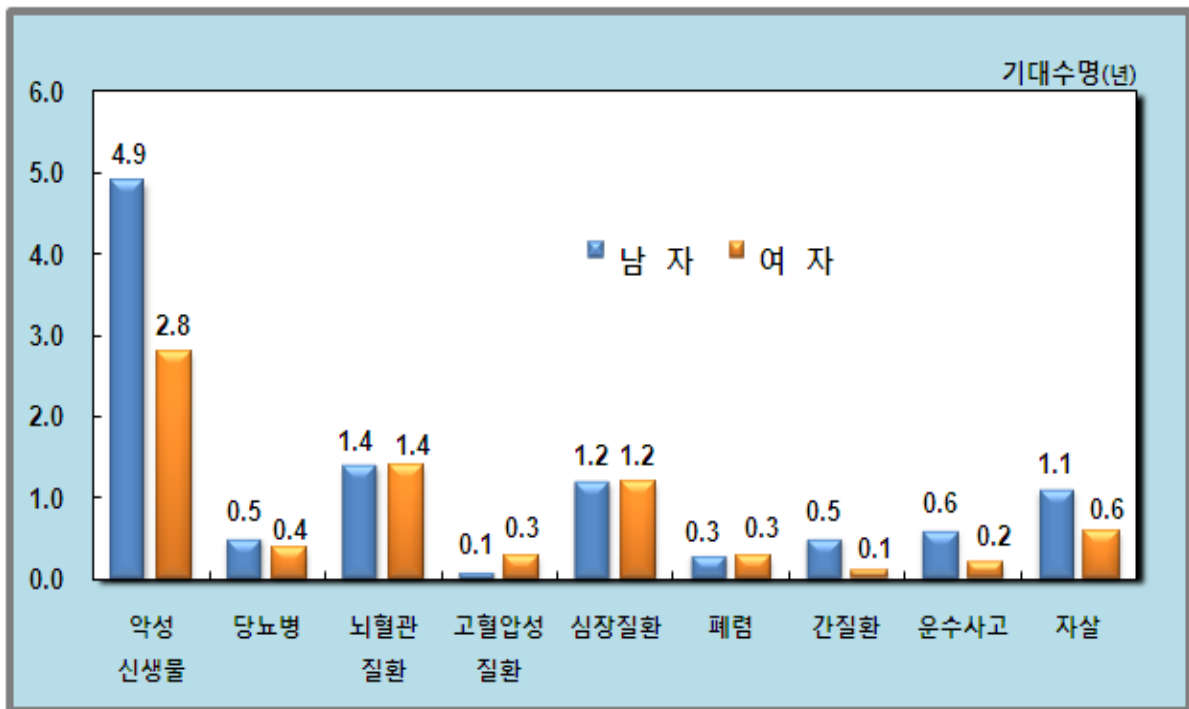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20)

- 2007년 강원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강문제 48.6%, 경제적 어려움 36.4%, 소일거리 없음 4.3% 순¹⁹⁾
 - 남자는 건강문제(41.8%), 경제적 어려움(40.8%)순이며, 여자는 건강문제(53.1%), 경제적 어려움(33.6%)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문제에 더 애로점이 있음

19) 동북지방통계청 『강원지역 2008년 고령자 통계』(2008.11)

- 특정 사인(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제거되는 경우 증가되는 기대수명은 남자 8.7년, 여자 6.6년 증가²⁰⁾

2009년 기준 특정사인 제거시 기대수명 증가기간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09년도 생명표」 (2010.12.10.)

- 장수사회, 복지사회가 되면서 모든 이의 관심은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건강수명을 늘려 나가는 것을 총괄적 건강지표를 설정

건강 지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현재 9세에서 7세 이내로 줄이기
-------	------------------------------------

- 장수·복지사회에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획지표들을 지향

20) 2009년 현재 65세인 사람의 경우, 3대 사인 모두 제거된다면, 남자는 7.4년, 여자는 5.6년 증가

건강·환경·복지지표 요약

구 분	지 표	2010	2015	2020
건강/안전생활	건강수명	73세	75세	77세
	아동 안전사고율	7.3명	7.0명	6.0명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14.83(2009년)	12	10
식사/영양	친환경 급식 확대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	2012: 유초등 13,000명	2014:유초중고 15,000명	계속 15,000명
보건의료	건강보험보장율	65%	72%	80%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35%	60%	70%
	유병률	24.4%	23%	20%
	필수예방 접종율(%)	90	95	100
교육복지	방과후활동 수혜율(%)	67%	70%	72%
	유아 무상보육(%)	-	만5세 미만(2014년)	유지
	직장보육시설 수혜율(%)	-	-	50
	도민 문화향유율(%)	65	70	75
	평생학습 참여율(%)	30	40	45
	교육재정 2배 확대	1,590억(2011년)	-	3,020억(2018년)
주거환경	최저주거기준 미만가구 비율	22%(2008년)	16%	12%
	실질 주택보급율(%)	105	110	112
	노후주택 비중(%)	23	18	13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7.71(2009년)	30.00	35.00
	도시내 녹색교통 분담율(%)	1% 이하	5%	10%
	자원 리사이클 비율(%)	58	61	63
	상수도 보급률(%)	87	90	92
	하수도 보급률(%)	77	87	88
자연환경	하천수질 1등급 유지율(%)	73	75	85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12	14	18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320	1000	1500

제3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발전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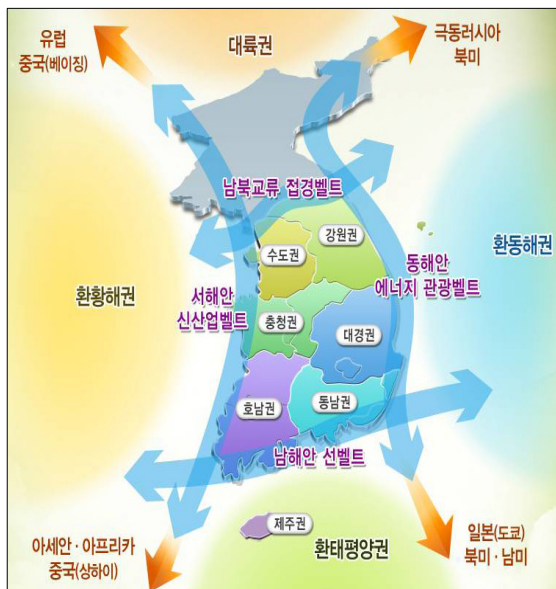
1. 발전축 설정 방향

□ 성장거점의 형성에 기여하는 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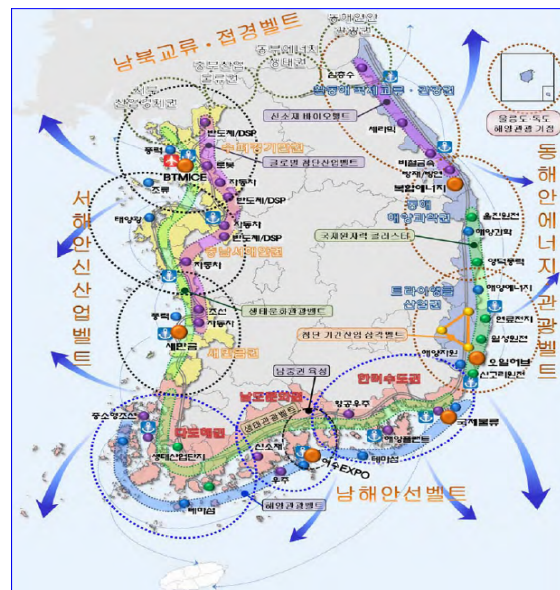
- 발전축은 공간적으로 산업, 문화·관광, 주거 등 도시기능과 교통, 정보통신망 등이 집적된 성장거점(도시)의 연계를 통하여 거점의 성장촉진 및 성장효과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담당
- 개방형 국토축을 지향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2011~2020)에서 강원도는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초광역개발권에 포함되고, 백두대간, 연안, 비무장 지대가 핵심국토 생태축으로 설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상의 공간계획

<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 개방형 초광역 개발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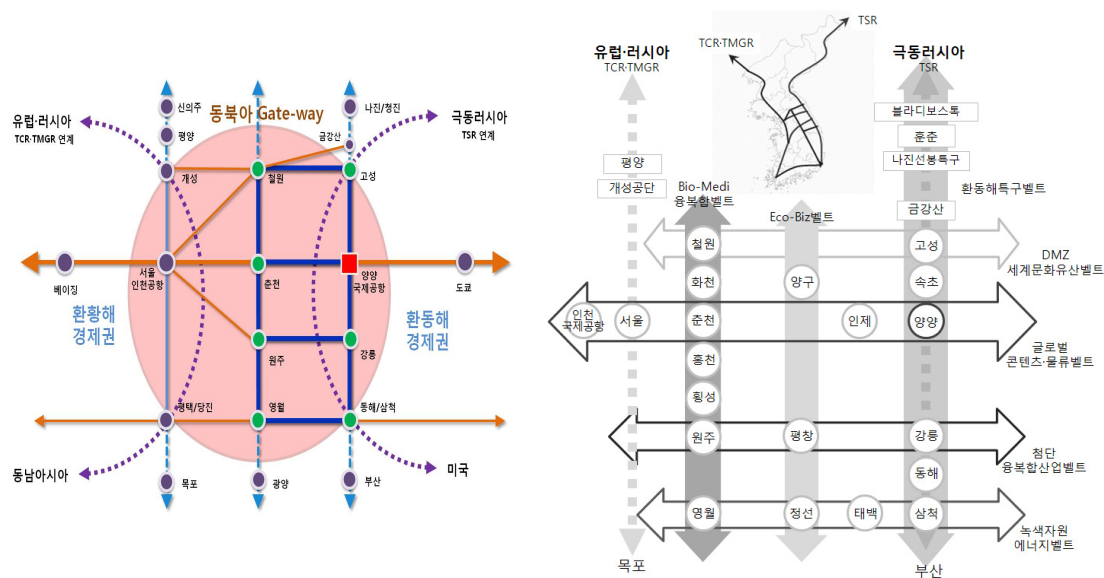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 관문 네트워크로 연계구상

- 동계올림픽특구, 경제자유구역, 국제기구 도시, 설악~금강관광특구, R&D특구 등 동계올림픽 개최와 신성장 글로벌 거점과 연계 구축
- 양양국제공항 중심 일자형 전철망 구축 및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국가 성장거점화 필요
- 동북아 경제교류 회랑의 중심지(GTI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창지투계획 등)로 역할기대
- 한반도 경제통합, 북방자원의 시대, 북극항로 개설, DMZ의 자유이용 확보
- 철도망 체계는 향후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광역철도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단계로 진전 예상

동북아 관문 네트워크 공간구상도



- 육지의 고속화와 더불어 위그선 등 해양교통의 고속화 및 항공의 개인화, 대중화 등 교통의 고속화는 향후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
 - 현재 강원도는 철도망 구축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해양교통, 항공교통 등 다중 고속기간교통망의 연계체계 구축이 현안으로 대두 예상

□ 3대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발전 도모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구 분	형태	주요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광역경제권	面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기초생활권	點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	161개 시·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線	초광역적 연계·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서·남·해안권, 접경지역권, 내륙권	권역별 기본구상, 발전종합계획

- 초광역개발권은 지역간 결합과 상생전략을 통해 지역간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임
- － 초광역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강원도의 발전축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부응하고도 발전축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전략추진

정부의 초광역개발구상의 개관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클러스터 및 기간산업거점 구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 전진기지 구축 환동해권 관광·레저거점 및 해양 Bio산업 클러스터 형성
남북교류 접경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교류협력지대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륙초광역경제권	<p><백두대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범위 : 백두대간 전역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 조성 초광역 생태네트워크로 보전·관리, 농산촌마을 정주환경 개선과 접근 인프라 확충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휴양레포츠 특성화 <p><내륙첨단산업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범위 :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녹색 첨단산업의 新성장·발전축 의료·바이오 등 분야의 R&D와 IT·BT·녹색 신성장산업 중심의 과학기술·신성장산업 거점과 내륙문화·관광지대 육성 <p><대구-광주연계협력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범위 : 대구-광주 영·호남 동반성장을 위한 동서화합 브리지

2000년 이후 관련계획별 발전축 또는 권역 구분 비교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2000년)	<p><지역특성화축 : 7+3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 평화지대, 동서내륙리조트산업벨트, 남부고원리조트지대,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 백두대간종합관리축, 강원동해안 광역권, 설악·금강국제관광 자유지대 ⇒ 동서 3축, 남북 4축 - 삼각테크노밸리(춘천, 원주, 강릉)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 육성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관광산업 - 10대 향토산업 육성 - 신활력사업 전개 : 마을만들기 사업 등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호수문화관광권, 북원문화·산업 관광권, 설악·금강국제 관광권, 대관령문화·리조트관광권, 남부해양관광권, DMZ평화·생태관광벨트, 고원리조트 관광권 - 7대 지역특성화축에 맞춰 7개 권역으로 구분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년)	<p><7대 성장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고속도로축(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 영동고속도로축(국토 중앙 산업·레포츠 관광벨트), 남부고원지대축(고원관광·휴양지대), 환동해축(환동해 물류 관광벨트), DMZ축(한민족 평화 생태지대), 동서고속도로축(청정산업·휴양벨트), 백두대간 축(생태·산림·휴양벨트) - 종래의 7대 지역특성화축에서 2개로 분리되었던 동해안축(광역권+설악-금강권)을 하나로 통합하고 동서고속도로축을 신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인접 신기업축(중앙고속도로축), 동해안 발전축, 백두대간 생태축,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 녹색성장 첨단소재 산업축(영동고속도로축), 고원관광휴양축(폐광지역) ⇒ 6대축

○ 강원도의 대부분 기존계획은 발전축(또는 성장축)을 7개로 설정

- 발전축은 지역발전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선(線)의 개념으로서 교통망 또는 공동발전 잠재력을 가진 자원벨트 성격이 핵심내용
- 광역경제권계획에서 ‘춘천~속초/양양’축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동 계획이 산업발전 중심계획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공간발전이 강조되는 본 「강원도종합계획」에서는 포함시켜야 할 축
- 특히 ‘춘천~속초/양양’축은 고속도로와 철도로 수도권과 국토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강원도의 기존 7대 발전축은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광역경제권 및 접경·폐광 지역 사업의 추진 등으로 축의 기능이 크게 보강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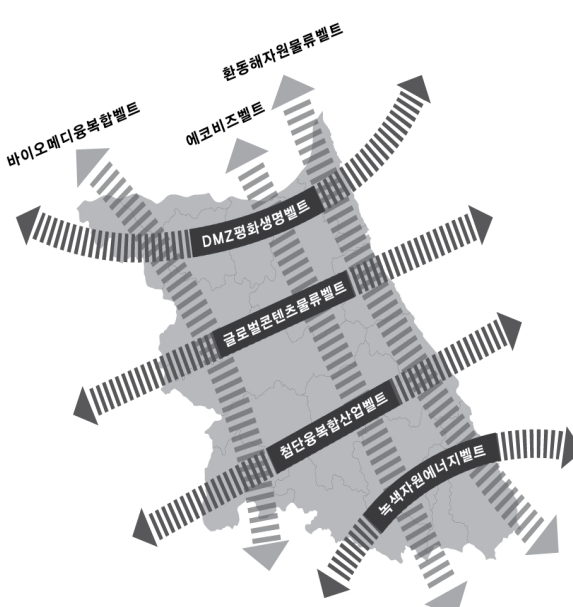
○ 따라서 본 강원도종합계획(2012~2020)에서도 기존의 7대 축을 유지하되,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과 연계하여 축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명칭 조정

- 명칭조정 : 종래 7대 성장축 → 강원공간발전 7대 벨트
- 강원도의 공간적 축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 생명자원축 :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
- ▶ 전략산업축 : 춘천-원주축, 원주-강릉축, 동해안축
- ▶ 농산촌활성화축 : 개선되는 교통망을 축매체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축

- 이러한 각 축의 특성을 감안하여 7대 축을 기능적 명칭의 벨트로 재구축

강원공간발전 7대 벨트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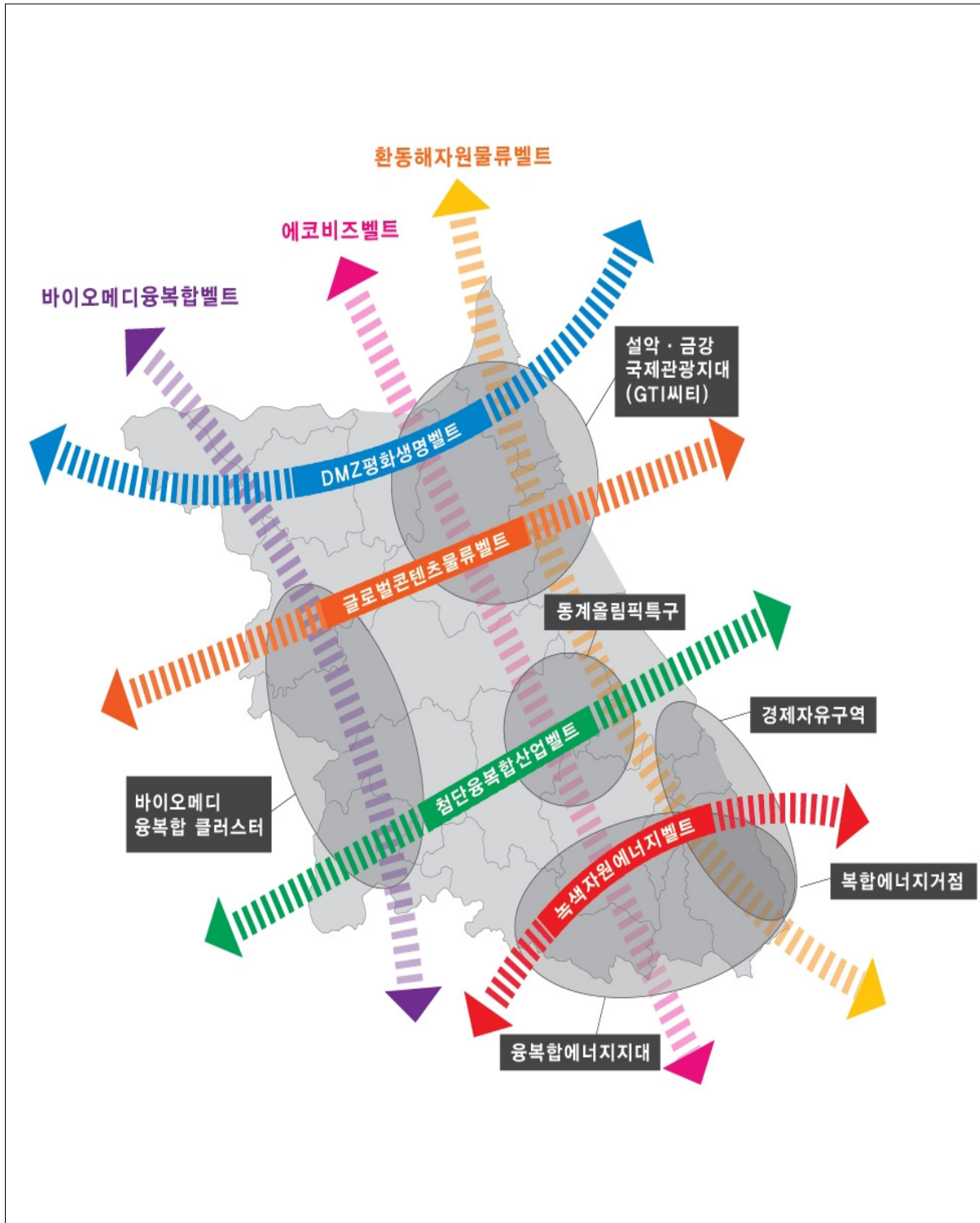
	구 분	기 능	사업방향
	DMZ 평화생명벨트	접경지대 평화생태 자원축	◦ 기존시설의 네트워크, 자원화 ◦ 한민족역사문화발리지 조성 ◦ 접근도, 친근도 개선
	글로벌 콘텐츠 물류벨트	춘천-속초/양양 청정산업벨트	◦ 동서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 수도권을 목표로 한 청정 복합농산어촌산업 육성
	첨단 융복합 산업벨트	원주-강릉 복합물류 레포츠 관광벨트	◦ 원주-강릉 철도와 역세권 개발 ◦ 올림픽특구 조성 ◦ 쾌적산업 시범지구(천상의 화원) 조성
	녹색자원 에너지 벨트	탄광지역 '신'산업·관광 지대	◦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 새로운 에너지의 메카로 육성 ◦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
	바이오 메디 융복합벨트	춘천-원주권 지식기반 산업지대	◦ 바이오메디칼 융복합 산업육성 ◦ R&D 활성화 ◦ 국가디지털콘텐츠테크노밸리
	환동해 자원 물류벨트	동해안 해양 산업· 관광벨트	◦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조성 ◦ 설악금강국제관광지대 조성 ◦ 양양공항 활성화 ◦ 호산항만 확충(국가관리항)
	백두대간 에코비즈벨트	한반도 생명자원축	◦ 접경지역과 연계하여 로하스-T 벨트 형성 ◦ 생명자원산업과 건강휴양산업

제2절 국가 광역경제권 전략과 연계한 글로벌 성장거점 형성

1. 배경

-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가는 전략으로 내적 응집력과 대외적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
 - 강원도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거점 형성이 미약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5+2'광역경제권의 '+2'에 해당
 - 제주도는 도역 전체가 국제자유도시로 글로벌 거점을 형성해가고 있는 중
-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강원도의 글로벌 거점형성은 매우 중요
 - 현재의 한반도 글로벌 네트워크는 높은 중국의존도로 인해 서해안 권역에 편중되어 있음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강원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 구축이 핵심대안
- 동계올림픽 성장 기반화 필요
 - 스포츠용품산업, 관광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꽃산업 등 바이오클러스터 창출
 - 관광과 문화 예술, 첨단기술이 융합된 문화관광콘텐츠 중심지대
 -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 및 투자환경 촉진하는 국제자족도시 구축
 - U-city 및 차세대 녹색기술을 적용한 그린스마트 도시 조성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특구내 규제완화 추진
-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해경제권 시대에 대응하는 동해안 공간기능의 재구조화
 -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의 GTI(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추진에 대응
 - 북한의 나선시 개발을 통하여 동해 진출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부응
 - 동해안의 산업 및 관광기능, 물류교통 거점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전략 강구
 - GTI 구상과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대응한 국가적 교류거점 확보

발전축과 연계한 글로벌 성장거점 구상



2. 강원공간 발전축별 성장거점 개발

〈1〉 「동계올림픽특구」를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육성

○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동계올림픽 특구로 개발
-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경제 및 기업활동 보장
- 특구와 연계하여 동계스포츠 연관산업의 육성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생태문화공간의 형성으로 강원도형 글로벌 표준을 선도
- 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올림픽 도시로 형성

○ 올림픽특구 인접지역에 쾌적·관광산업의 시범지구 개발

- 대관령지구에 대규모 4계절 꽃밭 시범지구 조성(겨울은 눈꽃과 사람 꽃)
- 꽃 감상체험, 치유산업과 종자산업, 식품산업, 향기산업 등 연관산업의 육성
- 쾌적자원과 관광서비스 결합을 통한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 : 로하스-T 벨트와 연계하여 웰스테인먼트, 명상관광산업, 생태문화관광 등 연계
- 강원도의 대표 건강생명 길로서 '로하스 트레일' 개발

○ R&D 기능의 확충

- 서울대 바이오연구단지, 고냉지시험장 및 강릉 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R&D 기능 활성화
- 가칭 스포츠과학 아카데미 등 스포츠 R&D 기능 확충

〈2〉 '내륙첨단산업권' 과 연계한 춘천-원주 R&D·산업클러스터 육성

○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조성

- 춘천권의 바이오산업과 원주권의 의료기기산업을 연계
- 삼성 메디슨을 매개체로 홍천·횡성권을 클러스터 권역에 포함
- 춘천, 원주의 대학 네트워킹 및 R&D 기능 활성화
- 핵심클러스터와 바이오자원을 공급하는 접경지역, 백두대간 등 지역 연계

○ 콘텐츠 산업거점 형성

- 춘천권에 형성된 영상콘텐츠 산업거점기능을 국가거점 수준으로 육성
- 국가디지털콘텐츠 테크노밸리 유치 추진
- 콘텐츠 산업과 바이오메디 클러스터의 전략적 연계로 새로운 융합산업 창출

○ 원주의 거점도시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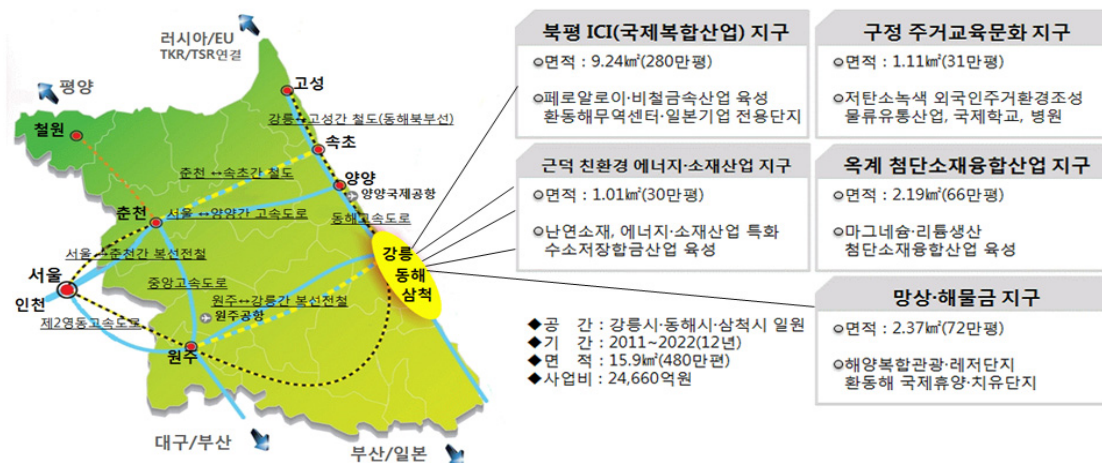
- 오송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춘천권 바이오와 연계발전
-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성장거점 역할 강화

〈3〉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조성

○ 포스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초경량소재 및 페로알로이 등 신소재 산업과 동북아 교역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 새로운 선도 전략산업으로 환동해 자원을 활용한 비철금속소재부품산업(초경량소재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동해안을 줄기물질(Stem Material) 생산의 메카로 구축²¹⁾
-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기능과 강릉과학산업단지 연계 연구기능 활성화²²⁾

동해안권 FEZ 사업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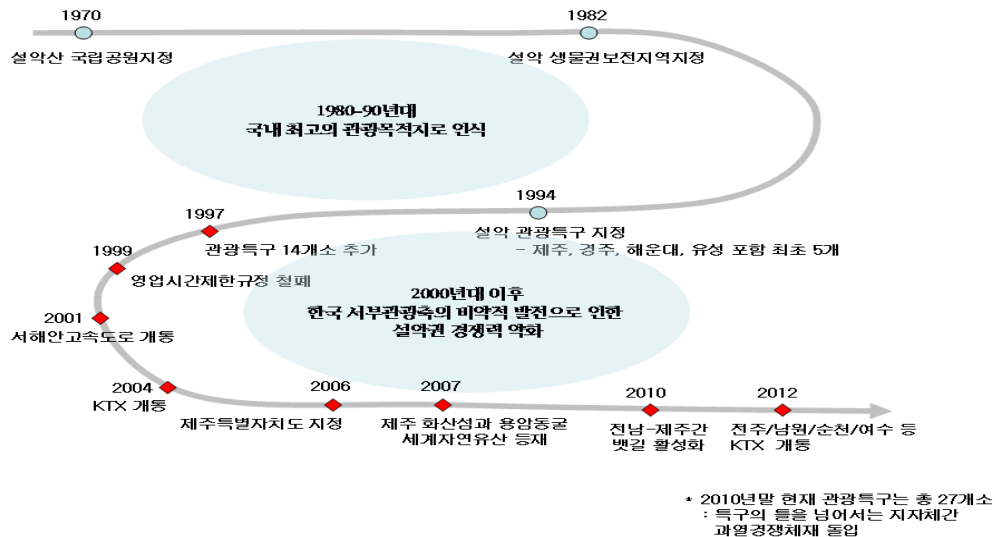


21) POSCO는 마그네슘, 지르코늄, 티타늄, 리튬 등 초경량소재를 생산 자동차, 항공우주, 원자력, 의료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부품산업을 견인 및 국내외 규석을 활용한 메탈 실리콘 생산으로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전지용 고순도 실리콘 생산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소재산업 선도→세계 최대 페로알로이(Fe-Alloy) 공급기지로 성장

22) 마그네슘 생산에 필요한 페로실리콘(Fe-Si)을 생산 혹은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페로티타늄(Fe-Ti), 페로지르코늄(Fe-Zr), 페로니켈(Fe-Ni), 페로망간(Fe-Mn), 페로알루미늄(Fe-Al) 등 페로알로이 산업집적을 주도하여 세계 최대의 페로알로이 복합단지를 구축

〈4〉 GTI(설악-금강) 국제관광특구(GTI 시티) 조성

○ 1970년대부터 강원관광의 핵심지구, 2000년대 이후 상실된 경쟁력 회복²³⁾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설악단오문화권 공간개발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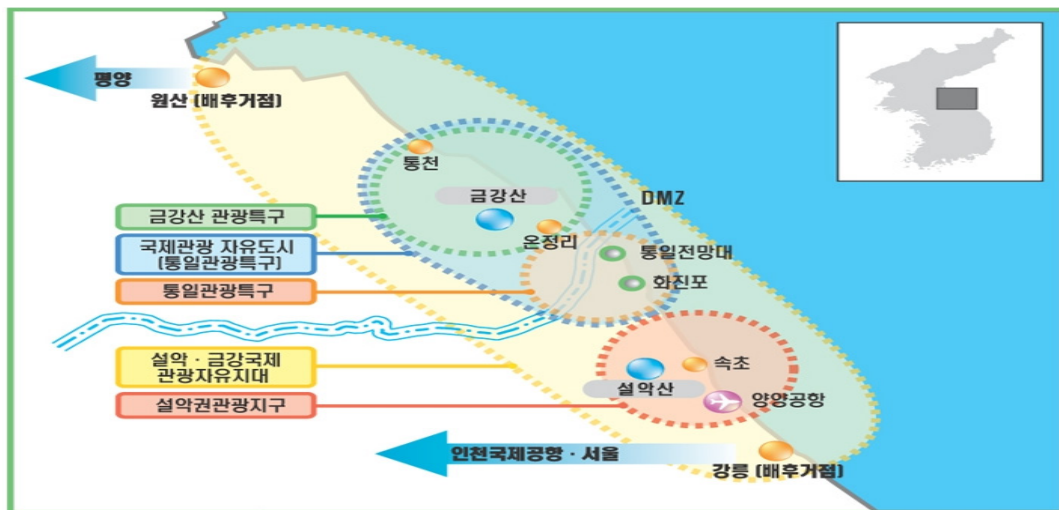


- 설악산 국립공원, 동해안, DMZ 등 대표적인 산악, 해안, 생태관광자원 및 강릉의 문화콘텐츠 단오문화제 계승 및 동해안 선사유적지 개발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구축, 보완지역간의 연계성 제고

23) 1994년 8월 31일 설악관광특구로 지정

- 북한의 금강산관광특구에 상응하는 남쪽의 대응지구로서 설악산관광특구를 재설계하고, 남북 전체 특구를 연결하여 「설악-금강국제관광자유지대(약칭 : GTI Gangwon Tourism Initiative,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 UNDP가 추진하는 대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과 '같은 영문 이니셜, 다른 의미의 도시'로서, 대두만강개발계획에서 강원도의 설악-금강연계개발이 가지는 상징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용어의 취지 있음

설악·금강 GTI 국제관광도시의 공간구상



- 남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1단계 : 고성에 조성하게 될 '관광형 접경특화발전지구'와 연계하여 설악권관광특구 재설계 및 개발계획 추진
 - 설악산국립공원과 속초시, 양양국제공항에 이르는 전체지역을 광역적 틀로 묶어서 종합적인 「설악권관광지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설악산국립공원을 보전하고 문화자산을 발굴, 설악권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조성
 - 2단계 : 통일관광특구(분리모델) 조성
 - DMZ로부터 화진포와 그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권역을 통일관광특구로 조성
 - 금강산관광특구와 통합하여 '무비자 자유왕래특구'로서의 국제관광자유도시 형성
 - 3단계 : 설악·금강 GTI 국제관광도시(통합모델)
 - 국제관광도시는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식' 특구
 - 남북 합의로 독립된 행정체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no Visa' 지역 FTA로 운영
 - 남북 및 중국 등 주변국가 도시건설 참여(GTI 당사국 참여 유도)
 - 중심공항 : 양양국제공항 및 원산공항을 중심공항으로 운영

〈5〉 「남부고원해양권 '신' 에너지성지」의 조성과 '탄광지역' 재생

-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국가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의 「에너지 성지」
 - 탄광지역은 석탄생산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중추 역할 수행
 - 열악한 여건에서 희생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온 광부들과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상적 배려가 필요²⁴⁾

- 지난 14년간('97~'10) 총 4조 4천 439억원이 도내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에 투자
 - 공공 1조 9천 497억원, 민자 2조 4천 942억원을 '97년부터 도내 탄광지역에 투자
 - 도내 탄광지역에 투자된 규모는 거대 공공 프로젝트와 비견한 수준
 -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3조5천억 투자→ 213조 창출) 1.1개 규모
 - 강원도 경제자유구역(2조8천억) 1.4개 규모
 - 원주~강릉간 철도(3조4천억) 및 춘천~속초(3조8천억) 조성 규모
 - * 경북·충남·전남의 경우 2조 2천억원 투자(폐광지역 전체 6조3천억원 투자)

- 탄광지역 사업은 현재까지 총 228개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으로 도시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지역경제 진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대체산업 육성 실적은 미흡
 -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2%, 도시정비 및 복지사업에 48.7%, 지역특화사업에 13%,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12%가 투입
 - 1개 사업당 평균 170억원으로 대규모 단위사업을 주로 지원

- 에너지 성지구축을 위한 두 갈래(two-track) 업무 추진의 일상화
 - ① 기존 사업(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 : 자립형 개발사업, 경쟁 우위사업 등의 지속적 발굴
 - ② 미래 대비 첨단 에너지 자원지대로의 부활 추진 : 국가 R&D 유치를 통한 에너지 자원지대 기반조성, 에너지 산업화 여건조성 및 에너지 자원지대로서 경쟁력 강화

24) 석탄산업사망 : 5천명(출수사고, 가스폭발, 붕락, 각종 안전사고), 1980년~2003년(23년간): 사고와 진·규폐증으로 1만3천명 사망, 2010년 현재 도내 거주 진폐재해자 4,220명

트랙 1 : 기존사업의 지속추진 내용

○ 폐광지역 기금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

- 관광레저, 지역특화, 공공기반,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폐광지역 개발기금)
- 탄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비축무연탄관리기금)
-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소재 유·초·중·고등학교 167개교)

○ 대체산업 육성

- 탄소기반형 융복합 스포츠용품·신소재 산업 및 R&D 등 제조업 기반 확충
- 삼척 융복합에너지산업 육성
- 백두대간 자원기반의 농림·생물자원산업 활성화
 - * 예 : 말 산업, 약초 및 허브산업, 웰빙식품산업, 로하스 휴양·수련산업, 종자산업 등
- 강원랜드의 지역투자사업 활성화 및 주민지원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축

○ 관광시설 및 SOC 인프라 확충

- 정선역, 아우라지역(16.2km) 특화철도 관광시설 확장
- 국민안전 체험테마파크 활성화 및 종합 휴양의료 복합단지 조성
-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및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
- 국도 , 지방도 등 조기 확충으로 탄광지역 경제권 확보
- 카르스트 지오랜드(Karst-Geo Land)조성
- 박물관과을 C-클러스터화 사업 확충
- 약초 특산단지 조성사업 및 가공시설 지원 확대
- 마필(승마)산업 유치(승마 체험장, 마육산업, 마필목장 등)
- 백두대간 연계 한방수목원, 산촌생태마을 숲길 등 조성
- 태백 내추럴월드 조성(한보폐광 대체산업)

트랙 2 : 탄광지역을 신에너지 성지로 재구축

- 지역이 가진 석탄자원과 에너지 지대로서의 이미지 및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에너지의 성지로 재구축
- 에너지를 주제로 21세기 이후를 이끌어 갈 국가 성장전략거점으로 육성
- 종국적으로 추진할 퓨전에너지(Fusion Energy, 수소융합에너지)는 지상에 인공적으로 태양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사용

- 퓨전에너지(수소융합에너지)는 21세기 에너지원이 가져야 할 주요 요건(무한, 청정, 고효율, 안전, 평화)을 모두 충족시키는 미래청정에너지
 - 무한·청정에너지 : 바닷물에서 무한하게 연료공급 가능, 온실가스 배출 없음
 - 고효율에너지 : 바닷물 1리터에 포함된 0.03g의 중수소만으로 서울과 부산을 3번 왕복 가능(휘발유 300리터)
 - 안전·평화에너지 : 돌발사고 시에도 폭발 등의 위험이 없고, 원료가 풍부해 원료 확보를 위한 국가간 분쟁이 없음
- 강원도의 10억톤 석탄은 퓨전에너지 개발의 종자돈(Seed Money)
 - 현재 폐광지역에 매장된 10억톤의 석탄을 이용하여 청정석탄 에너지 자원지대로 부활 추진
 - 석탄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합성석유 R&D 활성화

남부고원지대 신에너지 성지 구축 장기비전

		<p><퓨전 에너지 실증단지+퓨전 에너지발전소 생산거점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미래 퓨전 에너지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립</u> 전략1) 퓨전 에너지 발전소 실증단지 거점 전략2) 퓨전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전략3) 강원도 해수용존 리튬추출 사업 연계 ▪ <u>청정 에너지 상용화 거점을 통한 실질성과 창출</u> 전략1) 창출된 성과의 미래 퓨전 에너지를 위한 재투자 전략2) 국제적 퓨전 에너지 거점 도약 : 수출 산업 육성
	2030년 이후	
		<p><청정석탄 에너지 생산거점 + 탄소소재 산업거점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청정석탄 에너지 기술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 마련</u> 전략 : 국내/북한/해외 석탄을 활용하여 청정석탄 상용화 추진 ▪ <u>퓨전 에너지 실증화를 위한 R&D 기반 구축</u> 전략 : R&D 실증단지 유치 및 관련 소재/부품/원료 등 기술개발
	2020년~2030년	
		<p><청정석탄 에너지 상용화 대비 단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내외 석탄의 청정 에너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u> 전략1) 청정석탄 에너지 관련 R&D 기반 조성 및 실증 단지 조성. 관련 연구소/발전사업자/에너지 대기업 유치 전략2) 에너지 자원지대로의 부활을 위한 에너지관련 국가 R&D 기관 유치 전략3) 기존 폐광지역, 삼척 중합발전단지, 동해안 항만 연계 추진 전략4) 탄소 융복합 신소재산업단지 조성 : 연구단지 및 기업유치 추진
	현재~2020년	

<6> 로하스-T 벨트 구축과 백두대간 및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화

- 21세기 대표적 생활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로하스(LOHAS²⁵⁾) 트렌드
- 20세기 초 현대화과정에서 탄생된 개인화 트렌드와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어 나타난 전 지구적 메가트렌드
 - 로하스족은 소비에 있어서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개인 맞춤형, 자율성)하며, 동시에 건강에 이로우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는 특징

가치변화의 트렌드 : '시민 책임문화'에서 '로하스 라이프스타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1970년대와 1980년대		2000년대 이후	
<책임문화>		<쾌락주의>		<로하스>	
근면		쾌락		경험	
책임		서비스		참여	
가족		자신		우정	
경건		물질		정신	
성실		에로스		진실성	
유용		재미		자연주의	

자료 : 마티아스 호르크스 외 지음/박희라 옮김(원저 2007년 발간/번역본 2009년 발간), 『미래에 집중하라』, 비즈니스북스, 228쪽

- 「DMZ 평화생태벨트」와 「백두대간 생명자원벨트」를 연계하는 한반도 '로하스-T(투어리즘) 벨트' 형성
- 접경지역과 백두대간은 국토계획에서 정한 국토핵심생태축으로 이들 지역을 연계시켜 '로하스 투어리즘'의 상징적 지대로 형성
 - 지역의 삶과 환경을 연계하는 'DMZ·백두대간 로하스 트레일' 개발
 - 접경지역 중앙권에 생명자원 중심 특화발전지구 개발 및 동계올림픽특구 북부 백두대간지역에 쾌적관광 브랜드사업 지구 개발
 - 생명다양성 기반의 종자산업과 지뢰제거용 로봇개발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콘텐츠산업으로 연계하여 고품위 관광서비스산업으로 유도
 - 폐광지역진흥사업과 접경지역종합계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권역 기본구상안과 연계하여 추진

25) LOHAS :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특정계층의 소비행태를 지칭한다기보다 다수의 행동양식, 즉 시대의 소비트렌드를 압축한 말)

제3절 생활권 구상

1. 생활권 설정 방향

-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도농 분절관계가 심화
 - 농경사회에서 도시의 발달은 도농간 보완적 균형관계 유지
 - 산업화의 진전은 농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하여 급속히 도시를 건설하면서 농촌의 변방화, 도시에의 예속화 관계를 심화
 - 농경사회의 농촌이 생산지이자 정주공간이라면, 산업사회에는 도시가 생산지이자 정주공간이며 농촌은 도시로 진입하지 못한 주변지역에 불과
- 산업화 이후 지식경제사회에서 종래의 도농분절관계는 도농복합 정주체계로 재구성될 전망
 - 미래학자들이 예상하는 아그리코니아²⁶⁾의 농촌모습으로 도시와 농촌은 계층적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관계로서 복합정주체계를 형성
 - 농촌은 주변지역이 아니라 도시와 연계하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지이자 정주공간으로서 위상을 회복
- 공간계획에서 생활권은 도농복합정주체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
 - 지역개발 대상지역의 규모 및 기능을 감안하여 필요시설 소요파악의 기준

생활권 계층별 기능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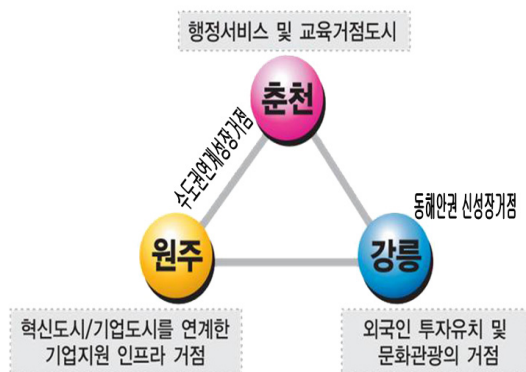
구분	광역생활권	지역생활권	정주생활권	소도읍생활권	마을생활권
특징	광역경제권	광역행정, 지역개발단위	자치행정단위	일상적 생활단위	기초생활단위
인구규모	400-500만	30-80만	5-30만	3천-1만	수십-수백
강원도의 예	불완전해도 강원도 전역	춘천, 원주, 강릉 중심권역	18개 시군단위	읍면동	마을
기능	경제적 자립기반	종합생활 서비스 제공	지방행정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사회적 유대, 소속감
필요시설	국제기능시설, 높은 수준의 교육 문화 상업시설	대학, 문화시설, 도매시장, 금융 기능, 종합병원	중고등학교, 도 소매시설, 소규모 금융, 의료	초등학교, 주민생활과 밀착된 의료복지문화 판매 편의시설	주민센터, 교통 연계시설

26) 아그리코니아(agriconia) : 고향 의미의 제2의 정주거점으로서 현대적 디지털망을 갖춘 전원을 의미(마티아스 호르크스, 한국경제신문, 2010)

- 교통망과 정보통신망의 발달, 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개인에 대한 가치의식 향상 등 의식의 변화에 따라 생활권의 범위는 광역화해 가는 추세
- 강원도의 도농복합 정주체계(지역생활권)는 크게 6개 권역으로 구분 가능
 - 전통적인 도농복합권역인 춘천, 원주, 강릉의 3대 중심도시권역
 - 삼척·동해·태백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권역
 - 춘천~속초 고속철도축의 결절도시인 속초·양양·고성권역
 - 접경지역축의 서쪽 결절점인 철원권역
- 철원권은 사실상 의정부 생활권으로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특수생활권 지역
 - 강원도의 서쪽에서 수도권과 연계, 북한과의 연계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결절 지역으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필요

2. 생활권 설정²⁷⁾

- 춘천, 원주, 강릉 3대 중심도시의 특성화전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100만명 규모의 거점도시 기능 수행 추진²⁸⁾



춘천권 : 도청소재지로서 행정중심의 기능에 강점이 있으며, 도내 대학원생의 50%가 밀집되어 연구인프라가 양호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및 교육·연구의 거점도시로 육성

원주권 :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교통망이 유리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입지이므로 기업지원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여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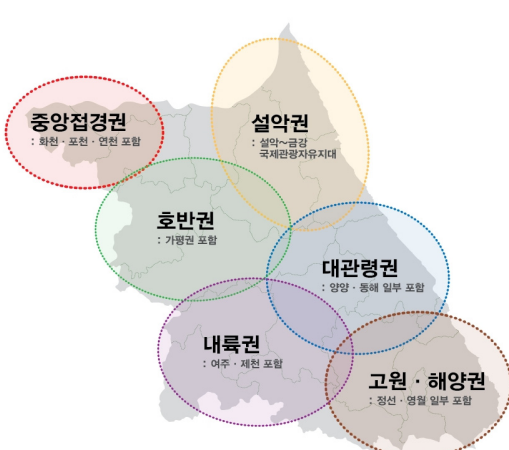
강릉권 :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역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의료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27)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에서 설정된 생활권은 자치시대의 행정구역과 교통망, 문화교육 등 거점기능을 감안한 권역으로서 본 계획(2011-2020)에서도 생활권 구상은 그대로 승계하여 추진하되 권역명칭은 지역특성을 좀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보완

28) 제2차 강원도건설종합계획(1992-2001)은 국토계획에서 성장거점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국의 거점도시와 이들이 형성하는 생활권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강원도의 성장거점도시로 춘천, 원주, 강릉의 3대도시를 설정하여 지역생활권을 구성

- 정주생활권은 중앙접경권, 호반권, 내륙권, 설악권, 대관령권, 고원해양권 등 6개 생활권으로 설정

강원도 정주생활권 구상

생활권 개관	생활권	권역특성
	북한강 · 소양 호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인접구역 : 경기도 가평군 권역특성 : 강원도 3대 거점도시 중 하나이자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를 거점으로 수도권 용수의 젖줄인 북한강과 소양댐을 연계하여 형성. 수도권 동북부를 통하여 설악-금강권 및 동해안과 소통하는 관문
	남한강 · 지역 내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 원주, 횡성, 영월 인접구역 : 경기도 여주-이천, 충북 제천 권역특성 : 물류·유통·교통의 중심으로 「국도중부내륙 거점도시」인 원주시를 거점으로 수도권 동부와 국도남부의 관문. 특히 여주-이천 산업축의 연장선 상에서 산업도시권 역할기대
	백두대간 대관령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 강원도 동해안의 중심도시 강릉을 거점으로 평창, 정선을 아우르는 권역 인접구역 : 양양군, 동해시 권역특성 :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관문권역. 강릉의 문화와 동해안 관광, 고원리조트를 망라하는 관광 거점지대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거점지구
	남부고원 · 해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 석탄과 석회석 등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태백, 삼척, 동해의 3대도시를 거점으로 평창, 정선, 영월의 일부를 아우르는 권역 인접구역 : 경북 울진, 봉화, 충북 제천 권역특성 : 지하자원과 에너지를 통하여 새로운 대체 산업을 모색하는 강원도의 전통공업지역이자 국토 중남부와 강원도, 그리고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관문
	설악권 (설악-금강 국제관광 자유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속초, 양양, 고성, 인제권역 인접구역 : 북쪽으로 금강산관광특구 권역특성 : 강원도 최고의 관광권역으로서 현재 열려 있는 2대 한반도 남북 통로의 한 축
	중앙 접경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 철원 인접구역 : 화천, 경기도 포천, 연천, 의정부 권역특성 : 사법, 경찰, 군, 세무 등 실질적 의정부생활권으로 춘천권과 연계성 강화 및 강원도에서 독자적 권역으로 특성화가 필요한 권역

- 생활권 중심도시의 지역거점기능 강화

- 기존의 춘천·원주·강릉은 타권역 대도시와 경쟁하는 강원권 글로벌 거점도시로 지속 육성
- 중심도시가 약한 다른 3개 생활권에 있어서 중심도시 기능을 확충

제4장 추진전략

제1절 전략부문의 도출

추진전략의 구성



- 의식과 시스템 혁신 : ‘동기와 자원의 결집, 시스템의 형성’이라는 강원발전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기반형성
- 산업혁신 : 강원도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 형성 →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동반성장
- 공간혁신 : 성장동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인프라 구축
- 삶터혁신 : 성장동력의 결실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삶터기반 구축

○ 의식과 시스템의 혁신

- 개인과 지역의 자발적 동기와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을 형성
-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민의식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한 강원발전 추진

○ 산업혁신

- 강원도의 낙후된 산업체계를 일신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산업기반 형성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요체

○ 공간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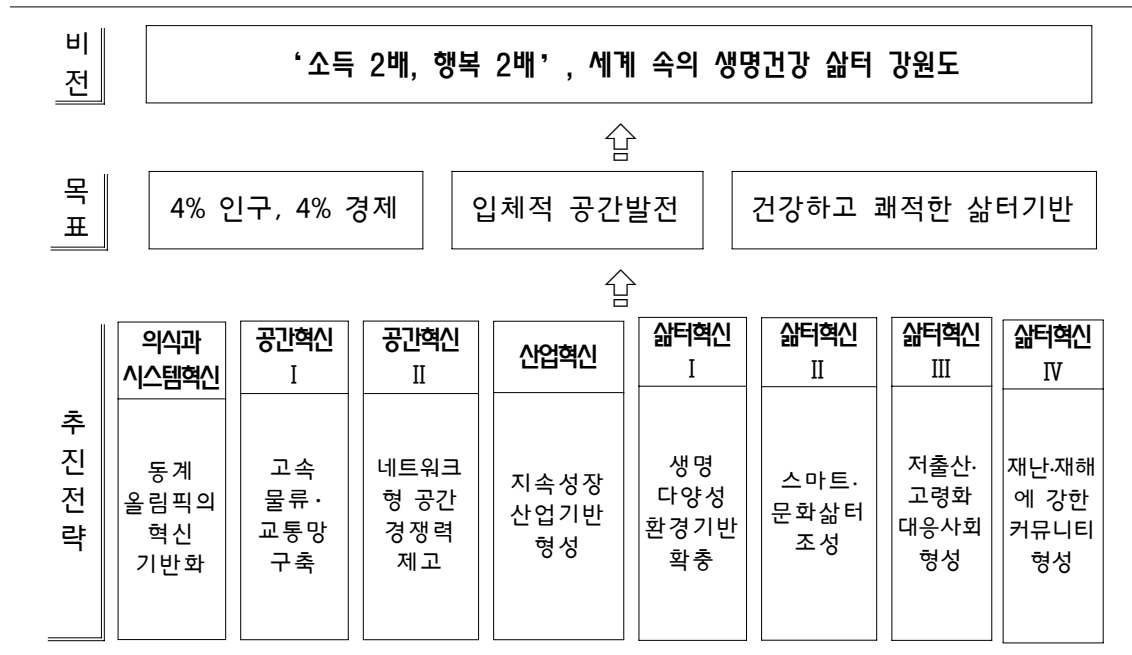
- 강원도가 국토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개방형 공간체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강원도 공간경쟁력의 필요조건

○ 삶터혁신

- 높은 삶의 질의 삶터를 형성하는 것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 경쟁력의 충분조건 형성

제2절 전략부문의 구성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의 개관



□ 의식과 시스템 혁신전략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신의 계기를 제공
 -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강원도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혁신기반으로 활용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강원사회 혁신 추진

패러다임 혁신	로컬/하드파워 ‘평화’는 비용 개별적 경쟁	⇔ ⇔ ⇔	글로벌/소프트파워 평화는 시장의 경쟁가치 통합적 경쟁
인프라 혁신	교통 : 도로망 중심 성장거점 : 개별지역 환경 : 개발/보전의 이원화	⇔ ⇔ ⇔	철도 중심의 다중체계 지역 연계 클러스터 개발/보전의 통합
산업기반 혁신	개별적 산업육성 전통산업 사양화 단순 서비스	⇔ ⇔ ⇔	통합/융합적 신산업화 첨단의 신수종산업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
문화기반 혁신	전통문화의 박제화 단순 생활음식 낮은 생활문화 접근도	⇔ ⇔ ⇔	살아있는 콘텐츠 산업 고부가가치의 식품문화산업 문화수준의 선진화

□ 공간혁신전략 : 고속물류교통망 구축과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고

○ 강원도 도시공간발달의 특성은 네트워크형 정주체계

- 타 권역에서는 단일의 대도시가 주변에 다수의 중소도시를 거느리고 하나의 광역도시권을 형성
- 강원도의 경우는 춘천, 원주, 강릉의 3대도시가 주변 농업 군(郡)과 함께 도농복합도시권을 이루는 형태
- 여타 도시의 경우 이러한 3대도시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작더라도 독자적 도시권을 형성하여 주변지역과 도농복합정주권을 형성하는 특징

○ 강원도 공간구조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 강원도의 전통적 도시발달 형태인 네트워크형 구조를 최대한 살려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공간발달을 도모
- 기초생활권 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
- 도시의 중심성을 확충하여 농산어촌 정주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부여
- 취약한 꼭지점 부분인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 등은 국가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강원도의 네트워크형 공간형성을 촉진

○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블록 형성과 초국경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개방형 글로벌 교통체계 구축

-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한반도 물류시스템 다변화에 대응
-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교통망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강원도를 철도망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구축
- 강원중부선(원주~강릉철도), 강원북부선(서울~춘천~속초철도)철도노선과 동서·동해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망 확충
-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기능강화 및 배후인프라 확충

○ 대내적으로 독자적 광역 경제권으로서 내부응집력 제고

- 광역경제권 거점도시 간 90분대, 도내 지역 간 2시간 통행거리 확보
- 철도, 항공, 항만, 고속도로의 다차원적 복합환승체계 구축
- 중앙고속도로축을 국토 중앙종단 물류축으로 활성화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영남권 연계도로 지속적 추진

□ 산업혁신전략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존산업 융복합·신산업화로 지속성장기반 형성

산업혁신전략의 접근 개념도



- R&D·과학기술기반을 토대로 성장동력산업 육성 : 바이오·메디 융복합산업, 그린·융합 에너지산업, 녹색신소재산업, 콘텐츠산업
- 청정환경·생명다양성 및 관광기반을 토대로 기존산업의 융복합·육성 : 쾌적·관광산업, 전통산업의 신산업화
- 콘텐츠산업은 모든 산업부문에 작용하고 연계하면서 동반성장하는 역할수행

○ 정부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에서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제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 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강원도에 적합한 신성장동력산업

강원도 적합산업 (10)	<p>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p> <p>첨단융합산업 :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 산업, 로봇응용산업</p> <p>고부가서비스 산업 :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p>
---------------------	---

○ 신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구 분	의 미 와 중 요 성
바이오메디 융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의 연계발전 도모 선도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메디칼산업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
녹색신소재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전략산업인 기능성소재산업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 강원도의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미
그린· 융복합에너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석탄자원을 활용하여 석유 이후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는 융복합 에너지산업 육성(남부고원해양지대의 에너지 메카로 재탄생을 목표) 특히 삼척 복합발전시설과 연계하여 신에너지 분야(석탄액화, 가스화 등)의 집중투자로 국가발전 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산업 기반의 콘텐츠산업은 현대 지식기반산업의 모든 부문에 관여하는 필수산업 특히 강원도가 육성하는 관광산업과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를 가지며 선도전략산업인 헬스케어(헬스테이먼트) 산업과도 연계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전인차로서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

산업명칭	정 의
기능성신소재 산업	산업 구조상 부품·완제품 산업에 해당되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성능, 품질, 가격 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를 공급하는 산업
바이오메디칼 산업	바이오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총칭. 바이오 의약품산업은 천연물 소재, 기능성 소재, 생물소재 기반의 복합적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연관 산업을 말하며, 의료기기산업은 기존에 발달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고품격의 제품 생산 및 연관 산업을 말함
헬스케어산업	사회적 수요(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인간존엄과 건강 증진 실현, 자아실현을 위한 즐거운 생활)와 기술적여건(기반기술 및 융합기술에 의하여 제공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분석과 글로벌 건강보건수요 트렌드에 기초한 건강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결합된 즐거운 건강관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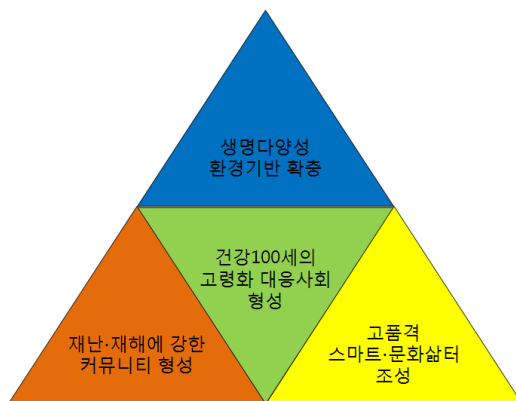
* 현재 삼척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융복합에너지산업을 선도전략산업에 포함하여 국가사업화 검토

○ 기존산업의 융복합·신산업화 추진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즐기는 관광 • 관광단지 개념 • 일방적 관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HAS : 자연순환형 생활관광 • CONTENTS : 문화콘텐츠로서 창조관광 • Anytime/Daily : 일상적 관광 • SMART : 개인맞춤형 네트워크 관광 • ELEGANCE : 고품격 관광
농업·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생산자 • 상대적 낙후의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생산(1차)+기술(2차)+체험/소비(3차) • 건강기술산업 : 유기농, 식품산업 등
지역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생산자 • 상대적 낙후의식 • 지역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고도화된 서비스산업 • 녹색/글로벌산업 • 웰빙·쾌적산업 육성 : 녹색웰빙산업, 해양수산산업, 자원 에너지 산업, 생활의료융합산업, 스포츠·MICE 산업 등

□ 삶터혁신전략 : 생명다양성을 기반으로 건강 100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품격 문화삶터,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

삶터 혁신전략의 접근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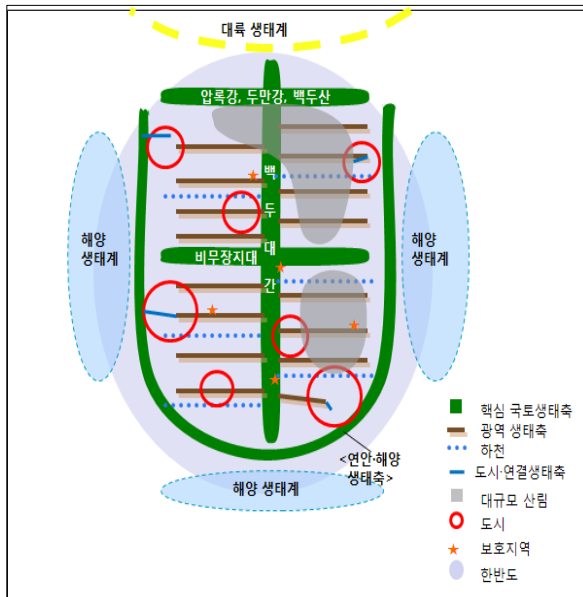
- 생명다양성 환경기반 확충 : 강원도의 자연가치를 극대화하고 녹색생활 실현
- 고령사회 대응 : 고령시대의 복지 일자리 및 사회 경제 환경조성으로 건강100세 행복생활 구현
- 고품격 스마트 문화삶터 조성 :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스마트사회기반 조성과 편리하고 품격높은 문화사회기반 확충으로 문화생활 실현
-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 : 기상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한 커뮤니티 형성

○ 자연환경 보존과 풍부한 생명(중)다양성 확보는 행복한 삶터의 기본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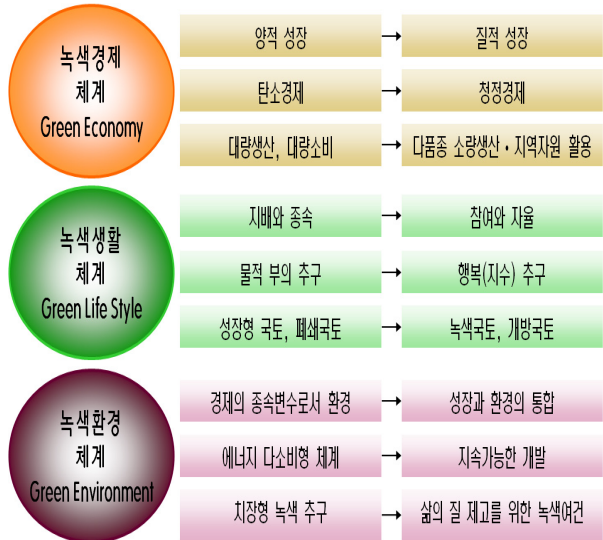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의 「강·산·해 통합국토관리체계」와 「3G 통합전략²⁹⁾」 실천으로 녹색국토 실현

29) 3G : 녹색경제체계(Green Economy), 녹색생활체계(Green Lifestyle), 녹색환경체계(Green Environment)로 국토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하는 방향을 의미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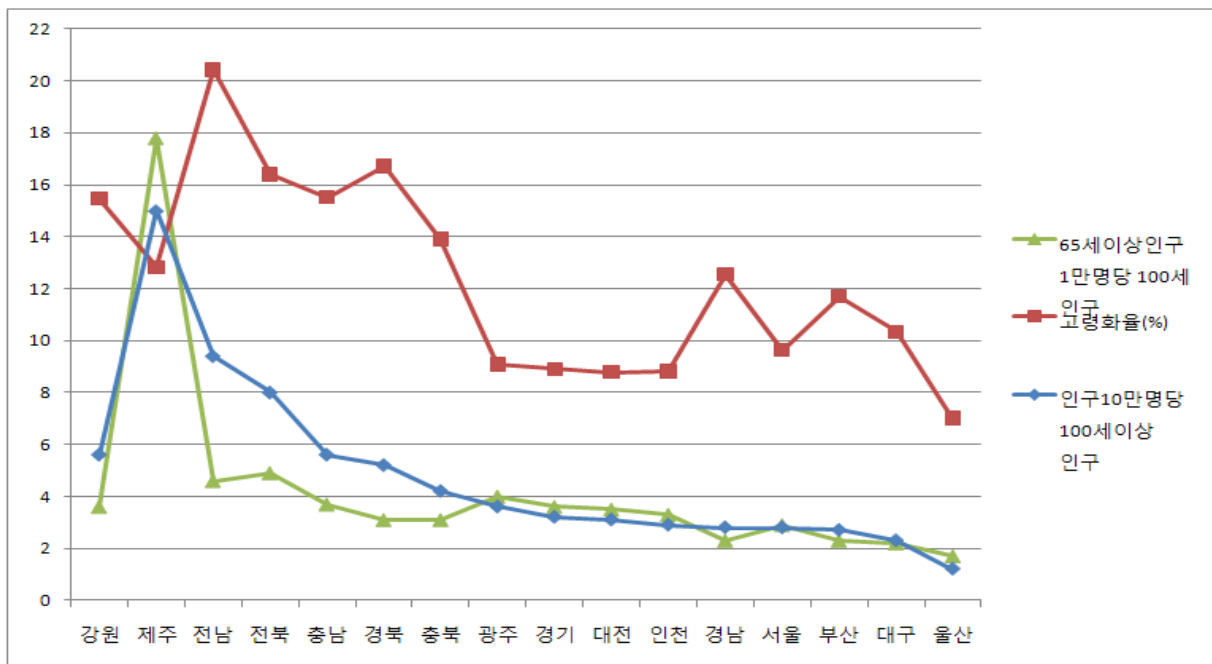
3G 선순환형 녹색국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건강 100세 장수사회 실현

- 강원도의 고령화율(15.5%)은 전국 최고수준이나 건강 장수율은 높지 않은 편
- 전국 100세 이상 인구 1836명 중 강원도는 82명(4.47%)
-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강원도 3.6명, 제주도 17.8명

전국 시도별 고령화율 및 장수인구 비중



○ 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 추세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의 출산과 사회활동 양립화 기반 조성이 선결과제
- 이는 사회의 여성화 트렌드에 맞춰 여성들의 역량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

* 여성화는 소프트화, 고령화, 글로벌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사회의 메가트렌드중 하나

○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 조성이 고령화시대의 과제

- 강원도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문제(49%) 및 경제문제(36%)
- 노인의 건강과 경제력은 밀접한 관련
- * 노인들의 요구 : 건강검진(40%), 간병서비스(19%), 가사서비스(12%), 취업알선(12%)

○ 지역의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화적 서비스기반 강화도 큰 과제

- 노후소득의 보장과 보육 등 충실한 사회적 서비스기반은 고령화 현상으로 침체될 지역활력 제고에 큰 기여
- 생활 주변의 문화 서비스와 쾌적한 주거의 확보도 중요한 복지사회의 기반
- 정보기술을 통한 의료보건 서비스 및 생활서비스의 확충으로 복지기반 확충

○ 기상변화 등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발생에 사전, 사후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삶의 보장 및 도민 재산의 보호

-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패러다임으로 전환 및 통합시스템 운영
- 지역사회 및 도시·시설물 방재력 제고, 지역재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확대, 대형재난 대비 녹색 방재축 설정 등 자연 방재력 강화
- 범죄, 안전사고 등 도시형 위험요소의 방지로 안전한 도민 삶의 보장

제3절 핵심전략사업 추진

□ 핵심전략사업의 도출

○ 각 부문별 혁신을 창출하고 선도할 전략사업의 추진으로 계획의 성과 제고

혁신부문	전략사업 도출근거	전략사업
의식과 시스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계올림픽 개최는 목표가 아닌 수단 메가 이벤트로서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의 균형 발전 및 도약의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개최’의 의미 	1.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공간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축 + 항중국형 서해안축’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국토축에 동서연계 환동해축을 보강하여 국토공간의 개방화, 중국 영향력에 대응하는 ‘강한 국토’ 형성 전략사업 추진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을 낙후지역이 아니라 강원도의 상징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공간의 균형발전과 네트워크형 공간 형성의 전략사업으로 추진 침체되고 있는 동해안의 국토 내 위상제고를 통한 동서연계 환동해 국토축 형성에 기여 	2. 북극항로의 개척과 목자형 전철망 구축 3. 폐광지역·접경지역의 신성장 동력화 4.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강화시키고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략사업의 추진 기존의 전통산업을 사양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전략사업의 추진 	5. R&D·과학기술기반 확충 6.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 7. 농산어촌의 6차산업화 8. 웰빙·쾌적산업 육성
삶터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의 삶터는 친환경, 친기술, 그리고 친고령화가 핵심 키워드 강원도의 환경혁신과 정보기술을 접목시킨 공간의 혁신 및 고령화 추세에 맞춘 문화복지 경제체제의 혁신이 전략과제 	9. 강·산·해 통합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과 생명다양성 확보 10. 정보기술을 활용한 특성화 공간 조성 11. 고령친화적 일자리 개발 및 사회경제 서비스기반 확충

□ 핵심전략사업의 추진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 동계올림픽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3(올림픽 경기장 소재 시군) + 15(도내 타 시군)’ 전략을 통한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의 도내 균형파급 극대화 추진
- 올림픽을 계기로 도민의식과 제도, 관행 등 선진적 사회적 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

○ 북극항로의 개척과 ‘目’자형 전철망 구축

- 수도권과 연계가 편리한 강원도 동해안에 북극항로 거점기지 조성
- 북극항로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물류체계를 철도망 중심으로 재구축
- 주요 교통결절지역에 복합환승체계 구축으로 국토공간 고속화에 부응

○ 폐광지역·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화

-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의 기간연장과 향후 에너지 성지화 및 연계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 육성기반 구축
- 접경지역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초광역 발전권역에 해당되는 접경지역과 백두대간을 연계하여 ‘로하스-T(Tourism)벨트’ 구축

○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개발

- 북극항로 개발, GTI-환동해권 구축에 대한 산업거점지구로 조성
- POSCO를 중심으로 녹색 신소재 부품산업의 거점을 형성
- 양양국제공항·동해항과 함께 동해안 공간발전의 핵으로 육성

○ R&D·과학기술기반 확충

- 도내 지식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에 취약한 R&D·과학기술 역량 강화
- 국가급 R&D 기구 및 시설 유치·확충
- 과학기술계 연구소의 육성과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

- 기능성신소재산업 육성 : 마그네슘, 리튬, 세라믹 등 신기술이 접목
-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복합산업
- 헬스케어산업 육성 : 의료관광과 휴양, 여가가 복합된 헬스테인먼트 산업

○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

- ‘생산, 가공, 체험·서비스’ 등이 복합된 산업지구로 농산어촌을 재구조화
- 새농어촌건설 운동 등 강원도의 기존 농산어촌 활력화 사업의 보완 집행
- 농산어촌의 향토장인을 중심으로 신문화 전통산업 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접목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 쾌적·관광산업 육성

- 자연과 사람이 공감하는 강원도의 쾌적성(amenity)을 기반으로 ‘종 다양성·신기술·건강·의료·복지·관광’이 아우러진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개척
- 시범지구 지정에 의한 산업기반의 조성확산 추진

○ 강·산·해 통합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과 생명다양성 확보

- 광역권, 생활권, 소생활권 단위의 통합 생태축 설정과 관리체계 구축
- 방재측면에서 해일 방어축, 산불 방어축, 홍수 방어축의 설정과 연계관리
- 체계적 생태축 관리를 통한 생명다양성 확보

○ 정보기술을 활용한 특성화 공간 조성

- 농산어촌에서 도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의 일상화 기반 실현
- 생산물 이력관리체계를 접목한 농산어촌의 스마트빌리지 조성확산 이와 연계된 u-마켓 전통시장 조성
- 생활 속 정보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특성화 테마파크 조성

○ 고령친화적 일자리 개발 및 사회경제 서비스기반 확충

- 인생단계에 맞춘 전 연령층 일자리 개발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자라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서비스 시장 창출



제3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제2장 고속 물류·교통망 구축

제3장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고

제4장 지속성장 산업기반 확충

제5장 생명 다양성 환경기반 구축

제6장 스마트·문화삶터 조성

제7장 저출산·고령화 대응사회 형성

제8장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

제1장 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국민적 자긍심 고취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
 - 한국개발연구원이 ‘88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988년 10월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87%의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 문	답 변
올림픽을 잘 치러낸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대단히 그렇다: 34.4% 대체로 그렇다: 52.8% 그렇지 않다: 7.6% 잘 모르겠다: 5.2%

- 이러한 긍지에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민적 호응과 일체감’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구분(질문)	답 변						
이번 올림픽은 호응도가 높았다고 본다	대단히 그렇다: 40.6% 대체로 그렇다: 47.4%						
올림픽이 발전을 촉진할 분야	구분	정치	경제	국제지위 향상	체육	사회문화	기타
	내국인	4.1%	23.7	44.6	17.6	7.4	1.3
	외국인	21.3%	52.0	58.7	30.0	29.3	7.3
	* 외국인 평가의 경우는 항목별로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평가를 100으로 하여 전자의 평가만 수록함.						
세계언론의 평가	국민 자긍심 제고, 한국의 국제지위 향상, 한국 민주화 촉진의 계기, 공산권과의 관계개선 계기, 한국 문화홍보의 기회						

자료 : 김종기 외,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1989.3), 59쪽-115쪽 요약

-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선진국을 향한 국민적 의식의 전환은 물론 자원봉사 활동 전개를 통한 선진 의식 훈련의 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올림픽대회는 많은 수의 자원 봉사자를 필요로 함으로써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촉발시키는데 올림픽 유치는 큰 계기
 - 88 서울올림픽 평가결과에 보면 국민들은 올림픽을 통하여 ‘국민 모두의 협동심이 고양’된 것(79.1%)으로 나타남
- 1998 일본나가노 동계올림픽에는 총 32,579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하였으며, 그 중 84%가 나가노 현의 주민임
 - 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자원봉사운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나가노현에서는 대회 후에도 “볼런티어 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정도로 그 열기가 고조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지역별 · 직업별 자원봉사자수

직업	참여자수(명)	구성비(%)	지역별 구성비(%)	
회사·단체직원	10,388	31.9	長野縣: 83.6	北海道: 0.2
공무원	7,769	23.8	東北: 0.2	關東甲新越: 11.6
학생	6,993	21.5	中部: 1.3	近畿: 2.6
주부	3,628	11.1	中國: 0.1	四國: 0.1
기타	3,801	11.7	九州: 0.1	해외: 0.2
합계	32,579	100.0		

자료 : 長野市商工部, 「五輪開催が地域經濟へ及ぼした影響に関する調査」, (平成 12年3月), 118쪽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막대한 자금이 짧은 시간 동안 강원도에 유입
 - 자본투자는 강원도의 산업경제기반 확충에 큰 효과 기대
 - 특히 원주~강릉간 철도,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등 교통접근기반의 강화는 강원발전에 기폭제로 작용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개최지역의 문화적 역량제고에 큰 기여
 - 많은 외국인들을 맞이하면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큰 관심
 - 전통문화예술과 음식 등 강원도의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문화적 역량제고는 올림픽 이후에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기반 확충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

2. 목표와 계획지표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리더쉽과 시티즌쉽 구축
 - 그 동안 우리 국민은 무수히 많았던 국난의 위기를 위대한 리더쉽과 시티즌쉽(시민 정신)으로 극복해 왔음
- 강원도의 선진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기틀 마련
 - 현재 강원도는 인구와 경제의 지속적 하락과 도민 자긍심 저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돌파할 최대의 호기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임
 - 강원도가 낙후의식과 피해의식 및 방관자 태도를 벗고 진취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진 시민사회로 나가는 기틀을 동계올림픽 개최로 형성
- 강원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확립하고 상품화함으로써 관광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경제기반 강화의 계기를 형성
- 계획지표

지표	2010	2015	2020
자원봉사 참여율		10%	30%
동계올림픽 도민 자원봉사자수	-	-	2018 : 30,000명
올림픽특구 조성	-	70%	2017 : 100%
문화상품 개발	-	시군별 1개 이상	시군별 2개 이상

3. 계획과제

-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레이트 강원 범도민 운동 추진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3+15’ 개발전략 추진
- 동계올림픽시설의 자원화, 활성화
- 평창 녹색올림픽도시 추진
-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기반 확충
- 스포츠, 관광, 문화 이벤트를 위한 강원 문화 르네상스 사업 추진

제2절 『그레이트 강원』 범도민 운동 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넓은 도역에 분산된 생활거점 구축으로 구심점과 통합성이 미흡한 여건
 - 생활권별로 상이한 풍속과 문화적 배경
 - 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권역별 경쟁관계 표출
- 취약한 경제여건과 농산어촌의 공동화로 공동체적 전통이 약해지는 현실
 - 선진적 시민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적 서비스체계 붕괴위험
 - 시민단체 활동도 취약
- 추진과제
 - 주민 주도의 상향식 ‘그레이트 강원’ 도민운동 추진 및 추진체계 구축

2. 세부추진과제

〈1-2-1〉 주민 주도의 그레이트 강원 도민운동 추진

- 강원도의 미래도전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
 - 「정신」의 도전 : 진취적이고 공동체적인 새로운 도민정신 형성
 - 「경제」의 도전 : 산업사회를 건너뛰어 선진형 녹색성장체계 구축
 - 「사회」의 도전 : 양극화와 갈등관계를 건너뛰어 통합·동반사회 실현
 - 「환경」의 도전 : 개발축쇄가 아니라 삶과 경제를 보장하는 생명자원보고
- 사회·경제적으로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 ‘그레이트 강원’ 뉴 패러다임 >

- Great Gangwon, Great People :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발적 참여
 - Great Gangwon, Good Community : 나눔과 포용의 공동체 사회
 - Great Gangwon, Green Economy : 상생과 협력의 녹색경제체제
-

○ 1단계 : 정신개혁 ⇨ 『GREAT PEOPLE 운동』

－ 새로운 시티즌쉽(citizenship)³⁰⁾ 확립

- 공익달성을 위하여 사익추구의 절제
- 공익을 위하여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집단과도 협력하려는 태도
- 이웃을 돕고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활동 등

- －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의 추진동력 확보 기대
- － 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에 길이 남을 ‘올림픽 유산’으로서 세계 속의 강원도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승화

○ 2단계 : 상생시스템으로의 재구축

－ 상생사회시스템 구축 ⇨ 『GOOD COMMUNITY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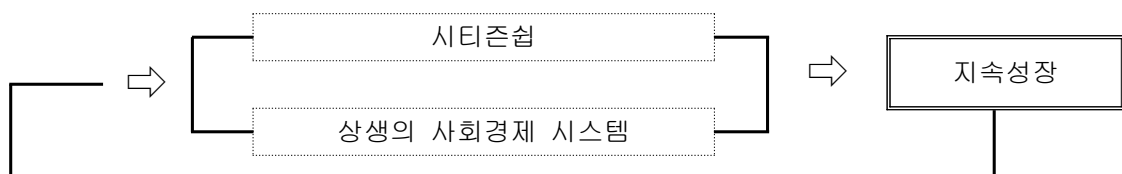
- *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 사회의 구현.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부응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형성.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적 연계망 구축

－ 상생경제시스템 구축 ⇨ 『GREEN ECONOMY 운동』

-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경제” 추구. 저탄소녹색도시 및 저탄소생산경제구조

－ 사회경제적 혁신역량 제고

○ 3단계 : 강원도 역량증대의 선순환 ⇨ 지속성장



<p>GREAT PEOPLE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하는 성숙한 시민</p>	<p>GOOD COMMUNITY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p>	<p>GREEN ECONOMY 지속발전의 녹색경제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개혁 ▸ 역량강화 ▸ 자원봉사 참여 ▸ 법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사촌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활동 참여 ▸ 다문화사회 형성 ▸ 함께 사는 지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의식 ▸ 저탄소생산구조 형성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 사회적 경제 활성화

30) 시티즌 쉽 :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시민의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1-2-2〉 추진체계 구축

- 민간주도의 민·산·학·관 공동협의체 구성 및 행정의 적극 지원
 -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 학계·종교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참여
 -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 추진력 확보를 위한 도 조례 제정

- 기존 시민사회운동 및 행정의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및 범도민적 참여 확산
 - ‘청정강원 21실천협의회’ 등 행정과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시민활동 사업을 연계·결집
 - 시군에서 추진하는 정신운동(예 ; 동해시 새마음 새행동운동) 등과 연계함으로써 성과 극대화
 - 시민강좌, 참여 프로그램,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

- 마을 등 커뮤니티 단위로 그레이트 강원 실천운동 확산
 - 아파트 주부를 주축으로 한 리사이클링 생활문화 운동 등을 시발로 공동체 전반적인 생활개조 운동으로 확산
 - 생활과 환경의 지역 거버넌스 형성
 - 환경시민단체와 행정의 파트너십 구축
 - 이웃 및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민문화 창출
 - 언론매체, 대학 등과 연계한 ‘그레이트 피플’ 아카데미 등 활성화

- 녹색경제를 활성화 시킬 기업주체 육성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리사이클링 자원업체 육성과 지역산품의 구매유통체계 구축
 -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리사이클링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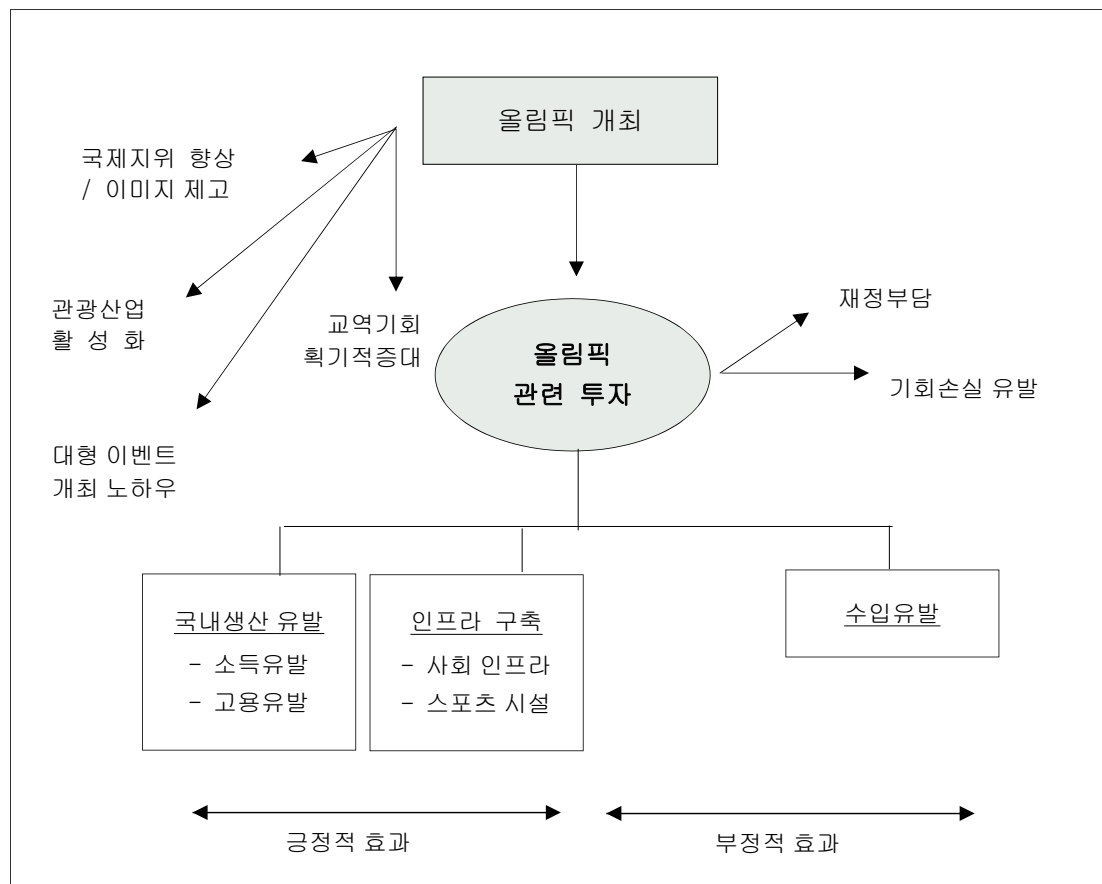
제3절 '3+15' 개발전략 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올림픽이 개최지역에 미치는 유무형 효과

- 국제지위의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효과가 크며,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나 교역기회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음(대형이벤트 개최 노하우 축적)
- 올림픽 관련투자를 통한 국내 생산 유발효과와 인프라 구축 등 경제효과
- 지방 재정부담의 가중과 기회손실 유발 및 수입유발 등 부정적 효과
- 지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와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조건

올림픽이 개최지역에 미치는 유무형 효과



자료 : 강원도(2001.2), 『2010강원동계올림픽 개최계획 타당성조사보고서』

○ 올림픽은 첨단기술의 학습장이자 훈련장

-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WINS(Wide Information Network Services)는 정보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ISDN(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
-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IT'와 '환경'을 새로운 키워드로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인터넷 등에서 첨단기술 도입
-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무공해 환경올림픽'을 선언한 이후 환경은 올림픽 정신 구현의 주요테마가 되고 있으며 나가노, 시드니 등 이후 독창적인 환경 처리 기술은 올림픽의 주요내용으로 부각
- 특히 동계올림픽은 자연을 활용한 겨울스포츠라는 점에서 하계올림픽보다 더욱 기술 집약적이며 특히 환경부문에 있어서 핵심역량이 필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균형발전 도모

- 도시에서 치러지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지형적으로 산간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 할 산간지역 활성화 효과 기대
- 산업구조가 취약한 강원도 지역경제의 특성으로 강원도에 대한 투자는 국토 전체에 대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투자효과가 '3개' 경기장 소재 시군만이 아니라 '15개' 비개최 시군까지 경제효과가 파급되도록 개발계획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

○ 추진과제

- 동계올림픽 특구를 통한 전략거점 개발 : 3개 개최 시군에 대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 * '동계올림픽특구' 개발은 복합적 의미와 효과를 가진 올림픽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집약적으로 발생시켜 강원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전파하는 전략거점의 역할 기대
- 도내 15개 시군과 개최지역의 전후방 연계전략 추진 : 개최지역의 지역경제 여건상 대회개최에만 집중하다보면 올림픽 유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전국으로 흩어져 분산되면서 대회 이후 지역에는 부정적 효과만 남을 가능성 상존
- 따라서 대회개최에 따른 긍정적 효과발생을 계획적으로 촉진하고 지역에 흡수하여 파급시키는 전략거점(특구)과 15개 시·군간 산업·문화·사회적 연계관계의 촉진을 통하여 파급효과가 도내에 분산되도록 하는 전략 필요

2. 세부추진과제

〈1-3-1〉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요

대회일자	2018. 2. 9(금) ~ 2. 25(일)
개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일원 : 주선수촌, 스키점프, 썰매, 바이애슬론 등 피닉스파크 : 스노보드 경기장 ▪ 강릉 : 제2 선수촌, 모든 빙상경기장 입지 ▪ 정선 중봉지구 : 활강 및 슈퍼대회전 경기장
교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강릉복선전철 신설(66km), 국도·지방도 개선(약 129km) 등
총 직접투자비 (대회운영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및 도로 4조7천억원, 선수촌 8165억원, 기타 1조 7천억원 ▪ 경기장 건설 및 보수 1조5천억원 등 총 8조7천억원 규모(2010년 가격)

자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비드파일

○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파급효과 확산

- 혹자올림픽,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민생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휴먼웨어 올림픽의 성취
- 개최 지역만의 행사효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강원발전의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 간 산업연관관계 강화
- 올림픽시설의 사후 지역발전 자산화

- 지역의 문화중심으로 올림픽 파크 조성(메달프라자, 교류·소통공간, 상가 등)
- 올림픽 유산 관리기금 조성으로 사후시설 활용의 활성화
- 대관령 국제음악제, 국제영상, 아트페스티벌 등 지속개최로 문화예술 중심지화 추진
- 경기장 전체 신재생에너지화(100MW 풍력발전단지 조성)

○ 올림픽 관련 경기장, 비경기장 시설확충 추진(총 8조7596억원)³¹⁾

- 경기장 시설(1조5천억원) : 총 13개 경기장 중 7개 경기장은 기존시설 보완·활용, 6개 경기장 신설
- 비경기장 시설(2조 5165억원) : 선수촌, 미디어촌, IBC/MPC, 숙박시설(민자 포함)
- 접근 교통망(4조 7,431억원) : 원주~강릉 철도, 올림픽 IC신설, 국도 59호, 순환도로 등 15개 사업

31)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올림픽 경기장 시설 개요

구분		대회시설		대회 기간중 활용	대회 후 활용
기존 7개 경기장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점프		· 수용능력: 11,000석 · 개폐회식장 활용	· 전망대, 축구장, 야외공연장
		크로스 컨트리		· 수용능력: 5,000석	· 골프장, 사격장, 하이킹
		바이애슬론		· 수용능력: 5,000석	· 골프장, 익스트림, MTB · IBU 월드컵('08) 및 세계선수권대회('09)개최
	용평리조트	알파인		· 수용능력: 6,000석	· 국제경기장 및 스키장
	보광휘닉스파크	프리스타일/스노보드(보완)		· 수용능력 : 4,000석 · 사업비 : 122억원 (보완공사)	· 스키장
	강릉체육시설단지	컬링(보완)		· 수용능력 : 3,500석 · 사업비 : 50억원	· 시민 생활체육시설 · '08년 쇼트트랙, '09년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신설 6개 경기장	정선중봉일원	활강/슈퍼G		· 수용능력 : 6,000석 · 사업비 : 885억원 · 건설주체 : 강원도	· 국제경기장 및 산악트래킹
	알펜시아리조트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 수용능력 : 1,000석 · 사업비 : 809억원 · 건설주체 : 강원도	· 훈련장 및 레크레이션 시설
	강릉과학산업단지	스피드스케이팅		· 수용능력 : 8,000석 · 사업비 : 1,161억원 (LEED인증추진) · 건설주체 : 강릉시	· 훈련장, 컨벤션센터
	강릉체육시설단지	피겨/쇼트트랙		· 수용능력 : 12,000석 · 사업비 : 942억원 (LEED인증추진) · 건설주체 : 강릉시	· 다목적 경기장, 시민체육관
	강릉체육시설단지	아이스하키 I		· 수용능력 : 10,000석 · 사업비 : 802억원 · 건설주체 : 강릉시	· 원주시로 이축 (이전비 USD 33mil)
	강릉영동대학	아이스하키 II		· 수용능력 : 6,000석 · 사업비 : 665억원 (LEED인증추진) · 건설주체 : 강릉시	· 학생·시민체육시설

★ LEED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친환경건물 인증)

올림픽 관련시설 개요

대회시설		대회 기간중 활용	대회 후 활용
IBC/M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60,000(2층 구조) • 사업비 : 450억원 • 건설주체 : 강원도개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아카데미, 의료/교육 센터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로 활용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계획 : 16,307실 (IOC기준 12,825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확보 12,049실 - 추가확보 4,258실 (호텔, 콘도 등 민자) • IOC패밀리, 국제경기연맹, 스폰서, 미디어 등 사용 	-
선수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계획 : 3,223실 (IOC기준 : 3,100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1,818실 (콘도, 한국포에이 그룹) - 강릉 1,405실 (아파트, 대한토지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 리조트 임대활용 • 강릉 : 대회이후 민간분양
미디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계획 : 10,500실 (IOC기준 : 9,975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 5,250실 (콘도, 강원도개발공사) - 강릉 5,250실 (아파트, 대한토지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을 위한 주거시설로 활용
Celebration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계획 :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횡계도심) - 강릉(강릉체육시설단지) • 메달플라자, 라이브사이트 	-
올림픽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미정 - 외국인 의료기관, 외국대학 - 외국인 연구기관, 면세점, 동계연관산업 등 	-

○ 주요 올림픽 관련 클러스터 구축

- 알펜시아 클러스터 : 대부분의 설상 경기장, 선수촌, IOC 본부호텔, 올림픽스타디움, IBC/MPC, 미디어촌이 설치되어 모든 올림픽 활동의 중심

구 분	위 치	대회 시	대회 후	비 고
알펜시아 클러스터 (올림픽 시설물)	알펜시아	올림픽 스타디움	스키점프 및 축구장 활용	리조트 및 레저기능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능 (정주성 / 자족기능 결여)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경기장	동계 : 기존 기능 활용 하계 : 산악트레킹, 골프코스	
	알펜시아 근처	슬라이딩 (봅슬레이, 루지) 경기장	동계 : 기존 기능 활용 하계 : 체험·견학코스	
	횡계 일원	IOC 본부호텔	상업숙박시설	
		선수촌	상업숙박시설	
		미디어촌	상업숙박시설	
		IBC/MPC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MMC	임시시설	

- 코스타(Coastal) 클러스터 : 빙상활동의 중심지로 모든 빙상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이 설치되어 모든 빙상활동의 중심

구 분	위 치	대회 시	대회 후
코스타 클러스터	강릉빙상장	컬링경기장	기존기능 사용
	코스타 클러스터 체육단지	피겨/쇼트트랙	빙상장, 문화체육시설
		아이스하키 I 경기장	원주 이전 후 아이스하키 전용경기장
	강릉 영동대학	아이스하키 II 경기장	대학 체육시설
	강릉과학산업단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시장
	강릉일원	강릉선수촌	민간주거시설
		강릉미디어촌	민간주거시설

- 2개의 독립경기장 : 알파인(스피드)경기장은 올림픽스타디움으로부터 30분(45km) 거리인 중봉에 위치, 프리스타일과 스노보드 경기는 역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부터 30분(44km)거리인 보광휘닉스 파크(기존시설)에서 개최

구 분	위 치	대회 시	대회 후
독립 경기장	정선 중봉	활강 및 슈퍼 G(슈퍼대회전)	기존 기능 활용
	보광 휘닉스파크	프리스타일스키 및 스노보드	기존 기능 활용

○ 스마트 올림픽 구현

- IT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스마트 올림픽으로 개최
- 스마트 올림픽 도시 구축
- 문화관광자원 디지털 콘텐츠 최적화 추진

<1-3-2> 올림픽특구의 지정과 활성화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인근지역과 강릉을 동계올림픽 특구로 개발
 - 동계올림픽 개최와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올림픽 특구」 추진, 미화 100만불, 한화 10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
 - 외국인 교육/의료기관 허가, 면세점 등 외국인 정주/관광기반 조성
 - 올림픽 연계 기능적 특구(예, 인접 리조트권, 강원남부권 등) 지정검토

도입 기능	도입 시설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시설(기존7개, 추가건설 6개) ▪ 올림픽스타디움, IOC본부호텔, 선수촌, 미디어촌, IBC/MPC, MMC, 동계올림픽공원(수목원), 동계스포츠트레이닝센터, IOC 아시아지역 사무소, 전지훈련장, 스포츠전문 아카데미
관광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령고원 생태관광단지, 천상의 화원, 승마타운, 헬스케어타운, 전시 컨벤션산업, 가상 동계올림픽 게임·영상 체험관, 캠핑장, 관광열차, 대관령 둘레길, 곤돌라 등 ▪ 동계올림픽박물관, 아트파크(반비캐릭터 뮤지엄, 고원 open-air 미술관등), 복합공연장, 디자이너 창작센터
산업 ·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단지(스포츠용품산업, 그린 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 동계스포츠장비 생산클러스터, 외국인임대전용단지 ▪ 동북아 중 보존 R&D센터 • 스포츠과학연구센터 • CT World
도시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주거단지(Happy700 Alps Town), Anti-Aging Town, 외국인 임대 주택, Creative Town, Eco-Health Village ▪ 올림픽타운(고급쇼핑센터, 음식점, 복합휴양시설), 면세점, 카지노, 대형 쇼핑몰(명품아웃렛) ▪ 글로벌 초중고등 학교, 외국인 병원, 외국인학교 ▪ 녹색교통(전기BRT, CNG 버스), 저탄소 녹색전용도로(10km)

- 올림픽 성공개최 후 동계 스포츠 및 관련산업 허브로의 육성 도모
 - 특구 내에 스포츠아카데미를 비롯한 훈련 및 운동 치유시설 설치
 - 도내 각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용품산업 육성
 - * 춘천 영상단지와 연계한 스포츠 영상강습 프로그램 개발, 동해안 경량신소재(티타늄과 철 또는 니켈, 코발트 합금 등)와 연계한 골프장비 제조업 등
- 올림픽역 역세권 연계 개발
 - 횡계 및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도시거점 형성
 -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원주~강릉 복선전철 각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발전
- 올림픽 이후 시설활용을 고려하여 설계단계부터 반영

- 특구는 올림픽 이후 시설활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
 - 올림픽 이미지 지속을 위한 국제대회 유치
 - 올림픽 시설의 테마화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올림픽 테마 관광상품 개발/운영
 - 외국인 올림픽 관광객 윈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IT기술을 활용하여 입국~관람~출국까지 일괄적인 예약, 관람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알펜시아의 MICE산업 거점기능 강화
 - 알펜시아 시설의 강점은 훌륭한 수준의 컨벤션 시설과 콘서트홀
 - 대관령음악제 위상강화와 컨벤션 기능 확충을 통한 고원 MICE산업 거점화

〈1-3-3〉 15개 시군에 대한 전후방 연계전략 추진

- ‘3+15’전략개발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개최도시 3개 시군의 ‘동계올림픽성공개최를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 배후도시 15개 시군의 ‘동계올림픽성공개최를 지원하는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 두 협의회를 묶어서 ‘3+15’전략개발협의회 구성

< 협의회 역할 >

- 시군별 특성과 연계하여 전후방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발굴, 상호협력방안 모색
-

- 산업간 연계전략 추진
 - 시군 장점·대표산업과 경기장 건설 및 올림픽 수요와 연계, 상생발전 추진
 - * 춘천 바이오산업과 연계 :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처리시설업체가 경기장 주변 호소 및 연못 등 정화시설 설치 등
 - * 삼척 유리공예산업과 연계하여 올림픽 조형물, 상징물 사업 추진 등
 - * 폐광지역 스포츠 과학산업단지 조성과의 연계 등
 - * 동해, 평창, 정선을 연계한 친환경 건축자재 산업 육성
 - 건설자재, 식자재 등 자재납품, 건설업 등 지역별로 연계 활성화
 - 각 지역이 보유한 인적자원, 문화자원, 시설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는 전략
- 올림픽특구와 연계하여 각 시군별 산업을 특화시킬 ‘전략기능특구’ 개발추진
 - 각 시군별 강점산업, 문화전통산업 등 올림픽 브랜드를 창출할 특화단지

〈1-3-4〉 '올림픽 스테이' 체제 구축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숙박시설 운영계획 수립

- 선수촌 2개소 3,223실 : 대회 이후 민간 분양 계획
 - IOC가 요구하는 23,300실 : IOC 패밀리, 국제경기연맹, 스폰서, 미디어 등
 - 관람객 숙박 100,000실 : 호텔, 콘도, 연수원, 펜션, 홈스테이 등이 분담
- * 대규모 숙박시설 부족으로 펜션, 홈스테이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강원도 민박(기존 펜션개념 포함)과 관광펜션의 현황

- 농어촌 민박은 124개 읍면동에 총 5,342명의 사업자 등록 : 주로 강릉,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과 몇몇 내륙지역(춘천, 홍천, 인제, 평창, 정선)에 집중된 형상
- 관광펜션은 전국 184개소 중 43개소로 제주도(44개소)와 비슷한 수치

○ 강원도 소규모 숙박시설의 비교우위 확보가 관건

- 콘도 및 자율식사의 숙박형태가 주도적인 내국인 관광과 달리 해외관광객들은 숙박, 음식,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호텔식 B&B 서비스 시스템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필수
- 올림픽 개최지역과 서울·수도권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볼 때 올림픽 관람객들이 서울·수도권의 더 좋은 숙박 환경을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숙박 환경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 수정 필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강원도 차원의 펜션 개념 정립

- 민 박 : 숙박 제공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민가가 임시적·계절적으로 행하는 숙박 영업으로 규정
- 펜 션 : 호텔의 서비스 편의성과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춘 소규모 고급 숙박시설

○ 강원도의 소규모 숙박시설 인증 브랜드 “올림픽 스테이(Olympic Stay)”확립

- 강원도의 소규모 숙박시설의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 표준화 노력
- 인증된 소규모 숙박시설들의 네트워크 형성

○ 펜션의 B&B 서비스는 기본이 되도록 표준화

- 펜션 자체의 조식 서비스 역량 강화 가능성 모색
- 마을기업을 통한 조식서비스 배달
- 펜션 밀집지역의 경우 거점 레스토랑과 연계

○ 소규모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

- 표준화된 식단 및 식사서비스 제공
- 침구류(이불, 베개 등) 공동세탁 등 객실환경에 대한 공동 위생관리 서비스 지원
- 계절별 특화된 농·특산물 판매 및 구매 대행 서비스
- 마을의 보건소와 연계한 응급치료 시스템 구축

○ 효율적 행정지원

- 시·군별 또는 권역별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 통합 QR코드 마케팅 추진
- 통합 예약 및 결제 시스템 운영
- 숙박업 종사자들의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육 실시 및 교육비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방문객의 의사소통과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1330TT 콜센터 프로그램과 네트워크화 및 도내외 외국어 능력자들을 활용한 외국어 통역지원 시스템 구축
- 참가 국가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사전 정보와 지식습득으로 특화된 숙박업소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숙박시설의 이미지 업그레이드 추진

〈1-3-5〉 강원 '스포테인먼트'의 육성

○ 스포츠산업은 스포츠미디어, 스포츠�관광, 건강산업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

-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발전, 관전스포츠의 일상화, 골프·스키 등 여가나 레저에 대한 욕구 상승과 함께 스포츠 분야는 점차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³²⁾)로 진화

32) 스포테인먼트 : Sports와 Entertainment의 합성어. 스포츠와 오락성의 융합개념

-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보람의 장을 제공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
 -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 스포테인먼트 발전의 기회 요인
 - 연상소비를 통한 지역 발전 극대화 가능 : 평창 → 동계스포츠 → 건강 → 음식, 레저 스포츠,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원 스포테인먼트 추진 기본방향

① 평창 신드롬 만들기

- 동계스포츠라는 신비성에 대한 호기심 유발
- 선수들의 감동적인 성공스토리 소개

② 동계스포츠 고정 수요층 확보

- 서포터즈 - 자원봉사 - 멤버십화
- 동계올림픽 G-4년부터 모집되는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교육·훈련자를 선정하여 동계스포츠 마니아 육성
- 동계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평창 거점 조성

③ 사계절 매력적인 이벤트 창출

-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사계절 관광상품 개발
 - 봄 : 전통놀이와 결합된 스포츠 이벤트
 - 여름 : 뉴스포츠 이벤트
 - * 예 : 스피드민턴(배드민턴과 테니스, 스쿼시를 합친 가족형 운동)
 - 멀리 나는 인간새 경기대회(잉글랜드 남해안의 해안도시에서 매년 개최)
 - 바이크 싸커 대회(사이클 볼이라 불리는 자전거와 축구가 혼합된 스포츠)
 - 로드워리어스(레이크 플래시드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 가을 : 가족 및 전문동호인 대상의 이벤트
 - 겨울 : 동계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이벤트
- 스포츠 테마파크(건강진단+건강식+맞춤형 운동 및 마사지+쇼핑) 신설

④ 주민주도형 스포테인먼트 활성화

- 동계올림픽 지역관광 발전 위원회 결성
 - 주민이 운영하는 스포테인먼트 전문 여행사 창설
 - 스포테인먼트 포털사이트 운영
 - 평창지역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콘텐츠로 부가가치 창출
-

<1-3-6> 평창 『녹색올림픽도시』 추진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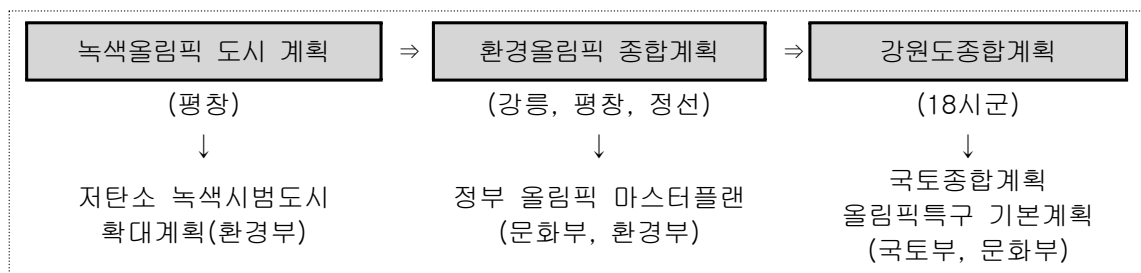
- 1991년 올림픽헌장 수정(IOC), 올림픽 유치도시 「환경보호계획」 의무화
 ⇒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부터 「환경올림픽」 이념 구현
 [올림픽 3대정신 → 스포츠·환경·문화]
- 2018동계올림픽 유치 계기,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평창확대 제안
 * 2011.7.21. 환경올림픽 추진계획(안) 협의 시(환경부)

○ 계획개요

- 기간·대상 : 2012~2017(6년), 평창군 일원
- 사업내용 : 5개 분야 21개 단위사업(물·자원순환, 생태 및 녹색관광, 그린에너지, 친환경교통, 녹색생활)
- 소요예산 : 2,133억원(국비 1,493, 지방비 636, 민자 4)

○ 추진전략

- 정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확대계획」 및 「환경올림픽 개최계획」 연계 정부종합 계획화 추진
- 도 전역 균형올림픽에 기여



○ 추진경과

- 2012년도 국비예산 협의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확대 제안(환경부) : '11.7월
- 친환경올림픽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환경부+도+평창군) : '11.8월
- 평창 「녹색올림픽 도시」 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1.8월
- 평창 「녹색올림픽 도시」 국비예산 확보방안 협의(환경부) : '11.8월
- 평창 「녹색올림픽 도시」 추진계획(안) 수립 : '11.9월
-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道 실무추진단」 운영 : '11.10월

○ 평창 녹색올림픽도시의 목표 및 전략의 구조



○ 분야별 사업내용

→ 총 21개사업 2,133억원(국비 1,493 지방비 636 민자 4)

분야	사 업 명	추진기간	총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21사업)			213,268	149,287	63,541	440	
물·자원 순환 (6사업)	소 계		142,380	99,666	42,71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	'13	2,100	1,470	630		신규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선진화사업	'13	2,500	1,750	750		신규
	2018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정비·확충사업	'13~'16	54,000	37,800	16,200		신규
	석면함유 농촌빈집 철거사업	'13~'17	2,100	1,470	630		신규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개발 및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3~'15	81,080	56,756	24,324		신규
	물 관리 프로젝트사업	'13~'14	600	420	180		
생태 및 녹색관광 (7사업)	소 계		34,194	23,935	10,259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생태모니터링사업	'13~'19	1,600	1,120	480		신규
	창수동 비밀의 화원 조성사업	'13~'16	7,913	5,539	2,374		신규
	질외늪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13~'14	200	140	60		신규
	삼림욕장(오대산명상의숲길) 조성	'13~'14	800	560	240		신규
	녹색경관 조성사업	'13~'17	20,081	14,056	6,025		신규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3~'14	2,000	1,400	600		신규
	산림욕장 조성·관리사업	'14~'18	1,600	1,120	480		
그린 에너지 (3사업)	소 계		11,494	8,046	3,008	440	
	올림픽마을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13~'16	4,400	3,080	880	440	신규
	설빙에너지 시스템 추진사업	'13~'16	2,000	1,400	600		신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사업	'13~'15	5,094	3,566	1,528		신규
친환경 교통 (2사업)	소 계		9,100	6,370	2,730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사업	'13~'17	5,100	3,570	1,530		신규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사업	'14~'15	4,000	2,800	1,200		신규
녹색 생활 (3사업)	소 계		16,100	11,270	4,830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13~'16	4,000	2,800	1,200		신규
	생태환경 우수마을 조성사업	'13~'17	7,500	5,250	2,250		신규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13~'16	4,600	3,220	1,380		신규

제4절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기반 확충

1. 실태와 추진과제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SOC 기반 구축이 전제조건
 - 쾌적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결정적 역할
 - 특히 올림픽 시설 간 연계교통기반 확충이 중요
- 현재 올림픽 개최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원주~강릉간 철도와 공항 연계체계 계획도 확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
 -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원주~강릉간 철도개설 효과의 극대화
 - 올림픽 개최지역이 평창, 강릉, 정선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들 경기장간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
 - 또한, 이렇게 구축되는 광역기간 교통망과 강원도 타 지역의 연계체계 구축도 과제
- 추진과제
 - 양양공항과 광역기간 교통망 확충
 - 동계올림픽시설 접근도로 확충

2. 세부추진과제

〈1-4-1〉 양양공항과 광역기간교통망 확충

- 양양국제공항의 올림픽 주 공항 지정과 공항시설 및 접근망 확충
 - 양양국제공항을 올림픽 주 공항으로 지정
 - 점보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시설 연장 및 공항시설 확충
 - 원주~강릉 철도를 양양공항까지 연계 구축
 - 공항과 선수촌 및 경기장과 접근망 체계 구축

○ 광역권간 두시간대 생활권 및 거점도시와 인근지역 간 네트워크 연결

- 경기장으로부터 주요 광역간선도로와 30분대 접근성 확보
- 고속의 광역기간 교통망 조기구축
- 수도권, 충청·호남권, 대경·영남권 및 도내연계망 구축
- 원주공항을 올림픽 보조공항으로 활성화

○ 환동해 지역으로부터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교통·물류망 구축

- 장기적으로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 철도망, 아시안 하이웨이 등 육상교통망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
- 동해항, 속초항 크루즈 페리 등을 활용한 해양 접근망 체계 구축
- 원주~강릉 철도와 동해항 연계 등 환동해 및 남북중단의 고속교통망 구축

철도망 구축

철 도	□ 8개소 12조 8,71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서울(강남)~여주~원주~강릉 : 중앙선 복선전철 및 원주-강릉 신설 ▪ 서울(강북)~춘천~속초 철도망 구축 ▪ 원주~제천, 강릉~제진, 용문~(홍천)~춘천 철도개설 ▪ 제천~쌍용간 철도(단선 --> 복선) 확충

고속도로 확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건 의내용 등	비 고
5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8.95km ▪ 9조 3,159억원 	▪ 기투자 13,805억원, 실소요 79,354억원	
제2영동고속도로 (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6.95km ▪ 11,577억원 	▪ '11년 하반기 착공 건의 - 금융권 자금조달 협의중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7km ▪ 27,177억원 	▪ '15년 개통 건의 - 서울~춘천(61.4km) '09.7.15개통, - 춘천~동홍천(17.1km) '09.10.30개통 (총 27,177억원→기투자 8,354억원)	
동해고속도로 (주문진~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1km ▪ 7,025억원 	▪ '15년 개통 건의 * 주문진~하조대(15.4km) '09.12개통 * 하조대~속초(28.7km) 5개공구 추진중 (총 7,025억원→기투자 3,939억원) * 속초~고성(16.6km) 착수추진	경기장연계 고속 수송 주요 인프라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km ▪ 6,200억원 	▪ '15년 개통 건의 (총 6,200억원→기투자 1,512억원)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 8차로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7.6km ▪ 41,180억원 	▪ 이용객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지정체 해소를 위해 조기 확장 건의	



자료 : 강원도(2011.8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따른 강원 SOC 2020 비전과 전략」

〈1-4-2〉 동계올림픽 시설 접근도로 확충

- 동계올림픽의 핵심시설은 경기장, 경기운영시설, 선수촌 및 교통거점시설임
 - 핵심시설 간의 효율적 접근체계는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가 담당
 - 교통거점시설은 양양공항, 원주공항 등 도내 공항과 철도역, 고속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의 기종점이나 정차역, 그리고 항만 등을 말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축은 4차로인 영동고속도로가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체 노선으로 국도 확충이 필요
 - 국도 6호선, 31호선, 42호선, 59호선의 모든 노선이 2차로로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해당구간의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도 42호선의 경우 1일 교통량이 1만대를 육박하는 등 급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할 만한 노폭의 확장이 요구되는 상황

동계올림픽시설 연결국도 실태

대상도로	위치	차로수	교통량 (대/일)	연계도로	동계올림픽시설과 의 연관성
국도 6호선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	5,019	지방도 456호선	스노보드 개최지 연결도로
	횡성군 둔내면 둔방대리	2	7,232	영동고속도로 둔내 IC분기	
국도 31호선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2	7,412	국도 42호선	영동고속도로, 국도 6, 42호선 최단 연계도로
	영월군 북면 문곡리	2	3,471	국도 38호선	
국도 42호선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2	9346	영동고속도로 원주 IC주변	원주구간 지체시 유일한 대체 노선
	평창군 평창읍 상리	2	4,387		
국도 59호선	정성군 정성읍 덕우리	2	3,700	지방도 424호선	알파인스키장 연결도로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	3,450	국도 6호선	

자료 : 국토해양부(2011), 2010 도로교통량통계연보

- 수도권과 1시간대, 경기장간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교통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는 개별 교통수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유로운 이동과 목적지에서의 편리성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 이러한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수도권에 인접한 영서 내륙권의 경우는 이미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제2영동 고속도로의 조기 확충 필요성 제기

- 해외 올림픽 참가자들의 신속한 수송을 위하여 간선 고속교통망의 확충 이외에 경기장간 또는 숙소 및 휴식공간까지의 접근성을 확보 필요
 - 경기장간 연계 노선으로 중봉 활강경기장 진입로인 국도 59호선과 보광휘닉스 스노보드 경기장 및 주경기장(알펜시아)의 최단거리 접근로인 국도 6호선의 조기 확충
 - 국도 31호선(영월~장평)과 국도 42호선(원주~방림) 등 경기장 접근로의 연계 및 대체도로도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수도권에서 보광피닉스 경기장 연결도로인 국도6호 우천면 용둔~둔내면 둔내IC 구간 및 도계~횡성구간에 대한 확포장 개선사업 추진
 - 환동해국가 등 인접국가들의 해운을 통한 접근체계 확충

- 주요 교통거점시설과 경기장 및 선수촌 등 시설연계체계 구축
 - 특히 양양국제공항과 주요 경기시설간 연계망 확보가 중요
 - 시내버스 체계를 광역교통과 연계되는 순환체계로 구축하여 평상시에도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로 제공
 - 중봉 경기장과 정선 카지노의 연계 국도망 확충

올림픽 관련 주요국도 사업 추진

구분	사업명	사업량	추진계획	비 고
		사업비		
계	18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1.1km 3조 5,80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투자 2,631억원, 실소요 33,176억원 	
6호	둔내~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5km 1,59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주경기장 연결도로
	무이~장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km 78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장평~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8km 1,76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진부~연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6km 6,21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 연곡~두능(13.0km, %) (총 6,212억원→기투자 649억원) 	
	도계~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km 49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년 착공 건의 - 실시설계 완료('10.5) 	
7호	망상~옥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km 8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 '11상반기 착공(총 840억원→기투자 45억원) 	
31호	영월~방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2km 1,26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기간내 개통 건의: 총공정 8% (총 1,262억원→기투자 212억원) 	주경기장 연결도로
	영월~방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km 99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기간내 개통 건의: 총공정 35% (총 991억원→기투자 425억원) 	
	영월~방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5km 2,01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년 착공 건의 - 실시설계 완료('04.12) 	
	방림~장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km 1,4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38호	동해~삼척 대체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km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개설 건의 	연 계 도로
42호	원주~새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0km 1,84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주경기장 연결도로
	새말~안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km 7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기간내 개통 건의 - 총공정 80%(총 715억원→기투자 613억원) 	
	안흥~방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7km 1,75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정선~동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2km 8,59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 백봉령~달방댐(2차로) 실시설계중 	
59호	진부~마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km 68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 2차로 공사중(총공정 81%) (총 680억원→기투자 677억원) 	활강경기장 진입로(중봉)
	마평~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km 49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 2차로 공사중(총공정 5%) (총 495억원→기투자 10억원) 	
	막동~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km 1,88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 실시설계 완료('07.12) 	
	나전~문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7km 2,46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추진→4차로 조기 확·포장 건의 	

제5절 강원문화 르네상스 사업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관광·문화 이벤트

- 한국개발연구원(김종기 외,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1989.3)에 따르면 88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순 증가는 10만명 추산(외화소득 1억4천만 달러)
- 일본 나가노시의 평가에서도 보면, 6년 연속 감소하던 스키장 관광객이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증가로 반전하였으며, 관련 시설견학을 위한 여름철 관광객까지도 증가하였다고 함(長野市商工部, 「五輪開催が地域経済へ及ぼした影響に関する調査」, 平成 12年3月)

○ 국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이나 문화의 대외소개에 큰 역할

- 서울 올림픽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72%가 올림픽으로 인하여 체육활동 및 여가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실제로 서울올림픽 이후 선수 중심 엘리트 체육에서 일반인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변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대다수 국민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고 외국에 소개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함

서울 올림픽이 여가·문화에 미친 효과

올림픽으로 인해 사회체육, 여가활동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단히 그렇다 22.7%, 대체로 그렇다 49.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1% 대단히 그렇지 않다 3.3%, 모르겠다 9.2%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단히 그렇다 47.2%, 대체로 그렇다 44.8% 그렇지 않다 4.1%, 모르겠다 3.7%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단히 그렇다 26.8%, 대체로 그렇다 46.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9% 대단히 그렇지 않다 1.7%, 모르겠다 10.0%

자료 :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김종기 외

○ 추진과제

- 강원문화르네상스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형성
- 대표사업의 발굴과 추진

2. 세부추진과제

〈1-5-1〉 강원문화르네상스 사업 추진

○ 강원문화 르네상스 기본계획 수립

- 강원도의 정신문화와 생활문화의 근간이 되어 온 전승문화의 발굴
- 정신세계와 의식주 및 여가 등 모든 부문을 포괄
- 2012년 계획수립, 2013년-2020년 계획 실행 체계 구축

○ 동계올림픽특구에 강원문화체험관 건립

- 강원인의 정신과 역사, 문화 및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적용
- 홀로그램 등 입체영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표현
-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역할을 포함

○ 강원도 식품의 문화산업화

- 강원도 전통식품의 ‘역사성, 전통성, 문화성’ 스토리 개발
- ‘레시피의 표준화, 효능의 과학화, 맛의 글로벌화’를 지향
- ‘청정, 신뢰’의 식품재료 산업을 연계, 육성

○ 강원도 18개 시군에 르네상스 사업 추진

- 기본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 추진
- 각 시군 종합계획 및 문화관광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시군별 특성화)
- 올림픽특구에 조성되는 문화체험관에 18개 시군별 문화정체성 내용 포함

○ 시군 문화원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 구축

- 민간을 포함하여 문화자산 발굴 및 현대적 전승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르네상스 사업 네트워크 구성

- 올림픽특구 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문화 르네상스 사업주체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마다의 고유성을 살리고 중복사업을 방지하는 협의체 역할 수행

〈1-5-2〉 대표사업의 발굴과 추진

○ 대관령 「문화 클러스터」 조성

- 강원도 향토사관 건립('12~'15)
- 테마박물관 건립('12~'14), 평창군 일원(별도 결정)
- 전통민속 공연·전시센터 건립('12~'13), 평창군 대관령면
- 문화 창작마을 조성('12~'15), 지역예술인 고려 별도 선정
- 영상 체험관 건립('13~'16),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 콘텐츠 개발 등 문화올림픽 기반마련 및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 제공

○ 대관령 음악테마공원(뮤직텐트) 조성

- 알펜시아와 연계하여 공연시설로 조성

○ 강릉 아트센터 건립

- 올림픽 시설과 연계하여 조성

○ 강릉 단오제의 세계적 자원화

- 강릉 ICCN(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 단오장 확충

○ 강원 아트랜드 조성

- 춘천권을 중심으로 동계올림픽특구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거점 조성
- 영서권 최대의 세계적 창작문화예술거점 형성

제2장 고속물류·교통망 구축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국내 여객 및 물류의 경부축 편중 심화

- 전국 지역 간 여객 및 물류의 80%가 경부축에 집중, 강원권은 약 3% 수준
-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거점시설계획도 강원권은 거의 배제된 상황
- 경부축은 여객 및 물류의 집중으로 도로와 철도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여객 및 물류 경로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
- 경부축의 혼잡을 완화시키고 강원도의 지역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여객/물류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가전체적인 인적·물적 흐름의 전환이 필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권 교통·물류망의 대폭 확충 전망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고속도로 및 철도 중심의 기간교통망 확충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기간교통망의 조기 확충으로 양양공항과 수도권, 올림픽 개최지역 간의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공항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강원도는 환동해 경제권과 북방물류 루트의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

- 여객수송 및 고부가가치 물류 피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양공항이 위치, 수도권과는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 강원 북부선(춘천~속초 구간), 강원 중부선(여주~원주~강릉 구간) 철도가 착공 및 완공을 앞두고 있고, 남북축으로는 아시아 하이웨이의 주요 경로인 7번 국도와 동해고속도로 연결
- 항만은 속초, 옥계, 묵호, 동해, 삼척, 호산항 등 6개의 무역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무역항들은 북극항로 개설시 물류 리드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수도권과 강원권 항만, 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기회로 북방루트 개발을 선점하기 위한 육·해·공 물류거점기반 구축이 필요

-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동해항 부두를 15선석 → 22선석으로 추가하여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2배 증가(하역능력 2,800만 톤 → 4,065만 톤으로 증가)하도록 계획
- 동해항 인입철도(1.3km)건설계획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됨으로 항만과 철도수송의 연계성이 향상(2011-2015년 착수사업 선정)
- 삼척 호산항 북방자원 수출입관문으로 지속적 육성 : LNG기지 2015년 240만㎥, 저장탱크 12기 설치 목표, / 1단계 2013년 80㎥ 추진 ⇒ 2020년 국내 가스저장량의 16.5% 차지

- 영서지역은 원주시가 철도, 도로, 항공 교통의 결절점을 형성하게 될 전망
 - 원주공항, 영동·중앙고속도로 외에 제2영동 고속도로와 강원 중부선(여주-원주 구간), 강원 동부선(용문~원주 구간) 철도 등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가속화
 - * 원주지역의 경우 이미 다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입주를 통해 자체적인 물동량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내륙 수송의 결절점으로서 북방항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거점 기능 수행
- 도내 수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철도 등 비도로형 수송분담률 제고
 - 동계올림픽 개최와 확충될 도로망과 연계 수도권과 동해안 및 도 전역의 신속한 물류 흐름체계 구축
 - 항만, 공항, 철도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내륙물류거점 등 주요 공공물류거점에 대한 정보화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

국내 지역 간 수송분담률 변화 전망

구 분		2008년	2020년
		분담률(%)	분담률(%)
국내 지역간 여객 (백만인-km/년)	도로	81.4	69.3
	철도	15.9	27.3
	항공	2.5	3.2
	해운	0.2	0.2
	계	100.0	100.0
국내 지역간 화물 (백만톤-km/년)	도로	71.1	60.2
	철도	8.1	18.5
	항공	0.1	0.1
	해운	20.7	21.2
	계	100.0	100.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9년 「국가 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제12권
국토해양부(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 목표와 계획지표

- 강원도의 새로운 인적·물적 흐름과 바람직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
 - 인적·물적 흐름을 방해·분산하는 단절된 교통·물류 체계의 질적 개선
 - 철도, 항공, 해운수송의 집결지를 중심으로 물류 복합지원기능을 제공하는 물류체계의 구심점 구축

○ 계획지표

지표	2010	2015	2020
전국 여객 및 물류흐름 강원권 점유율	3%	4%	5%
항만물동량	3,800만톤	5,220만톤	7,010만톤
철도연장 (철도복선)	370km (2011: 28km)	375.6km (48km)	626.1km (172km)
고속도로 연장	339km	347km	584km

3. 계획과제

- 북극항로의 개척과 강원권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 경부축과 서해안축으로 흐르는 국토의 물류를 동해안축에서 분담할 수 있는 ‘포트 비즈밸리’ 건설 추진
- 일자형 철도망 구축
 - 원주~강릉간 철도 신설로 강원도의 철도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
 - 장기적인 강원도 순환연계형 철도망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
- 공항기능 활성화
 -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공항시대 개척
- 광역경제권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 타권역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하여 강원권의 대외위상과 대내 응집력 강화
- 국토종단 내륙물류축 개발(중앙고속도로축의 내륙물류축 형성 추진)

제2절 북극항로의 개척과 강원권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1. 실태와 과제

○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

- 북극해는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선박의 항로 이용일수가 연중 100일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등에서는 이미 상업운항에 성공
-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극 지역 운항선박 안전기준’ 제정 결정 및 조선업계의 내빙 선박기술이 완료됨으로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결
- 크루즈페리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운항하기 위해 기존 수에즈 경유항로 대신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거리 4000km, 수송비 15%, 운항소요 시간 10일 단축

북극항로 대 수에즈운하 경유항로 선박 화물운송 비용요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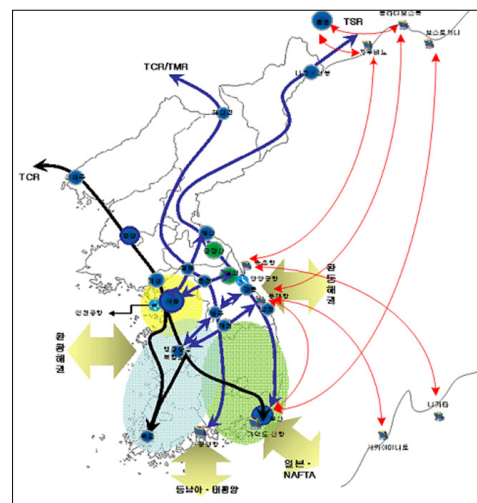
기준	북극항로	수에즈운하	시베리아횡단철도	항공운송
운송거리(km)	12,000	16,000	8,600	7,000
운송소요기간(일)	18-20	28-30	18-20	2
주당 운송용량(TEU)	72,000	124,800	1,980	832

자료 : J. Verny & C. Grigentin, *Container Shipping on the Northern Sea Route*, 2009

북극해 항로 및 수에즈 운하이용 항로도



환동해권 주변 물류 흐름도



○ 국내 무역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현황

- 국가지정 28개 무역항의 2008년 총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은 1,793만 TEU로 2000년 이후 연평균 8.7%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대비 항만시설(선석) 확보율은 90% 수준을 유지
 - * 국내 항만육성 정책이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으로 한 투포트(Two-port)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항만 체선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약 5조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

○ 강원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현황

- 2008년 기준 강원도 5개 무역항(동해, 속초, 옥계, 묵호, 삼척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은 7,640TEU로 전국 대비 0.04% 수준. 2001년 이후 연평균 15.2%의 꾸준한 성장세
 - * 동해항 4,333TEU(56.7%), 속초항 3,307TEU(43.3%)
- 강원도 항만 하역비(톤당)가 840원(국가평균 780원), 부산항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부두확장과 노후화된 하역장비 교체 필요

전국 주요 무역항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추이

항만명	2001년(만 TEU)	2008년(만 TEU)	연평균 증가율(%)	전국대비(%)
부산항	807	1,345	7.6	75.0
인천항	66	170	14.4	9.5
평택·당진항	2	36	49.7	2.0
광양항	89	182	10.8	10.2
포항항	-	-	-	-
울산항	26	40	6.5	2.2
강원도 (5개무역항)	0.28	0.76	15.2	0.04
전국	999	1,793	8.7	

- 강원지역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가능항만이 동해항과 속초항에 국한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부족하고, 하역장비가 노후화
 - * 정부는 부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무역항으로 활용할 계획

○ 2011년 7월 발표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동해·묵호항(국가 관리항), 호산·삼척·옥계·속초항(강원도 관리항) 등 총 6개의 강원권 무역항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 동해·삼척·옥계항은 시멘트, 속초항은 크루즈 및 마리나 연계관광, 호산항은 LNG 중심의 에너지 항만으로 육성하도록 계획
- 항만시설 확장계획은 유일하게 동해항 확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국가항만계획상 강원권 무역항의 비전 및 육성목표

항 만	비 전	육성목표
동해·묵호항	영동권 수출입 전진기지	- 3단계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설부족 해소 - 묵호지구를 관광 및 여객기능 중심으로 육성
호산항	에너지 산업지원항	- 배후발전단지 및 LNG 인수기지 운영지원
옥계항/삼척항	시멘트 산업지원항	- 시멘트화물의 원활한 연안수송 지원
속초항	동해권 여객 및 관광 거점항	- 여객부두 확충을 통해 북방교역 확대대비 - 친수공간, 마리나 확충 등 해양관광 거점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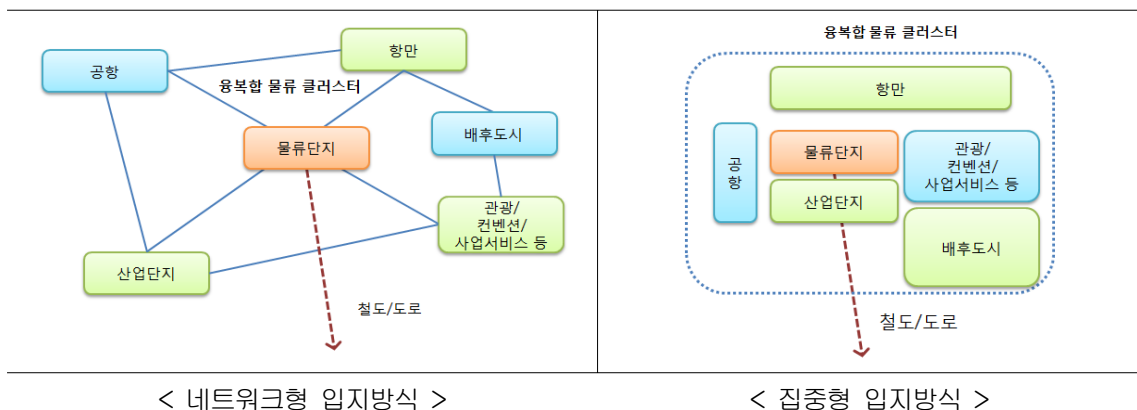
○ 추진과제

- 강원권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 국제해운항로 특성화와 항만시설 정비·확충 및 북극항로거점기지 개발
- 북극에너지 자원수송관련 삼척 에너지단지의 지속적 역할강화 추진

2. 세부추진과제

〈2-2-1〉 강원권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 강원권 융복합 물류 클러스터의 조성방식은 네트워크형과 집중형 입지방식을 고려
 - 네트워크형 : 기존의 항만·공항·물류시설에 대하여 도로와 철도로 연계체계를 보강, 분산 입지시키는 방식(핵심물류지원기능은 주요 교통결절점 중심)
 - 융복합 물류 클러스터의 응집력은 떨어지지만 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넓은 지역에 대한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함
 - 집중형 : 여러 교통망이 집결하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입지방식
 - 클러스터의 응집력은 높지만 지역에 부족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필요



○ 환동해 및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물류항/공항 역량 강화

- 항만은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부족하고, 하역장비가 노후화 되어 선석 추가(동해항) 및 장기적 관점에서 신항만 조성이 필요
- 공항의 경우 양양, 원주공항 모두 대형 여객·화물수송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장이 필요

○ 권역별 역할과 기능이 특화된 물류거점 형성

- 동해안권은 기존 항만들의 기능을 특화시키고, 양양공항, 철도, 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후지원 거점을 조성하는 네트워크형 입지방식 추진
 - * 속초항 : 크루즈 관광, 묵호 : 관광항, 동해·옥계·삼척항 : 벌크화물 중심, 호산 : 북방자원 수출입관문
- 수도권 전철과 중앙선 교차점인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내륙물류기지(ICD), 대규모 집객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집중형 입지방식으로 추진
- 투자는 민관 합동방식의 개발을 검토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핵심 집객시설 유치를 통한 물류 서비스 복합 거점화

- 물류의 유입만이 아닌 사업 서비스, 관광, 컨벤션, 가공, R&D 등 복합적인 지원기능 강화 필요
 - * 유동인구 증가 → 수요기반 확대 → 소비자/사업서비스 집적 → 물류지원기능 향상의 선순환 유도
- 핵심 집객시설 유치를 위해 여객수송을 활용한 하이엔드 쇼핑몰, 예술작품시장 등 차별화된 집객력을 갖는 수요 창출형 집객시설의 결합이 효과적

○ 교통수단/물류지원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할 수 있는 철도 중심(동해 북부선)의 교통시설, 양양 공항과 항만, 물류시설들을 연결하고 물류/생산 지원시설 설치
-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 원활한 여객/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통합적 물류/여객 관제시스템 구축



〈2-2-2〉 국제해운항로 특성화

- 극동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수송 증가로 북극항로용 항만수송거점 구축 필요
 - 동해항~로테르담항 해상운송시간 : 부산~로테르담 보다 2일 이상 단축가능
 - * 수도권 → 동서고속도로+철도 →강원도 항만 →북극항로 →유럽(수도권-유럽간 최단거리)
 - 수도권~동해항간 내륙운송비 : 수도권~부산항에 비해 1TEU당 14만원 절감가능

지역별 컨테이너 내륙운송비 비교

(단위 : 만원)

지역	내륙운송비		운송비 절감액
	부산항	동해항	
서울	59	45	14
경기	59	45.5	13.5
인천	59.8	48.5	11.3
충남	63.9	57.6	6.3
충북	73	45.7	27.3
전북	71.3	70	1.3

- 항만관리의 지방분권화³³⁾에 따라 해양복합관광, 수산업, 남북교류 및 물류중심 등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별 거점항구를 육성, 증가하는 물류수송에 대비
 - 우리나라는 연평균 7% 수준의 교역규모 확대와 항만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9.3% 증가 전망
 - 크루즈 여객수 등 해양관광 인프라 수요 증가 및 마리나 산업 활성화 전망

전 세계 항만수출액 및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조\$, 만TEU)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2010-2015)
수출액	14.9	17.0	17.9	19.1	20.8	22.8	8.9%
컨테이너 물동량	52,737	56,963	61,049	65,314	69,840	75,048	7.3%
동북아지역 비중	20,097 (38.1%)	22,101 (38.8%)	24,122 (39.5%)	26,295 (40.3%)	28,644 (41.0%)	31,379 (41.8%)	9.3%

자료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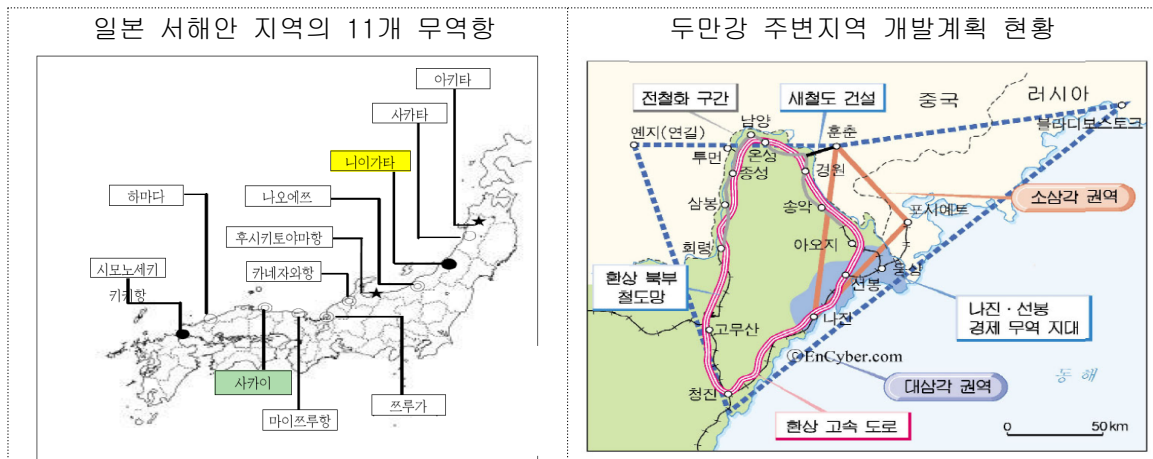
33) 국토해양부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의하면 무역항(호산, 삼척, 동해·묵호, 옥계, 속초항) 중 동해·묵호항 이외는 강원도에서 관할

전국산업단지 및 지원항만 항만별 특화 육성 위치도

○ 강원도의 4개 국제해운항로의 특성화 운영추진

- 중국, 일본 중소항만과 네트워크 및 남북간 연안 해운노선 확대

- 일본 지역 무역항 및 대두만강 계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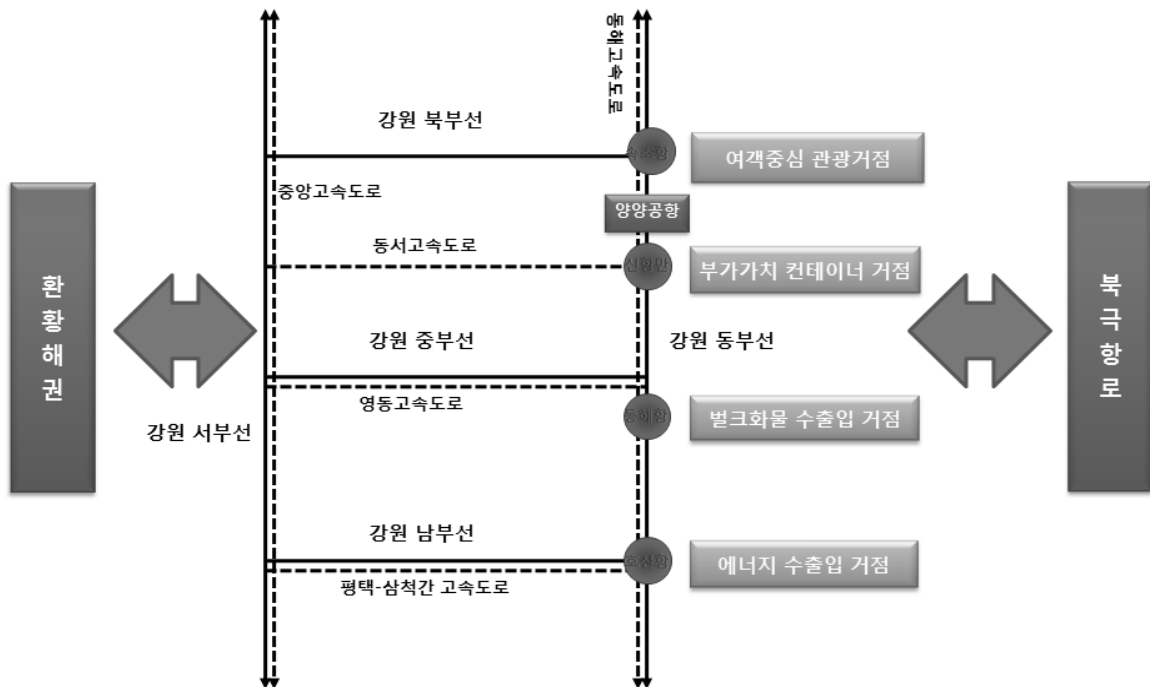


〈2-2-3〉 항만시설 정비 · 확충

○ 북극항로 연계 항만과 연결 교통망 확충

- 고속도로 및 목자형 철도망 체계를 통하여 동서남북의 신속한 교통망 처리

항만과 철도망의 연계체계



○ 강원도형 항만벨트 구성과 특화된 항만수송 및 시설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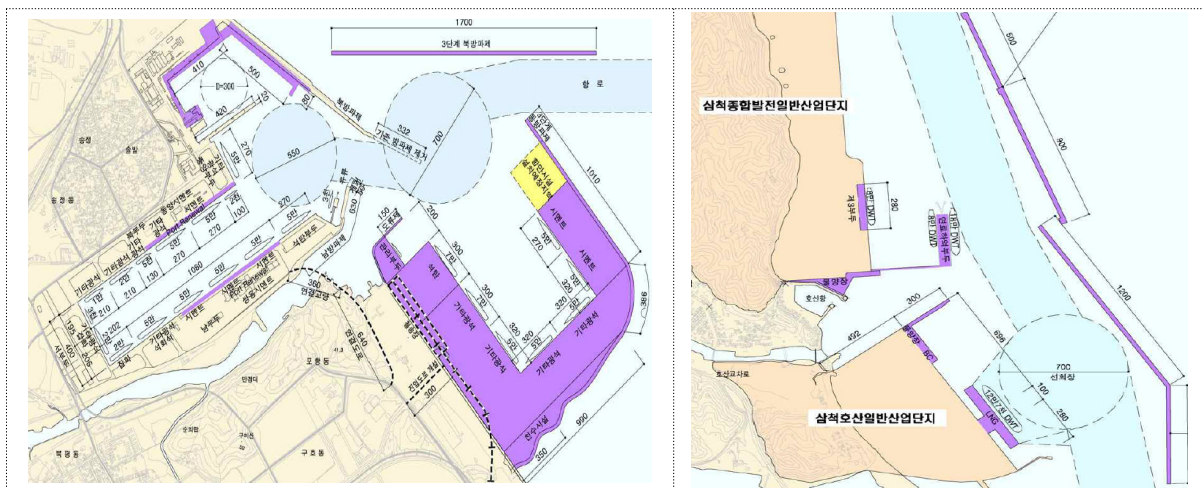
- 강원도형 투-포트(Two-Port) 시스템 구축 → 동해안 워터프런트 벨트화
 - * 해운교역 투-포트 : 동해항(컨테이너 전용), 속초항(국제관광·여객) 두만강경제지대(TREZ) 연계
 - * 피셔리너(Fisherina) 투-포트 : 묵호항(어업·해양관광), 주문진항(어업·유통·휴양)

○ 호산항 : 국가관리항 지정 추진 및 발전단지와 LNG 생산기지를 지원하는 에너지·복합물류 중심항으로 육성

- 접안능력 18만DWT급 등 10선석, 하역능력 7천만RT/년으로 신규항만 조성
- 2020년 총물동량 6900만RT, 2030년 7500만RT 전망
- 외곽시설 방파제 설치(4,600m), LNG 부두 등 접안시설 4개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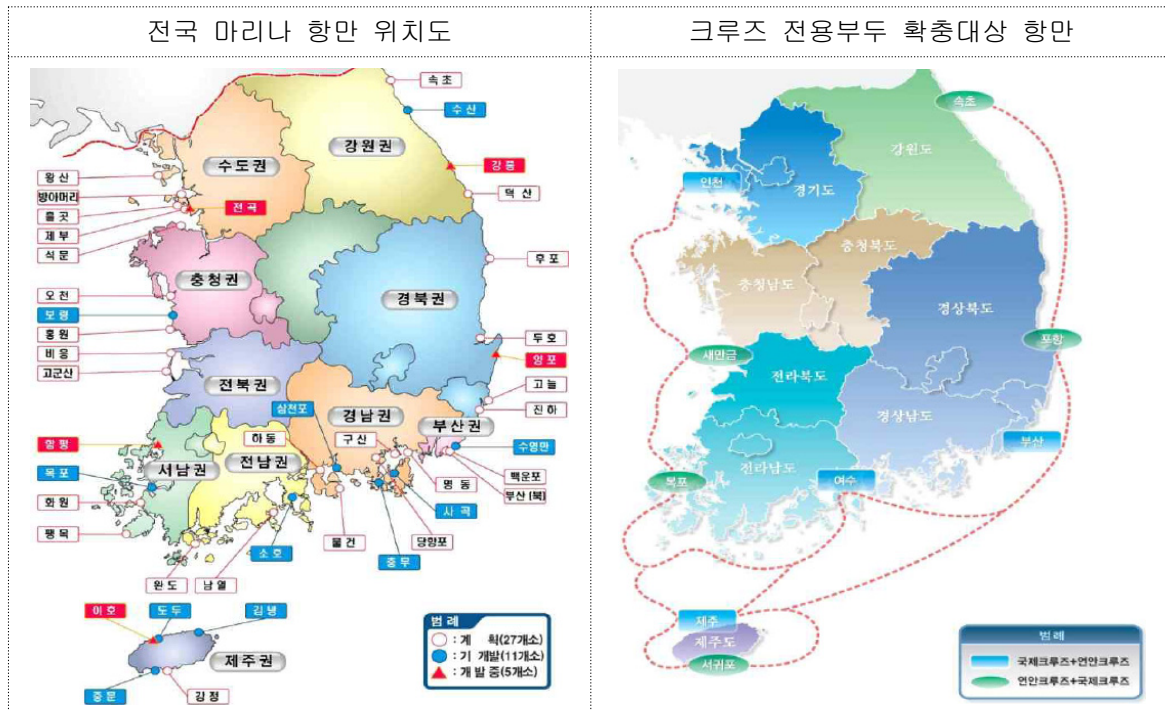
- 삼척항 : 시멘트 산업 지원항만으로서 시멘트 화물의 원활한 연안수송 지원
 - 배후지역 활성화 및 시설의 활용제고를 위해 시멘트 등 전용항으로 육성
 - 항만내 재해방지시설 사업 추진(콘크리트 방호벽, 자동식 방호문, 게이트 등)
 - 시멘트 및 기타광석 화물 처리시 분진발생 등 항만내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속확충
 - 국가관리항만 지정 추진
- 동해항 : 환동해권 대북방 교역과 산업 및 관광의 종합물류 거점항으로 조성
 - 동해지구와 묵호지구의 통합·연계운영 및 동해지구 3단계 개발사업 추진
 - 접안능력 7만DWT 급 석탄부두 등 7선석 증가(15선석→23선석)
 - 하역능력 18,948천RT/년 증가(21,702→40,650천RT/년)
 - 동해 복합화물차 휴게소 건설 및 항만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해항 확장 및 호산항 건설계획



- 묵호항 : 관광항으로 특성화 육성
 - 묵호지구 배후도로 등 입항 교통시설 확충 및 인접 한섬 마리나항 개발
 - 항만 환경개선(분진 방지막, 살수시설 개선 등 공해방지시설 설치)
- 속초항 : 여객 및 관광 거점항으로 육성, 국제 관광항 개발 및 크루즈선 유치
 -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국가관리 항만으로 지정 추진
 - 접안능력 3만DWT급 여객부두와 크루즈 2선석 증가(3선석 → 5선석)
 - 대형 크루즈선 유치, 신규 항로개설 및 백두산 항로 활성화
 - 여객부두 전용선석 확충,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마리나 1식, 친수공간 조성 등
 -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의 활용으로 항로 및 항내 안전도 제고

국가 항만기본계획상 크루즈 시설 확충 항만



자료 :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2011~2020)

- 육계항 : 시멘트, 석탄, 기타광석 전용처리 시설로 원활한 연안 수송 지원
 - 시멘트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역장비 현대화 및 항만효율성 제고
- 주문진항 : 지역의 관광 및 어업거점으로 육성
 - 기존 화물처리, 어선접안, 어획물 양육 기능중심에서 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
 -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항만 재정비(방사제, 호안, 연결호안 등)로 클린항만 조성
- 거진·대진항 : 남북 물류기지 창고
 - 북고성 장전항과의 물류교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항만기능 보강
 - 금강산 관광시 최근접 항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 거진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어항개발, 수산업기능 지원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 안목항(도시형 해양복합 관광항), 남애항(휴양형 관광항), 초곡항(해양체험테마 관광항) 등 관광 중심항 육성
 - 연안항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복합 관광항으로 육성

〈2-2-4〉 신항만 건설 검토

- 북극항로 개방에 따라 향후 연간 120만TEU 이상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가 예상되므로 컨테이너 중심의 전용부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육상교통망 추진은 북한의 정세변화 및 철도시설 노후화, TSR 철도시설의 노후화 (연간 50만TEU 이상 처리 불능), TKR(한반도 종단철도)와의 연결을 위한 기술적 문제 등 현실화에 많은 제약
 -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강원지역 컨테이너 항만수송거점 구축
- 세계 해운 항만산업은 국제경제 및 물류시스템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나 형태가 지역경제거점으로서의 종합항만을 지향
 - 항만은 단순한 화물처리공간이 아닌 하역, 보관, 유통, 전시, 판매, 가공 등의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물류서비스 공간으로서 역할
- 국제공항 및 대륙 화물 물동량 유치 및 통일 대비 양양 신항만 건설 재검토 추진
 - 중장기적으로 동해항과 속초항의 경우 배후지역이 이미 주택상가 및 산업단지로 활용 중에 있어 추가 부두확장 용지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항만 건설 대안이 필요
 - 양양공항,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등과 항만이 연계한 물류·SOC 시설의 활용성 제고
 -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환동해지역 화물 물동량 유치 및 통일대비 확충

참고자료 : 당초 정부의 양양신항만 건설계획

구분	내 용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권을 향한 교역 거점항 ▪ 환동해권의 관광거점항
도입시설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두 : 2만톤급 7선석 - 다목적부두 : 2만톤급 1선석·여객용 - 국제여객부두 : 3만톤급 2선석, 4만톤급 2선석

〈2-2-5〉 북극에너지 자원수송 관련 삼척 에너지단지의 지속적 역할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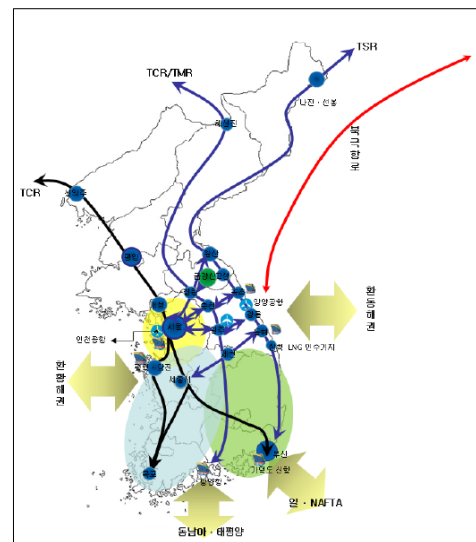
○ 해빙에 따른 대규모 에너지자원 발견과 북극권 국가들의 개발 경쟁 가속화

- 북극해 자원개발 가능성이 현실화 되면서 인근 국가들(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에너지 자원개발 경쟁이 심화
 - 최근 중국도 북방자원 확보를 위해 북극기지 설치와 북극항로 이용에 관심을 보이고, 핀란드·스웨덴도 북극해 자원에 대한 지분 주장
- * 북극권 매장 자원 추정 규모 : 석유 900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13%), 천연가스 470억 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30%)

○ **삼척LNG 생산기지**는 시베리아 및 북극해의 에너지 자원을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국내 최대 에너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최적 입지³⁴⁾이므로 북방 자원 수출입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쇄빙 유조선 활용 시 수출입 관문 역할 가능
- 최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쇄빙유조선을 활용할 경우 삼척 LNG생산기지는 국내 북방에너지 자원 수출입 관문 역할 수행

강원도 중심의 북극항로 개념도



○ 정부의 러시아 가스도입계획에 맞춰 PNG(Pipelined Natural Gas) 노선을 동해안으로 오는 J자형으로 구축 추진

- * J자형 : 블라디보스톡-나진-원산-고성-속초-강릉-삼척-원주-서울-평양
- 삼척 LNG생산기지 및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 건설과 연계하여 동해남부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 국내 천연가스 공급 및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LNG) 거점 구축
 - * 가스발전기(LNG 2기건설), SNG(합성천연가스), GTL(가스액화) 산업 등 육성

34) 삼척 LNG 인수기지 규모 : 2019년 280만㎥, 저장탱크 14기 설치목표, 2020년 국내가스저장량의 16.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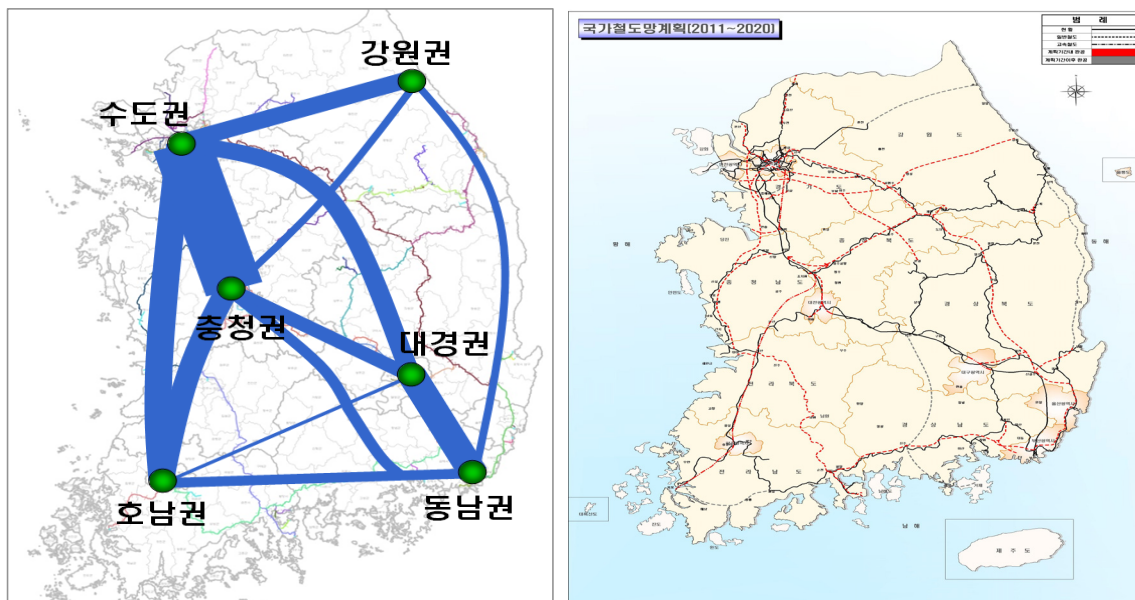
제3절 「目」 자형 철도망 구축

1. 실태와 추진과제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국가철도 정책의 변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국 주요 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는 'X'자형 철도망과 '□'자형 철도망을 결합하는 국가철도망 구상을 제시
- 2011~2020년까지 국가 총 교통·SOC 투자규모는 약 185조원, 이중 도로 70조원 (37.9%), 철도 72조원(38.9%)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

국가철도망 구상 및 구축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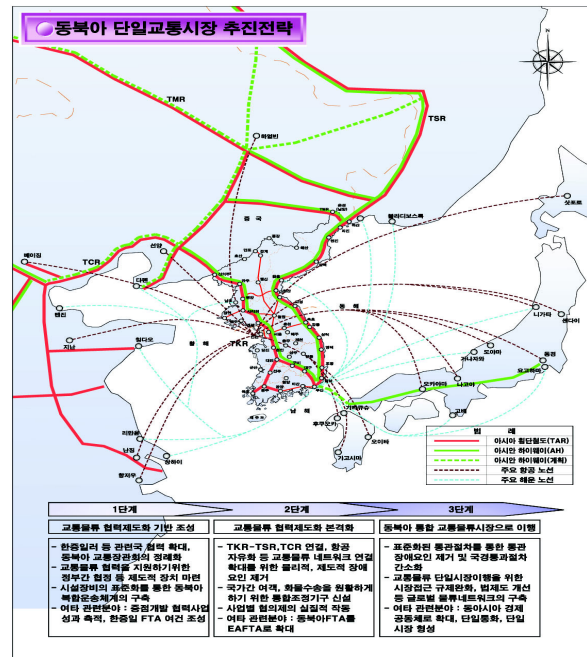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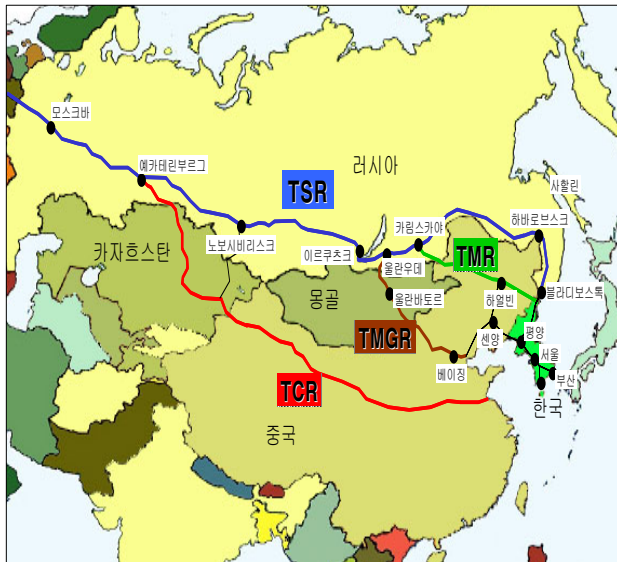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 거점지대 구축

- 한반도와 대륙연결 철도망(TCR, TSR) 및 도로망(AH)³⁵⁾의 구축을 위해 결손구간 (북한 지역 등) 연결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추진
-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개발, 중국 동북3성의 창·지·투 지역개발, 북한의 나진항 개발 등 환동해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 및 경제블럭 형성에 대비
-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확대 추진

35) AH1, AH6 노선중 AH6노선이 강원도 동해안을 통과(AH6노선 : 부산 → 동해안 일반국도 7호선 → 강릉 → 원산 → 러시아(하산) → 중국 → 카자흐스탄 → 러시아)

유라시아 철도와 동북아 단일교통시장 구상도



제2차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계획 강원도 지역 반영사업 현황

구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시행중	경춘선	금곡 ~ 춘천	복선전철화	64.2	20,731
	중앙선	덕소 ~ 원주	복선전철화	90.4	21,611
	중앙선	원주 ~ 제천	복선전철화	37.7	14,774
	태백선	제천 ~ 쌍용	복선전철화	13.9	3,773
	동해선	포항 ~ 삼척	단선전철	165.8	29,521
	원주-강릉선	원주 ~ 강릉	복선전철	111.2	37,327
전반기착수 (2011-2015)	여주-원주선	여주 ~ 원주	복선전철	21.9	6,329
	춘천-속초선	춘천 ~ 속초	복선전철	91.8	30,379
	동해항인입철도	동해 ~ 동해항	단선철도	1.3	262
추가검토	용문-춘천선	용문 ~ 춘천	복선전철	49.0	16,633
	동해선	강릉 ~ 제진	단선전철	110.2	27,675
	동해선	동해 ~ 강릉	복선전철화	49.2	15,493
	동해선	포항 ~ 동해	복선전철화	173.8	33,051

○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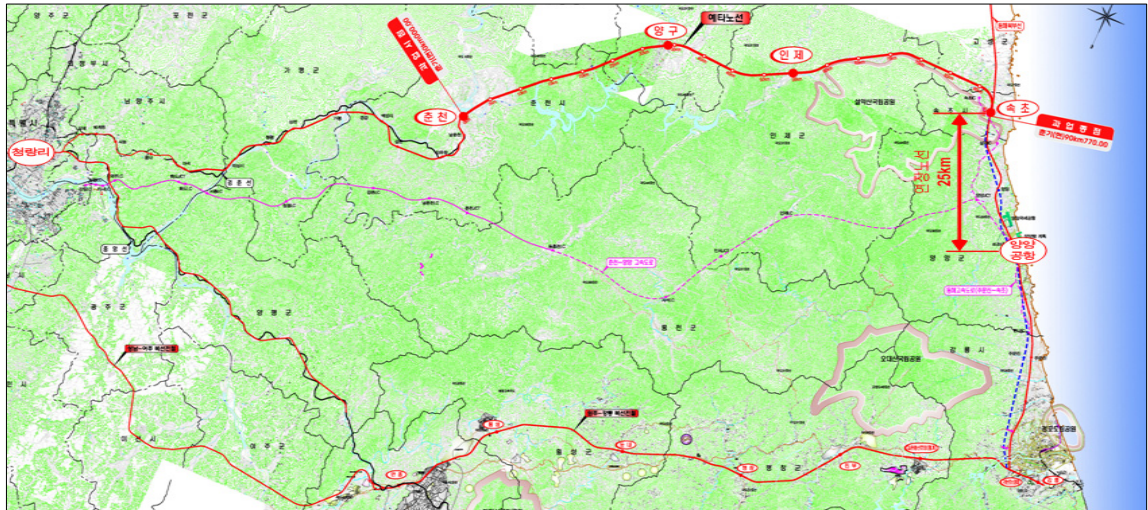
- 양양공항과 고속 철도망의 연결
- 철도시설의 고속화·광역화 추진
- 신설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2. 세부추진과제

〈2-3-1〉 양양공항과 고속 철도망의 연결

- 양양국제공항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까지의 철도연결은 올림픽 개최 후 알펜시아와 양양국제공항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두 시설간의 상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전망
 - 강원 북부선(춘천~속초)철도를 양양국제공항(25km)과 DMZ까지 연장하여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설악권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양양공항↔용산역 : 80분대 통행가능) 향상
 - 강원 중부선(원주~강릉)과 연계하여 강원 동부선(강릉~양양 구간)도 조기에 추진 함으로써 동계올림픽 특구(알펜시아)와 양양공항의 연계성을 강화
 -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중심인 동해항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연결 추진

강원 북부선·중부선 철도의 양양공항 연결 노선도



- 중거리·저비용시대에 공항의 착륙비(Ground-fee)는 항공사 유치의 결정적 변수이므로 양양공항이 고속 전철망과 연결되면 인천공항의 관제혼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지방공항의 경우 자체 수요만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고속 전철망이 연결되면, 수도권의 1,000만 잠재수요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역 관광시설의 개선으로 양양공항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음

○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양양공항을 강원 북부선과 강원 중부선 철도를 연결시켜 양양공항을 환동해 교통물류 거점(Node)으로 육성

★ 최근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사례가 대표적인 공항과 철도망 연계를 추진하는 사례임

- 청주공항 : 대전~세종시~오송~청주공항 순환형 철도확충(75km) 건의
- 무안공항 : 호남고속전철 노선선정과 관련 무안공항 경유(64.9km)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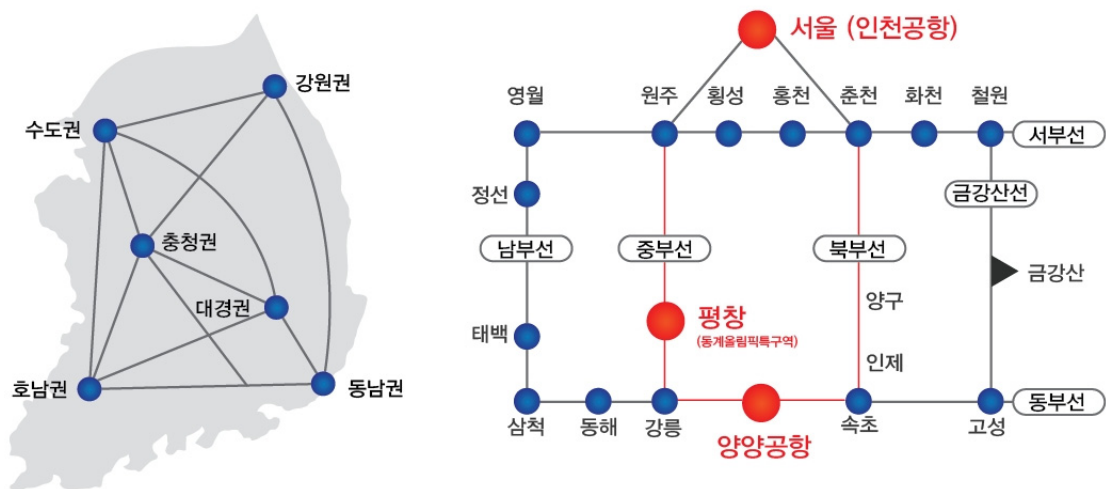
지방 거점공항별 활성화 정책추진 사례

양양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 운항 : 양양-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전세기 운항 · 국내선 운항 : 양양-김해, 울산 등 소형항공기 운항 · 중국관광객 유치 : 여행업체와 관광상품 발굴 등 · 지역항공사 설립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세종시~오송~청주공항 순환형 철도교통 확충 건의(75km) · “청주공항이 살아야 대전이 산다” 캐치플레이 선정 ·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 · 항공기정비센터(MRO)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고속전철 노선선정과 관련 무안공항 경유 건의(64.9km) · 무안-상하이 노선 주2회에서 주4회 확대 · 동남아노선 전세기 운항예정 · 공항 경제특구 지정 건의 · 광주공항과의 (흡수)통합 논의

주) MRO :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verhaul(점검)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국가교통망의 패러다임이 도로에서 철도망 구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양 국제공항을 중심으로“目”자형 전철 및 고속철도망 구축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의 서해선, 동해선, 경춘선, 춘천~속초선, 경전선을 통해 □자형 연결에 부합



〈2-3-2〉 철도시설의 고속화·광역화 추진

○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완공 지속적 추진

- 대륙진출 및 통일대비 전진기지로서 강원도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계획 반영
- 제2차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사항 강조 계획수립 반영 및 사업예산의 조기 확보 추진

○ 철도시설 개량 등을 통한 고속화(230km/h 또는 250km/h내외), 광역화

- 경춘선(금곡~춘천), 중앙선(덕소~원주), 동해선(포항~삼척), 원주~강릉선
- 월곡~광명~판교~여주~원주 노선

○ 국가 계획상 추가검토 대상 및 미 반영된 내륙순환철도 등 조기 계획반영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사업은 향후 계획반영 추진

강원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미반영 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및 내용	비 고
원주-강릉복선전철 (가칭 강원선)	원주(중앙선)~강릉(영동선)111.2km(250km/hr이상)	2009~2017
중앙선(덕소~원주)	덕소~서원주간 90.4km(중앙선, 230km/hr이상) (단선 → 복선전철, 도내구간 16.86km)	1993~2012
동해중부선 철도	포항~삼척간 165.8km(삼척구간 36.5km), 단선 (설계속도 120km/hr → 230km/hr로 고속화) 동해안경제자유구역과 강릉 구간 조기착공 건의	2002~2019
수도권교외선철도	신탄리~철원(대마)간5.6km (단선, 150km/hr)	2006~2012
영동선 철도이설	동백산~도계간(단선) 19.6km→17.8km(1.8km 단축)	1998~2012
태백선 복선전철	제천~쌍용간 18.3km(단선 → 복선전철)	2002~2014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간 41.1km(단선 → 복선전철)	2003~2017
수도권전철 연장	여주~원주(21.9km, 복선전철)	착공일부터 5년
동서고속화 철도	춘천~속초 복선전철 91.8km(고속화 복선전철, 250km/hr이상)	착공일부터 6년
동해북부선 철도	강릉~제진(110.2km, 단선 철도)	추가검토반영사업
용문~(홍천)~춘천	용문~홍천~춘천 복선전철 49km	추가검토반영사업
도 내륙순환철도	원주~횡성~홍천~춘천 53.5km	계획반영 추진
대륙종단철도	춘천~철원 69.3km	계획반영 추진
금강산선 복원	철원~금곡~군사분계선 32.5km	1998~

〈2-3-3〉 신설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 지역발전 효율화에 필요한 특화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강원 북부선(춘천~양구~인제~속초)과 강원선³⁶⁾(원주~횡성~둔내~평창~진부~올림픽 특구역~강릉)의 철도역사 주변지역을 특화된 역세권 계획 수립
- 양양공항(복합환승센터 추진)과 올림픽 특구역을 연계한 역세권 계획 수립
- 양양공항과 연계되는 금강산 관광 거점으로서 DMZ역(제진역)을 ‘평화와 생태’에 대한 역세권 계획 수립 추진
- IT를 접목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및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신설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방향

구분	역세권 기본구상
양양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도로, 해운교통의 광역Node 기능 ▪ 상류(건축, 입찰, 보험, 법률서비스) 중심의 국제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 비즈니스-관광 연계 복합단지조성 ▪ 광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올림픽 특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올림픽 지원기능 ▪ 올림픽 개최 후 의료관광, 동계레저 스포츠 기반기능
강원 북부선 (춘천-속초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레포츠-관광연계, 군 물류 지원 기능 등
강원선 (원주-강릉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산업지원 기능(첨단소재, 의료-관광, 물류유통 기능 등) ▪ 횡성역의 경우 횡성-원주공항과 인접한 곳에 개발하여 공항 활성화 연계검토



36) ‘원주-강릉’ 철도는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강원선』으로 명칭제안 추진
올림픽 시기에 외국인들에게 강원도를 각인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제4절 공항기능 활성화

1. 실태와 추진과제

- 2010년 국내 총 공항이용객은 약 4,000만명(출입국 포함)이며, 이중 외국인 1,500만명(약 40%), 내국인 2,500만명(약 60%)으로, 외국인이용객의 87% (약 3,500만명)가 인천과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이용편중이 매우 심각
- 양양국제공항은 연간 3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영동권의 거점공항으로 2002년 4월 개항 당시 국내선(양양~김해/김포)을 매일 5회 운항하고 국제선 전세기를 수시 운항(6개 항공사 12개 노선)하였으나 최근 침체상태
 - 양양공항 국내외 총 이용객은 2006년 5.2만명에서 2010년 1.7만명으로 연평균 24.4% 감소추세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계획(2001~2020)상 원주공항과 함께 일반 공항화, 지방도시간 국내선 및 일부 국제선 수요처리 기능으로 하향³⁷⁾ 정립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서 국제선 여객은 인천공항(연평균 5.09~5.68%)과 김해공항은 성장세 지속(연평균 4.21~5.29%), 화물은 2030년까지 연평균 국내선은 2.34~3.25%, 국제선은 5.2~5.69%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국내선은 김포와 제주공항의 화물 처리비율이 '10년 76.6%에서 '30년 81.7%로 증가하고, 국제선은 인천공항이 96% 이상 처리하여 사실상 전담
 - 원주, 양양공항은 각각 연평균 1.7~2.53%, -0.04~0.96% 성장 전망

공항별 국내선 여객 항공수요 예측

구 분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 증가율
원주	고성장	83	94	107	119	2.53
	중성장	78	89	99	110	2.13
	저성장	73	84	92	101	1.70
양양	고성장	10	11	10	10	0.96
	중성장	10	10	9	9	0.48
	저성장	9	9	9	8	-0.04

자료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37) 2011.1.19. 국토해양부 고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하고 거점공항을 6개(김포, 청주, 무안, 김해, 대구, 제주)로 공항의 위계를 설정

국내여객³⁸⁾ 및 화물 수요 전망

(단위 : 천인, 천톤)

여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25	2030
국 내	저성장	36,571	41,482	36,020	35,904	36,291	37,241	36,631	41,715	45,689	49,984
	중성장			37,924	38,166	38,737	39,764	39,409	44,826	49,852	55,125
	고성장			39,829	40,428	41,183	42,288	42,186	47,937	54,014	60,267
국 제	저성장	33,682	40,398	41,140	43,947	46,859	49,879	53,012	70,532	85,037	101,626
	중성장			42,545	45,821	49,013	52,295	55,671	73,596	90,881	109,904
	고성장			43,950	47,695	51,166	54,712	58,330	76,659	96,725	118,182
화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25	2030
국 내	저성장	541	530	555	564	576	592	601	693	764	841
	중성장			585	598	613	631	641	739	828	923
	고성장			616	633	650	669	682	786	893	1,004
국 제	저성장	2,873	3,300	3,431	3,680	3,938	4,206	4,485	6,057	7,321	8,765
	중성장			3,499	3,776	4,044	4,321	4,606	6,166	7,647	9,283
	고성장			3,568	3,872	4,150	4,435	4,727	6,276	7,973	9,801

자료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 추진과제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 원주공항기능 확충
-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육성

2. 세부추진과제

〈2-4-1〉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 양양국제공항의 동계올림픽 주공항 조기지정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양양국제공항을 동계올림픽 주공항으로 조기지정하고, 중단거리 국가에서 올림픽에 참여할 경우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도록 유도 홍보
- 동계올림픽 개최는 강원도 동해안을 통해 수도권을 방문하는 인식의 전환계기
- 외국인 관광객의 올림픽 시설 접근성은 인천공항보다 양양공항이 뛰어나

38) 성장을 가정 : 고성장('10 5.9%, '11~'30 : '13년까지 4.09%로 감소, '31년까지 3.01%로 감소) / 저성장('10년 5.2%, '11~'20년 : 연평균 4.0%, '21~'30년 : 연평균 2.7%) / 중성장은 평균값이며, 화물은 수화물 포함

양양 영공을 통한 한국진입, 수도권 진입 비교

구 분	양양공항	인천공항
서울진입	80분	60분
올림픽개최지 접근	30분 이내	90분대
착륙비	상대적으로 저렴	고가
체공시간	전무	상당시간
기타	인천공항 수송분담 및 원주-강릉축 육로 수송분담	관제체증 해소필요

○ 향후 인천공항 포화시대 대비 대체 및 보완역할과 환동해 지역의 중심공항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Hub & Spoke 체계 강화 필요성)

- * 현재 1HUB(인천), 4SPOKE(김포, 김해, 무안, 제주)체제에서 제외된 양양국제공항을 추가 하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고속화철도 시대를 대비한 사각축(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서남권)의 국제공항 활성화 필요

○ 동계올림픽 전후 국제항공수요에 대비하여 동북아·동남아를 연결하는 +자형 국제항공교통망 구축

- 동쪽 : 일본, 서쪽 : 중국, 남쪽 : 대만, 태국, 싱가포르, 북쪽 : 러시아

○ 활주로 및 항공설비 보강

- 국토동부의 물류거점 기능 확충을 위하여 국제선 대형항공기와 화물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증설 등 기반시설 조성방안 검토, 인천국제공항의 과포화 분산과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보조공항으로 육성
- * 향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2016-2020)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

○ 국내외 공항 간의 협력 및 항로외교 본격 전개

- 국내 지방공항 간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 스위스 사례와 같이 김해 및 무안(광주) 공항과는 귀향 및 군 면회객, 제주공항과는 관광객, 김포공항과는 업무 및 친지방문을 타깃으로 전세기나 주말 노선위주로 운항
- 신규 항공노선 발굴 : 바다·눈 없는 타깃지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 개설 및 여행 상품 발굴, 중국 동북3성, 일본큐슈, 러시아 극동, 동남아 등
- 국제항공사들의 항로망에 양양공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항로외교 전개

- 양양국제공항 배후 고품격 관광휴양단지 개발
 - 공항배후단지에 쇼핑/복합레저 목적의 고품격 관광휴양단지 개발
 - 공항지원시설(공항 내 면세점, 아울렛 설치 등) 강화 및 관광상품 연계개발
- 국립항공대(관동대 양양캠퍼스 활용) 유치 및 강원항공사 설립 검토 추진

〈2-4-2〉 원주공항기능 확충

- 원주공항은 국내외 관광객 수송 역할을 분담하는 지방공항으로 육성
 - 수도권 전철노선 연장 및 강원선철도(원주-강릉선)의 횡성역 연계개발 등 공항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 수송 분담기능 확충
 - 겨울철 동남아 스키레저 관광객 연계 및 국내노선의 탑승률 제고로 활성화
 - * 동남아 전세기 취항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공항 잠재력 제고
- 여객터미널과 계류장의 원거리 이격에 따른 여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연결의 편리한 공항접근 교통체계를 구축
 - 원주~여주간 전철 철도역 신설, 여객터미널 접근도 개선 등
 - 서원주역과 연계, 특수화물 수송능력을 갖춘 화물공항기능 확대
- 위성항행시스템 구축 및 항행안전시설,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보강, 여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항중심의 ITS(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
 - 원주~제주노선 이용확대 운동 전개(기관, 학교 등), 모객 인센티브 제공
 - 영호남 노선(원주~광주·여수) 확보 추진

〈2-4-3〉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육성

- 강원도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항공사 지정여행사 15% 상시할인, 기타 여행사 10%할인 또는 지원금 지급
 -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관련 여행사, 리조트 참여 유도)

제5절 광역경제권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는 국토의 막다른 지점으로 인식되어 각종 국가계획 및 사업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SOC 투자가 저조한 상태
 - 강원도의 총 도로연장은 9,650km, 도로밀도는 0.5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 동서고속도로, 국도38호선 등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이 예산문제로 장기소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등 국가 주요 교통계획이 도로 위주에서 철도 위주의 녹색교통 추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전국 도별 도로율 등 현황

도별	도로연장(km)	면적(km ²)	도로밀도(km/km ²)	인구(천명)	인구 1명당 도로연장(m)	포장율(%)
경기도	13,390	10,187.00	1.31	11,461	1170	84.8
강원도	9,742	16,874.00	0.58	1,513	6440	72.0
충청북도	6,699	7,433.00	0.90	1,527	4390	77.3
충청남도	7,844	8,629.00	0.91	2,037	3850	76.6
전라북도	7,970	8,062.00	0.99	1,855	4300	72.7
전라남도	10,266	12,232.00	0.84	1,913	5370	72.5
경상북도	12,404	19,020.00	0.65	2,670	4650	73.2
경상남도	12,726	10,532.00	1.21	3,250	3920	68.7
제주도	3,206	1,849.00	1.73	563	5690	83.9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주요통계

-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거점을 광역권별로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각 권역은 각각 국제접근망의 장점을 보유
 - 수도권 :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접근이 용이(동북아/아시아의 허브공항) 하고 항만을 통한 중국 접근망에 장점
 - 충청·호남권 : 항만을 통한 중국 접근망 장점, 투 포트의 하나인 광양항(허브항만) 보유, 무주공항, 청주공항 등 다수의 공항 보유
 - 대경·동남권 : 허브항만인 가덕도 항구와 우리나라 제2의 국제공항인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등 항만과 공항 다수보유
 - 강원권 : 양양공항과 다수의 항만, 환동해권 접근의 입지적 장점 보유
 - 제주권 : 제주공항을 통하여 국내 전역 및 일본, 중국 등 접근망 장점

- 각 접근망의 장점을 갖춘 광역권간 연계교통망 구상은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요소
- 특히 강원권과 타 권역의 연계망은 환동해 지역의 급속한 지역여건 변화에 대비한 통합 교통·물류망으로서 조속한 구축이 필요
 - 러시아의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개발, 중국 동북3성의 장길도 지역개발, 북한의 나진항 개발 등 환동해 지역의 급속한 지역여건 변화에 대비
 -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 철도망, 아시안 하이웨이 등 육상교통망 구축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간선도로망 계획)



구분	주요 경유지	연장 (km)
남북축	제4축 철원-포천, 양평-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340.1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432.8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405.8
	제7축 간성-강릉-울진-동해(동해)	428.0
동서축	제6축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제천)	250.4
	제7축 인천대교, 인천-안양, 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 광주-원주(제2영동)	282.5 (62.5)
	제8축 인천-일산, 하남-서울-홍천-양양	186.8
	제9축 강화-문산-화천-간성	211.5

○ 추진과제³⁹⁾

- 수도권 연계망 확충
- 충청-호남권 연계망 확충
- 대경·영남권 연계망 확충
- 강원도내 연계망 확충

39) 각종 도로사업 추진 시 기존계획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등과 충분한 협의 추진

2. 세부추진과제

〈2-5-1〉 수도권 연계망 확충

○ 광역권간 두시간대 생활권 및 거점도시와 인근지역 간 네트워크 연결

- 주요 간선도로와의 30분대 접근성 확보(국토의 변방, 막다른 골목 탈피)
- 고속의 광역기간 교통망 조기구축

수도권 연계 교통망 확충

구분	사업구간 및 내용	비 고 (추진기간)
동서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춘천~양양간(150.2km/ 강원도구간 109.6km) - 서울- 춘천(61.4km) 완공 - 춘천- 양양(88.8km)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 	2004~2015
제2영동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광주 초월 신평 - 원주 가현(영동고속도로 연결) - 사업량 56.95km, 4차로(강원도 구간 13.94km) 	2011.11 ~2016.11
철원 - 포천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포천 신북면 - 강원 철원 갈말읍 - 사업량 28.1km, 4차로(강원도 구간 5.3km) 	미정
중앙선(덕소-원주) 복선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소 - 서원주 간(중앙선 230km/h) - 사업량 90.4km(단선 => 복선전철, 도내구간 16.86km) 	1993~2012
수도권 교외선 (신탄-철원)철도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리-철원(대마)간 (단선, 150km/h) - 사업량 5.6km 	2006~2012
용문-홍천-춘천 복선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문-홍천-춘천 복선전철(49km) 	미정

* 민자고속도로인 제2영동고속도로(현대건설 등 16개사 컨소시엄)는 2011.11.11 착공 : 상일 IC에서 원주 IC까지 54분 소요예정

제2영동고속도로 노선도



〈2-5-2〉 충청-호남권 연계망 확충

구 분	사업구간 및 내용	비 고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평택(안중)-안성-음성-충주-(제천-영월-삼척) - 사업량 249.7km(강원도 구간 94.7km) 	미정
원주-세종시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청주-세종시 - 사업량: 112km(강원도 구간 20km) 	미정
세종시-평창간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청주-충주-제천-평창 -사업량 : 204.5km(강원도 구간 30km) 	미정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충주-제천-원주 -사업량 : 61.3km 	미정

〈2-5-3〉 대경·영남권 연계망 확충

구 분	사업구간 및 내용	비 고
동해고속도로 (삼척-고성)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업 량 : 삼척-고성간(146.6km) 현재추진 상황(201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강릉~주문진(60.7km) : 1조 2,686억원 투자('04.11월 준공) 주문진~양양(22.9km)중 현남IC~하조대IC(15.4km) : '09.11.27개통 양양~속초(21.17km) : '08.12월~'09.9월 착공 속초~고성(23.3km) : 기본설계중 5,802억원 소요 (속초~간성 16.6km 완료, 간성~현내 6.7km 미 실시) 삼척~동해간(18.5km) : 6,200억원 소요('09.3.31착공) *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국가균형위) : '08.9.10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반영(동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위원회 : 국무총리) : '10.12.28 향후 추진예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문진-속초(28.67km), 삼척-동해(18.5km)공사 추진 예정 속초-간성 실시설계 및 착수, 간성-현내 기본설계 착수 건의 	2004~ 2015
양구-영천간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양구-진부-영월-영천 - 사업량 : 309.5km(강원도 구간 154.7km) 	미정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평택(안중)~안성~음성~충주~제천~삼척선 - 사업량 : 249.7km (강원도구간 94.7km 미착수) 	미정
봉화-양구간 (국도31호선)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봉화 소천면 ~ 양구 동면 두밀(79.5km) - 총 사업비 : 9,233억원('10년까지 1,483억원 투자) 	2004~ 2016
제천-동해간 (국도38호선)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제천 IC - 동해 이원동간 137.6km(도내 126.6km) - 총 사업비 : 2조 2,696억원('10년까지 18,891억원 투자) 	1997~ 2014
포항-삼척 철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항 - 삼척간(설계속도 120km/hr => 230km/hr로 고속화) - 사업량 : 17개구간 165.8km(삼척구간 36.5km), 단선 	2002~ 2019

〈2-5-4〉 강원도내 연계망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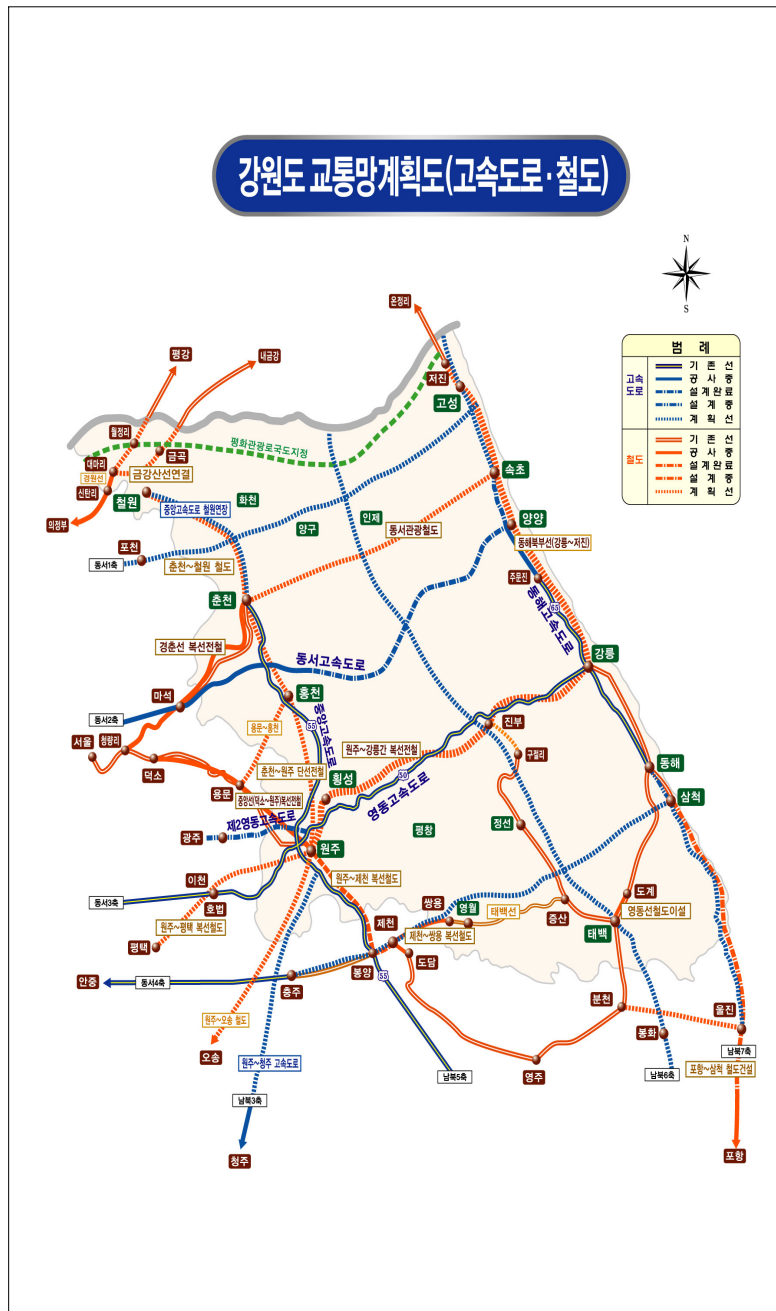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 간 연계망 확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취약한 도내 교통망 확충
-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춘천 신북~북산) 8.8km(터널 5.1km) 조기개통 및 국가 지원 지방도 정비(5개노선 19개소 109.58km) 등 사업의 지속 추진
 - 지방도 확포장 사업(39개소, 220.14km)의 지속적 추진

국도 확포장 등 사업추진

구분(도로명)	사업구간 및 내용	비 고
횡성~철원간 (국도5호선) 확·포장	▪ 횡성 ~춘천 ~ 화천 ~ 철원간 128km	1999~2013
횡성~강릉간 (국도6호선) 확·포장	▪ 봉평 ~ 주문진(L=38.9km)	1997~2015
삼척~고성간 (국도7호선) 확·포장	▪ 삼척 원덕(경북 도계)~고성 현내간L=181.5km ¹	1997~2016
봉화~양구간 (국도31호선) 확·포장	▪ 경북 봉화 소천면 ~양구 동면 두밀79.6km	2004~2016
태백~강릉간 (국도35호선) 확·포장	▪ 태백시 황지동 ~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1.5km	2007~2015
제천~동해간 (국도38호선) 확·포장	▪ 서제천 IC~동해 이원동간 137.6km(도내 126.6km)	1997~2014
원주~동해간 (국도42호선) 확·포장	▪ 원주시 흥업 ~ 동해간 130.6km	1998~2015
철원~김화간(국도43호선) 확·포장	▪ 철원군 갈말읍(문혜) ~ 김화읍 32.2km	1999~2010
춘천~고성간(국도46호선) 확·포장	▪ 경기 가평~고성 L=131.8km	1998~2012
철원서면우회도로 (국도47호선) 확·포장	▪ 철원 서면 와수리 ~ 자등리11.86km	2003~2013
춘천~철원간 (국도56호선) 확·포장	▪ 춘천~철원(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6.9km(2→4차로) ▪ 장학 ~ 감정간(춘천시 동면 장학리 ~ 동면 감정리) 3.3km(2→4차로) ▪ 홍천 서석우회도로(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 풍암리) 5.0km(2차로 용량보강)	미정 착공 실시설계완료
진부~문곡 (국도59호선) 확·포장	▪ 평창 하진부 ~ 정선 문곡간 62.5km	2006~2015
운천~철원 (국도87호선) 확·포장	▪ 경기 포천 운천리~강원 철원 대마리 18.0km(4차로)	미정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 5개 노선 19개 구간 109.58km	1998~2015
개발촉진지구 도로지원	▪ 서학-만항간 도로사업 외 32개 사업 151.22km	1997~2013

국도 지정 추진

구분(도로명)	사업구간 및 내용	비고 (추진기간)
접경지 평화관광로 국도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강화)~강원도(고성)간 접경지 연결 323.90km (강원도 215.9km, 경기도 89.6km, 인천시 18.4km) * 경유노선 : 강화~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정신청중



강원도 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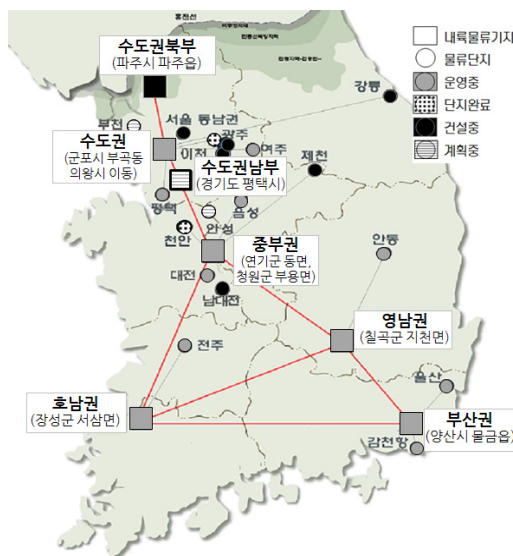
구분	사업구간 및 내용	추진 기간
동서	서울~춘천~양양간(150.2km) /강원도구간 109.6km)	2004 ~ 2015
동해	삼척~고성간(146.6km)	2004 ~ 2015
제2 영동	경기 광주 초월 신평~ 원주가현(영동고속도로 연결) 56.95km, 4차로(강원도 구간 13.94km)	2010 ~ 2015
철원 ~ 포천	경기 포천 신북면~강원 철원 갈말읍 28.1km, 4차로(강원도 구간 5.3km)	미정
중앙	철원연장(춘천 ~ 철원) 63.0km	2013 ~ 2020
평택 ~ 삼척	경기 평택(안중)~안성~ 음성~충주~제천~삼척선 249.7km (강원도구간 94.7km 미착수)	미정
양구 ~ 영천	강원 양구~진부~영월~ 영천 309.5km (강원도구간 154.7km, 미착수)	미정
원주 ~ 세종	원주~청주~세종시 112km (강원도구간 20km)	미정
세종 ~ 평창	세종시~청주~충주~제천 ~강원(평창) 204.5km (강원도 구간 30km)	미정

제6절 국토종단 내륙물류축 개발

1. 실태 및 추진과제

-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 및 대륙진출의 교두보 선점으로 소외·낙후지역 이미지 탈피
 - 강원도의 중앙고속도로축은 국토의 중앙종단 축으로 지속가능한 국토의 발전과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축으로 역할 수행
 - 중국,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수출의존도 상승 등 대외교역구조 변화에 대응
- 2010년 현재 5대 권역별 복합물류기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전국에 18개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 중이나 강원권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⁴⁰⁾

국가 복합물류기지 등 건설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만㎡)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합 계			503	27,053	
수도권	군포·의왕	군포·의왕	113	2,788	'92-'98
	군포확장	경기 군포	35	4,478	'03-'12
	북부	경기 파주	39	2,469	'07-'13
	남부	경기 평택	42	4,107	'09-'14
동남권		경남 양산	129	5,372	'92-'10
호남권		전남 장성	52	3,323	'98-'10
충청권		연가청원	48	2,028	'03-'10
대경권		경북 칠곡	45	2,468	'04-'10

자료 : 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추진과제
 - 물류축 기반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 지역간 물류체계의 개선
 - 철원 대북교류 물류단지 건설

40) 2011.3월 현재 물류단지는 전국 22개소(공사중 및 지정신청 포함) 중 강원도 강릉시 1개소(공사중), 일반물류 터미널은 전국 30개소 중 강원도 동해시 1개소(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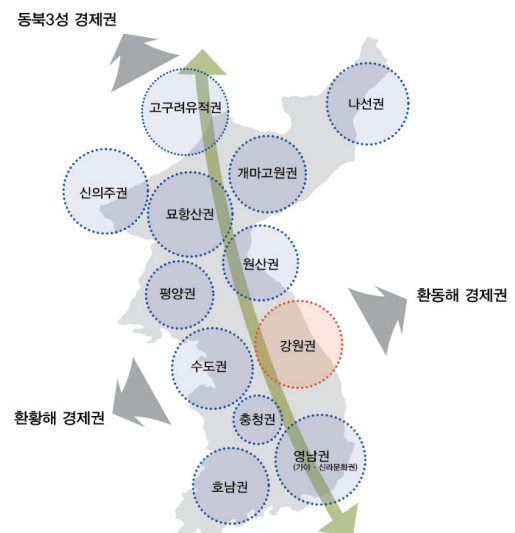
2. 세부추진과제

〈2-6-1〉 물류축 기반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 내륙종단 고속도로개설로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개발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 고속 도로망(춘천~철원, 63km)

남북 종단의 중앙내륙 고속교통망 구축(안)

- 장기적으로 중앙물류축은 철원~북한~중국(장백 조선족 자치현)까지 연결하는 한민족 물류벨트 기능으로 확대
- 국토남부 산업지역과 북한과 연결하면서 중간지역인 경북·충북 북부지역과 강원도 내륙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
-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연계, 관광산업의 발전 촉진으로 기능
- 접경지역 및 산간내륙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 강원도 내륙을 잇는 원주~춘천~철원 철도를 구축하여 수도권 순환철도망으로서 연계 강화



〈2-6-2〉 지역간 물류체계의 개선

- 강원 영서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수도권, 강원항만, 북한 내륙과 연계하는 중부권 내륙물류 ICD를 조성(2020년 25만 TEU 처리용량)
 - 강원 영서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산업입지 부족 현상이 심각
 - 대상지역 :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영서권 지역
 - 면적 : 산업단지 330만 m² + 내륙 ICD 75만m²(‘20년 25만 TEU 처리가능)

- 국토물류체계상 서남권 TSR물동량·동남권 TCR물동량의 교차중심점 중요기능과 강원도 내륙물류기지 및 기업도시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물류계획 수립
 - 영서권(춘천~원주), 수도권, 기타 남부지역에서 진출입하는 물동량의 1차 처리 지역으로 선정
 - 신규 유통단지를 허브, 기존의 시설들을 스포크의 개념으로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유통 단지망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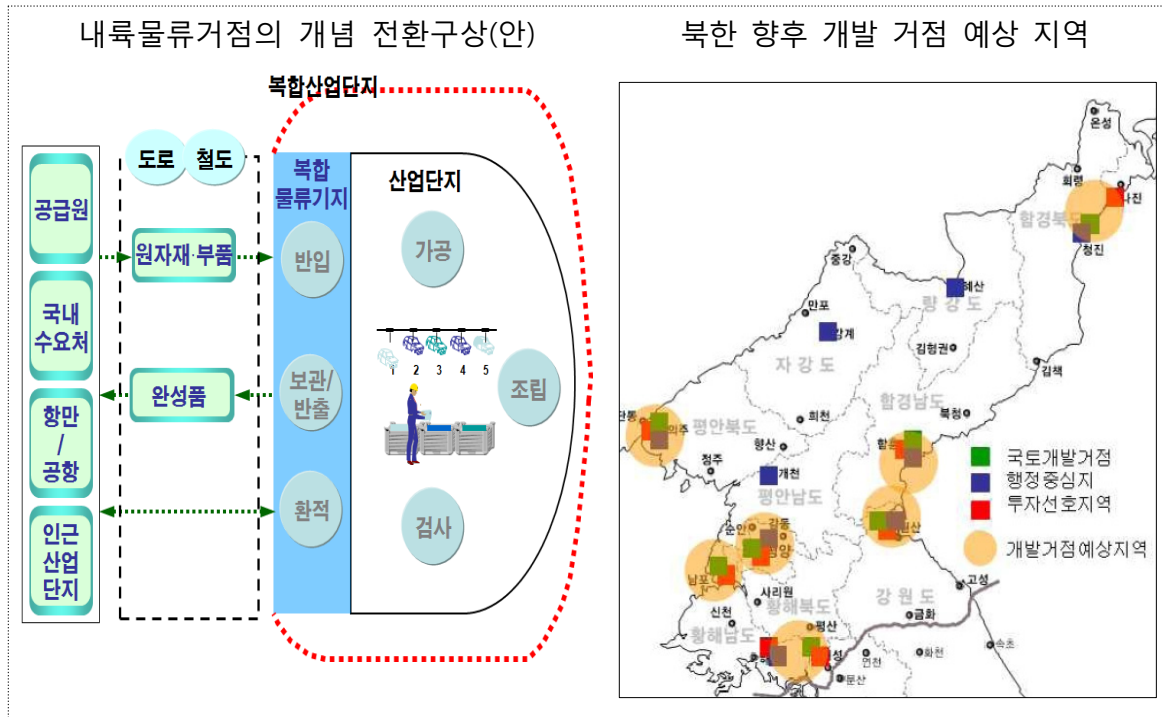
강원도 물류단지 조성 사업계획(안)

사업명	내용	사업기간(년)
춘천	춘천권 물류단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2020
원주	원주권 물류단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2020
강릉	강릉권 물류단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2020
속초	속초권에 물류단지 조성	2020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2020
철원	대북교류 물류단지 조성	2020
고성	남북물류기지 조성	2020

- 도시 집배거점 정비 등 유통업무 시설을 집약화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화물차 차고지 등 건립(춘천, 원주, 강릉 등)
 - 국가계획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 DMT(Dual Mode Trailer)⁴¹⁾, E&S(Effective and Speedy Container Handling System)⁴²⁾ 등 신개념 수송시스템 시범 도입

41) DMT(Dual Mode Trailer)수송시스템은 도로와 철도간에 별도의 환적장비 없이 자체 환적과 셔틀운송을 할 수 있는 통합 환적시스템

42) 본선에서 작업선으로 열차가 직도착하여 상하차 후 출발하는 시스템



자료 : 국토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2-6-3〉 철원 대북교류 물류단지 건설

- 남·북한 및 대륙연계의 교통 요충지 물류유통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동북아 물류센터(Korea Gateway Center, KGC)건설
 - 접경지역 개발과 한반도 평화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중심지역이며 남북한 평화정착 및 대륙전진기지로써 철원군에 평화시 조성계획 수립
 - 내륙 컨테이너 기지, 화물터미널 건설

제3장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고

제1절 목표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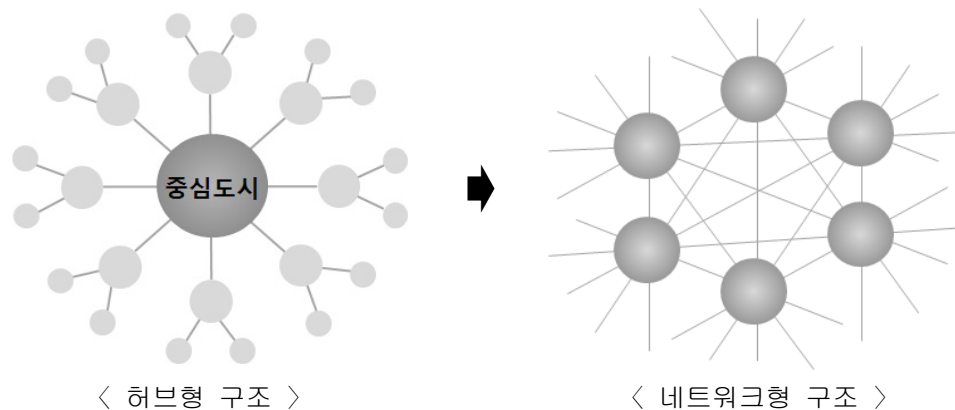
1. 여건 및 전망

- 강원도 지역공간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대도시가 없으면서 춘천, 원주, 강릉의 3대 도시가 정립(鼎立)하여 생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
 - 기타 지역은 3대 도시와 연계관계를 맺으며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
- 강원도 공간구조는 백두대간이 남북을 관통하는 지형적 이유와 춘천, 원주와 서울이 근접하여 있다는 지리적 이유에서 비롯되어 도 전역에 영향을 줄 만한 중심적 대도시 발달입지가 부족
 - 서울근접 도시는 성장력을 수도권에 빼앗김으로써 대도시로 클 여력 부족
- 지금까지 대도시가 없는 강원도는 산업,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집중도가 미약하게 됨으로써 도민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불이익
 - 인구유출, 정치적 영향력 약화 등 (대)도시화,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
- 그러나 분권화된 개인의 힘과 지역단위의 역량이 커지는 정보/지식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강원도의 공간구조는 장점이 될 잠재력
 - 대도시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피하면서 개별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21세기가 지향하는 네트워크형 공간의 모델 가능성
 - 특히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자원성 측면에서의 지역권 형성 진행
 - 새롭게 형성 중인 기간교통망과 대륙과 대양을 향한 지정학적 입지
 - 수도권 및 남부 대도시권 시장의 배후입지
- 도 공간의 내부적 문제는 인구 과소지역의 증가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인구 30만을 넘는 원주시와 5만을 약간 상회하는 태백시
 - 인구 7만명의 홍천군과 인구 2만 초반대의 양구군, 화천군
 - *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원주축의 성장과 폐광·점경지역 침체로 인한 요인이 큼
 - 최근에는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동해안의 시군도 점차 침체상황의 국면

2. 목표와 계획지표

- 강원도 각 시군별 능력과 역할을 다하면서 전체로서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네트워크(network)형’ 구조로 형성
 - 지역발전축과 각 지역의 연계발전과 낙후지역의 해소
 -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시켜 생활권의 내부 응집력 강화
 - 타 광역경제권에 대응하고 국제적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내부응집력을 강화시켜 도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형성

허브형 구조와 네트워크형 구조의 개념



- 낙후지역의 해소 및 방지
 -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토대로 대체산업과 명소화 추진 등 내적 지역발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 동해안발전계획 추진을 통하여 동해안의 발전역량 강화
 - 생활권 도시의 기능 확충으로 도농복합 도시생활권 강화
 - 강원도 전역의 창조지역 추진

○ 계획지표(상주인구)

구 분	2010	2015	2020
접경지역 인구	158천명	160천명	180천명
폐광지역 인구	208천명	220천명	250천명
거점도시 강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 거점기능 강화	태백, 철원 거점기능 강화

3. 계획과제

○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 접경지역지원법(2000년 제정)이 2011년 4월 특별법으로 재공포
- 2008.12.15 접경지역초광역권 발전 계획 발표(지역발전위원회)
- 접경권 3개 시·도, 15개 시·군에 대하여 2011~2030년 20년간 18.6조원 규모의 투자사업계획 확정(2011.7월)

* 소관부처 : 행안부·문광부·환경부·국토부·지경부·통일부·복지부 등 7개 부처

○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의 계획적 추진

- 1995년 「폐특법」 제정, 1997년부터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사업 추진
- 폐특법 연장(2015년까지)과 『탄광지역 2단계개발계획(2006~2015)』 추진
- 2011년 「폐특법」 재연장 조치에 따라 탄광지역 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 발판 마련

○ 거점도시 기능의 강화

- 강원도 3대 거점도시기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거점기능 확충
- 접경지역 및 폐광지역 사업 추진을 통하여 각 지역에 취약한 거점도시 기능 강화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을 통하여 설악권 거점도시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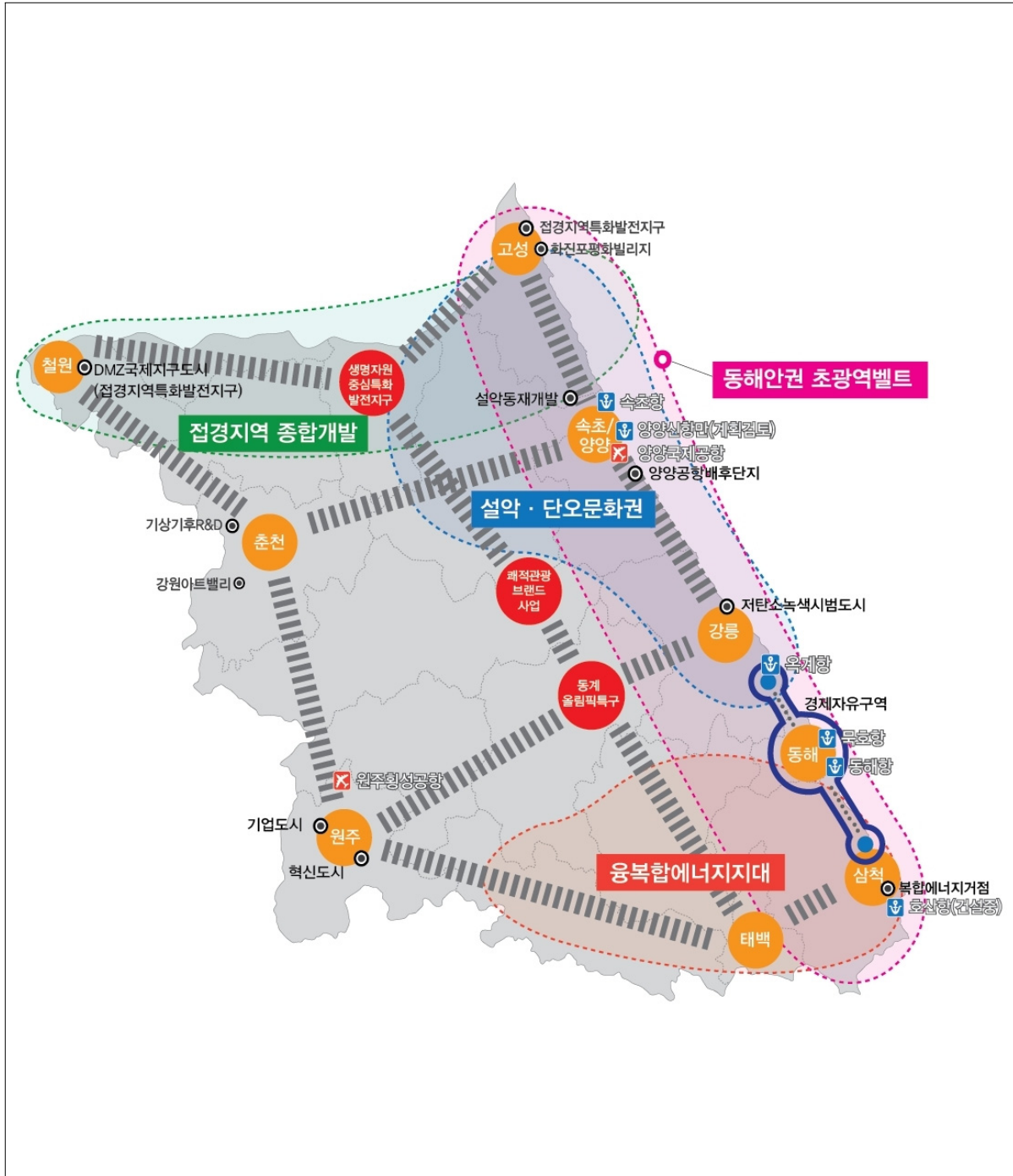
○ 동해안권 발전추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가确定的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 창조지역 추진

- 강원도 기초생활권 지역을 창조도시·지역으로 발전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 사업과 연계 진행

네트워크형 공간발전 종합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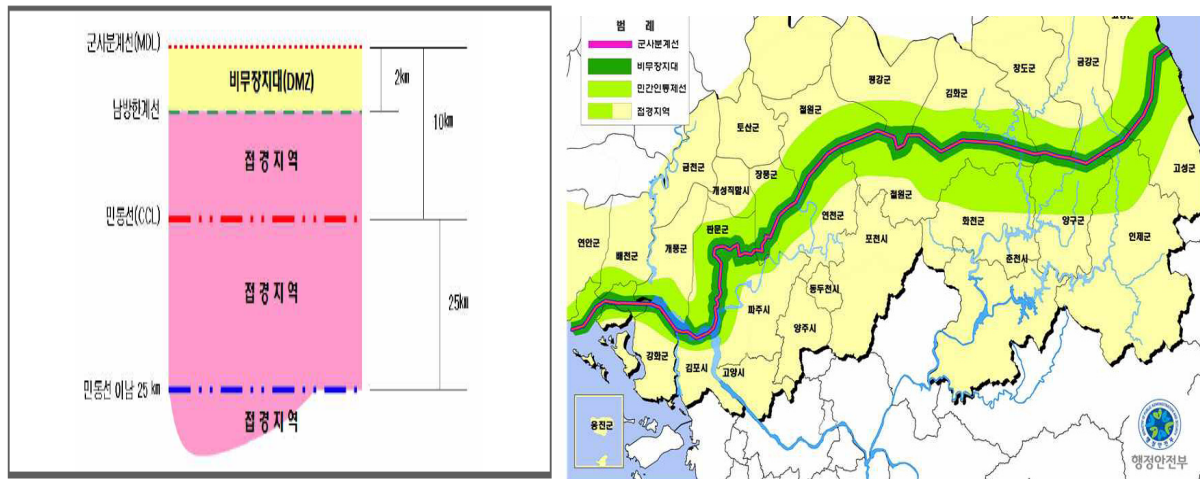
제2절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대상지역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춘천)

* 인천 : 강화, 옹진, 경기 :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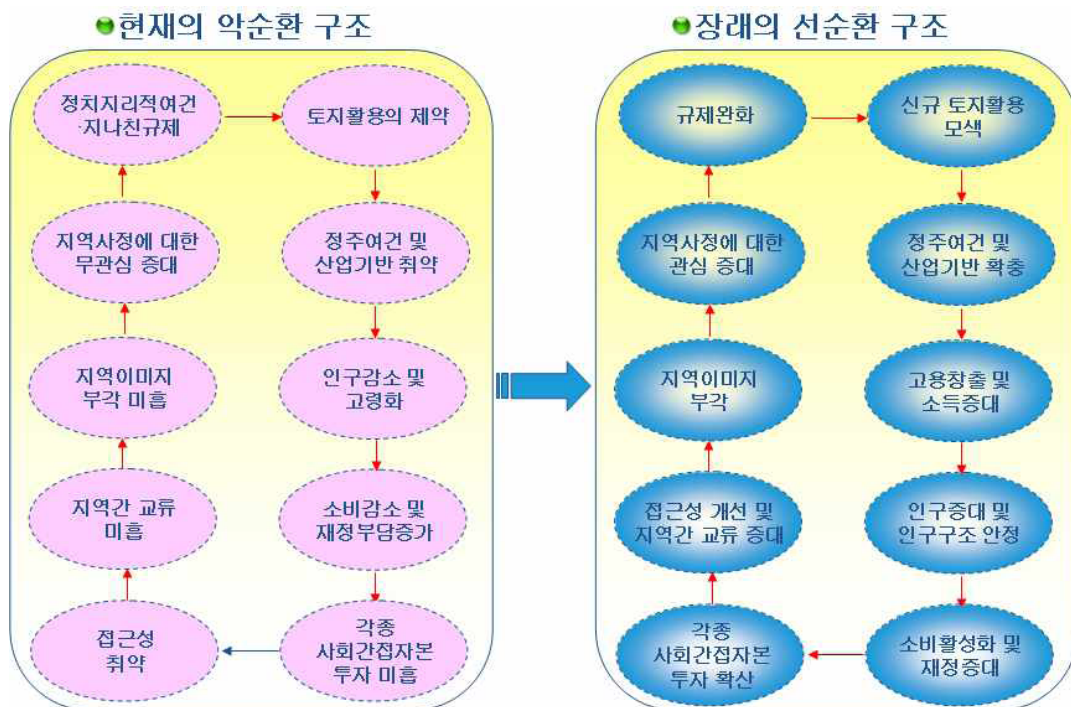
- 1995~2010년간 시·도별 인구증감에서 인천(0.88%)과 경기도(3.07%)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강원도(-0.25%)는 감소 추세

- 인천시의 인구는 1995년에 비해 2010년 연평균 0.9% 증가
- 경기도 내 접경지역의 경우 연천군만이 유일하게 연평균 인구가 1.6% 감소
- 강원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는 대부분 연평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4% 수준으로 전국 평균(52.2%)에 훨씬 못 미치는 낙후지역이며, 춘천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은 10%대 수준

- 접경지역의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

○ 접경지역 발전의 과제



○ 추진과제



2. 세부추진과제

〈3-2-1〉 생태관광벨트 육성

○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중 생태계 우수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기타 지역은 완충·전이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과 발전 병행
-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 유네스코 MAB가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한 육상 및 연안 생태계
- 2010년 기준 109개국 564개소, 우리나라 설악산, 제주도, 묘향산, 광릉숲 등 7개소

○ 접경지역 일원 지질공원(Geo-Park) 인증

- 두타연, 편치볼 지구, 용늪 등 접경지역 일원
- 지질조사, 지리교육·해설사 양성계획, 자립형 주민참여 프로그램개발 등 지정조건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박물관, 자연관찰(탐방)로, 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습지생태벨트 조성(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학습시설 조성)

- 우수한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탐방로, 체험학습장 등 녹색체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육성
- 석호 등 해안가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형과 강변 습지를 활용한 수변형, 내륙에 위치한 늪 습지를 활용한 산악형 등으로 조성

습지생태벨트 및 평화생명벨트 조성



○ 평화생명벨트 조성

- DMZ 접경지역 일원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희귀한 두루미, 저어새, 물범, 물거미 등의 서식지 보호 및 관찰시설 설치
- 고성의 북한수변공원(연어방류), 철원의 두루미생태관찰, 인제의 빙어체험마을, 꽃사슴 생태관찰원, 화천의 평화생태공원조성, 북한강 수달 생태탐방로, 양구의 편치볼 해안 분지 탐방로, DMZ상징 조형물(평화생명의 문) 조성 등
- 다양한 생태 종을 활용한 체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캐릭터 홍보콘텐츠 개발로 접경지역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활용

○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지 및 수상레저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루트 개발
- 고성의 청간정 경관복원, 양구의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박수근 미술관, 이해인 문학관 및 전통체험마을(백자마을), 철원의 궁예도성 복원, 태봉국 테마파크,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화천의 곡운구곡 역사문화관광지, 인제의 평화생명동산 콘텐츠 제작,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 등

○ 레저 문화관광지 및 안보관광벨트 조성



○ 평화누리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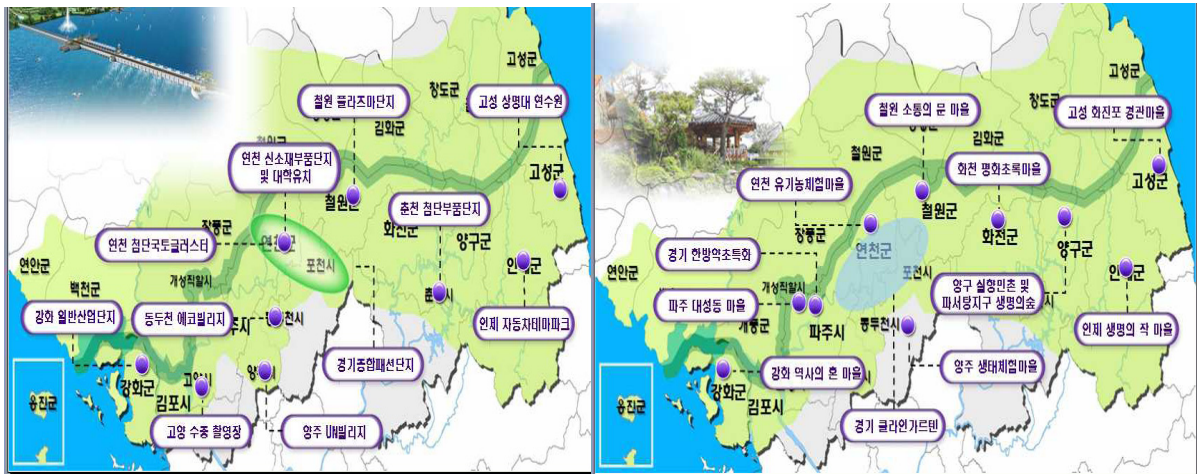
- 지역 관광명소 주변 핵심거점 순환형 및 관광명소간연계 테마로드 조성
- 안보·생태 등 지역별 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로드 개발
- 비포장 또는 기 사용하고 있는 기존도로 및 폐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 기존 군작전로를 활용한 친환경적 자전거 및 도보 트레킹코스 조성

〈3-2-2〉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 지역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
- 인제 국제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첨단신소재부품단지(IBEC 산업) 조성, 춘천첨단부품산업단지(외자유치, 소형원자로 등) 조성, 화천 MICE 콤플렉스 조성, 고성 의료복합휴양시설 조성

신성장산업과 안보생태빌리지 육성



○ 지역특성을 활용한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 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하여 숙박, 휴게, 병영체험 등 다양한 계획 운영
- 지역 특산물, 자연경관, 안보시설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철원 소통의 문, 인제 생명마을, 양구 서천 환경정비사업, 화천 평화초록마을, 고성 화진포 등 안보생태 빌리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파크 조성

- 풍력, 소수력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보급원의 조성으로 접경지역의 성장 도모 및 친환경 청정산업 확대
- 고성 및 양구 편치불 등 국내 최대 풍력지역의 풍력단지, 인제 원통 북천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한 소수력 설비
- 사업 추진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을 통한 친환경 개발

〈3-2-3〉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 접경지역의 동·서간 생활권 통합으로 지역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지역소외감 완화, 삶의 질 개선 및 관광 활성화
 -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강원도 고성군, 총연장 252km
- 평화누리길과 연계하여 접경지역 일원 관광루트 조성
- 터널 및 에코브리지 설치로 동물 이동권 확보 등 친환경적 조성
- 기존 국·지방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개설 구간 최소화
- 고성 46번국도 개량, 양구 31번국도 개량

○ 남북교통망 복원

- 남·북한 평화와 협력 및 국토통합의 여건조성
- 중국·유라시아로의 해상과 항공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단절된 육상교통의 복원 필요
- 철원 철도 복원사업(경원선 16.2km), 국도 복원사업(3·35·43호선 37km)
- 남북간 경제 및 생활권 협력의 기반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 대비 장기적 교통인프라 구축

〈3-2-4〉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평화대학 분교 유치

- 평화대학은 유엔총회 결의 및 평화대학 설립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설립
 - * 평화대학 : 코스타리카에 본교를 둔 국제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 UN총회에서 승인
- 장기적으로 DMZ 인근지역에 평화대학 캠퍼스 설치 운영
 - * 프로그램 : 1년 3학기 석사학위과정 운영(약 100명)으로 약 15개 석사과정, 국제세미나, 다수 단기과정 → 연구 및 조사, 내외국인 대상 전문영어 과정 운영
 - * 운영시설 : 독립캠퍼스 총 5,000㎡(강의실, 사무실, 기숙사 등 편의시설)

〈3-2-5〉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 접경지역의 핵심성장거점으로서 범정부적 사업으로 특화발전지구 조성 추진
 - 특화발전지구 조성 계획은 남북한 및 주변 정세에 따른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미래적 관점에서 추진
 - 철원(통일경제특구)과 고성지역에 자족기능의 특화발전지구를 조성하고, 중간지점에 생명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특화발전지구(가칭 내금강 특화발전지구) 조성을 검토·추진
 - 국토중앙에서 특별한 국방문화와 생태계를 키우고 지켜온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수행 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 중심의 공공기관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하여 자립성 강화

- 국토의 중앙지대로서 남북 완충지대 조성
 -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각자가 직면하게 될 갑작스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완충지 역할의 공간 필요
 - 국토 중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구상
 - 미래의 통합국토 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고려하여 추진, 한반도 중심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구상
 - 특히, 우수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고려한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국토 정중앙점과 연계한 평화·생명의 상징물 조성

-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조성 구상
 - 위 치 : 고성군 남북출입사무소 일원(총 1,026,000㎡)
 - 사업기간 : 2013~2020년
 - 주요시설 : 컨벤션(35천㎡), 배후주거(120천㎡), 휴양(50천㎡), 판매(15천㎡), 지원시설(70천㎡), 공원(25천㎡) 등
 - 고성군의 남북출입사무소를 중심으로 관광형 교류발전지구 조성
 - 북측에 기 조성된 금강산 관광지구를 연계거점으로 활용하는 대규모관광협력지구로 발전
 -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 국제관광수요 흡수

제3절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탄광지역2단계개발계획(2006~2015)』에 따라 지역별 개발계획 추진

- 태백시 → 고원레저스포츠도시
- 삼척시 → 건강생명도시
- 영월군 → 생태문화 감성도시
- 정선군 → 고원복합휴양도시

○ 개발계획의 내용

- 2006~2015(10년간), 4개 부문 121개 사업 4조 8,261억원(공공투자 1조 6,205억원, 민간투자 3조 2,056억원)
- 탄광지역개발사업('06~'10) : 31개사업 4,505억원
- 폐광지역기금사업('06~'15) : 45개사업 6,679억원
- 폐광지역진흥사업('07~'15) : 5개사업 5,021억원
- 민자유치개발사업('06~'15) : 40개사업 32,056억원

구 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백만원)	재원별 투자				
			국비	탄개비	기금	지방비	민자
계	121	4,826,122	401,686	450,490	667,944	100,422	3,111,520
관광레저	50	3,582,177	327,686	197,849	150,384	81,922	2,824,336
지역특화	19	257,040	-	35,900	63,066	-	158,074
인프라	19	263,627	-	9,600	254,027	-	-
생활환경	33	723,278	74,000	207,141	200,467	18,500	223,170

○ 추진과제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활성화
- 강원랜드 지역투자사업 추진
- 폐광지역 기업유치 추진
- 신에너지 성지화 추진
-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기한연장 추진

2. 세부추진과제

〈3-3-1〉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활성화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개발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사업비 : 2,047억원 ▪ 사업량 : 4개 시군 9개사업

- 태백 :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 삼척 : 육백산 화훼휴양단지 조성,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 영월 : 당나귀와 봄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
- 정선 :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신동 묵은지 마을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기업 육성

- 2020년까지 마을기업 50개소 이상 육성(2012~2016년, 40개소)
- 폐광기금을 활용하여 2012년 4개소의 시범사업 추진
-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마을기업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등 풀뿌리기업 창업활동의 촉진

〈3-3-1〉 강원랜드 지역투자사업 추진

○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강원랜드가 주관하여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그동안 부진하였던 사업을 재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그 동안 계획·추진사업

- E-City사업(태백)
- 스위치백리조트(삼척)
- 하이원 상동테마파크(영월)
- 하이원컴플렉스타운(정선)
- 탄광문화관광촌(정선)

○ E-City 사업의 현실성 재검토 및 성공사업 발굴 연계

- 게임사업 퍼블리싱(2개 게임 서비스 중), 자회사(하이엔터테이먼트) 운영
- 게임사업 성공진입 전략구축 및 여건변동 추세를 감안하여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의 현실성 제고(플랜 보완검토 등)
- 보완적 지역사업 발굴 및 인재육성(컨택센터, 게임아카데미 등)

○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

-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
- 영동선 폐선시기(2012년 말)에 착수 가능토록 관광열차 제작 등 각종 사전절차 추진

○ 상동테마파크 조성

- 실시설계 완료(2011.9월), 인허가 절차 후 공사착공(2011.10월)
- 고객 집객력 및 킬러콘텐츠 형성
- 직원연수센터 등 보완시설 확충

○ 하이원 콤플렉스타운 조성

- (구)고한초교 부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타운으로 조성
- 지역시설과의 상생방안 강구
- 기혼자 숙소 등 지역발전 지원시설 확충

○ 탄광문화관광촌 조성

- 철암 시가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성기 당시 탄광촌의 흔적을 재현하는 ‘역사 박물관’으로 조성
- 주요 시설배치와 프로그램은 광산도시 당시 시장, 상점, 이발관, 다방 등 실생활 공간을 되살리고 탄광기획 상품개발·판매
- 주택 등 건축물은 가능한 외형을 보존하는 한편 주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담은 예술 창작 작품을 전시관에 설치
- 관광객의 민박을 겸한 체험형 프로그램의 하나로 과거 광부사택촌을 재현한 숙박 시설 추진

○ 게임사업 성공진입전략 및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의 발전적 개편 추진

- 지역사업 발굴 및 인재육성 등

〈3-3-2〉 폐광지역 기업유치 추진

○ 2007~2010년 기업유치 실적

- 기업유치 48개 : 태백(12개), 영월(24개), 정선(12개)
- 지역경제효과 : 투자유치(901억원), 연간매출(760억원), 고용유발(406명)

○ 폐광지역 기업유치 지원제도 강화

- 산업단지 : 농공단지 7개소, 신규 조성농공단지 2개소
-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기준(소요재원 :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부담)

-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본사이전 : 본사이전 실질근무자 10인 초과시 1인당 1백만원(5억원 한도)
- 공장이전 : 이전등록 투자비용 10%범위내 (5억원 한도)
- 부지매입 : 개별입자·지원대상 농공단지 부지매입비의 30%범위내 (5억원 한도)
- 임대보조 : 임대기간 최대5년까지 50%이내
- 물류보조 : 운반비 20%, 1년범위내 (4천만원 한도)
- 고용보조 :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초과 1인당 월70만원, 12개월범위 (5억원 한도)
- 교육훈련 :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신규채용 1인당 월60만원, 6개월범위 (5억원 한도)
- 이차보전 : 대체산업육성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4% 초과시 추가 3%까지
 - 지원받은 기업은 폐광지역에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본사,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인원규모를 3년동안 유지의무
 - 도내이전, 창업기업은 물류, 고용, 교육훈련, 이차보전 지원 가능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한국광해관리공단)
 - 대상 :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관광레저업, 석탄광업외의 광업을 창업·확장·이전 기업
 - 지원기준 : 시설자금(5년거치 5년상환, 50억원 한도), 운전자금(2년거치 3년상환 5억원 한도)

〈3-3-3〉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기한연장을 계기로 신에너지 성지화 추진

○ 석탄산업에 대한 재조명과 탄광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유도

-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석탄의 가치가 재조명
- 석탄을 액화하고 또 가스화 하는 기술발전으로 청정 녹색에너지로 재탄생
- 2기까지의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석탄을 폐자원으로 전제하고 대체산업 육성에 몰두 하였으나 석탄의 새로운 효용가치로 재인식되고 있음

- 폐광지역 지원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계기로 하여 새로운 청정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재탄생기반 형성 추진
 -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탄광지역에 매장된 석탄자원을 활용한 액화석탄가스, 동해 바다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 기술기반 집적
 - 삼척 융복합에너지 집적시설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 남부고원지대 신에너지 성지화 구상 : ‘퓨전에너지 성지’
 - 국내외 석탄의 청정 에너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전략1) 청정석탄 에너지 관련 R&D 기반 조성 및 실증단지 조성 관련 연구소/발전 사업자/에너지 대기업 유치
 - 전략2) 에너지 자원이대로의 부활을 위한 에너지관련 국가 R&D 기관 유치
 - 전략3) 기존 폐광지역, 삼척 종합발전단지, 동해안 항만 연계 추진

〈3-3-4〉 폐광지역 시군 경제자립화 사업 추진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도시 기반구축
- 지역주민의 안정적 보금자리 조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강화
- 관련계획의 성공적 추진
 - * 관련 계획 :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06~’15년), 경제자립형개발계획(‘12~’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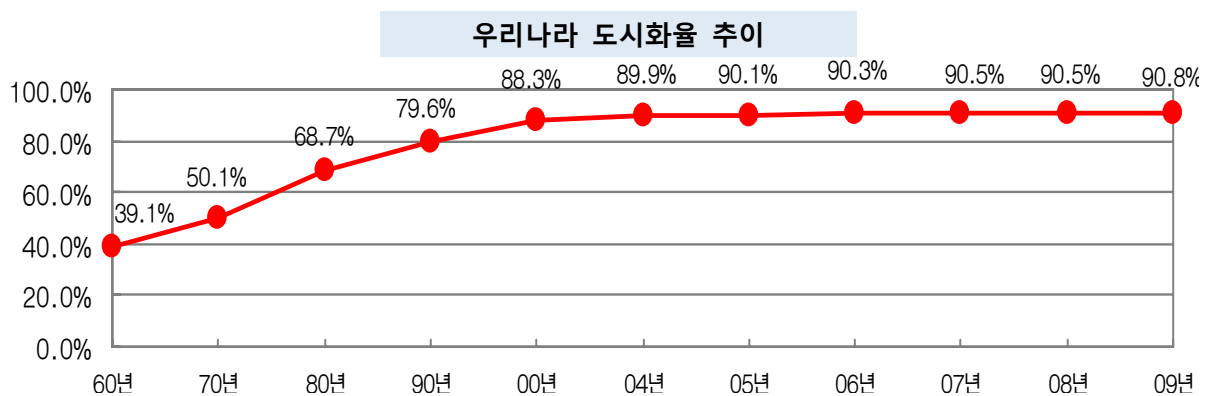
제4절 거점도시기능 강화

1. 실태와 추진과제

- 국토해양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0.8%

－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

* 도시지역 :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중 도시지역을 의미



- 강원도의 도시화율은 도시계획구역 기준으로 80%(행정구역 기준 78%)로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92%), 제주(90%), 경남(85%) 다음으로 높은 비중

－ 도시화율이 높다는 것은 도민의 생활에서 도시의 역할이 크다는 실태 표현

전국 도 지역의 도시화율 비교(%)

구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시계획구역인구기준	81	92	80	64	78	69	77	84	90
행정구역인구기준	78	93	78	66	76	63	74	75	94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부통계연보, (2010년 기준통계)

- 전국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미지정 지역 등으로 세분) 면적은 15.8%인 17,492km²이지만 강원도의 도시계획구역은 5.8%인 1,010km²

－ 도시가 인간생활 터전의 중심이 되면서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은 기능적 연관관계의 도시(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

- 도시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중심도시이며, 큰 도시권을 형성하는 중심도시를 거점도시라 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강원도의 거점도시는 춘천, 원주, 강릉의 3대도시
 - 전국적인 교통망의 발달과 서울의 거점영향권이 넓어지면서 지리적으로 설악권, 남부고원권 및 접경지역권 등 지역에서의 새로운 거점도시 역할이 요청됨
- 추진과제
 - 전통적 3대 거점도시 기능의 글로벌화
 - 설악권 거점도시 기능 강화
 - 접경지역권 및 남부고원해양권 거점도시 기능 육성

2. 세부추진과제

<3-4-1> 춘천·원주·강릉 거점권 기능의 글로벌화

- 춘천, 원주, 강릉은 역사적으로 강원도를 대표해 온 거점도시
 - 현재 강원도 전체인구의 40%를 점유하고, 점유비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
 - 최근 서울 등 광역도시 기능이 커지면서 강원도의 거점도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동해안 거점도시인 강릉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 강원도가 단일의 광역 경제권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도시의 거점도시 역량 발휘 필요
 - 일차적으로 3대도시의 충분한 역량 축적후 각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배후지역과 상호 혁신의 촉진과 통합성장의 메카니즘 형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3대도시 거점기능 확충> 1단계(2011~2015)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확산> 2단계(2016~2020) </div> </div>	
권역의 중심성 강화	권역간 연계와 전체 강원권의 통합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 : 국토 동북부의 거점도시 ▪ 원주 : 국토 중동부의 거점도시 ▪ 강릉 : 동해안 거점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권 : 춘천-원주축 코너베이션(연담도시권)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속초축의 결절점 ▪ 원주권 : 춘천-원주축 코너베이션(연담도시권)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강릉축의 결절점 ▪ 강릉권 : 동해안 코너베이션(연담도시권)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환동해축의 결절점

○ 춘천권의 육성

- R&D 기능을 토대로 한 지식기반형 경제도시권 육성
- 기존 행정기능과 대학의 연구기능 및 지역의 차별화된 산업기반인 바이오, 정보, 문화, 환경 및 관광레저산업이 조화된 도시권
- 캠프페이지, 의암호반, 도심권을 연계한 춘천 도시기능 강화(산업기능, 문화기능, 휴식기능, 주거기능 등)
- 물(하천)을 이용한 랜드마크와 도시생태축 형성

○ 원주권의 육성

- 현재의 의료기기산업을 비롯한 강원도 대표산업도시 위상을 계속 강화
- 혁신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기능과 R&BD 중심의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 혁신역량의 도 전역 파급효과 달성
- 조성 중인 혁신/기업도시의 조기완공을 통해 지식산업 거점기능을 본 궤도화
- 제2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혁신/기업도시의 인프라 구축
- 원주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와 관광휴양기능의 확충

○ 강릉권의 육성

- 강릉의 3대 잠재력 요소는 과학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사업을 계기로 강릉을 전면적인 쾌적환경 도시로 조성
- R&D 기능과 단오제 등 관광문화기반을 토대로 희소금속과 신소재산업이 어우러진 지식기반도시 형성
- 원주~강릉 철도와 동해철도 및 동서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도 향상과 연계하여 양양 공항 활성화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서 도약기반을 확충

○ 3대 도시의 상호 연계성 확충

- 춘천~원주축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형성
- 원주~강릉축 동계올림픽특구 조성을 계기로 한 레포츠산업 거점기능 및 메디컬~바이오~신소재 연계 새로운 융합 신산업 기능개발
-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춘천~강릉축의 기능적 연계 및 보완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바이오~신소재 융합신산업 기능개발 및 R&D 협력

〈3-4-2〉 설악권 거점도시 기능 확충

- 속초시는 설악권 중심 거점도시로서 양양공항과 연계하여 잠재력 큰 도시
 - 속초시는 도시면적이 작지만 항만과 문화기능 등의 중심성이 큰 지역
 - 고성군, 양양군과 연계할 때 중심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잠재력
 - 설악~금강 연계개발을 할 때 금강권에 대응하는 거점도시로 발전 가능성
- 최근 정부가 설악단오문화권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속초권의 잠재력이 커짐
 -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일대 536.94km²(강원도 면적의 3.18%)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강릉시 91.49, 속초시 46.77, 인제군 110.00, 고성군 156.58, 양양군 132.10km²)
 - 3개부문 18개 사업에 1조 2,120억원이 투자,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 4,073억이 국비로 지원, 민자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관광진흥법 등 24개 법률이 의제 처리돼 사업추진이 용이
-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과 설악단오문화권 사업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속초시의 거점도시 기능 확충
 - 춘천~속초철도 및 양양공항과 연계망 확충으로 거점기능 강화

〈3-4-3〉 접경지역, 남부고원해양권 거점도시기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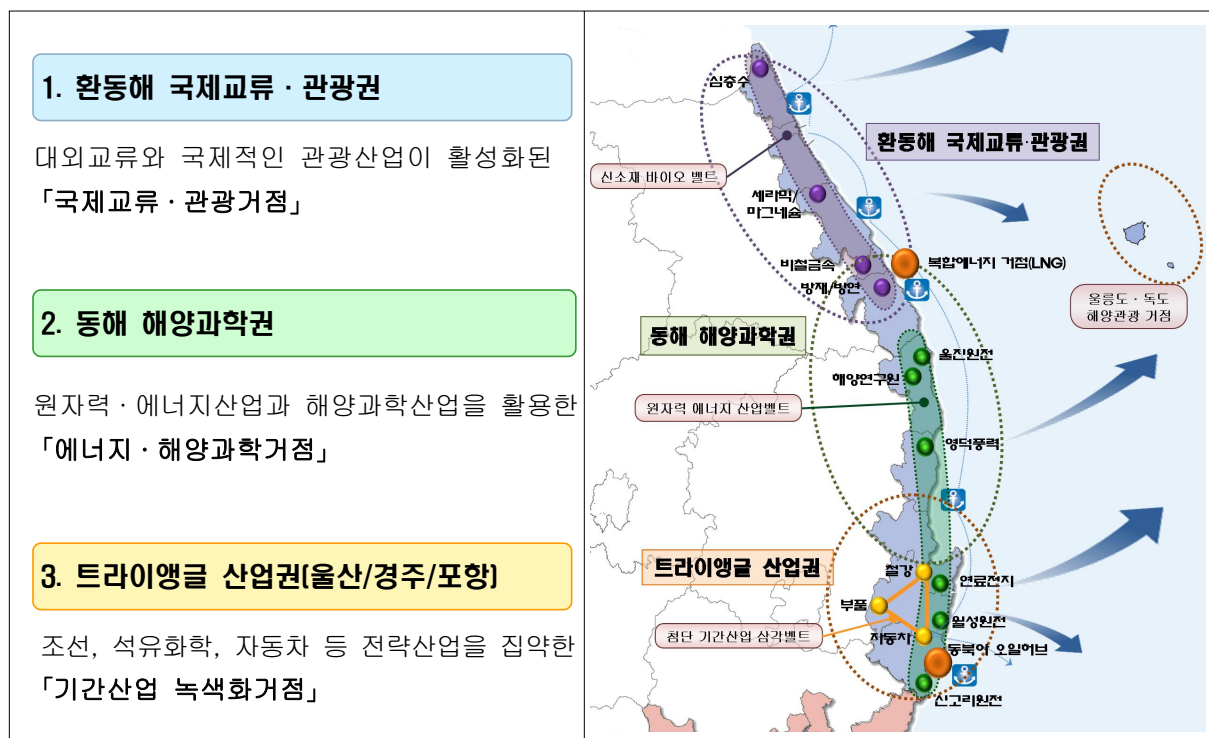
- 접경지역 거점도시 기능 육성
 - 접경지역계획 추진을 통하여 철원의 거점기능 육성
 - 신산업으로서 플라스마산업, 농업기반의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경제기능 제고
 -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실현으로 접근성 제고
- 남부고원해양권 거점도시 기능 육성
 -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시의 복합에너지거점 도시기능 강화
 - 강원랜드 카지노와 사북읍 재개발 및 태백시와 네트워크형 거점도시 기능 강화

제5절 동해안발전계획 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2007.12월 제정)의 목적구현을 위하여 정부는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2010.12월) 수립을 승인
 -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간 교통, 교류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
- 3차원 지역정책의 하나로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방향(2008.12월) 및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2009.12월)의 후속조치로 추진
 -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국가기간산업 및 에너지산업, 문화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동해안권을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대로 육성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동해안권을 대외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축으로 조성

동해안 3개 시도 특화발전방향



○ 강원동해안 발전계획의 추진과제

-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국제관광 거점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2. 세부추진과제

〈3-5-1〉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 복합에너지 거점 조성으로 다양한 차세대 에너지원의 생산·확대

- DME 연료단지 조성(삼척) : LNG 비축기지 연계 DME 연료 저장탱크, 연구기반 등
 - * DME(Dimethyle Ether)는 천연가스·석탄·바이오매스 등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제조하는 화합물로 독성이 없고 연소 시 오염 배출물이 적은 청정연료
- 석탄가스복합화발전시설(IGCC) 등 첨단에너지단지 조성(삼척)
 -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천연가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제하여 발전하는 것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오염원이 저감됨
- 복합에너지단지 및 호산항(국가관리항만 지정 추진) 등 항만기능과 연계하여 삼척시의 거점도시기능 확충

○ 그린 에너지 시범지역 육성

- 녹색성장의 도시모델 창출을 위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강릉) : 녹색 교통체계, 그린 홈 보급,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등
- 친환경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위한 천연가스 시범도시 조성(동해, 삼척) : 천연가스 스테이션 구축, 천연가스 차량 부품소재 관련 기업 유치 등

○ 해양에너지, 해양자원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해양연구탐사거점 구축

-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양에너지 개발

〈3-5-2〉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 신소재 산업 거점 조성

- 마그네슘 산업단지(강릉) : 제련단지, 부품소재단지 등
- 세라믹산업 클러스터(강릉) : 기술혁신 기반, 인력양성 등
- 비철금속 산업단지(동해) : 산업단지, 산업지원센터 등
- 소방방재특화 산업단지(삼척) : 산업단지, 연구단지, 지원센터 등

○ 해양바이오 산업화 거점 조성

- 해양심층수 R&DB센터(고성) : 심층수 개발·이용 플랜트 구축, 연구, 창업보육 및 기술보급 등
- 해양심층수 과학관 건립(고성) : 심층수 전시·체험 공간, 심층수 추출과 제작과정 소개 등
- 해양바이오 R&DB클러스터 조성(강릉) : 해양 천연물 의약소재 특화기반 구축, 해양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 청정 농수산물 특화거점 육성

-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삼척) : 연구·교육관, 친환경 농업단지, 농촌체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 바다목장 조성(고성) : 인공어초 설치, 생태체험 및 레저용 시설 구축 등
- 수산물(젓갈, 홍게) 명품벨트 및 해양수산물가공식품 산업단지 조성(속초) : 특화브랜드 개발, 유통 및 상설판매 시설, 마케팅, 농공단지 특화 등

〈3-5-3〉 국제관광 거점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 설악권 국제관광 교두보 구축

- 설악권 국제관광벨트 구축 : 아쿠아테마파크, 크루즈항 조기 완성,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정비(속초), 국제관광도시조성(고성),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양양)
- 강릉권 문화 휴양 관광거점 육성 : 관광 R&D 글로벌파크 조성(강릉), 블루헬스케어 콤플렉스 구축(강릉), 다기능산림휴양거점 구축(양양)

○ 휴양 레포츠 벨트 구축과 창조지역·산업 육성

- 가족체험 휴양지구 조성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
 - *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웰빙 휴양타운 조성(동해) : 웰빙타운, 승마장, 크루즈훼리 운영 등
 - * 청초호 마리나항 개발(속초) : 수역·계류시설, 보관시설, 클럽하우스 등
-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중심의 창조지역·산업 육성
 - *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강릉) : 단오문화콘텐츠 개발, 단오 커뮤니티 만들기 등
 - * 이사부장군 선양사업(삼척) : 테마파크, 애니메이션·드라마 제작 등

○ 생태관광 기반 조성

- 동해안권 해안보전사업
 - * 강원도 전연안에 걸쳐 36개소 : 연안침식 방지, 호안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 석호 보전·복원사업
 - * 7개소(경포호, 향호, 영랑호, 화진포호, 송지호, 광포호, 매호)
 - * 완충 및 습지, 퇴적오니 준설, 유입하천 생태복원 등
- 동해안 일주형 생태탐방관광로 조성
 - * 낭만가도 조성 : 239km(국도 89.3km, 해안도 150.2km)
 -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 관동팔경 연계노선 278.9km
 - * 해안데크, 보도, 쉼터, 전망대, 자전거길, 테마광장 등
- 아름다운 해안경관 조성을 위한 관광미향 가꾸기
 - * 강릉 심곡항, 동해 묵호항 개발과 친수·휴식공간 조성, 방파제 리모델링, 경관 조명 등

〈3-5-4〉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 초광역기간교통망 구축

- 남북6축 철도(삼척~포항/고성~강릉)
- 남북7축 고속도로(영덕~삼척)

○ 발전거점 연계교통망 확충

- 항만인입철도 및 배후도로 건설
- 양양공항과 원주~강릉철도 연결
: 신규
-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

○ 환동해거점항만 조성

- 동해항 : 북방교역의 거점항만
- 속초항 : 해양관광 거점항만
- 호산항 : 자원 및 에너지 거점항



○ 환동해권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동북아지사성장회의 등 동북아 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제6절 창조지역사업의 추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기획, 각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추진⁴³⁾

-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면 광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우선 반영되어 보조금 및 창조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완화도 병행하여 추진⁴⁴⁾

○ 창조지역사업의 요건

- 내 발 성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일정기간 수행한 사업일 것
- 창 조 성 : 타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은 독창적 사업주제와 소재를 활용
- 지역발전 : 문화적,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 사업일 것

○ 추진과제

- 창조리더의 양성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과 창조산업 육성⁴⁵⁾
- 창조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사회적자본 형성
-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원할 물적자본의 형성

2. 세부추진과제

〈3-6-1〉 창조리더의 양성과 창조산업 육성

○ 지역의 ‘창조도시’화 및 창조산업을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

- 청소년들의 창조적 마인드 형성과정 개발과 문화, 예술 우수인재 발굴유치
- 지역인재 발굴 시스템 구축(현재의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연계 추진)
- 향토장인 등 전통기에 전승자의 창조적 리더 역할 추진

43)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산업, 환경, 복지,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결집하여 내발적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역발전특구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연장선상에서 창조성이 강조되는 사업

44)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 및 결집하여 내부적 자치기반과 정체성을 확충시킨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추진하여야 할 중요성이 있음

45) 창조지역을 ‘창조’하는 창조자본은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그리고 물적자본으로 구성되며 통상적인 물적자본 보다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창조자본의 특성이 있음

- 시군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창조지역, 창조도시, 슬로우시티 등 조성사업 추진
 -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개발하고 확충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
 - 우수인재 정착 및 외부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포함
 -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식개혁 및 지식의 발전을 통한 창조지역 형성추진

〈3-6-2〉 창조네트워크의 구축

- 산·학·관·민 협의체 형성
 - 지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활용
- 창조산업체 네트워크 구성
 - 창조산업과 관련되거나 창조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연합체
 - 창조산업의 상호이해와 아이디어의 교류, 공동 연구회의 구성 활동 추진
- 시민단체의 양성
 - 창조지역 만들기에 앞장 설 시민단체 활동 촉진
 -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회 구성 등 활성화

〈3-6-3〉 물적자본의 형성

-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창조산업기금’ 조성 추진
 - 창조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활용
 - 도내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생태자본의 형성
 - 지역의 우수 자연생태를 지역발전 자본으로 승화
 - 자본력이 있는 자연생태계를 ‘생태자본지구’로 지정하여 보전 및 활용
 - 생태자본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제4장 지속성장 산업기반 형성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지역과 산업의 발전은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이를 갖춘 사람이 열쇠
 - 지식·기술의 개발과 인적자본 축적은 R&D활동을 통하여 축적
 - 강원도의 R&D·과학기술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⁴⁶⁾
 - 연구개발인력은 9128명(2008년 현재)으로 전국 인력의 2.09%에 불과
 - * 국·공립연구소 308명(전국대비 4.56%), 정부출연연구소(0.26%), 기업부문(0.58%)
 - 대학 연구인력은 7308명(전국대비 4.36%)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R&D 기반이 취약하여 양성된 인력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실
- 낮은 R&D 투자실적 및 기반 취약원인
 - 강원도 GRDP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0.34%로 대전(1.12%), 광주(0.97%), 서울(0.64%)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 강원도 공공기관의 GRDP 대비 R&D투자는 0.12%(대전 8.79%), 기업 0.34%(대전 6.41%, 경기 6.11%) 수준으로 취약
 - R&D기반취약은 과학기술계보다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에 반증

강원지역 전공별 학생수

(단위 : 명)

연도별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약	예체능
2000(A)	25,654	2,417	32,294	5,311	3,417
2010(B)	42,157	4,067	40,527	7,509	8,375
B-A	16,503	1,650	8,233	2,198	4,958

자료 : 한국은행강원본부, 『강원지역 인적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2011.4)

46) 교육과학기술부, 「2009 지방과학기술연감」

- 교육과학기술부의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8-2012)에서 강원도의 과학기술진흥 비전은 세계 속의 허브-스포크형 생명건강산업수도 육성
 - 공공부문의 선도적 R&D 활동과 산학 연계형 R&D 개발 활성화
 -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반 조성
 - 상대적 비교우위 산업인 농수산·식품산업과 비금속광물 등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적 탐색노력 병행
 -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제시
 -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과 R&D·과학기술기반은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과 기존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기대

- 기존 전통산업은 아직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현재 농림수산업, 상업(전통시장 등), 광업, 제조업 중 전통산업들은 사양길과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화 사이에서 과도기적 상황
 -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객 비중은 높지만 국토의 남서부 지역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해외관광이 일반화되면서 관광객 지출 측면에서 관광계층의 필터링다운 현상을 겪고 있음

- 정부는 기존의 광역권 단위(선도산업 : 의료융합/의료관광), 도 단위(전략산업 : 바이오/의료기기/신소재·방재, 관광·문화), 시군단위(특화산업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로 나누어 진행하던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선도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두 축으로 추진할 계획
 - 선도전략산업의 구성(강원도)
 - ① 미래성장동력산업 : ‘기능성신소재산업’(특성화분야 : 세라믹/비철금속)
 - ② 대표주력산업 : 바이오메디컬산업(특성화분야 : 의생명바이오/전자의료기기)
 - ③ 서비스산업 : 헬스케어산업(특성화분야 : 헬스테인먼트 산업)
 - 지역특화산업 : 강원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관산업, 강원도 자원 활용 극대화 산업,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확산이 가능한 산업을 강원도 특화산업으로 중점육성
 - 선도전략산업은 201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은 2013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

2. 목표 및 계획지표

○ ‘소득 2배 행복 2배’를 실현할 산업구조의 혁신

- 강원도의 성장을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구조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 전통산업의 혁신과 융복합을 통하여 신산업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산업생산 구조	농림어업	6%	5.5%	4.5%
	제조광업	14%	15%	20.0%
	전기가스수도건설	13%	12%	11.0%
	서비스업	67%	67.5%	64.5%
GRDP 중 R&D 비중		3%	5%	5%
산업단지 조성		46개소	68개소	70개소

3. 계획과제

○ R&D·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R&D·과학기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산업 클러스터 형성
- 광역경제권산업 육성

○ 쾌적·관광산업으로 관광산업 재창출

- 쾌적하고 유쾌하며 즐겁고 또 매력을 느끼며 긍정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 환경과 고도의 문화서비스적 관광사업이 결합된 융복합산업으로 재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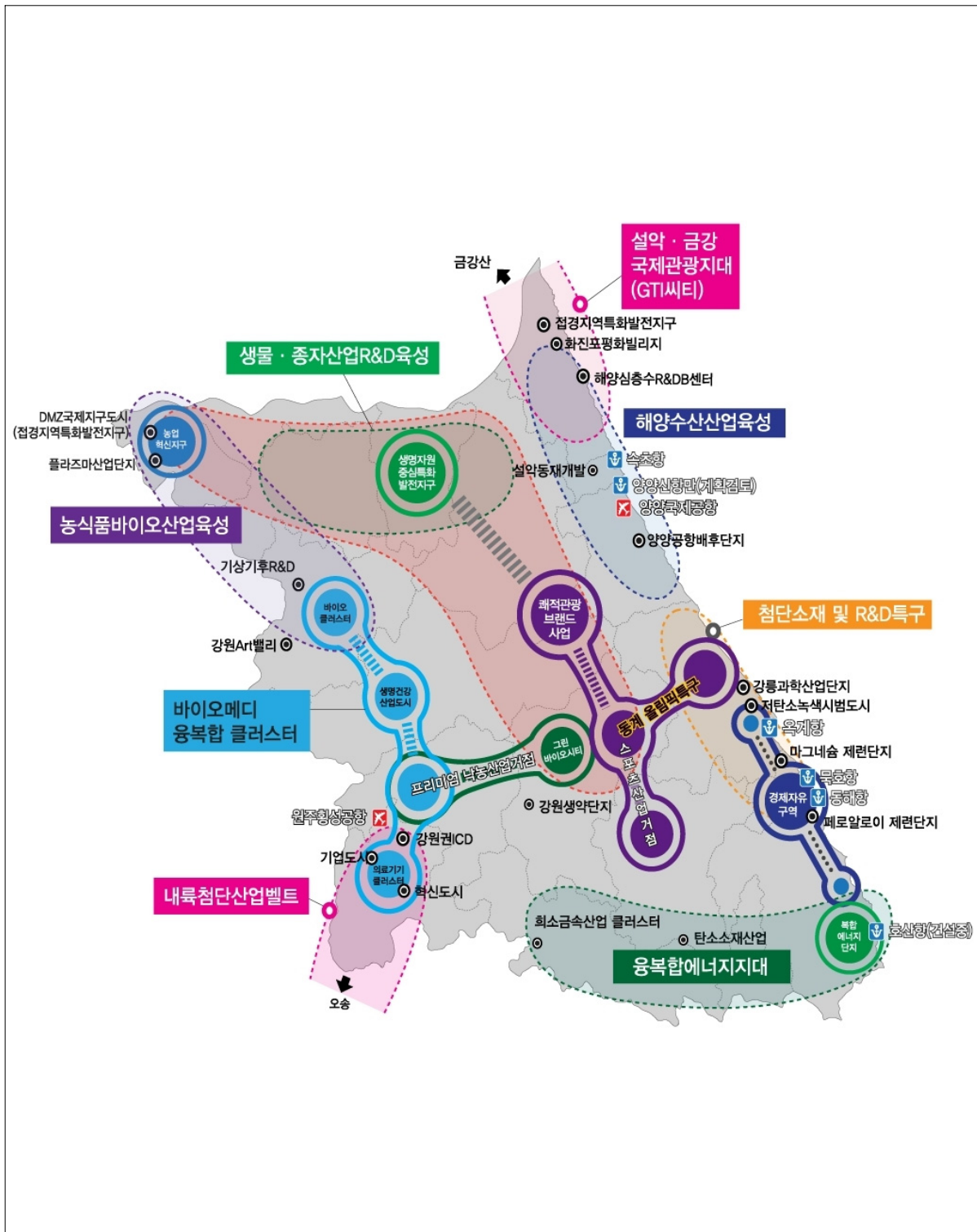
○ 융복합으로 농산어촌산업의 고도화

- 농업개념의 다변화로 6차 산업화 촉진
- 장인을 중심으로 한 향토장인산업과 전통5일장 등 전통문화산업 육성
- 종자산업, 신개념의 축산 및 낙농업, 식품산업의 육성

○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산업화

- 해양자원의 개발과 해양산업 육성 및 전통광업·제조업의 신산업화
- 전통상업·서비스업의 혁신과 지역의 기업혁신역량 지원체계 강화

산업발전 종합구상도



제2절 R&D·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연구개발’ 관련 연구비는 매우 낮은 수준

지역	2010		지역	2010	
	연구개발비(억원)	비중(%)		연구개발비(억원)	비중(%)
서울	82,430	18.8	강원	2,847	0.6
부산	8,395	1.9	충북	7,829	1.8
대구	5,900	1.3	충남	26,688	6.1
인천	16,624	3.8	전북	5,308	1.2
광주	5,209	1.2	전남	4,726	1.1
대전	50,122	11.4	경북	18,286	4.2
울산	4,522	1.0	경남	15,137	3.5
경기	183,129	41.8	제주	1,118	0.3

자료 : 2011과학기술연감

○ 강원도 지역별 R&D 현황

- 강원도는 생명·건강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중

지역	특화분야	주요 대학 및 R&D 기관 현황
춘천권 (철원)	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대(춘천), 한림대, 춘천교대 등 - 바이오벤처 집적시설 및 바이오산업 전용단지 - 75개 바이오산업 관련기업 - 바텔연구소(ISS사),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 항체 연구소
원주권 (홍천, 횡성)	의료기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원주), 상지대, 한라대 등 - 의료기기전용공단, 의료기기 산업 기술단지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산업기술시험원 유치 중
강릉권 (동해, 삼척)	해양바이오, 세라믹 신소재, 소재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원주대, 관동대, 강원대(삼척) 등 -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 R&D혁신지원·해양생물지원·파인세라믹기술 혁신센터 등 - KIST 강릉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RIST 강릉산업기술연구소 입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세라믹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중

- 제조업 부문에서 강원도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및 정밀 제조업 등의 특화도가 매우 높고, 의약품이나 자동차 제조업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

강원도 제조업의 산업특화도 분포

구 분		종사자수 기준 특화도		
		매우 높음	비교적 높음	낮음
부가 가치 기준 특화 도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의료 및 정밀제조업 		
	비교적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기타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장비 제조업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및 신발 제조업 -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화학제품 제조업 등

주) 2007년 산업중분류 자료. 매우 높음(특화계수 2.0 이상), 비교적 높음(1.0~2.0), 낮음(1.0 미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지방과학기술연감』

-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콘텐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추진
- 2011.5월 세계시장내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015년까지 콘텐츠 시장규모를 GDP대비 현 2.7% 수준에서 5% 수준까지 확대
 - 미래 그린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 수립⁴⁷⁾ : 15대 분야, 88개 전략품목 및 288개 핵심기술 설정
- 추진과제
- 국가급 과학기술·R&D 인프라 및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메디, 녹색신소재, 탄광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산업
 - 광역경제권산업 육성 : 선도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47)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2010」 2030년까지 고용창출 150만명, 내수시장 창출 94조원, 해외수출 328조원, CO2 감축량 2.1억톤 효과기대

2. 세부추진과제

〈4-2-1〉 국가급 과학기술·R&D 인프라 및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 R&D 특구의 육성과 광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 정부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설립 승인(2011.6.30)으로 KIST 강릉분원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2개가 강원도(강릉)에 소재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R&D 특구지정 요건(3개 국책기관 소재)에 근접
-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을 하나 이상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R&D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강원도의 R&D 활동을 강화
- 평창지역의 바이오연구단지, 동해안 해양바이오 연관시설, 국내관련 연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킹하여 각 권역별 클러스터 기능의 고도화
- 스크립스, 바텔 등 도내 입지 해외연구소를 매개로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충
- 도내에 입지한 대기업(포스코, 삼성 등)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기능과 연계하여 대기업 본사 연구기능과 네트워킹 활성화
- 혁신도시에 입지하는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지식 집적기능 확대
- 각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R&D 및 산업창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국가급 R&D기능 유치·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 등 유치
 - 춘천권 바이오융복합 및 콘텐츠, 원주권 의료융복합, 동해안 해양자원 및 첨단 비철신소재, 철원 플라즈마, 홍천 차세대영상의료기기, 평창 그린바이오 등 지역과 연계 가능한 연구단 중점 유치
-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천연물소재연구센터)을 확대·독립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신소재, 에너지, 응용로봇 등 관련 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 산업화 관련 연구기능 중점 육성

○ 지식기반 3대 거점도시의 R&D 기능 강화

- 춘천권, 원주권 및 강릉권의 대학 R&D 역량을 확충
- 각 권역에 입지해 있는 국가, 지역 및 기업의 연구소 기능 집적화
-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설립 등 국책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 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

- 평창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운영
- 홍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건립
- 고성 해양심층수 R&DB센터 조성
- 춘천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구축

○ 지능형 응급의료 신인프라 구축⁴⁸⁾

- 2010년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VISION 2020에 등재
- 응급의료종합계획(5년)의 수립 및 연도별 평가체계 도입(2010)

-
-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빠른 조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료기기/장치 개발, 모바일 생체정보의 전달체계,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동에 대한 실증인프라 구축
 - 미래 지능형 신인프라 구축 R&D 및 실증단지 조성
 - Anti-aging System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립
 - Life & Bio-Security 산업유치
-

○ 민·관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강원도 R&D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R&D 투자비중이 높은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민관합동 투자 R&D 사업 개발

○ 혁신주도기관 육성

- 지역혁신센터(RI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육성

-
- | | |
|-------|---|
| <RI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 장비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지도, 산학협력 등▪ 주관기관 : 도내 3개 센터(한림대, 관동대, 강원대) 사업수행 |
|-------|---|
-

- | | |
|-------|--|
| <MR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 세균성 감염질환 및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연구, 감염성 질환에서의 숙주방어기전 연구▪ 주관기관 : 한림대학교(감염성 질환제어 연구센터) |
|-------|--|
-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인 지역인재개발

- 가칭 ‘강원도 과학기술·산업포럼’을 창설·운영
- 강원도의 과학기술 조직과 인력을 보강
- 2단계 BK21 사업 운영

48) 미래 지식기반사회·녹색사회를 대비하고, 기술 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를 설계, 이의 실증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융합 신산업의 창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

<4-2-2> 신성장동력산업 클러스터 형성

○ (철원)~춘천~원주축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디 융복합클러스터 형성추진

< 바이오·메디 융복합 연구단지 >

- 위치 : 춘천~원주 벨트 내
- 면적 : 연구단지 165만㎡(50만평)
- 규모 : 대지 6,600㎡(2,000평), 건평 1,650㎡(500평)
- 사업시기 : 2013~2015년

- R&D 기능(스크립스 연구소, 바텔연구소, 서울대 면역의학 연구소, 그린바이오 단지 등)을 거점으로 연관 기업집적 및 사업개발 촉진
- 의료바이오신소재 융복합연구 사업단 운영(강원대 주관, 여타 대학 협조)

- 국가 재난형 질병에 안전한 바이오시큐리티 시스템 개발프로젝트 유치
- 축산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바이러스 조기검진 시스템, 바이오시큐리티 정보통합관리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개발
- 강원도 전략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과 융복합화

- 의료~관광~IT산업간 융복합 추진 : 심층수 및 광천수를 활용한 수치료, U-Health, 산림치유, 아토피치유 마을, Bio Informatics 등
- 강원~충청 의료산업벨트 구축
- 춘천~철원 농식품바이오산업벨트 구축 : 철원의 농업, 춘천의 바이오 연계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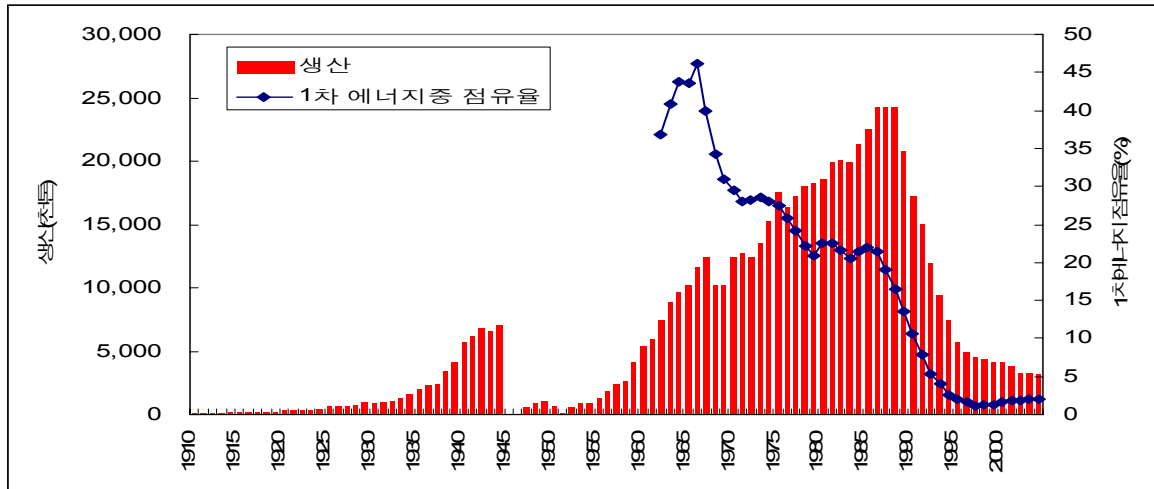
○ 녹색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육성

- 마그네슘 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 협력사업 추진
- 해양바이오·신소재 원천기술개발 지원 : 강릉원주대학교(해양바이오,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 등 대학연계, 해양바이오자원 소재개발 및 상용화 추진
- 페로알로이 클러스터 구축 : 동해시 북평지구 중심의 첨단 페로알로이 복합단지 조성
- 영월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클러스터 구축
- 태백, 정선 등 구 산업지대 및 타 시군 희소금속 광산개발과 공동 발전전략 추구
- 선도전략산업 및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연계

○ 탄광지역 퓨전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 탄광지역은 한국 고도성장의 동력자원지대
- 1980년대에 연간 약 2,400만 톤까지 생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후 급감

국내석탄의 생산 및 1차 에너지 중 점유율



자료 : 강원 탄광지역의 어제와 오늘(2006, 강원도)

- 남부탄광지대를 청정석탄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퓨전에너지 산업지대로 전환
- 탄광지역 에너지 성지화 전략과 연계하여 동해안 에너지 벨트 조성
- 2015년 종료예정인 폐특법 연장으로 에너지산업지대화의 제도적 기반마련
- 폐광지역개발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합리적 조정과 적정 배분 체계 정립
- 단계별 중장기 에너지지대 조성계획 추진

- 1단계 : 청정석탄이용 R&D 기능 유치(2020년)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석탄합성석유(CTL), 합성천연가스(SNG), 디메틸에테르(DM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석탄층 메탄가스(CBM) 등 청정석탄 관련 실증, 양산, 발전소 유치를 통한 기반 구축 → 동해안 항만을 이용하여 수입한 석탄을 활용
 - 국내 및 북한 석탄(저급탄)을 활용하는 R&D를 통해 에너지 자립화 방안 마련 → 강원도 석탄지역에 국가급 “청정석탄 기술 연구소(가칭)” 를 설립하여, 석탄 자원의 포괄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 2단계 : 수소융합에너지 기반조성 단계(2030년)
 - 청정석탄이용과 함께 수소융합발전 기술 R&D 육성을 통해 복합발전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장기지향전략 : 청정석탄산업 이후를 준비하는 수소융합발전 클러스터 조성(2050년경)
 - 청정석탄 및 수소융합에너지 R&D 기반을 토대로 융합발전 클러스터 조성, 장기전략 추진
 - 청정석탄기술 활성화 단계에서 융합발전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구축을 선제적으로 착수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개발

- 콘텐츠산업을 강원도의 지식기반기술산업의 연계·축매기제로 활성화⁴⁹⁾
- 춘천권에 메인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차세대 국가 「디지털 콘텐츠 테크노밸리」 조성⁵⁰⁾

49)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개발 및 콘텐츠 관련 산업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3D&4D,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의 그래픽 &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디지털콘텐츠 테크노밸리의 내용

- 주요사업내용 :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3D & 4D(그래픽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기술산업 역량 강화,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인력 육성, 지역문화의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창출되는 콘텐츠 상품 개발(4D영상, 뮤지컬,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패션 등등), 디지털 문화, 지역고유문화 등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
- 규모 : 약 100만 m^2 (약 30만평) 이상
- 총사업비 : 2조 4,000억원(국비 7천억, 지방비 2천억, 민자 1조 5천억)
- 사업시기 : 2012-2020년

- 춘천권의 첨단영상산업 인프라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 권역별 콘텐츠 산업 기반형성 추진(산업지원, 기업집적, 테마파크, 생활지원구역 등 구축)
 - 춘천권의 시범지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시너지를 원주, 강릉 등 지식 기반거점도시에 확산하여 강원도 전반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게임, CG, AR, VR, 3G,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 자원의 발굴 산업화
 - 창조도시 조성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선택과 집중 및 간접지원 중심 등 예산구조 조정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
- * 정부의 간접지원 비율 : 73.7%('09년) → 76.9%('10년) → 80%이상('11년)

〈4-2-3〉 지역특성의 그린에너지 클러스터화

○ 그린에너지 클러스터의 방향

- 강원도저탄소녹색도시 사업추진과 연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구조물 R&D 연구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분원, 대형 건설회사 R&D센터 등을 유치
-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식물공장 등 특성화된 건축물 연구 및 실증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적극 활용(태양열 주택보급사업,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 소양강댐의 저온수를 그린에너지로 활용
- 영월 30MW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및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실증단지 등 발전사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설비생산단지 조성

50) 춘천지역에는 동북아 최대의 창작산업단지(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 ICT 클러스터)가 형성 중 : 국내 창작애니메이션의 60% 수용가능 규모

○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 및 단지화

- 동해안권 : 태양광, 저속풍력발전 전문단지화
- 서 부 권 : 신재생에너지 복합 및 실증연구 단지화
- 중 부 권 : 수소스테이션 중심 파워파크 조성
- 남 부 권 : 풍부한 수자원, 산림자원 재활용단지화
- 북 부 권 : 접경 고산지역 풍력발전 단지화

○ 그린에너지 생산시설 보급 확산

- 기후변화협약(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국제에너지 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16%목표 달성('20년)
- 신재생에너지 보급 ⇨ 에너지 자립실현 기반 마련
 - 공공부문 :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 및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구축
 - 민간부문 : 마을단위 그린홈 보급과 고속도로 시설 유휴 공간 활용
그린홈 사업 및 녹색시설(Green Village & Highway) 기반 조성

○ CCS(탄소 포집·저장) 산업화 추진

-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과 연계, 기업과 대학·산업계가 함께 CO₂ 처리 및 전환기술 개발을 선도
- CO₂ R&D 센터 건설(한국 남부발전)
 - 위 치 : 삼척 그린파워발전소내, 연면적 3,300m²
 - 사업기간 : 2013~2014년 12월까지, 85억원 투자(연구소 60, 주거시설 25)
 - 탄소 포집(흡수제), 전환(미세조류), 저장(광물화), 분리회수(바이오디젤), 신재생(연료전지, 우드펠릿) 분야 연구 등
 - 입주기관 : 기업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등
-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 센터로 활용 및 탄소기술의 조기성장 동력화

○ 대단위 풍력발전단지 조성

-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 친환경 동계올림픽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 현재 완료 8개소(140기, 281MW) 외에 신규 9개단지 조성
: 총 17개 단지 235기 442.94MW

○ 동해안 에너지 벨트 조성

- 삼척 LNG기지를 중심으로 동해안 해양에너지 개발, 대관령 풍력단지, 동해시 천연가스자동차 부품 단지 등 인근 에너지관련 산업과 연계한 동해안 에너지 벨트 구축
- 향후, 거점을 중심으로 CCS(탄소포집·저장), SNG(합성천연가스),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TL(석탄액화), 연료전지사업 등 관련산업 육성 및 천연가스 수출 보조향,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에너지 벨트화 추진

①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시행 : 한국가스공사)

- 위 치 :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100만㎡
- 사업기간 : 2009~2015년
- 사업량 : LNG저장탱크 12기, 항만시설(부두, 방파제), 부대시설 등
- 총사업비 : 2조 7,398억원
 - 1단계('09~'13) 1조4,658억원, 2단계('14~'15) 1조2,740억원

② 삼척 종합발전단지 조성(* 사업시행 : 한국남부발전(주))

- 위 치 :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 270만㎡(육상160, 해상 110)
- 사업기간 : 2010 ~ 2020년
- 사업량 : 발전소 7기(5,000MW)
 - 유연탄 4기(1,000MW×4), LNG 2기(450MW×2기), 국내탄 1기(100MW)
- 총사업비 : 5조 9천억원
 - 1단계('10~'15) 3조 2천억원, 2단계('16~'20) 2조 7천억원

○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 도내 한강 및 낙동강 발원지의 물자원을 활용한 소수력발전으로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
- 발전용량 : 소수력 발전 22MW(2012~2020)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민간투자 병행

○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 대학 ↔ 기업 ↔ 연구기관 상호 연계한, 국내 최초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
-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및 태양광 소재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 민·외자 유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 30MW/3,690억원
 - 태양광소재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660천㎡규모
- 국책연구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신산업유치(R&D → 실증 → 상용화)
-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산업 집적화 추진
 - 강원남부권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거점 육성 및 청정 City육성

○ 도 전역 천연가스(LNG) 공급 확대

-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지경부)』 반영지역 적기공급 추진 (10개 시·군)
 - * 현재 공급지역(4개시군-춘천, 원주, 홍천, 횡성)
- 2013년 완료 : 7개 지역(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양양)
- 2015년 완료 : 3개 지역(평창, 정선, 고성)
 - * 제외지역(4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천연가스 공급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

〈4-2-4〉 선도전략산업 육성

○ 선도전략산업은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산업기반의 의미

- 미래성장동력산업은 향후 강원도를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
- 대표주력산업은 지금까지 육성되어 온 강원도를 대표하는 거점산업
- 서비스산업은 서비스분야에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거점산업

정부의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 로드맵

년도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추진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선도산업육성			선도전략산업 육성		
	지역전략 산업육성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지역산업기술개발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R&D클러스터, 지자체주도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구 TP조성사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역혁신센터(RIC)조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 기능성 신소재산업 육성

- 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광산확보와 제련, 중간제품, 최종 제품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계획 및 실증화 계획 추진
- POSCO 마그네슘 제련공장 건설⁵¹⁾ : 2018년 이후 10만톤/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마그네슘 제련공장 생산인력 1000명, 연구인력 70명 고용창출

구 분 (단지)	마그네슘 생산 자립·연관기업 집적 (2011-2015년)	마그네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티타늄, 지르코늄 생산자립화(2016-2020년)
옥계첨단소재 융합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g제련공장(3세대개량모델) 규모 : 2만톤/년 → 국내100% ▪ 첨단소재융합 : 대규모 다이캐스팅 (초경량소재) 업체 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g제련공장(4세대모델) 규모 : 10만톤/년 :내수 4만톤 - Ti, Zr제련공장(규모 : 1만톤/년) ▪ 첨단소재융합 - 다이캐스팅, 소성가공, 경량화부품기업
북평비철 금속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섬유, 압축강화글라스 ▪ 페로알로이 단지 집적 Fe-Mn(동부메탈 규모확장) Fe-Si(POSCO 진출) Fe-Ni(에너지텍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철부품 - 초경량 자동차부품, 핸드폰, 스포츠 레저, 군수용품
강릉과학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소재 연관 : 세라믹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소재 연관 : 임플란트, 인공관절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삼척 근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소재 - 무기계 난연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소재 : 무기계 난연소재 ▪ 친환경 에너지 소재 : 원자력소재 연구소, 수소저장합금, 이차전지

- 비철금속 분야 산업단지조성 추진

산업단지명	조성시기	면적	특화분야
첨단소재융합단지 (강릉 옥계일원)	2010~2013년	218.5만㎡ (산업용지 1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g, Ti, Zr, Li생산 - 초경량소재부품
비철금속단지 (동해 북평산단일원)	북평산단기완료 동부메탈확장 (2012~2013)	677.3만㎡ (산업용지 3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알로이 - 첨단부품소재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삼척 근덕)	2009~2012년	100.6만㎡ (산업용지 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소재 - 친환경에너지

51) 총 996.4만㎡(3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 순수 산업용지면적 482.1만㎡(150만평)에 1차금속분야 산업단지 조성 계획 진행 중이며, 2018년에 10만톤/년의 마그네슘이 생산될 경우 총 3천 6백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6만톤/년은 수출하여 2억8천만달러의 수출이 예상되고, 연관기업의 경우 1,000㎡당 1,945.7백만원(한국토지공사 원단위)의 생산액이 예상되어 1차 금속제련단지를 제외한 433만㎡에 기업이 모두 집적될 경우 8조 4천억원의 매출 예상

－ 첨단세라믹스산업 발전 로드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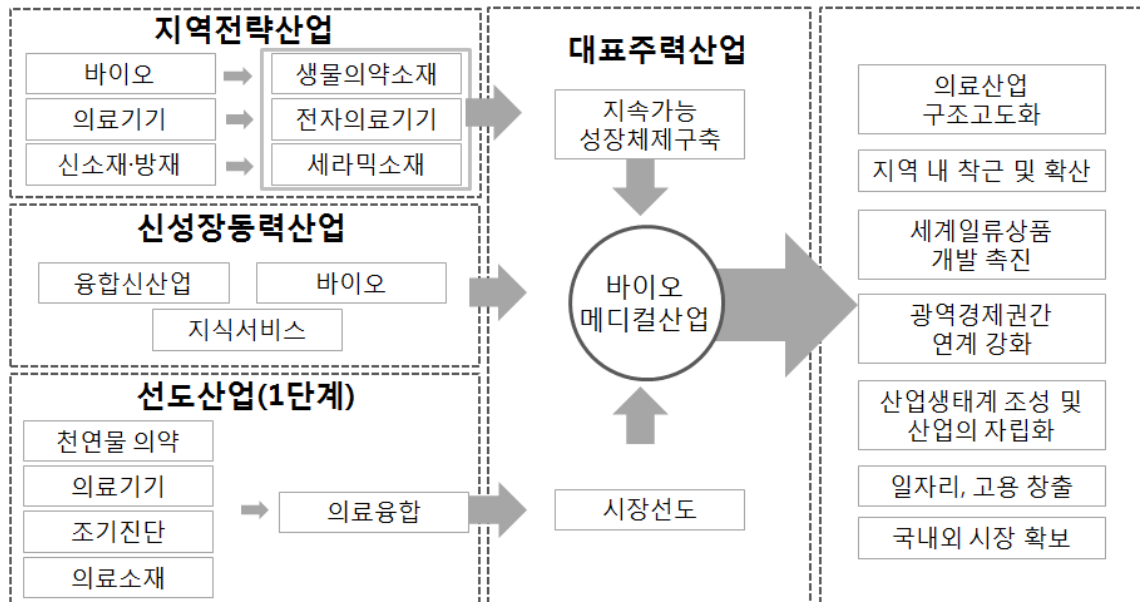
주요 산업 단지	첨단세라믹스 주요 소재·부품 생산 자립화 및 연관기업 집적 (2011-2014년)	첨단세라믹스 소재·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2015-2018년)	첨단세라믹스 산업의 국제 거점 확보 (2019-2022년)
구정 (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체용 소재 및 연관 서비스 : 세라믹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체용 소재 및 연관 서비스 : 임플란트, 인공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체용 소재 및 연관 서비스 : 임플란트, 인공관절, 국내 외치과 병원
강릉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라믹 소재 : 전자세라믹스(디바이스 부품/모듈 소재,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세라믹 소재 : 전자세라믹스(디바이스 부품/모듈소재 센서) 구조 세라믹 소재 : 기계·구조 세라믹스(반도체부재, 웨이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라믹 소재 : 전자세라믹스(디바이스 부품/모듈소재 센서) 구조 세라믹 소재 : 기계·구조 세라믹스(반도체부재, 웨이퍼 등)
근덕 (상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소재 : 무기계 난연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소재 : 무기계 난연소재 환경 에너지 소재 : 원자력 소재 연구소, 수소저장 합금,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소재 : 무기계 난연소재 환경 에너지 소재 : 원자력 소재 연구소, 수소저장 합금, 이차전지

○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 － 맞춤형 바이오 의약품 : 천연물 소재, 생물소재, 기능성 소재로 구분하여, 각 유망 품목을 바이오시밀러, 단백질 및 유전자 치료제, 의료소재, 조기진단기기 분야로 육성
- －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 제재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 후방 산업에서 개발된 소재 및 제품 중심으로 최종 의약품을 제조
- － 의료기기 분야 : 진단용 의료기기(초음파 및 MRI)를 중심으로 연관산업인 영상진단 및 단층촬영장치, 진단용 의료기기 부품소재, 의료용 소프트웨어
- － 전방산업으로 중핵부문인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방사선장치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제조육성
- － 연관업종 산업육성

- 천연물 소재 기반 : 천연물 소재 기반의 바이오 의약 소재 등을 개발 및 생산
- 기능성 소재 기반 : 항염/항암제 관련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등 맞춤형 의약품 등을 개발 및 생산
- 생물소재 기반 : 면역 질환용 의약품, 조기진단기기, 의료소재 등을 개발 및 생산

－ 강원권 기존지역전략산업과 대표주력산업(바이오메디컬산업)의 연계육성



○ 헬스케어산업 육성

- － 기존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였던 해양의료관광, 녹색의료관광과의 연관성이 높고,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수립의 주된 매개체인 숙박업이 연관된 업종인 휴양콘도 운영업을 중핵업종으로 선정하여 리조트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산업을 중점 육성
- － 헬스케어와 엔터테인먼트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통해 강원도 8대 전략상품과 관련성이 높은 10개의 업종을 연관업종으로 선정하여 중점육성

중점 육성대상 유망상품의 분류

	I. 웰니스리조트	II. 헬스투어
유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니스리조트 (도내리조트, 콘도) ▪ 클리닉인네이처 (자연휴양림, 치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클리닉 ▪ 레포츠(스포츠)클리닉 ▪ 외국인환자유치
기술분류	휴양콘도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연관분류 (세세분류)	자연공원운영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 일반의원, 한의원	자연공원운영업 휴양콘도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병원

현재 운영 중인 선도기관 현황

기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광치휴양림 내 연세양구의원	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구 광치휴양림 내 ‘연세양구의원’ 개원(201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프로토콜 개발, 임상평가 수행 중 내원환자수 358명(2010.11.1~2011.3.30) 장단기 체류가 가능한 친환경 아토피피부염 치료 모델 개발
숲채원	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 한방병원과 연계 산림기반 치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스 디펜스 테라피, 포레스트 워킹 테라피 개발 한방 숲치유 테라피 임상테스트로 긍정적 효과입증
카톨릭대학교 수치료사업단 금진헬스케어센터	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금진온천내 금진헬스케어센터 오픈(2010.11.27) 동양미러스의 투자를 통해 휴양·치료형 헬스케어를 목표로 한 메디컬 리조트로 확장, 건립 예정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센터	속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 척산온천 내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 센터 개소(2010.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타라소테라피 요법 및 복합 요법이 개발 운영 메디컬 리조트 조성 계획
힐리언스	홍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수업, 생활습관병 등 적극적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2007년 개소) 연간 환자 및 준환자, 일반인 등 2만명 방문

－ 의료서비스와 바이오 인포마틱스를 결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기관 육성

기관	추진 사업
한림대 의학유전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학의 임상적 적용을 통해 맞춤의학을 현실화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국내 유일의 정통 의학유전학을 전공한 교수(박지완 교수)를 중심, 임상의학(조현찬, 이홍진) 및 컴퓨터 공학과와 연계로 국내 맞춤의학을 선도
한림대 천연의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임상 연구 천연물 및 합성물질들의 다양한 생체활동을 연구하고 의약품의 효율적인 개발
한림대 의료영상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음파 영상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선도 기술개발과 아울러 Microwave imaging 등 새로운 양상의 의료 영상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생체신호에 대한 SW 등을 개발하여 바이오 인포마틱스 기반 구축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습관과 유전자형이 암, 심장병 등 주요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기관 유전체 코호트 의학연구사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선정, 전국 9개 대학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총괄, 지원 Wise Food 프로그램을 개발
한림대 단백질치료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연구, 효소학, 단백질화학 및 노화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최수영 교수 팀)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맞춤의료의 궁극적 해법을 제공
강원대 생명공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용생명과학 및 의학생명과학분야의 통합으로 맞춤의료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연구 바이오 인포마틱스 전문 교수진 보유로 관련 기업지원체계 구축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운동의학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평생건강관리 등 맞춤의학의 서비스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유전체 코호트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유전체역학연구, 맞춤 건강증진연구, 유전체기초연구, 임상유전연구 및 관련 사업 수행

- 산림·휴양림 자원 연계를 통한 헬스테인먼트 육성 : 전국의 산림면적 중 21.5%가 강원도에 있으며, 이중 휴양림은 19개소로 연간 89만명 방문

환자 및 준환자 대상 치유관광 수요 예측

(단위 : 만명)

환자 대상				준환자 대상(생활습관병)				총계
환경성 질환자	정신 질환자	진폐환자	소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소계	
665	181	2~10	848~856	771	226	224	1221	2069~2077
아토피환자 (108) 비염환자 (401) 천식(231) 등	우울증, 스트레스 원인질환 (139) 알코올 원인질환 (6) 등	노동부추산 진폐환자수 (2) 전국진폐 피해자협회 추산(10)		30세이상 고혈압유병 률(27.9%) ×30세이상 인구수 (2762만명)	30세이상 고지혈증 유병률(8.2%) ×30세이상 인구수 (2762만명)	30세이상 당뇨병유병률 (8.1%) ×30세이상 인구수 (2762만명)		

〈4-2-5〉 지역특화산업 육성

2011년 말 현재 강원도 및 지식경제부가 협의 중인 강원도 지역특화산업

융합기술	웰빙농수축산 산업	생활의료기기산업	그린에너지산업	향토·공예산업
세부분야	농수축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능성식품, 웰빙전통식품, 친환경안심식품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한방, 고령친화, 재활/복지기기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산업(풍력,소수력, 태양광,LNG,바이오 에너지)	향토공예품, 목공예, 유리공예, 한지, 도자기, 전통주 등

○ 정부에서 확정 되는대로 강원도 시군의 특성화사업으로 추진

- 각 시군의 지역향토자원을 살려 브랜드사업 발굴
- 브랜드 이름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지역문화상품으로 육성

제3절 자연소비형 관광을 쾌적·관광산업으로 재창출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 서비스산업에서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집적도가 높은 비중

- 업종별 종사자수 기준 구성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31.14%)과 도·소매(28.9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44%),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7.18%)이 강원도 전체 서비스업에서 76.72% 차지하며, 도·소매를 제외시 47.76%
-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강원도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9%)과 도·소매(22.9%),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1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1.5%)이며, 이 네 업종이 강원도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4%, 도매 및 소매를 제외시 51.5%

강원광역권 지역 서비스업 집적도 상위 업종(2009년)

종사자수 기준	부가가치 기준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
도매 및 소매	도매 및 소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2010년도 강원도의 지정 관광지는 총 43개소이며, 관광단지는 9개소, 국·도·군립 공원은 총 8개소이며, 국립공원(3개소)이 총 900.329km²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스포츠 천국

- 전국 스키장 17개소 중 9개소가 강원도에 위치
- 전국 스키장 면적의 68.4%, 슬로프의 61.4%, 이용자수의 62.5%(연평균 400~500만명)를 차지

○ 서비스업 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휴양·콘도 사업체수는 전국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44.1%

－ LQ 지수(경제기반승수)로 집중도를 분석해 보면 사업체 기준인 경우 제주도가 전국 1위, 강원도가 2위이나, 종사자 기준인 경우 전국 1위

관광휴양 관련시설의 전국 특화도

(단위 : 명, 개, %)

구분		종사자수	종사자 전국비율	사업체수	사업체수 전국비율	LQ지수	
						종사자 기준	사업체 기준
휴양콘도운영업	강원	4,412	44.1	48	24.6	15.46	6.83
	경기	952	9.5	17	8.7	0.46	0.45
	제주	816	8.2	28	14.4	7.13	10.62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업	경기	665	18.6	57	17.3	0.91	0.90
	강원	465	13.0	46	13.9	4.55	3.87
	충남	427	11.9	30	9.1	3.05	2.30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강원	6,908	33.9	3,932	35.3	11.87	9.80
	경기	2,401	11.8	1,195	10.7	0.57	0.56
	충남	2,068	10.1	1,091	9.8	2.59	2.48

자료 : 통계청(2007), 2006사업체기초통계조사

○ 2010년 강원도 관광지 방문객수는 약 9,170만명, 외국인 방문객은 약 140만명

- － 2009 국민관광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강원도를 방문한 국민관광활동 참가자는 약 1,720만명으로 전국 4위
- － 숙박관광객은 약 118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일 관광객은 약 476만명으로 전국 7위
- － 방문지역별 여행비용 분석 결과, 강원도는 2,212,508백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경기 1,996,358백만원, 서울 1,778,65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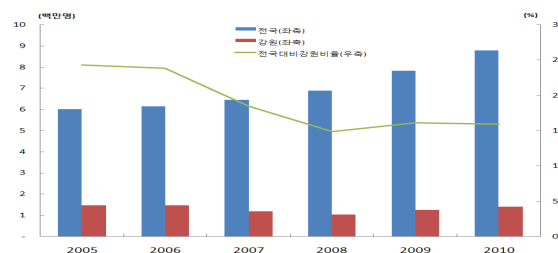
강원지역 관광객 현황

(천명)

	내국인	외국인	계
05	76,105	1,465	77,570
06	73,787	1,467	75,254
07	82,415	1,192	83,607
08	91,180	1,026	92,206
09	82,128	1,262	83,390
10	90,317	1,398	91,715

자료 : 강원도청

외국인관광객 추이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원도청

○ 관광의 외형적 모습은 성장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종래의 저부가가치 ‘대중관광, 자연소비관광, 경유관광’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관광소비계층이 지속적으로 필터링다운(filtering down)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최근 국제관광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70~80년대 :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
- 90년대 이후 : 수학여행지, 노인회 단체관광지, 단체수련 여행지, 자급자족적 가족 여행지
- 2천년대 이후 : 90년대 이후의 관광객 동향에 더하여, 국제 수준의 스키리조트 등 경쟁력 높은 겨울 관광상품으로 동남아, 중국 관광객 등의 단체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음

○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국력의 원천이 국토, 인구, 자원, 생산력, 군사력 등 하드 파워에서 기술력, 정보력, 분석력, 문화의 매력, 외교력 등 소프트파워로 이전하면서 관광패러다임도 보다 정신적이고 감성적으로 변화⁵²⁾

- 관광은 외지인 유입의 원인변수이기도 하고 결과변수로 작용
- 즉, 타 산업의 발달로 관광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내수 기반이 확충되어) 타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는 매개변수가 바로 관광부문
- 바로 이러한 점이 지역산업에 있어서 관광부문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함
 - 강원도 관광을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재창출하여 강원도의 내수기반을 확충시키고 타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능화

○ 추진과제

- 관광 패러다임 전환
- 청정자연과 콘텐츠파워의 창조관광 추진
- 저탄소사회의 쾌적(어메니티)관광 활성화
- 강원도 상징아이콘의 관광자원기능 강화
- 관광시스템 혁신과 역량강화

52) 현대적 관광은 ‘관광지에 놀러간다’는 단순개념이 아니라 대상과 감성적 교감을 통하여 영적(靈的)·정신적 풍요로움을 확충하는 정신문화활동으로 - 자연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로하스 트렌드의 확산,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첨단 엔터테인먼트 기술이 접목된 고도의 융합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4-3-1〉 관광 패러다임 전환

- 관광행태는 ‘특별·대중관광’에서 ‘일상·개별관광’으로 진화
 - 교통수단의 발달과 개인 가치관의 다양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인
 - 증명사진용(틀에 박힌) 외형적 관광지가 아니라 새로운 체험, 자기만의 내면적 체험을 만족시킬 관광지로 질적 변화가 진행
 - * 사례 : 템플스테이, 오지 탐험, 농촌체험, 테마관광, 치유관광 등
 - 특별한 시기를 잡아서 출발하는 바캉스 형태의 관광보다 수시로 떠나는 일상적 관광, 생활과 관광·휴양이 일체화된 생활관광이 일반화
 - * 사례 : 도심 속 호텔관광, 리조트의 장기투숙, MICE 관광 등
- 새로운 강원도 관광 패러다임 : 『쾌적관광⁵³⁾』
 - 강원도의 관광전략도 ‘다수 관광객 유치’에서 ‘소수 특정관광객 만족’, 외국인 유치 전략 및 일상 생활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
 - 쾌적관광은 기존관광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맞춘 미래형 관광 패러다임

쾌적관광의 구성요소(LoCAS-E)

구성요소	개	념
LOHAS ⁵⁴⁾	자연소비형 관광	⇔ 건강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생활 속 관광
CONTENTS	종래의 ‘보고 즐기는 관광, 관광단지 개념’	⇔ ‘참여하고 느끼는 관광, 문화콘텐츠 개념’의 창조관광
ANYTIME/DAILY	특별한 소비로서 바캉스 개념	⇔ 일상적 소비로서 수시관광
SMART	단체관광/대중관광	⇔ ‘모바일+개인화+네트워크’화된 서비스 관광
ELEGANCE	저가/저품격 관광	⇔ 고품격 관광

53) 자연과 생활(지역문화, 관광객의 일상)의 조화를 통하여 개인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

54) LOHAS :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4-3-2〉 청정자연과 콘텐츠파워의 창조관광 추진⁵⁵⁾

○ ‘우리만의 것’의 가치화 : 문화관광과 생태관광 자원개발

- 농촌체험관광, 사찰탐방, 템플스테이, 조류관찰, 스키, 골프 등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태는 문화에서 레저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 관동팔경이 의미 있는 것은 경포대나 죽서루 등의 누각 자체가 아니라 그 곳에서 조망하고 음미하던 경(景)의 문화 때문
- 누각만을 문화재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치와 그것을 즐기는 문화까지도 보존하는 것이 21세기 관광선진도가 되는 길
- 우리의 생활문화 자체가 생태 친화적이므로 이를 상품화하는 전략

○ 강원도 자연감상문화의 상품화

- 사대부의 경(景) 감상문화(觀景文化; 관동팔경 등)를 현대적으로 재현 상품화
 - * 자연과 문학, 예능, 기예, 음식, 감성 등 복합요소들이 융합된 문화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원형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작업
- 가칭 ‘강원관경 8선’ 등 새로운 경관문화상품의 선정 및 육성

○ 명상수련문화산업의 육성

- 명상과 수련은 현대 도시인들의 일상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인의 사찰 묵언수행 등 프로그램도 각광을 받는 추세
- 특히 강원도는 옛날부터 시인묵객의 작품 활동이나 수련자 또는 은둔자의 수련장소로 각광을 받았으며 현재는 대기업 연수원 입지로 인기
- 강원도의 명찰(名刹) 및 의미 있는 장소(예, 국토 정중앙점 등)와 연계 문화상품화

○ 지역자원의 명품화 추진

- 오너제 계약농원 사업 추진
 - 도시민들에게 경작지를 임대해 일정부분의 관리권과 수확권을 인정하고 재배지에서 농사 체험과 먹거리체험 등 도농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가짐
 - 안전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의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제고, 계약금을 영농자금으로 활용
 - 참여대상 : 개인, 학교 및 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 18개시군의 특산물을 지역별로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정보를 DB화
- 생산, 가공, 직거래, 음식판매, 박물관 등의 농축수산물의 6차산업화의 전 과정을 공개 혹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산물 테마파크 조성

55) 창조관광(creative tourism) : 예술과 문화적 유산 및 그 곳만의 특별한 개성을 학습하기 위한 관광으로서, 참여를 통하여 순수하고 직접적인 경험으로의 여행이자 그 곳에 살고 있고 살아있는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과의 소통 (www.unesco.org)

- 전통장인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 * 전통장인의 공통브랜드화 사업, 장인 예술촌 조성사업 등 추진
- 지역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안티에이징 센터 활용 등 의료관광자원화

-
- 장소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안티에이징 센터를 조성하여 강원도 전체 브랜드화 추구
 - 고객별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및 자연과 함께 하는 예방·치유교육프로그램 개발
 - 3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층, 미혼 직장여성(주말 및 휴가 이용고객), 재활치료 및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등에게 개인별 최적의 검진·치료프로그램 제공, 맞춤식단과 레시피 제공 프로그램,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라피 프로그램, 뇌기능 활성화 위한 명상 프로그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 안티에이징 관련 지역 연계 친환경, 유기농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
-

○ 자연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특화관광자원 발굴

- 세계유네스코 지오파크 조성 기반구축 : DMZ 및 남부 석회암지대 연계
- 강원으뜸명소 선정(예시)

-
- 역사문화형 강원으뜸명소: 고성 왕곡마을, 영월 장릉, 청령포, 강릉 선교장 등
 - 자연생태형 강원으뜸명소: 철원 철새탐조, 화천DMZ, 평창 동강 일대 등
 - 문화콘텐츠형 강원으뜸명소: 춘천 남이섬,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등
-

○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전략적 공략

- 중국, 화교권 관광객 맞춤 음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시장 대상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유치
 - * 2007년 중국 소비자 대상 방한 관광에 대한 평가 결과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음, 단조로운 메뉴, 적은 음식의 양, 높은 가격이 주요 불만요소로 지적(문화체육관광부)
- 동남아 관광객이 선호하는 겨울관광상품의 지속성 유지
- 러시아, 중동, 인도 등 잠재시장 대상 신규관광상품, 의료관광상품 발굴
- 재방문 비율이 높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건강, 휴양, 한류, 전통문화 중심의 관광상품 육성

○ 문화관광자원 상품화

-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과 창작활동 프로그램 지원
- 초광역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화랑 등 풍류관광 콘텐츠 개발)

○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 어촌관광시범단지 조성 : 강릉·대포·대진항(동해)
- 마리나 항만('19년까지 속초항·수산·강릉·덕산항) 개발, 사계절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 연안·국제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항구 일대 경관 및 시설정비계획 추진 : 인프라 정비(동해·속초항), 관광 중심항(묵호항 재개발, 거진항 기능 활성화)
- 쇼핑관광 활성화 : 『몰 오브 코리아(Mall of Korea)』 조성

-
-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국내 방문 외국인은 1500만명 수준 예상 : 1975년 63만명 → 1988년 234만명 → 2002년 534만명 → 2010년 879만명 → 2018년 1500만명
 - 방문객 증대를 올림픽 이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집객능력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
⇒ 확충된 교통인프라, 획기적으로 강화될 강원브랜드파워, 고급화되는 서비스산업의 역량에 더하여 핵심콘텐츠로서 ‘몰 오브 코리아’ 조성
-

○ 고부가서비스 MICE산업 육성⁵⁶⁾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컨벤션시설기반 구축
- 도내 3대도시 및 대형리조트에 지역특성에 맞는 MICE 시설보강
-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자된 대형공공시설(DMZ 박물관, 평화문화광장, 평화생명동산 등)의 MICE 회의장 기능 확충
- 전시, 컨벤션의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담조직 육성

○ 야간관광 활성화

- 야시장 조성, 야간쇼핑센터 건립, 야간 산책코스 개발
- 야간 문화예술공연 확대
- 야간관광 25시 존(zone) 지정운영

○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및 한류문화 확산

- K-Pop 문화관광올림픽 페스티벌 개최 : 권역별, 격년제 실시 등 검토
- ‘강원방문의 해’ 지정 운영 : 2013년 시범운영, 2017-2018년(2년간) 운영
* 2013년은 「DMZ설치 6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56)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 자체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인센티브 관광·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 파리는 2007년 전체 관광객 339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90만 명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파리를 방문했다고 함

〈4-3-3〉 저탄소사회의 쾌적(어메니티)관광 활성화

-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 경제의 성장과 함께 자연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어메니티(amenity)⁵⁷⁾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에서 크게 대두
- 강원관광은 어메니티를 고려한 자연공생형으로 전환해야 할 시급성
 - 환경훼손의 방지와 복구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자로서 관광객은 자연의 소비자이자 공급자(조성자)라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관광지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개념의 접목 추진
 - 지역의 문화, 이미지, 역사 등에 알맞은 지역 밀착형 관광테마를 발굴하고 리모델링 관광자원화로 관광객의 지역체류시간과 관광소비를 유도
 - 자연공간,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생활공간, 특수 지역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환경디자인 및 관광기념품 디자인 적용
- 개별맞춤형 쾌적관광환경 제공
 - ERP(Executive Retreat Program) 시범사업 추진
 -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에서 최상위 계층을 위한 고급 휴양프로그램(멤버십) 운영 지원
 - 대명 소노펠리체+숲채원+상지대 한방
 - 알펜시아+월정사+경희대 한방 등
 - ERP 전문 인력 육성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판촉활동 지원
 - 전문지식, 교양을 갖춘 ERP 전문 가이드 양성
 - 국내외 상위계층 대상 홍보 추진
 - 플라워 투어리즘 육성
 - 대관령 동계올림픽특구 조성과의 연계하여 꽃밭(가칭 천상의 화원) 조성 및 연계콘텐츠 개발
 - 18개 시군에 특성화된 꽃 및 식물지대의 조성으로 관광과 종자산업 육성의 인프라 창출
 -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경관 형성을 통해 4계절 방문수요를 확충
 - 꽃 산업의 전후방 연계를 통해 쾌적산업(Amenity Industry)의 비즈니스 모델 형성 지원
 - 비행선, 열기구, 궤도열차 등을 이용하는 관람형 관광활동 창출
 - 꽃 관련 콘텐츠들을 활용한 다수의 테마파크 기획 및 다양한 MICE 기획
 - 아로마, 약재, 화장품, 차산업, 음식업 등 꽃을 재료로 하는 제조, 가공, 유통산업 육성
 - 독자적인 연구기술개발 및 종자산업 육성

57) 도시계획가 윌리엄 홀포드(William Holford)의 어메니티 정의 : 단순히 하나의 특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종합적인 카타로그 즉, 전체로서의 쾌적한 환경을 의미

－ 치유관광 중심지 조성

- 산림, 치유산책로, 휴게실 및 숙박시설, 치유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갖춰진 치유마을 조성
 - 모델사업으로서 각 관광소권별 1개소의 치유마을을 공모·선정
- 산림이용 공원 및 치유의 숲 조성
 - 산림 치유·한방의료·휴양 등과 연계한 주민 소득원 마련
 - 산림휴양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 임산물 등 판매확대 도모

○ ‘녹색관광’ 기반 구축

- － 도의 독특한 자원인 ‘석호, DMZ, 백두대간’을 3대 녹색 관광축으로 발굴
- － 관광객의 물자절약에 따라 선물, 쿠폰을 증정하는 강원그린캐쉬백 제도 도입
 - * 수건, 침대시트 교체횟수가 낮은 투숙객에게 비누, 타월 증정
- － 주요관광지에 『무인자전거 렌탈서비스』 기반을 구축, 차 없는 관광지 조성

○ 동북아 웰빙·건강 프론티어 관광벨트 사업 추진

웰빙 · 건강 관광 벨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안 발전 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동해 관광 클러스터－ 동해안낭만가도 조성－ 관광R&D글로벌파크	<div>산소길 조성 (강원도 전역 3천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두대간 생태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두대간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대자연 치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평화생명지대(PLZ)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권고원관광휴양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광지생활현장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소길(O₂), 자전거길 3000리 조성, 광역단위 통합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4-3-4〉 강원도 상징아이콘⁵⁸⁾의 관광자원기능 강화

○ 동계올림픽 특구의 조성 및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관광 자원화

－ 동계올림픽특구의 조성 및 동계올림픽 시설과 연계한 레저스포츠 활성화

-
- 시설현황 : 스키점프(점프대 5개), 크로스컨트리(L=7.5km), 바이애슬론(L=4.0km), 스타트훈련장(봅슬레이, 루지)
 - 시설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과 주변 경관을 연계한 트레킹코스 활용 프로그램 개발, 스키점프 체험장 등으로 활용
 - 봅슬레이 스타트 연습장 체험 상품 개발
-

－ 2011년 완공되는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원주 양궁훈련장, 영월 럭비 전지훈련장 등 전지훈련 관람과 스포츠체험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 수상, 산악, 해양, 항공, 육상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홍보 지원

－ 특구 내 스포츠레저장비제조업체의 유치와 연계 체험 및 쇼핑관광 개발

－ 알펜시아 올림픽지구 내 폐교 등을 활용, 레저스포츠 교육센터 설립·운영

-
- 패러글라이딩, 승마, 요트 등 고급형 레저스포츠 이론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신수요 창출
 - 입지조건 : 알펜시아 올림픽 지구(산악·육상·해양·동계스포츠 시설과 연계 가능)
 - 폐교활용 : 도역 전체 264개교, 평창에 32개교 소재
 - 운영내용 : 생활체육지도자(레저스포츠)자격취득과정, 일반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생활체육(레저스포츠)지도자 자격(3급) 취득기관 지정(도지사 권한) 가능
-

○ 로하스관광의 개발과 로하스-T 벨트 구축

－ 로하스관광의 개념

-
- 건강과 자연의 생태유지성 관계를 중시하는 생활스타일을 관광활동에 접목
 - 도시의 일상 속에서 미흡한 ‘건강과 자연의 교감, 관계성’을 관광활동과 연계하여 충족
 - 생태관광이 생태를 제3자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라면, 로하스관광은 당사자적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을 일치시키려는 일상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도시생활 속에서 노력해도 충족되기 힘든 여건이 있으므로 강원도의 청정자연에서 생활(관광)하면서 충족감을 만끽하게 한다는 의도=‘생활+치유(휴양,수련)+자연생태 문화’의 결합
-

58) 2018 평창동계올림픽, DMZ/접경지역, 백두대간/산림/수자원, 동해안/백사장/송림/석호, 폐광지역

○ 설악~금강 연계개발과 ‘GTI(Gangwon Tourism Initiative) 시티’ 건설

- 설악권을 외국인 방문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재개발
- 동계올림픽 이후 양양공항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
- 내설악 지역은 우리나라 알파니스트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외설악~속초 지역은 외국인을 주 타겟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
-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설악권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모노레일, 케이블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망체계 구축
-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금강권 및 설악권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모색

○ 동해안 낭만가도의 조성

- 7번 국도를 축으로 동해안의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통합 관광체계 구축⁵⁹⁾
- 동해안의 관광거점도시(hub)와 관광 포인트(spoke)를 연결하여 통합적인 관광경쟁력 제고
- 동해 무릉계곡 폐광지 건강생명체험단지, 아토피케어센터 등 시군별 연계자원 확충

○ 폐광지역의 콘텐츠관광 육성

- 카지노 외에도 광산자원,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 동굴자원, 단종과 얹힌 역사적 현장, 동강 등 문화자연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
- 카지노와 연계하여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 다양한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및 역사(예,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스토리 등)를 문화 콘텐츠로 묶어 콘텐츠 관광 활성화
-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을 중심으로 「고원관광 휴양지대」 조성

-
- 태백지구 : 고원관광 「레저·스포츠도시」
 - 삼척지구 : 한방·건강 대체산업의 「건강 R&D도시」
 - 영월지구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 감성도시」
 - 정선지구 :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복합휴양도시」
-

- 석회석 광산의 폐광을 대비한 미래전략 준비

59) 현화로의 수로부인 전설, 준경묘와 얹혀있는 태조 이성계의 전설, 관동팔경의 의미, 무장공비의 침투로, 단오제의 역사와 내용, 해신당의 역사, 38선, 금강산 관광과 얹힌 에피소드와 진실, 석호 등 생태계 이야기 등 스토리 개발을 통한 콘텐츠 확충

〈4-3-5〉 관광시스템 혁신과 역량강화

○ 네트워크형 관광개발체계 구축

- 기차, 버스, 크루즈 등 여행목적별로 선택가능한 대중교통 패스, 소권역과 시군간 관광지 연계방문이 가능한 멀티패스 개발
- 리조트 간 셔틀버스를 공유하며 지역특산품 판매점과 주요 관광명소 연계

○ 관광교류 협력시스템 구축

- 한국관광공사(원주 혁신도시에 입주) 연계 협력 네트워크 형성
-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을 계기로 관광연구원 이전, 인력교육원 설치 추진
- DMZ, 중부내륙권, 동해안 광역 관광개발, 수도권 등 인접 시도 및 도내 시군간 연계 발전을 위한 협의체 추진
- 일본 등 한류 관광권과 EATOF 등 국제관광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

- 국제적 스탠다드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상품 품질인증제도 정비
- 관광거점도시의 경관, 문화, 생활을 복합적 쾌적성 기반으로 확충
-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전방위적인 홍보체계 구축

- 이벤트, 미디어, 영화, 서적, IT 등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콘텐츠 개발
- 국내·외 주요 도시에 강원 관광센터를 건립하여 강원도로 관광객을 유인
- 지역별 특성에 맞춰 슬로우 시티,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오파크, 건강도시, 로하스 도시 등 지역조성과 관광홍보를 연계시킬 수 있는 세계적 브랜드 인증사업 추진

○ 관광 R&D와 지역관광인재 양성

- 관광산업을 고도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R&D 활동 지원
- 도내 관광관련 대학의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 전문 통역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기획전문가, 웹관광/유비쿼터스 관광전문가 등
- 「강원관광레저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호텔리어, 캐디, 딜러 등 전문 인력을 양성

제4절 융복합으로 농산촌 산업의 고도화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의 농가인구는 상대적으로 전국비중은 높지만 지속적 감소추세
 - 2010년 193천명의 농가인구로 전체 인구 중 13% 차지
 - 주작물은 논벼(4.2%)보다 밭 중심의 식량작물(17.9%, 전국에서 제일 높음), 특용작물(10.9%), 채소(7.7%) 등에 특화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구 분	농가구			농가인구	
	2005	2010	2010 전업농가(비중)	2005	2010
전국	1,273천가구 (100%)	1,177천가구 (100%)	632천가구(53.7%)	3,434천명 (100%)	3,068천명 (100%)
강원도	76천가구 (6.0%)	73천가구 (6.2%)	36천가구(50.2%)	214천명 (6.2%)	193천명 (6.3%)

자료 :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 가격과 기술력 등 강원도 농업의 전반적 실태
 - 농산품의 대외 이미지는 좋으나 전통농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낙후
 - 특히 고랭지채소 등 전통적 강원도 우위작물의 경우, 기후 온난화, 지력의 약화 등으로 장기적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부족 및 노령화로 농촌의 근본적 혁신은 부족한 상황
 - 반면 R&D 네트워크가 가능한 농업관련 대학 및 인적 자원이 존재
- 강원도의 산림면적을 고려할 때 임업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기반
 - 강원도의 임가는 2010년 7.1천가구(19.6천명)로서 2005년 대비 증가추세
 - 강원도의 임가규모는 전국비중에서 높지 않으며(9개 도 중 제주, 경기, 충북 다음으로 낮은 비중), 특히 전업임가는 4%에 불과
 - 전국적으로 임업형태는 임산물 재배업이 88.4% 비중이며 채취(10.5%), 육림(4.2%), 양묘(2.1%), 벌목(1.1%)의 순임
 - 업종별로 보면 강원도는 비재배업에서 육림업(전국비중 18.3%), 재배업에서는 산나물(전국 비중 22.4%)의 비중이 높음

임가 및 임업 인구 현황

구 분	임가구			임가인구	
	2005	2010	2010 전업임가(비중)	2005	2010
전국	97.1천가구 (100%)	95.4천가구 (100%)	6.0천가구(6.3%)	264.4천명 (100%)	252.4천명 (100%)
강원도	6.2천가구 (6.4%)	7.1천가구 (7.1%)	0.3천가구(4.0%)	18.2천명 (6.9%)	19.6천명 (7.8%)

자료 :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 농림업의 총체적인 6차 산업화 추세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과제

- 강원도의 농림업 현장은 일자리 창출의 산업현장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청정브랜드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생활공간
- 그렇지만 농산촌은 지속적으로 '낙후지역'이 되어가는 문제점
- 농산촌은 단순한 농림업 생산기지에서 생산+가공+서비스의 복합산업(6차 산업) 현장으로 변모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변신해 가야 함

- 기존의 농림수산업을 지역 고유의 재료, 문화, 산업전통과 연계함으로써 전통성(역사성), 문화예술성, 세계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을 생산

-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는 농업(agriculture)에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종합산업(agri-business)으로 전환해 가는 과제 부담
- 농산어촌복합산업은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특산물 생산전략과 체험관광으로 연결, 지역판촉(place marketing)의 전략적 가치 제고

○ 추진과제

- 농업농촌 개념의 다변화로 6차 산업화
- 산림자원가치의 최고화 육성
- 향토장인/문화산업 육성
- 종자산업을 고유자원산업으로 육성
- 농업R&D·혁신과 신개념의 축산낙농업 육성
-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2. 세부추진과제

〈4-4-1〉 농업·농촌개념의 다변화로 6차 산업화 추진

- 농업을 주축으로 강원도 농산어촌에 산재된 인적·물적자원을 총체적으로 연계하여 농산어촌 융복합산업 육성
 - 강원도 자원에 적합한 농산어촌산업 분야는 생명농어업분야, 관광분야 및 지식기반 분야의 3대 분야 10대 산업

생명건강 지향의 강원도 10대 농산어촌복합산업의 내용(예시)

분야	내 용	비 고
식물자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채류, 곡류, 화훼류, 허브 등 전통식물산업과 신규자원산업을 포괄(혼농임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법에 의하여 청정성과 품질성의 확보
동물자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우, 돼지, 닭 등 가축과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 낙농업, 메뚜기 같은 곤충류 등 산업부문을 포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브랜드화를 통하여 특화 육성 주민의 자긍심 확보와 특화상품의 홍보 및 연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이벤트 추진
어류자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수산업과 함께 산천어, 지역특화어류 등 각종 어류자원산업 포괄 	
향토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명주(銘酒)를 포함하여 닭갈비, 감자떡, 생선회, 황태, 젓갈 등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특화식품 개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메뉴 개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과 밀접히 연계 옛맛과 손맛 및 새로운 메뉴의 개발 음식명인의 자문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추진
관광공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선호할 지역고유의 상품개발(메이드인 강원 또는 ○○ 제품) 지역자원과 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연계 명인, 명품의 개발
건강이벤트·축제·회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달리기, 마을축제, 회의 및 연수 등 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의 특성화, 산업화 휴양림 등 기존시설 활용
목재·건강자재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가공 및 건강자재의 개발, 산업화 생태주택 등 생명건강 이미지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및 지역자원의 활용체계 구축
한방·약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의 자연과 약초, 허브 및 건강식품을 기반으로 휴양과 치료를 병행하는 한방 및 대체의학 산업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산업 등 관련산업과 연계
환경·산소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의 생명, 환경을 지키고 육성하는 환경산업 및 산소산업의 육성 신기술산업을 기반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산업, 건강주택 등 연계
실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타운, 실버서비스 등 실버층 대상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의료산업 등과 연계

○ 농업부문이 6차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음의 3P 혁신전략 추진

- 생산혁신 : 전통농업이 유기농업 단계를 거쳐 첨단기술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지향하는 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농업기반의 강화)
- 과정혁신 :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단순농업에서 상품기획까지 포함하는 종합산업으로의 과정혁신
- 사람혁신 : 농민이 아니라 기업인과 같은 벤처 농업가를 육성

농산촌 6차산업 육성을 위한 3P혁신 전략



○ 마을기업 형태로 커뮤니티 단위의 농산촌 특성화 마을조성

- 지역별 차별화된 테마가 있는 농산촌 개발 및 체험 관광마을 조성⁶⁰⁾
- 특화되고 품위 있는 농수특산물 개발

○ 농산어촌산업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 농산어촌 융복합산업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
- 도, 시·군, 농업기술원, 대학, 농협,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브랜드화 및 디자인 지원
- 자연치유, 휴양 연계 산촌체험마을 조성

60) 소규모 농가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대규모 농가는 농기업으로, 농촌마을은 마을단위 경영체로 발전 추진

〈4-4-2〉 산림자원가치의 최고화 육성

『산림 제일 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책기본방향

- 산림자원의 품격제고
-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확대
-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 산림자원의 품격제고

-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지역별 육성수종」을 선정하여 조림 : 난대수종의 조림을 점차 확대하되 우리 고유의 금강소나무 등 자원 가치가 높은 수종은 육성
- 지진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림 확대 : 「해안생태 울타리」 조성
-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추진
- 탄소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의 산림경영 활동 지원
- 산림전용 방지활동 및 탄소흡수 증진 기반 구축 : 「탄소흡수원 증진법」 제정 및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
- 선진국 수준의 임도 시설 확충 : ha당 2.6m 수준인 임도 밀도를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8.5m)으로 확대
- 주요 산줄기를 중심으로 「산림경관벨트」 구축 : 2012년까지 주제별 경관관리계획 수립, 2013년 이후 계획이 수립된 개소별 경관개선 사업 추진
- 백두대간, DMZ 훼손 산림 경관·생태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관리
- 주변 산림에서 도심 속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 산림의 건강자산 활용확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 구축

출생기	⇨	유아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	⇨	회년기
숲태교		숲유치원		숲속캠프		산악레포츠		자연휴양림		산림요양마을		수목장림

-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 : DMZ와 연계된 로하스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전개
- 숲길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는 단기 방문형 「치유의 숲」 조성
- 치유 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에는 장기체류형 「자연치유림」 조성 : 숙박시설을 갖춘 자연치유림을 단계적으로 조성 추진

○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다변화 : 한옥용 자재보급 확대 및 한옥 건축 활성화
- 목재산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 : 「목재전문 산업단지」 조성 및 품질인증제 실시
- 무공해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는 목재펠릿 산업의 조기정착 : 중·대규모 펠릿 수요처인 산업·발전시설까지 보급을 확대
- 열병합 등 집단에너지의 경우에는 임산 폐목재 이용을 확대
- 각 지역별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 강화 :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 단지」를 조성
- 산양삼 등 산지약용식물을 미래전략품목으로 육성 : 「산약초 타운」 건설과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국산 약용식물자원의 국내 시장을 보호
- BT(생명공학기술)를 접목하여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 기능성 물질, 신(新)의약품, 천연화장품 개발 등 바이오산업으로 연계

○ 목재산업 육성으로 산림 우수도 기반 조성

- 목조 가구 및 건축단지 조성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세계적 가구단지 조성을 통한 산림도의 이미지 제고와 연계산업 육성
- 지역 대학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 목공예 산업 부활을 통한 관광 상품 및 체험 산촌지대 조성

○ 산림생태 자원 활용 휴양, 치유 산업 활성화

- 백두대간 등 치유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장기 체류형 치유공간 조성
- 기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과 연계 치유공간 조성
- 임도와 연계 트래킹 숲길 조성 확대 추진
- 도시 내 생태 숲, 마을 숲, 학교 숲, 가로수길 활용 미니 치유 숲 조성
- 자연치유, 휴양 연계 산촌체험마을 조성

○ 미래형 산촌 모델 개발 및 보급

- 생태 체험 및 자연치유, 생태학습, 산촌문화체험 등 자연체험 지대 조성을 통한 도시 지역과 교류사업 추진
- 산촌체험학교, 숲 유치원, 산모를 위한 향기 산촌휴양촌 등 운영
- 미래형 산림탄소순환마을 모델개발 및 보급 확산
-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농한기를 활용한 마을 리더 교육 추진

〈4-4-3〉 향토장인산업과 전통문화산업 육성

- 예전에는 마을마다 향토장인이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보급했으나 산업화와 생활의 서구화로 전통장인의 물품과 기술은 거의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
 - 향토장인기능은 단순한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나타내는 인류사적 가치
 - 특히 농산어촌의 특성화, 체험관광 및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에 있어서 대표적 상품으로 활용가능한 지역창업과 지역고용에 상당히 유리한 분야

- 『강원명장(名匠)』 기업(일명 강원마이스터) 운영⁶¹⁾

-
- 지역특화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기술전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상품의 질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정책
 - 매년 부문별 ‘강원명장’을 선발하고 명장의 작품은 ‘강원명품’으로 인증
 - * 현재 농림부에서 전통식품 명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기능인 대상의 ‘명장’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군에 명장기술의 전수를 위한 전수관 건립을 촉진하여 제조체험, 상품구입 등 지역 관광상품으로 연계효과 도모
 - 매년 ‘강원명품제’를 통하여 새로운 명장의 발굴과 상품판촉 및 관광상품으로 활용
 - ‘강원명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관 및 우편주문 등 전략 추진
 - 외지로부터 특정부문의 기능보유자를 ‘강원명장’으로 유치하고 정착지원
-

- 전통문화산업 육성

- 지역의 고유한 의식주 및 생활문화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각종 전통공연 예술 활동의 사업화 추진
-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등이 참여하는 1인 창조 기업으로 육성

- 시군 향토산업육성

-
- 사업내용 : 국비지원에 의한 시·군 향토산업육성 개발
 - S/W분야 : 지역 사업역량 제고,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지원
 - H/W분야 : 산업화·부가가치 제고(유통, 가공분야 시설 등)
-

61) 현재 농림부에서 전통식품 명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기능인 대상의 ‘명장’제를 운영하고 있음

〈4-4-4〉 종자산업을 고유자원산업으로 육성

- 농림어업 토대 위에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농업의 가치이동(Value Shift)과 시장이동(Market Shift)에서 종자(품종육성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⁶²⁾
- 미래형 고유자원산업으로 육성
 - “약수+산림테라피+공교(空校) 등 지역자원+건강치유”의 융복합화
 - 꽃 산업의 전후방연계를 통한 쾌적산업(Amenity Industry)의 비즈니스 모델 형성(테마파크, 종자사업, 바이오 및 메디컬산업 융합)
 - 백두대간의 청정녹색자원을 활용한 강원도 명상산업 및 치유관련 상품과 서비스 제공, 백두대간의 자생약초를 중심으로 허브테라피 산업육성
 - 양구지역 국외 종서(감자) 공급거점 육성 : 우즈베크 등 해외 공급거점 육성
- 강원도 종의 지속적 조사 및 DB화, 종의 복원과 유지에 대한 연구시설 확대
 - 바이오기술과 접목시킨 새로운 종 연구 확대로 신품종 확보
 - 국립 DMZ 자생식물원 조성
- 새로운 강원농업 패러다임, ‘식물공장⁶³⁾’농업 추진에 대한 연구검토
 - 식물공장에 IT, BT, ET 등 기술이 융복합되어 고효율 에너지산업, 환경공정 제어 산업, 식품바이오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가능
 -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청정농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4-4-5〉 신개념의 고부가가치 축산농업 육성

- 강원도의 지형, 특성에 잘 맞는 말 산업 육성⁶⁴⁾
 - 종축장, 목장, 승마공원, 승마 트레일 설치 등 말 산업 육성기반 조성
 - 말 관련 사업체 및 R&D시설 유치
 - 말 전문인력 육성 및 말 스포츠 아카데미 개설

62) 정부는 2009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63) 식물공장 : 통제된 시설 내에서 생물의 생육환경(빛, 공기, 열, 양분, 수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계획생산하는 시스템농업. 2011년 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동북지방에서 적극 추진을 검토 중인 신농업개념

64) 2010년 12월 말 산업 육성법 제정

○ 프리미엄 낙농·축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질병환경, 사육기술의 고도화, 국제가격경쟁력, 기후변화에 대응 필요
- 고품질 젖소 수입⁶⁵⁾ 및 보급 확대를 통한 프리미엄 축산 육성
- 친환경 유기축산, 관광목장 조성 확대(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등과 연계)
- 산양, 사슴, 궁노루 등 강원도 청정자연을 살린 특화종축산업 육성

〈4-4-6〉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 농식품바이오산업 육성

- 철원의 농업혁신지구와 춘천권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벨트를 농식품 바이오산업지대로 육성

○ 강원도의 대표식품 브랜드 창설

- 산학연 전문가들로 가칭 강원식품브랜드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식품 브랜드 창설 및 육성(기존의 전통식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창설 추진)
- 바이오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기능식품, 건강식품 발굴
-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바이오기술과 전통문화성, 강원도의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식품기업을 육성

○ 전통음식의 상품화 추진

- 문화관광 소재로서 음식관광의 대상이 될 전통음식 발굴
- 감자축제 등 기존의 식품 연계축제에서 발굴된 전통음식의 상품화

〈4-4-7〉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 시장개방 영향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쌀 품질고급화, 발작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시설원예·과수·인삼 등 고소득작목 확대, 종묘공급기반 구축 등
- 축산분야의 규모화·전업화·시설 현대화·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한우시험장 연계)

65) 정부는 신품종 젖소 수입을 2010년부터 개방, 홀스타인 젖소뿐만 아니라 질 높은 우유를 생산하는 저지(Jersey), 건지(Guernsey), 브라운스위스(Brown Swiss), 에어셔(Ayrshire) 등 세계적 고급품종 젖소 수입 가능

○ 소비자 지향형 유통 마케팅체계 구축

- 농특산물 명품화, 안전성 강화 선진물류체계 구축
- 수도권 판매조직 확충, 직거래 확대와 홍보·마케팅 강화

○ 농산업 분야 R&D 확대 및 기술혁신 추진

- 철원 농업기반을 활용하여 농업혁신지구 사업 추진
- 수출농어업, 저탄소농업,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지원
 - * 농산업의 6차 산업화 뿐만 아니라 IT, BT, CT, GT 등과 결합한 “6차산업 + α ” 산업화
- 농산업 생산, 유통, 소비과정의 스마트화 추진
 - * IT기술을 활용한 생산관리(u-farm), 유통(u-로지스틱스), 소셜커머스,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등
- 농산업분야에 외지 민간자본 유치 추진
-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술·향수·화장품·약 등 생산개발

○ 로컬푸드 생산소비체계 확립

- 관광객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산품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산품의 질적 제고는 물론 홍보전략으로도 유용
- 시군, 새농어촌건설 운동추진단, 관광혁신협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 추진주체 육성
- 각 업소의 소비산품 구매 유통체계 파악, 지역산품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차별화 추진, 업소 및 주민교육 실시

○ 건강식품 생산이력 시스템(traceability)의 확대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2007.12.21)
- 현재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에 한하여 수산물이력제 운영
- 이력제는 지역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를 축적하는 최고의 수단
- 전반적인 강원특산품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추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연계하여 추진

제5절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산업화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는 총 사업체수가 적고 공공부문 등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구조
 - 제조업체는 6,181개에 불과하며 종사자수는 8.8%를 차지
 - 강원도의 사업체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자영업에 해당되는 업종에 집중

강원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9년)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	부동산업 임대업	협회/단체 /수리/기 타개인서 비스	기타 (전기가스 /수도/금 융 등)
사업체수 (A)	117,569	145	141	6,181	4,186	28,929	33,520	3,212	13,762	27,493
	100.0	0.1	0.1	5.3	3.6	24.6	28.5	2.7	11.7	23.4
종사자수 (B)	479,165	1,786	5,349	42,029	35,927	72,847	82,272	10,640	28,162	200,153
	100.0	0.4	1.1	8.8	7.5	15.2	17.2	2.2	5.9	41.8
B/A	4.1	12.3	37.9	6.8	8.6	2.5	2.4	3.3	2.0	7.3

자료 : 통계청, KOSIS

- 강원도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리딩산업이 부재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GRDP 비중도 2000년 2.9%에서 2008년에는 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지역적으로는 영서권과 영동권의 산업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영동지역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이 조성되었으나 산업인프라가 취약하여 산업생산과 기업집적이 저조한 상태
- 청정 동해안은 본격적인 해양산업의 미발달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화가 필요
- 사업트렌드에 맞춰 지식기반산업(제조업)의 비중을 늘려감과 동시에 대다수 도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기존 사업체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
 - 특히 총 사업체수의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이 중요

가동 중인 산업단지 운영현황(총괄)

[‘11년 3월 31일기준]

(단위 : 천㎡)

구분	산업단지명	분양현황			
		분양대상	분양	분양률	비고
총합	46개 단지	8,836	7,984	90	
국가 단지	소계	1,002	998	100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1,002	998	100	
일반 단지 (12)	소계	3,873	3,397	88	
	춘천 남면한화제약산업단지	60	60	100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343	343	100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47	-	-	분양중
	원주 동화일반산업단지	283	283	100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419	419	100	
	원주 우산일반산업단지	301	301	100	
	원주 자동차전용산업단지	79	79	100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932	532	60	
	강릉 중소일반산업단지	128	128	100	
	동해 북평일반산업단지	561	554	99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269	217	81	
	홍천 북방하이테크주일반산업단지	475	475	100	
	소계	3,937	3,565	91	
농공 단지 (33)	춘천 거두농공단지	206	206	100	
	춘천 당림농공단지	43	43	100	
	춘천 창촌농공단지	104	104	100	
	춘천 퇴계농공단지	269	269	100	
	춘천 수동농공단지	45	45	100	
	원주 동화농공단지	259	259	100	
	원주 문막농공단지	419	419	100	
	원주 태장농공단지	243	243	100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102	102	100	
	대백 장성농공단지	86	35	41	분양중
	대백 철암농공단지	79	78	99	
	속초 대포농공단지	78	78	100	
	속초 대포제2농공단지	72	72	100	
	삼척 근덕농공단지	79	79	100	
	삼척 도계농공단지	58	58	100	
	홍천 상오안농공단지	92	92	100	
	홍천 양덕원농공단지	37	37	100	
	홍천 화전농공단지	166	63	38	분양중
	횡성 공근농공단지	226	171	76	
	횡성 목계농공단지	103	103	100	
	횡성 우천농공단지	140	140	100	
	영월 영월농공단지	92	92	100	
	영월 팔괴농공단지	109	109	100	
	평창 평창농공단지	82	82	100	
	정선 증산농공단지	92	91	99	
	정선 함백농공단지	98	98	100	
	정선 예미농공단지	76	-	-	분양중
	철원 갈말농공단지	100	97	97	
	철원 김화농공단지	114	108	95	
	화천 원천농공단지	79	79	100	
	고성 향목농공단지	33	29	88	
	고성 심층수농공단지	72	-	-	분양중
	양양 포월농공단지	84	84	100	

※ 2011년 중 준공예정 : 양구 하리 농공단지

○ 추진과제

- 지역전략산업단지 조성
- 전통광업·제조업 및 새로운 제조업 육성
- 전통상업·서비스업의 신산업화
 - 재래시장, 소규모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숙박업 등 지역소비시장을 지탱해온 우리 생활 속 전통서비스업을 시대에 부응하여 재탄생시킬 필요
-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산업 육성
 - 수산업,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레저 관광,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처리
- 기업혁신역량 지원체계 강화를 통하여 창업활동의 촉진

2. 세부추진과제

〈4-5-1〉 지역전략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를 사전 조성함으로 기업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부지수요에 적극적 대응
 - 계획된 산업단지 조기 조성완료 및 입지수요가 많은 곳 위주의 신규 산단 조성
 - * 춘천 : 의약·바이오산단, 원주 : 의료기기, 자동차부품산단, 강릉 : 비철금속산단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
- 중·대규모 기업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 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 제조업과 연구·주거·문화기능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를 개발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저렴하게 개발가능한 부지 적극 발굴
 -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진입도, 상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도비 적기 지원
 - 사업추진 반대 및 부지 매입관련 민원 적극적 해결로 공사 조기 추진 지원
 - 2011년 현재 46개 산업단지 조성·운영 → 2021년까지 25개소 추가 확대 조성

강원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구 분	추진내용
2011년	공사중 13개소 → 5 개소 준공
2012년	공사중 15개소 → 4 개소 준공
2013년	공사중 13개소 → 9 개소 준공
2014년 이후	공사중 7개소('14년 2개소, '15년 2개소, '16년 2개소, '17년 이후 1개소 준공)
사업규모	25개소 18,535천㎡(산단 16개소 17,035, 농공단지 9개소 1,500)
사업기간	2006년 - 2021년

○ 지역특화산업 연계 산업입지 확충

-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수요에 연동하여 산업입지 공급
- 기업의 실질적인 입지수요가 높은 영서지역의 추가적인 산업단지, 농공단지 확대
영서권의 의료-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집적 및 거점형성
- 강원 영서지역에 대규모 산업입지 공급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에 따른 환동해권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여 수도권 연계 중부권 내륙물류 ICD 건설

〈4-5-2〉 광업·제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제조업 육성

- 2009년 광업 및 제조업의 GRDP는 각각 7,436억원과 2조 9,132억원으로 전국의 33.2%와 1.1%의 비중, 이는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고 광업기반이 큼을 나타냄
- 강원도 제조업은 기초소재형과 생활관련형에 치우친 구조적 특징을 보임

광업 및 제조업 GRDP(2009년)

구 분	광업	제조업			
		전체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강원도	7,436억원	2조9,132억원 (100.0)	1조2,357억원 (42.4)	6,110억원 (21.0%)	1조664억원 (36.6%)
전국비중(%)	33.2	1.1 (100.0)	1.4 (32.9)	0.4 (56.3)	3.7 (10.8)

자료 : 통계청, KOSIS

○ 2009년 강원도 광산물 생산량 현황

- 은 : 8kg(횡성), 철 : 455,405톤(정선), 납석: 23,688톤(영월 22,358, 태백 1,330)
- 장 석 : 5,792톤(태백), 고령토 : 877,003톤(삼척 695,687, 강릉 150,600 외)
- 석회석 : 56,475,250톤(영월 1,600만, 삼척 1,563만, 동해 1,343만, 강릉 834만 외)
- 규 석 : 1,482,670톤(정선 748,515, 속초 381,153, 강릉 260,735, 영월 75,422 외)
- 규 사 : 141,100톤(강릉 126,816, 양양 14,284)
- 운 모 : 6,584톤(영월 4,384, 태백 2,200)
- 석회석 : 2,258,419톤(삼척 1,479,930, 태백 778,489)
- 백운석 : 1,147,425톤(영월 1,125,455, 원주 21,970)

○ 전통광업을 소재산업으로 재조명 및 신산업화 기반구축

-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폐광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여 양양철광, 삼척가곡아연광, 홍천 희소금속광 등은 재가동을 준비 중
- 기존 폐광 재가동과 함께 전통광업을 부가가치 높은 청정광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정책 추진
- 재가동에 따른 시설·장비기반, 환경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전통광업의 신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R&D 활성화
- 희토류 탐사 및 생산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석회석 광산의 폐광에 대비한 대체 및 보완산업 육성

○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현재 진행 중인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적응

-
- ‘제조’의 정의 변화 : ‘원재료를 최종제품으로 전환하는 것’ → ‘개발, 생산, 물류,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의 전체 사이클’
 - 품질과 가격 + 브랜드와 디자인 + 서비스 경쟁력
 <종래> <90년대 후반> <2천년대 후반>
 - 미국 제조업체 매출에서 서비스 매출 비중 : 1995년 12% → 2004년 22%
 -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한 국내 61개 업체 : 1999년-2007년 기간 중 제품이익 18% 상승, 서비스 이익은 24% 상승
 - * 사례 : 1. 미국 애플사 : 스마트폰에 아이튠스,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
 - 2. 프랑스의 세계 1위 건설사 Vinci : 전체 매출의 14%인 공항, 도로, 주차장 운영서비스로 영업이익의 58% 창출
-

○ 제조업 기반강화

- 산·학·관 공동 컨소시엄 프로그램 강화, 대학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및 디자인 등 서비스적 요소에 대한 지원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지속,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기술지원단 운영 및 기술연수 지원
-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확대,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전개
- 폴리텍대학, 강원인력개발원, 도립대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의 기능과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확대
- 중견·대기업 유치활동 강화(투자유치 전문조직 강화 등)

○ 새로운 제조업부문 육성

- 군 활동과 관련된 신소재의류, 편의휴대식품·용품 등 산업
- 동계올림픽 관련 레저스포츠 용품산업의 육성
- 개인의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용품산업

○ 권역별 핵심기업 유치

- 영동권에 필요한 기업으로는 소재를 담당하는 앵커기업으로서 POSCO와 주요 자동차 부품 회사 유치
- 영서권 중 춘천에는 제약 및 바이오 기업, 원주·횡성에는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기업을 중점적 유치

〈4-5-3〉 전통산업·서비스업의 신산업화

- 농림어업과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강원도 서비스업의 지역내총생산은 22조 4,795억(2009년)으로 전체의 81.5%, 전국평균 72.5%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
 - 전국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
- 구조적으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부문이 서비스업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건설업(11.8%), 교육서비스업(9.6%), 도소매업(7.7%) 등의 순

서비스부문 생산구조(2009)

구분	전체	전기가스 증기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	정보통신
GRDP	224,795억	6,257억	26,516억	17,233억	10,269억	9,390억	4,976억
비중(%)	100.0	2.8	11.8	7.7	4.6	4.2	2.2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기타 서비스
1조 158	1조5,241	5,768	4조8,799	2조1,536	1조 427	9,306	5,821
4.5	6.8	2.6	21.7	9.6	4.6	4.1	2.6

자료 : 통계청, KOSIS

○ 지역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체계 형성

- 대형마트 입점 시 지역인력 고용할당제, 지역생산물 우선계약제 실시
- 부문별 지역상인연합체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한 대응력 제고

○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 53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전통시장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청정, 신뢰, 신선' 먹거리의 u-마켓으로 특화 육성
추진 : '스마트 빌리지' 조성 및 연계 추진
- 시장별 대표상품과 먹거리 개발, 시장문화예술의 새로운 영역 개발
- 테마별 시장거리 조성 및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 5일장을 주말장(토, 일요일 개장)으로 전환하고 도시형 상설전통시장은 주말장터를
병행 운영하는 등 차별화 전략 채택

○ 생활토착기업의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자금조성 등 지원대책 추진
- 거점지역 물류센터 건립
- 신용보증 지원 확대, 일반보증·특별보증 지원

○ 건설업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녹색경제체제 구축과 연계하여 건설업의 녹색기술력 향상
- 그린홈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 한옥학교 등 지역특성을 살린 주택건설업에 대한 사업기반 강화

〈4-5-4〉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산업 육성

- 강원도는 318.1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EEZ 수역(443천km²)의 15.3%인 68천km²가 강원도의 관할해역
 - 어로한계선 설정으로 인한 조업제약, 해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남해안에 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제약 요건이 많은 상태임
- 어업기반이 영세하고 깊은 수심, 대륙붕 발달 빈약 등으로 잡는 어업 중심의 수산업으로 연안에서의 증·양식개발 취약⁶⁶⁾

강원도 해양수산업 현황(해면)

구 분		강원도		전국	
어업인구 가구수		2010년 8,320명, 2005년 12,605명 2010년 3,039가구, 2005년 4,221가구		2010년 171,191명, 2005년 221,132명 2010년 65.8천가구, 2005년 79.9천가구	
어업형태별 어가수	구 분	양식어업(2010)	어로어업(2010)	양식어업(2010)	어로어업(2010)
	소계	55(100%)	2,984(100%)	17,386(100)	48,389(100%)
	전업어가	29(52.7%)	1,510(50.6%)	5,894(33.9)	13,429(27.7%)
어업총생산액(2010년)		2,310억원		7조4,257억원	

자료 : 통계청, KOSIS

- 수산자원의 발굴 및 확충과 산업화기반 조성
 - 신개념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의 개발 및 어촌기업 중심의 수산물 브랜드화
 - * 예 :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동해안 6개시군 해역) 및 돌기해삼 가공산업 육성
 -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개선 및 생산자 주도형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 바다목장 사업의 확대로 어족자원 확보
 - 참치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양식사업 적극 추진실험 및 확산
 - 치어방류 사업 확대, 인공어초, 바다 숲 등 물고기 서식환경 정비 및 조성

66) 2010년 현재 어업인구는 8,320명으로 전국 어업인구의 4.9%를 차지함으로써 해양보유면적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전국 어가의 27%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강원도 어민은 타 지역 어민보다 '고기잡이'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내수면 가공식품 개발 및 양식장 시설개선

- 내수면 청정 특산 연어, 송어 가공품 생산(훈제, 어묵, 스테이크) 브랜드화
- 노후된 내수면 양식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충으로 양식 생산량 증대

○ 해양수산 산업벨트 조성

- 고성(명태가공), 속초(북은 대게), 양양(연어)간 수산업 벨트 조성
- 생산유통단지 및 냉동·냉장시설 설치
- 어획량 확보위한 연구개발 추진(종묘생산 통한 자원확보)

○ 심층수와 연계한 해양바이오 산업 경쟁력 제고

- 심층수의 먹는 물뿐만 아니라 의용수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해양심층수 실용화 및 산업단지 조성
- 해양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신제품 개발 및 스타제품(명품) 육성 추진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저온성 수산생물의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사업 확대
 - * 고성군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수산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 해양심층수 및 심해생물 수족관, 타라소테라피 헬스케어 의료 관광과 연계한 해양 심층수 관련 산업의 다양화 추진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증·양식 개발

- 한해성 어·패류자원 양식기술 개발 및 증·양식 사업 추진
- 명태, 도루묵, 대구, 털게, 딱지, 꼼치 등 어류양식 확대
-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활용한 연구실험 및 대규모 종묘생산 추진
- 가리비 등 패류자원 증·양식 추진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민간양식시설 확대 및 연구기술 이전

○ 돌기해삼 특화산업 육성

- 돌기해삼 살포식 양식단지 조성
 - * 해삼서식장 조성(기능성 어초 방류, 해조숲 조성), 해삼종묘 방류
- 종묘생산시설 및 가공시설 건립
 - * 종묘생산시설 건립 및 기존시설 개·보수 추진, 돌기해삼 가공시설(건해삼) 건립
- 돌기해삼 수출시장 개척 및 해삼 기능성 식품개발 및 산업화
 - * 중국 등 박람회 시장 개척 및 바이어 확보, 건해삼, 분말, 액상 등 식품개발

- 심층수로부터 농산물, 에너지, 희귀금속 등의 생산 및 산업화 추진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건축물의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 해양심층수의 저온성을 이용한 농수산물 보관 및 생산시설 활용
 - 해양심층수 취수시설과 희귀금속 생산 시설 연계로 시설비 절감
 - 해양심층수로부터 리튬, 붕소, 우라늄 등 희귀금속 생산 및 산업화

- 해조류를 이용한 신산업 창출 및 중·소 제조업 단지 육성
 - 대규모의 해조장 조성으로 대량의 해조류 생산 시스템 구축
 - 해조장 조성으로 어족자원 확보 관리 방안 수립
 - 해조류를 바이오플라스틱, 희귀금속 등 신소재 산업으로 육성
 - * 예 : 삼척 종합발전단지 내 해양바이오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해양에너지 및 자원 개발
 - 파력, 해양온도차(심층수 활용) 등 동해안에 맞는 녹색해양에너지 개발
 - 리튬 등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희소물질 개발
 - 심해잠수부, 해양용접기사 등 해양산업과 연계된 인적자원 개발
 - 해양에너지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연구 인프라 구축
 - 해양오염을 방제하고 처리하는 해양전문 환경처리기술산업 육성

- 해양환경 정화를 통한 수산업기반 조성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불가사리 수매사업 지속추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 어촌·어항을 해양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
 - 1차 산업기반 확충 : 어로채취, 양식 등 수산자원의 확충
 - 2차 산업기반 확충 :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수산가공산업 활성화
 - 3차 산업기반 확충 : 해산물 요리체험교실, 생태어촌 체험시설, 어촌체류·경관시설, 도농교류·직거래센터 등 마을단위 관광서비스 인프라 구축
 - 마을, 항만환경 정비 : 전통문화의 향취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
 - 4계절·체류관광을 위한 어촌체험, 요트마리나, 해상호텔 등 기반 시설 확충

- 동해안을 동아시아의 관광허브로 육성
 - 강원 동해안의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 계획 수립 추진
 - 삼척에서 고성에 이르는 바다열차 및 해상 레저 여객선 운영
 - 동해안 체험의 장 확대(해상·해저체험 관광산업 육성)

- 동해안의 편리한 관광을 위한 렌터카 산업 육성
-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등 관광기반시설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체험형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체류형 관광자원 확충

○ 해양 레저·스포츠산업 육성기반 조성

- 동해안 요트기지 및 요트훈련아카데미 건설
- 크루즈관광 기항지 건설
- 스쿠버다이빙 및 스노클링 등 포인트 개발
- 접경 동해안 해양레포츠 육성기반 조성

〈4-5-5〉 기업혁신역량 지원체계 강화와 창업활동 촉진

○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

- 중소기업의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 및 기금조성, 기업~대학~연구소 협력 협의체 구성

○ 기업경영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속, 기업~지자체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포장디자인·인증마크 획득지원, u-business 환경 구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생산자 지원서비스 활성화

- 법/경영 전문대학원을 통한 지역 전문가 양성
- 생산자 서비스 컴플렉스 조성, 경영컨설팅, 법률자문회사 육성 및 유치
- 디자인, IT, 콜센터 관련 사업체 육성, 생산자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창업자 맞춤형 마이크로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 ‘창업 아이템 컨설팅 → 창업금융 → 경영관리 → 마케팅’ 등 일련의 서비스 체계 구축
- 현재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의 연계 확대
- 창업 아카데미 및 창업 컨설팅 비즈니스(엔젤기업)의 활성화
- 청년창업가에 대한 멘토제 운영 지원
- 창업자금지원기금의 조성 : 도내 금융기관 등 연계추진

제5장 생명다양성 환경기반 확충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경제성장에 따른 과도기적 시대의 부산물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모든 지역에서 첨예한 사회문제로 부각,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녹색경제 체제로 전환

- 과거에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개발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자연(환경)이 인간 삶의 전제
-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행동이 자연과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느냐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로 부상

- 개발과 보존은 자연과 사람의 공생관계에서 환경수용력 문제로 대두⁶⁷⁾
 - － 공유물의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환경자원에 대한 절대적 가치의식 필요
 - －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연자원의 시장가치(상대적 가치) 제고전략 필요
- 국가계획에서 녹색성장 기조⁶⁸⁾를 강조, 자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
 - － 생태자원은 강원도의 최대 강점으로 최근 보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 최고가치자원인 자연환경으로서의 관광, 청정농산물과 다양한 생물자원 등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으로 자연환경가치가 하락하는 문제 대응 필요
 - － 산불, 호우, 병충해 등 기후변화 피해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 종합적으로 강원도 자연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 － 산업사회시대에 형성된 자연환경과 관련된 제도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수준
 - － 자연환경을 주체로 보는 보다 실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환요구

67) 주민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하나 환경관련 전문가나 단체들은 주민과 지방정부의 판단이 현재의 소비만족을 위하여 미래의 자원인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

68) 2009년 강릉시가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

2. 목표와 계획지표

○ 자연생태를 토대로 삶의 질과 산업 성장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환경자원과 생물다양성을 토대로 녹색산업성장 기반구축
- 우수한 자연생태 및 경관의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
-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

○ 계획지표

지표	2010	2015	2020
하천수질 1등급 유지율	73%	75%	85%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10%	15%	22%
2020 BAU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2%	15%	30%
저탄소 녹색마을	1개소	10개소	22개소
폐기물 재활용률	58%	61%	63%

3. 계획과제

○ 녹색정주환경의 조성

- 강·산·해 통합국토관리네트워크 기조에 부응하는 생태네트워크 관리체제 구축
- 강원도의 녹색도시화와 기후변화대응체제 구축

○ 생물다양성 기반 지역성장 체제 구축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기반 확보

○ 물자원의 확보와 가치증진

- 물의 자원화체제 구축 및 청정 1급수 수질보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 생활폐기물 관리와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및 녹색교통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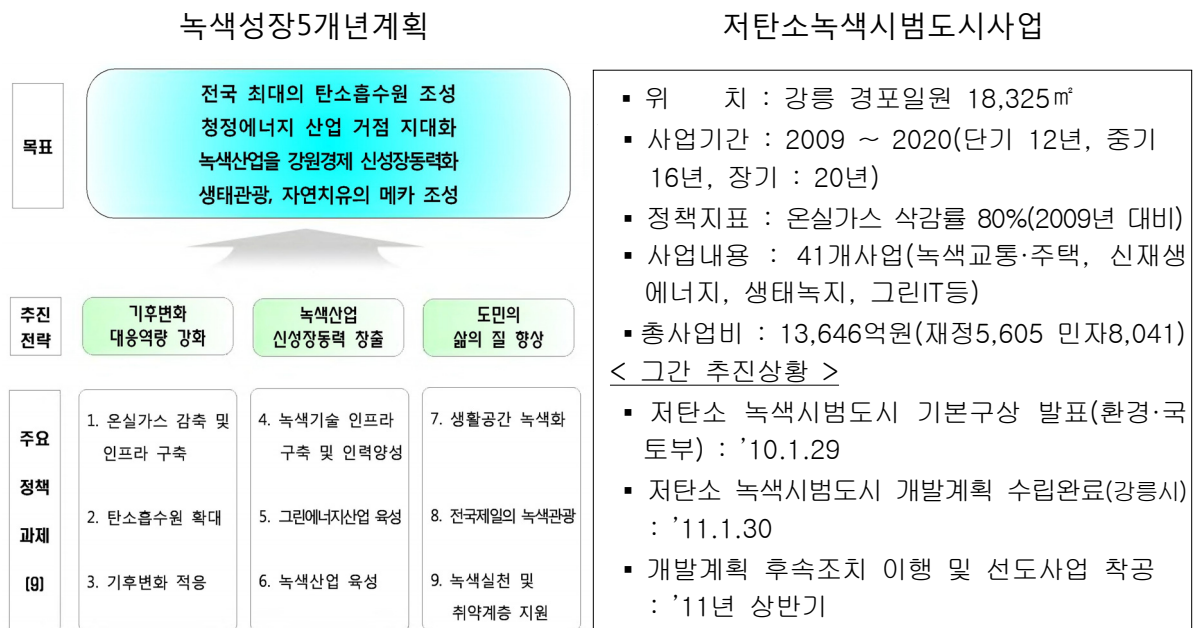
제2절 녹색정주환경의 조성

1. 실태와 추진과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강과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통합적 녹색국토 실현을 위한 3G 통합전략을 제시

- 녹색경제 : 양적성장 / 탄소경제 / 대량생산 / 대량소비
→ 질적성장 / 청정경제 / 다품종소량생산 / 지역자원 활용
- 녹색생활 : 지배와 종속 / 물적 부의 추구 / 성장형 국토 / 폐쇄국토
→ 참여와 자율 / 행복추구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녹색환경 : 경제 종속변수로서 환경 /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 / 치장형 녹색 추구
→ 성장과 환경의 통합 / 지속가능한 개발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여건

○ 강원도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과 저탄소녹색시범도시사업 추진 중



○ 추진과제

- 강산해 통합국토관리네트워크 형성
- 저탄소녹색도시 강원도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경관조성과 공공디자인의 확산

2. 세부추진과제

〈5-2-1〉 강·산·해 통합국토관리네트워크 형성

○ 생태네트워크 종합계획 수립

- 국토계획상 강산해 통합국토관리네트워크는 4개의 생태축으로 분류

분류	개념	강원도 생태축
핵심국토생태축	한반도의 생태적 골간을 이루는 생태축으로 국가 생물자원의 보고	백두대간, DMZ, 동해안
광역생태축	국토 단위의 핵심생태축과 도시연결생태축을 연결하는 생태축	춘천-홍천-인제-속초 원주-횡성-평창-강릉
도시연결생태축	도시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확보하기 위해 생태적 중요지역을 보전·복원하여 연결한 생태축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주요도시 내 생태축
연안해양생태축	연안과 해양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주요 생태적 거점을 보호	동해안

- 도 단위의 광역생태축에 대한 범위를 설정, 핵심·완충지역 등 관리체계 수립
- 종 다양성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실질적 지역발전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포함
- 저탄소 녹색도시 강원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

○ DMZ 생물권보전권역 및 GEO Park 지정을 통한 핵심국토 생태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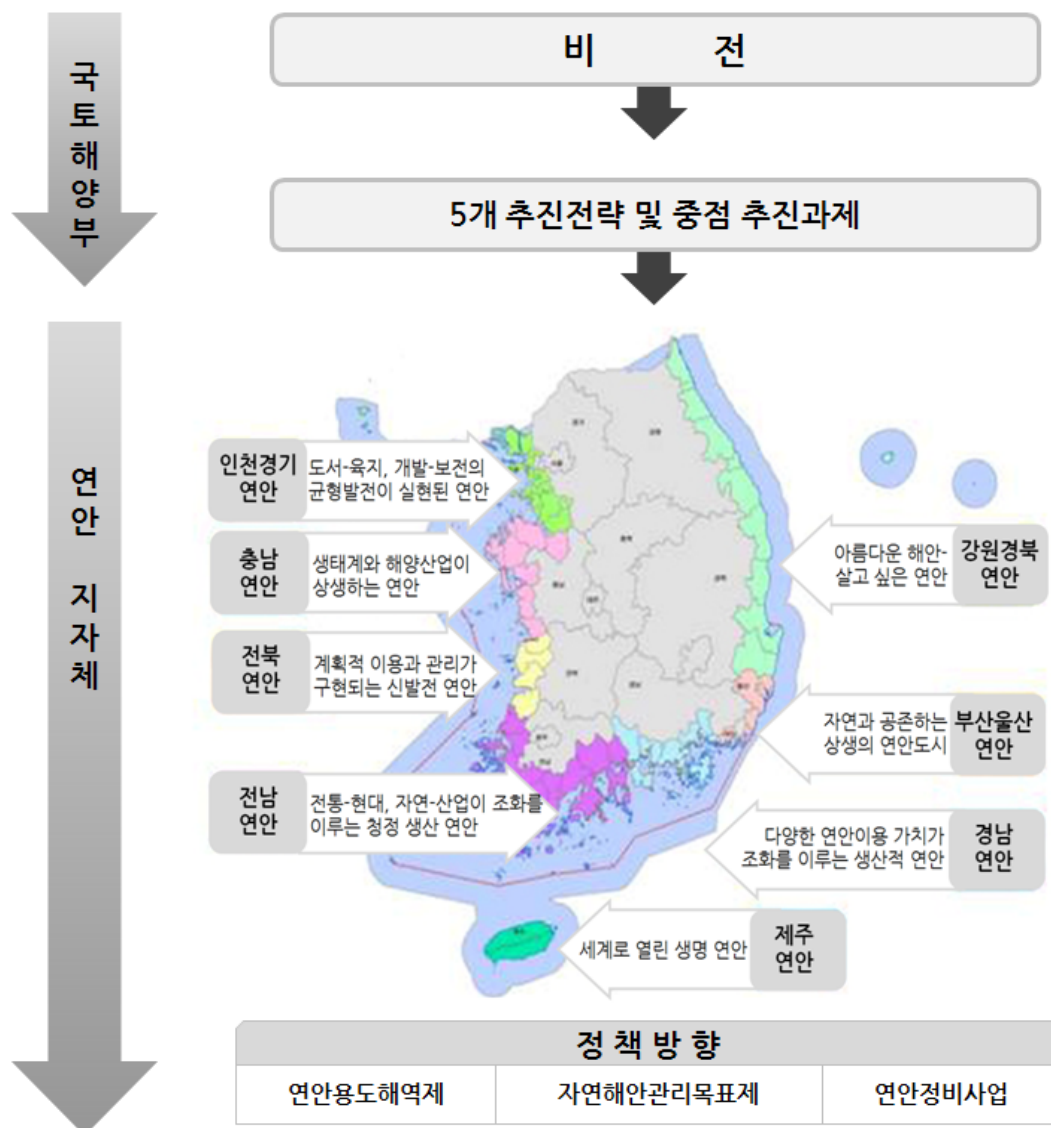


자료 : 동아일보 2011.7.15

○ 주요 도시 생태축 설정과 연결

- 도시하천, 공원, 녹지 등 도시내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축 구축 추진
- 춘천 : 캠프페이지, 약사재정비축진지역 사업을 활용한 도심 녹지축 형성
- 원주 : 1군사령부, 중앙선 철도 이설을 활용, 도심재개발을 통한 녹지 연결
- 강릉 : 저탄소녹색시범도시, 동계 올림픽 클러스터 조성으로 도시녹지축 형성
- 도시연결생태축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연계 지역관측 전략으로 활용
-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 지방하천 52개소 276km 정비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0)』에 입각한 시행체계 확립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5대 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

5대 추진전략	핵심과제
연안공간의 계획적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해역용도제 및 해역적성평가제도 자연해안선 관리목표 시행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관리 모니터링 확대·시행 재해에 대비한 연안완충구역제도 도입 재해 취약지역 시설 재배치 유도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연안·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형 녹색 연안정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정비사업 개선 생태 친화적 하이브리드형 연안정비 시행
공유수면 매립 이력관리 및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매립 이력제 도입 공유수면 공공성 강화 및 갈등방지

○ 연안해양 생태축의 관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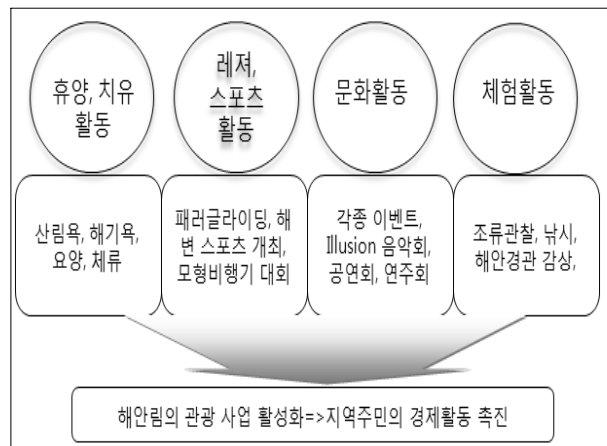
- 동해안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안정비 사업 추진
- 정비사업과 연계한 시군별 생태자원(석호, 해안림, 하천 등) 보존계획 수립

〈 연안정비사업 개요 〉

- 위 치 : 동해안 6개 시군 연안
- 사업기간 : 2000 ~ 2019(20년)
- 사업내용 : 연안침식모니터링, 침식방지시설, 해안접근로 등 친수시설
- 총사업비 : 1,927억원(국비 1,213 / 도비 60 / 시군비 654)
- 추진상황 : 15개소 사업추진(연안침식 모니터링, 침식방지시설(10개소), 친수연안시설(5개소))
- 향후계획 : 25개소(모니터링 1, 침식방지 20, 친수연안시설 4)
사업비 1,211억원(국비 848, 도비 7, 시군비 356)

○ 해안림의 다목적 이용체계 구축

- 도시형 해안림(경포, 망상, 조양, 거진 등) : 해안산책로(Promenade)를 중심으로 레저, 여가, 휴양 체험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보완
- 생태형 해안림(맹방, 안인, 동호 등) : 해안림 내의 소로, 생태, 경관, 심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연치유 및 생태 학습 체험공간으로 조성
- 해안림 연결 및 면적 확대 추진



〈5-2-2〉 저탄소 녹색도시 강원도 조성

○ 강릉 저탄소녹색 시범도시의 성공적 조기 완료

-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전에 강릉 경포일원의 녹색시범도시 핵심지구를 완료하여 녹색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강원도의 선도적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홍보
-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과 연계, 강릉시 전체의 저탄소 녹색도시화 계획 추진(동계 올림픽 클러스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녹색도시화)
- 주요 녹색도시 거점 연결도로에 대한 녹색교통체계 도입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및 경포호 생태복원 개념



강릉 저탄소녹색도시 공간구상도



경포호 생태복원 조감도

○ 강원도 전 지역의 저탄소 녹색도시화 확산

- 녹색시범도시 조성 성과를 확산시켜 도내 주요도시의 녹색도시화 도모
- 저탄소녹색도시 전략을 기조로 시군 종합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기성 시가지 저탄소 녹색도시화 및 신규 시가지의 저탄소 녹색도시환경 조성
- 광역녹지축을 고려한 택지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 생태산업단지 조성, 녹색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도시 관리

○ 도시 녹지·생태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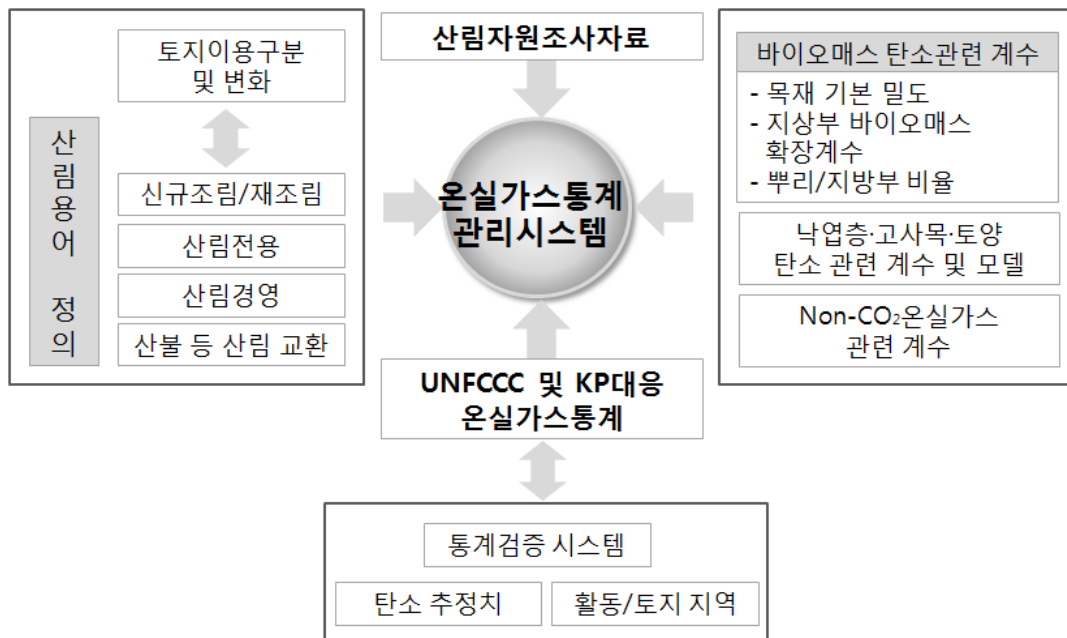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공지천, 원주천, 홍천강, 전천, 화천천, 서천 등 6개 지구 우선 추진 후 확대)
- 생태하천~도시내 녹지 연결을 통한 녹지축 복원 추진
- 하천주변 친수공간(생태학습장, 야외문화시설, 자전거/산책길 등) 조성
- 옥상녹화와 도시공원 조성 확대를 통한 도시 녹지축 형성 및 연계 추진

〈5-2-3〉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탄소흡수원~배출원 관리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 강원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 온실가스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기업유치, 저탄소 녹색행사 개최, 그린동계올림픽 실현
- 탄소흡수원 신규조림 확대

산림부분 온실가스 통계 관리 시스템(예시)



자료 : 이경학(2008) 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 및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

○ CDM(청정개발체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배출권 획득
- CDM 사업종합계획 수립 및 CDM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

- 기후변화대응 연관산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
- 기상·기후 과학관 등 기상기후 관련기관 우선 유치 후 연관 산업체 집적 촉진

○ 도시림 조성관리 기반구축

- 도시의 녹색량을 유지하고 총량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녹색총량제’ 도입
- 총량의 향상이 어려울 경우 기존 도시림의 질을 높임으로써 총량부족 보완

○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시민사회, 단체, 주민, 행정, 전문가, 산업계 등이 통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통의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생각과 자원을 모으는 노력 추진
-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등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 저탄소녹색도시화, 녹색경제체제 구축의 협의체로 운영

○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운영

-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산업 기틀 마련

< 센터 현황 >

- 법인 설립 : 2008. 12. 19(2009.1.29 개소)
- 조직 현황 : 현재 1국 2부 16명의 직원이 근무
- 주된 활동 :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검증 및 기타 기후변화관련 사업 추진

- 기후변화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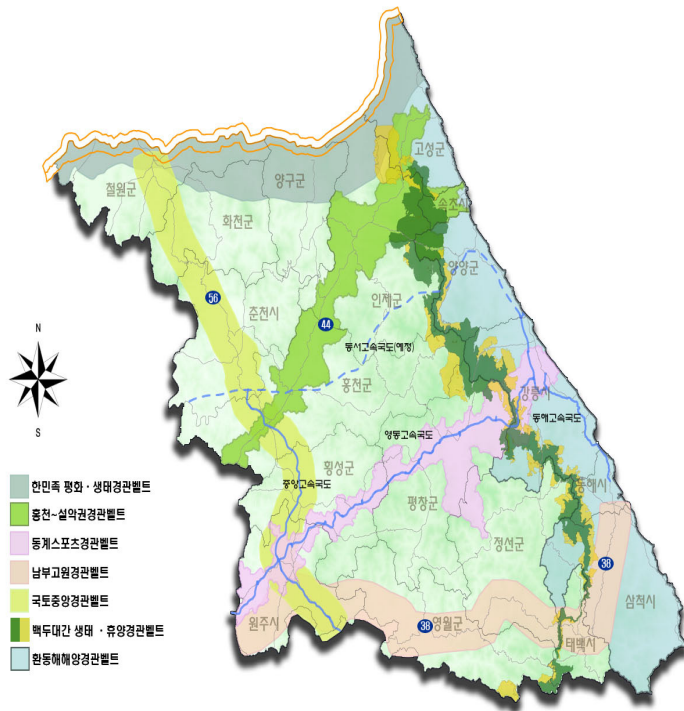
○ 강원도 ‘G-하우스(강원도 보급형 저탄소 주택)’ 보급 활성화

- 강원도 기후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감(55%)형 강원도 특성화 주택모델
- 시범주택의 건립과 설계도 및 시방서 보급 확대
- 도내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건축기술 개발 추진
- G-하우스 보조금제도 창설추진
- G-하우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도내 건축업의 특성화 및 기술 경쟁력의 제고와 개인들에 대한 G-하우스 건설 관심도 제고
- 신규 주택단지, 펜션단지 및 마을 주택 등 건설에 G-하우스 건축 장려
- G-하우스의 품질과 에너지효율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2-4〉 경관조성과 공공디자인의 확산

○ 경관벨트별 특성화 사업 추진

- 동계스포츠벨트 : 겨울스포츠의 메카라는 통일된 이미지 창출
 - 홍천~설악권벨트 : 소양호, 설악산 등 청정관광벨트로서의 경관 이미지 강화
 - 환동해 해양경관벨트 : 해안의 특성화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
 - 한민족평화생태경관벨트 :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전, 경관보전방안 강구
 - 남부고원경관벨트 : 국도38호선을 따라서 입지하고 있는 영월, 고한, 사북, 태백, 도계, 삼척 등 중소도시의 노후화 된 경관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관도시 만들기 추진
 - 국토중앙경관벨트 : 중앙 고속도로 주변의 양호한 산림경관과 농촌경관의 지속적인 관리
 - 백두대간 생태휴양경관벨트 :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축 및 산악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관보전방안 강구
- * 백두대간 벨트의 경우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권역 기본구상안과 연계하여 추진



○ 경관의 상품화 활성화

- 해양경관 상품화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등
- 고원 경관형성 : 대관령 천상의 화원 조성
- 숲길 경관형성 : 오대산 스타트랙 등 숲길을 활용한 문화/자연경관자원 연결 등
- 지역 경관맵, 가이드 북, 경관홍보 매체 개발

○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중심의 창조적 도시경관 조성

- 국토환경디자인 사업 발굴
- 거대화, 고층화 위주가 아닌 지역 고유의 문화와 스토리를 갖춘 강원도형 고감도 (High-Touch) 지역 랜드마크 구축

○ 도시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

-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실행
- 공공디자인 추진조직 및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
-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 공공공간적 성격의 사적(私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포함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1시군 1특성화 사업발굴 및 강원도 선도모델 선정

○ 도시경관사업 추진

- 주요도시 내 주요 가로, 수변 중심의 경관시범사업 선정 및 경관협정 추진
- 전선지중화, 간판/광고물, 색채경관, 건축경관,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추진
- 소도시, 마을 경관 등으로 경관사업의 단계적 확산

○ 디자인 지역인재 양성 및 디자인 산업 육성

- 지역특산품에 대한 디자인 개념 적용을 위하여 시군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디자인 교육 강화
- 디자인 전문가와 연계하여 지역의 디자인 수준 제고
- 지역특산품에 대한 디자인 개선
- 1인 창조기업 등 지역과 밀착된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제3절 생명다양성 확충

1. 실태와 추진과제

-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등을 비롯한 자원 고갈,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갈등 격화 추세
 - 무한한 자연·자원을 전제로 종래의 경제활동이 일어났다면, 새로운 경제는 자연·자원의 유한성 및 과학기술발전을 전제로 출발
- 자연환경 위기와 더불어 각국의 자연자원 확보경쟁은 에너지, 희토류 등 지하자원, 생물자원 등 전 방위로 확대
- 자연생태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세계적 추세는 강원도의 기회
 - 강원도는 최고가치자원인 자연환경, 청정농산물과 다양한 생물자원 등 보유
 - 21세기 지역개발에서 강원도의 생태자원은 최대강점
 - * 강원도 산림면적은 도내 토지 면적의 81%, 전국 토지면적의 21%, 국내 발생산소 22%의 비중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 24%, 하천수질은 1등급 구간이 72%
- 생태자연의 보전·복원과 생명 다양성의 확보⁶⁹⁾
 - 생물 다양성 증진과 국제적 차원의 생물주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각
 - 강원도가 유지하여야 할 생명다양성 목표 및 체계적 달성 전략 강구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적용 확대 및 종의 복원과 유지에 대한 지원확대
-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 변화에 대비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 대비
 -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방안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공동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추진과제
 - 생명 종 다양성 확보
 - 생명 다양성 축제개발 및 종 은행 설립

69) 환경부에서는 2006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06~'15)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 성공적인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 중

2. 세부추진과제

〈5-3-1〉 생물주권 패러다임에 의한 생명 종 다양성 확보

○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자연환경을 주체로 보는 보다 실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환요구⁷⁰⁾
- 생물 다양성 증진과 국제적 차원의 생물주권 확보 추진
-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방안 추진

○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 종 다양성 전략계획(2012~2020) 수립 추진

- 2020년까지 종 다양성 목표 설정, 강원도 종의 다양성을 유지, 복원
- 종의 DB 구축, 유전자은행 설립 검토, 외래종의 박멸과 토종의 보호 추진
- 세계종다양성회의 유치

○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육성·지원체계 구축

- 생약연구단지 조성, 산촌지역 곤충산업 육성, 자연치유센터 조성 등



자료 : 홍천 힐리언스(http://www.skin8575.com/natural_center)

○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등 생물다양성 관련기관 유치 및 육성

「형성 홀로세」 생태보존 연구소 애기뿔소똥구리 멸종위기야생동물II급 복원사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70) 산업사회시대에 형성된 자연환경과 관련된 제도는 개발로 인한 훼손에 대응하는 소극적 방어적 수준에서 생성

〈5-3-2〉 생명 다양성 축제개발 및 종 은행 설립

○ 토종축제 개최

- 한국의 모든 토종(균류에서 동식물에 이르기까지)을 모아서 축제 개최
- 축제를 통하여 수집한 종을 분류하여 자원으로 증식, 연구개발로 종의 자원화 및 종자산업 육성에 기여

<토종축제의 개요>

- 한국의 모든 토종 동식물을 강원도 특정장소에 모아서 평가와 의미 및 유지보전에 대한 축제로서 학술과 산업 및 재미를 동시에 유발하는 축제로 승화
-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순환개최 : 첫해는 균류와 식물, 둘째 해는 동물 등
- 토종연구에 대한 R&D 결과발표회 등 국제학술행사 연계(국가와 공동개최)

○ 종 은행 설립

- 주요대학에 대학별 특성화 종 은행 설립 추진
- 평창에 입지하게 될 서울대학교 농생대 바이오연구센터와 도내 대학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적 종 개발 및 보전네트워크 구축
- 국가지원에 의하여 연구개발 및 종의 자원화 추진
- 토종축제에서 수집된 종의 보전과 증식에 모태가 되도록 추진
- 은행 본연의 기능에 맞게 학계, 산업체 등에 종을 빌려주고 분양 및 확대 재생산 기능

○ 외래 원천 종에 의하여 생산되는 도내 식물에 대한 외국의 로열티 요구에 대응 체계 구축

- 외래종에 의한 도내 생산물의 실패 파악 및 로열티 규모 파악
- 로열티로 인한 농가 산업 위축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지원 검토
- 중장기적으로 대체 종의 개발로 로열티 지불을 원천해결

제4절 물자원의 확보와 가치증진

1. 실태와 추진과제

- 하천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용수공급(농공·공업·생활용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수 및 치수기능(가뭄 및 홍수조절), 생물종 보호(생산, 서식지), 자연 오염물 정화기능, 문화적 기능, 휴양(관광·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⁷¹⁾
-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를 비롯하여 총 257개의 하천과 28개의 호소가 산재해 있으며 하천연장은 총 3,588km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
 - 하천 수계별로는 남한강 78개, 북한강 103개, 낙동강 10개, 한탄강 10개, 동해연안 수계 63개 분포
 - 10개의 인공호소(댐), 18개의 동해안 석호 보유
- 강원도의 하천·호소의 수질은 대부분 수질환경기준 I~II등급을 유지
 - 지역에 따라서는 고랭지 채소 경작 등으로 인한 흙탕물 등이 발생하여 수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는 유엔이 규정한 공식적 물 부족국가
 - 1인당 연간 재생가능수자원량(2005년)을 기준으로 135개국 중 128위(1,453m³)
 - 국제물협회(IWA)가 발표한 물 빈곤지수는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0위, 1인당 연간 이용가능 담수량은 153개국 중 129위
 - 반면 수질지수는 1.27(1위 핀란드 1.85)로 8위를 기록하여 비교적 양호
 - 정부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1.6.9) 공포
- 추진과제
 - 발원지의 보전과 가치화 및 수변·유역관리체계 구축
 - 청정1급수 수질보전 및 안전하고 깨끗한 물 서비스 공급
 -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
 - 물 사용의 절약과 재이용 촉진 : 물 순환사회 구축

71)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하천관리는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가 중심이 되어 이수 및 치수기능 관리

2. 세부추진과제

〈5-4-1〉 발원지의 보전과 가치화

- 한강 발원지는 역사적으로 오대산 우통수로 알려져 왔으나 1980년대에 태백시 금대봉 기슭의 검룡소로 공식 확인⁷²⁾
-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연못을 비롯하여 많은 발원지 자원이 분포
 - － 양양 남대천(양양군 서면·현북면·손양면의 경계지점), 삼척 오십천(도계읍 구사리), 강릉 남대천(왕산면 목계리) 등
- 한강의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서 우통수와 검룡소의 보전과 활용
 - － 우통수는 역사·문화적인 한강의 시원
 - － 검룡소는 지리적으로 공인된 한강의 발원지

〈 우통수와 검룡소의 자원가치 증진활용의 검토(예) 〉

 - 우통수 : 우통수 물을 찻물과 중요한 제사용 물 등으로 신성시하였던 역사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수량에 한정하여 주요의식에 제공(문화적 상징성 제고)
 - 검룡소 : 현대적 발원지로서 체계적 관리와 가치제고를 위한 생태스토리 상품화
 - 역사적 전설과 사실(史實)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상품화 추진
- 소하천 발원지의 보전과 상품화
 - － 먹는 샘물산업, 축제 등 문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 발원지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 약수자원의 가치보전과 활용
 - － 2011년 1월 오색(양양), 삼봉(홍천), 개인(인제) 약수가 약수로는 전국 최초의 국가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강원도 약수의 약리효과 등 관리·홍보
 - － 약수터 주변의 환경정비 및 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 － 용출량 모니터링, 약리검사, 연구 등 약수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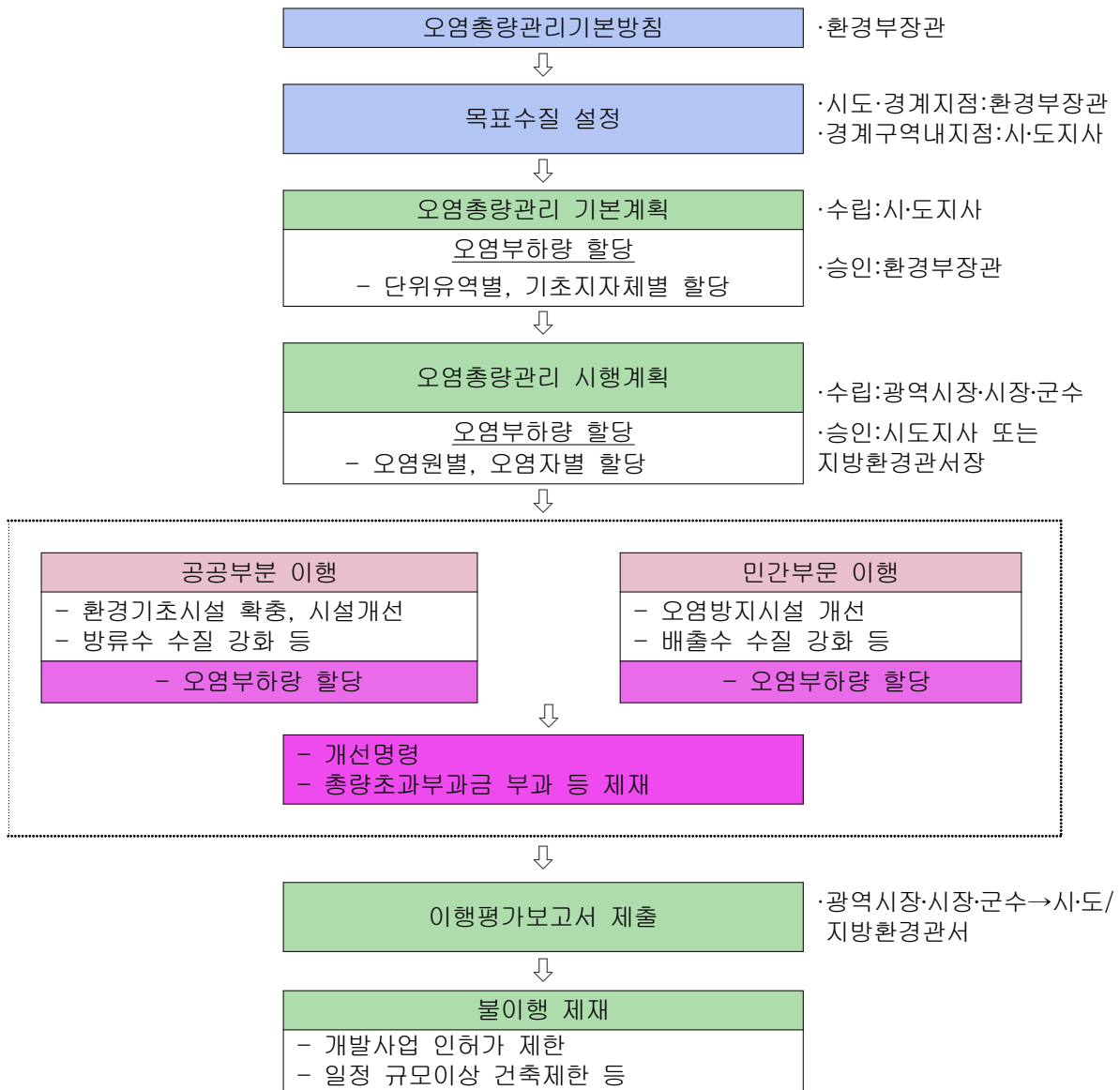
72) 우통수와 검룡소에서 솟은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여량 아우라지. 이곳에서 직선거리는 우통수가 더 멀지만 하천 곡선길이는 검룡소가 27km 더 김

〈5-4-2〉 수변·유역 관리체계 구축

○ 중장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체계 구축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도) 수립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시군) 준비⁷³⁾
- 목표수질, 단위 유역별, 기초 지자체별 삭감부하량, 개발부하량 예측
- 연차별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 수립시 총량체계 구축

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체계



73) 강원·충북은 하류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의 시행성과를 반영하여 2020.6월 이내에 시행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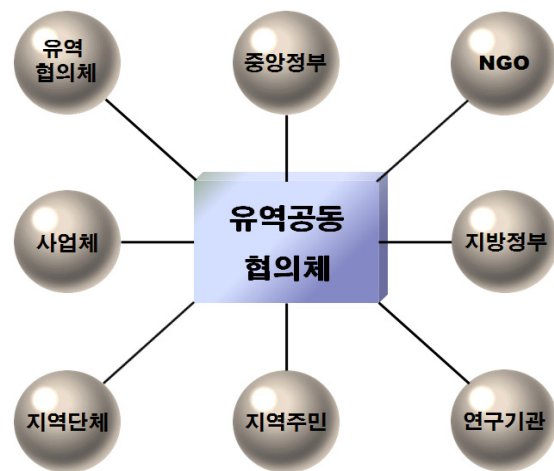
- 오염기득권이 반영되는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개선하여 청정지역에 대해 형평성 있는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 추진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적정조정 및 합리적 배분, 청정지역 기금 지원 확대
- 오염원의 밀집도 및 분포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삭감가능량 산정방식 추진
- 유역의 수질 현황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율 산정 방안
- 비점오염원의 유형화와 도시·비도시 지역의 배출부하밀도 고려 추진

○ 개발과 수환경 보전이 조화되는 유역별 수환경관리계획 수립

- 도내 유역별 수환경 특성 분석(수질, 오염원 분포, 개발 현황 등)
- 하수처리장,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하수관거의 신설 및 시설개선
- 축산폐기물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의무화 등 최적삭감 시스템

○ 유역공동협의체 확립 및 활성화

- 지자체, 연구기관, 사업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유역공동협의체 확립 및 유역관리 거버넌스 구축
- 유역내의 이해당사자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과제의 도출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유역을 합리적으로 공동 관리할 공동 협의기구로 발전
- 실질적 협의체 구성과 역할을 담보하는 수계기금 지원 방안 추진



○ 상수원 확보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수자원의 비축과 관리체계 강화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적정 조정 및 합리적 배분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등 하천관리 재원확보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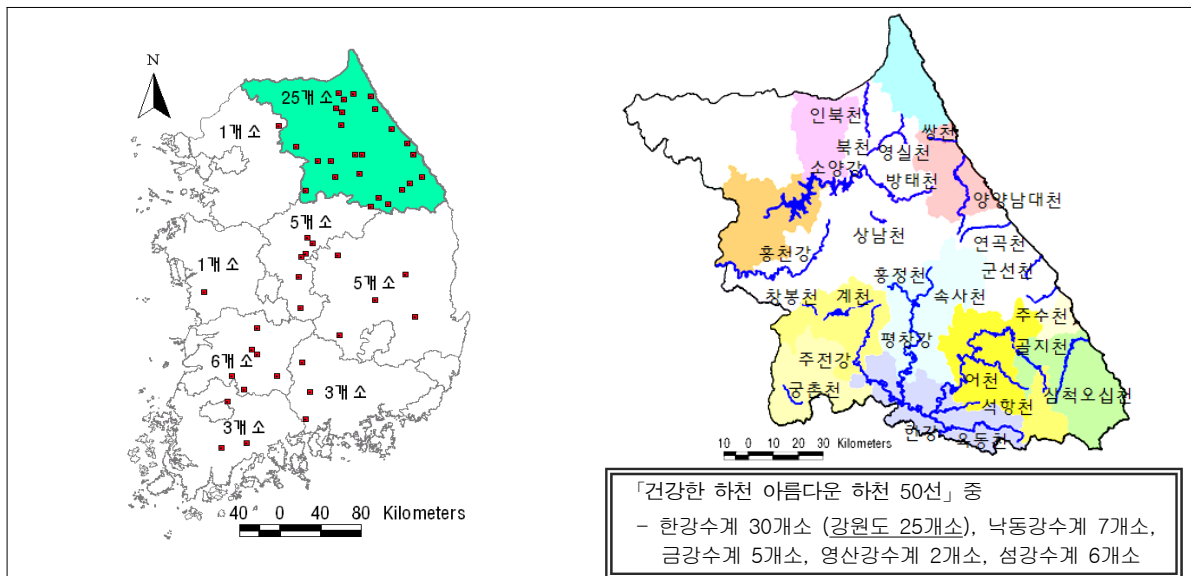
○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등 지속 추진

〈5-4-3〉 청정1급수 수질보전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강원도의 하천

- 환경부(2009)에서 전국의 720개 하천 구간에 대한 수생태 건강성을 조사 및 평가한 결과,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 중 강원도 하천이 절반⁷⁴⁾
- 동해안을 포함한 한강대권역 수계에서는 30개소의 하천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강원도 하천이 25개소

<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의 분포 >



○ 소양강댐 및 도암댐 유역의 효율적 관리

- 기업형 약탈농업의 형태에서 대규모 꽃밭 조성 등을 통한 쾌적산업 유도
-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 지속 추진 및 댐 퇴적물에 관한 연구

○ 하천의 환경 정화기능 회복

- 하천 건천화⁷⁵⁾ 및 부영양화의 원인분석과 대책 강구
- 하천의 토사유입, 수생태계 오염물질 저감 등 하천수질 개선 지속적 노력⁷⁶⁾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지속 추진⁷⁷⁾

74) 종전의 이화학적 수질(BOD, COD, 영양염 등) 이외에도 하천의 서식 생물(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환경, 수변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

75) 강원발전연구원(2009) ‘강원도 물 환경 평가와 관리방안’에 의하면 도내 253개 하천 중 건천은 9개(남한강수계 북한강 수계, 동해안 수계에 걸쳐 분포), 절대유량부족(단위면적당 유량 100㎥/㎢·일)으로 최소한의 환경기능 유지가 어려운 하천 13개, 하천의 크기에 비하여 적은 유량으로 건천화 가능성이 높은 건천화 하천(하천유역당 단위면적당 유량이 200 ㎥/㎢·일 이하) 13개, 건천화 우심하천(200~400㎥/㎢·day) 25개로 조사됨

76) 탁도가 높은 남한강 수계인 섬강유역, 북한강 수계 의암호 유역, 동해안 수계 강릉 남대천 유역 등 우선 대책 마련 시행 필요

○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 도내 7개 시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비산먼지 흡입차 구매, 자연형 및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추진

○ 한강 살/가/지(살리고/가꾸고/지키기) 운동의 활성화

- 강원도가 주도하는 한강 살/가/지 운동을 활성화하여 상·하류간의 갈등해소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발전체계 구축
- 한강 발원지의 상징화 사업, 5개 시·도 공동 워크숍, 문화제, 정화활동 등의 사업을 주도한 강원도의 수자원가치 인식확대

〈5-4-4〉 안전하고 깨끗한 물 서비스 공급

○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의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

-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화를 통한 누수율 저감
- 물 수요관리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따른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 보급률 확대 및 급수취약지역의 서비스 개선

- 소규모수도 급수구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
-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

○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추진

- 동계올림픽 개최지(대관령 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상수도 사업 확충
- 강원 남부권 4개 시·군에 대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효율적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⁷⁸⁾
- 강원남부권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강원 동해안권에 대한 적용 검토 추진
- 인구 및 산업밀집으로 인한 용수수요 급증예상지역에 대한 광역 물부족 해소대책 추진

77) 추진 및 계획 중인 하천과 호소 : 공자·약사·간성·오대·강릉남대·신리·지장·경포천, 순포개·영랑·화진포호 등

78) 권역내 총 급수인구는 14.3만명, 급수보급률은 80.8%, 유수율 39.8%, 권역내 평균요금과 총괄원가는 1,171원과 2,248원으로 전국평균 609원과 731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상수도 일반 현황(2009년말 현재)

시군	보급률(%)	누수율(%)	생산원가(원/㎥)	평균요금(원/㎥)	현실화율(%)
전 국	93.5	11.4	760.6	609.8	80.1
강원도	86.1	22.0	1,277.9	710.0	55.6
춘천시	93.2	9.6	689.0	431.9	62.7
원주시	86.6	12.0	871.2	671.9	77.1
강릉시	90.7	15.6	979.0	649.5	66.3
동해시	97.8	24.2	1,247.0	740.4	59.4
태백시	98.0	55.5	2,188.3	1,042.7	47.7
속초시	99.4	16.9	1,052.1	734.9	69.8
삼척시	86.3	25.3	1,402.0	612.7	43.7
홍천군	66.2	18.0	1,496.4	953.3	63.7
횡성군	56.7	26.3	1,558.5	857.2	55.0
영월군	74.0	36.8	2,639.0	1,064.2	40.3
평창군	72.0	31.8	2,393.0	1,120.5	46.8
정선군	78.2	39.8	2,503.0	1,348.5	53.9
철원군	82.4	14.0	1,746.0	747.3	42.8
화천군	57.5	47.2	1,279.0	564.0	44.1
양구군	74.2	26.4	605.0	532.5	88.0
인제군	69.8	28.3	1,765.0	1,009.9	57.2
고성군	86.1	39.8	1,159.1	780.2	67.3
양양군	79.0	27.6	1,819.0	959.2	52.7

〈5-4-5〉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확충

- 하수도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T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추진
 -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면단위 하수처리장,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수처리율 향상

○ 하수관거 및 도시지역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속정비

-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 시설 건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추진⁷⁹⁾
 - 상하수도 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지속적 추진⁸⁰⁾
 - 소화가스·소수력·하수열 이용 등 결합된 패키지형 에너지 이용·생산 사업 확대 추진
- *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에 추천 하수처리장(15만톤/일) 선정 추진

<5-4-6> 물 사용의 절약과 재이용 촉진 : 물 순환사회 구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11.6.9 공포)에 따라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 2020년 기준으로 재이용수 25억 7,000만톤이 국가목표
- * 2009년 말 현재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연간 9억4,000만톤

○ 국가의 계획과 법에 따라 강원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추진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특히 공업용수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

<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

- 계획주체 : 환경부 장관
- 내용 : 물의 재이용 여건, 재이용수의 수요전망, 공급목표, 정책 기본방향, 재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원조달계획 등

<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

- 계획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내용 : 관할 지역의 물 수급현황,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분야별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재원조달계획,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강원도의 리조트 등 신규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 물 재이용 시스템 도입촉진
- 스마트 마을 등 신규로 조성하는 마을단위에 있어서 물 재이용시스템 도입
-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등 물의 중요성과 절약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

79) 환경부에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 에너지 절감 및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 수립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50% 향상 목표,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방안(2010)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 강원도 하수처리장 34개에서 연평균 52만톤을 처리(전국 432개 하수처리장 연평균 1,846만톤/일)하며, 하수처리비용은 연간 298억원, 이중 전력비가 50억원(16.8%)으로 톤당 26.4원, 하수슬러지 연간 67,613톤/년 발생하여 처리비용 43억원(※ 이중 약 39.7% 해양투기)

80) 강원도 상하수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2009년부터 연차적 추진 중(총시설용량 3,462kW)

제5절 생활폐기물 관리와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

1. 실태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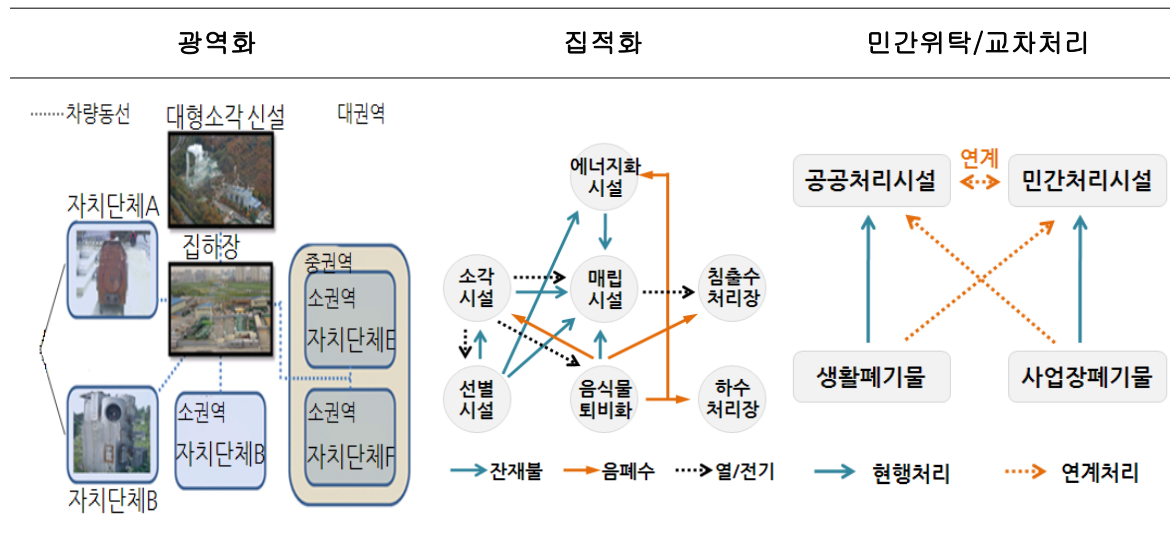
- 정부는 폐기물 적정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에너지 효율성 및 CO₂ 등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사회적 만족을 증대하는 ‘최적화 전략’ 추진
 - －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
 - － 폐기물 처리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 －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 －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 활용
 - －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기술의 적용
 - －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처리 등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하의 친환경 녹색기술로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자원화
 - － 「기후변화 종합대응계획」에 폐기물에너지 자원화가 10대 중점과제에 포함
 - － 도시광산(Urban mining)⁸¹⁾이 금속자원 확보의 대안으로 부상
- 레저용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녹색교통체계의 구축이 현실적 문제
-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제 구축과 일상생활 속 녹색생활문화 확산 시급
 - － 강원도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대비 낮은 수준이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
 - － 2009년 기준 강원도 쓰레기 배출량 16,427톤/일(매립 1,301, 소각 217, 재활용 14,735, 해양투기 172, 기타 2)
- 추진과제
 -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 : 자원순환사회 구축
 - － 녹색교통체계 구축 - 리사이클링 생활문화 확산

81) 폐가전제품·산업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 중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자원화 할 수 있는 금속 또는 관련 산업을 의미하며 철·비철 금속·귀금속·희소금속 등을 주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국내 도시광산은 초기 수준으로 LS니꼬동 제련, 포스코엠텍 등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투자를 시작한 수준(1980년대 일본의 도호쿠대 선광제련연구소의 난조 미치오 교수진이 금속 재활용의 의미로 처음 사용)

2. 세부추진과제

〈5-5-1〉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 : 자원순환사회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광역화+집적화) 추진



* 광역화·집적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단지로 확대 가능

-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 인근 시군간 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
-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등 경제성을 고려
-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병합처리 등 적정처리방법 고려
-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권역내 시군간 교차처리
- 자원순환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폐기물 및 자원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민·관·산·학·연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해소

강원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안)

구 분	특 징	권 역 수
1안	올림픽특구를 고려한 권역설정	8개
2안	지리적 여건 및 행정구역을 고려한 권역설정	8개

올림픽특구를 고려한 권역설정(제1안)

권역	권역별 시·군	대상시설	체적화(광역·집적화) 조건
“가”권역	춘천 · 홍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성에너지(350톤) RDF시설(8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시·홍천군 : 기존소각장시설 활용 춘천시 : 유기성에너지시설 신설(350톤) 화천군 : RDF시설(80톤) → 중장기검토
“나”권역	원주 · 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110톤) 유기성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시 : RDF시설 증설(110톤) 유기성에너지화 시설(BTO방식 추진중)
“다”권역	인제 · 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100톤) RDF전용보일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제군 : RDF시설(100톤) → 단기계획 검토 전용보일러 설치(30톤/일)
“라”권역	고성·속초·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시설(70톤) 유기성에너지(16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시 : 소각시설 증설(80톤 → 150톤) 유기성에너지시설 증설(40→200톤)
“마”권역	강릉·동해·삼척 *평창(동부지역) *정선(동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280톤) 유기성에너지(31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 RDF(280톤), 유기성에너지(310톤) * 동계올림픽 지역연계사업으로 검토
“바”권역	평창 · 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시설(40톤) 음식물폐기물(25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월군 : RDF시설(40톤) 평창군 : 음식물폐기물(2톤/일)
“사”권역	태백 · 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시설(50톤) 유기성에너지(2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백시 : 소각시설 신설 중(50톤→100톤) 유기성에너지시설(250톤)
“아”권역	철원 · 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성에너지(160톤) RDF시설(1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원군 : 유기성에너지시설(160톤) 화천군 : RDF시설(100톤)

지리적 여건 및 행정구역을 고려한 권역설정(제2안)

구 분	포함 시·군	체적화 대상시설	체적화(광역·집적화) 조건
A권역	춘천 · 홍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성에너지(350톤) RDF시설(8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시·홍천군 : 기존소각장시설 활용 춘천시 : 유기성에너지시설 신설(350톤)
B권역	원주 · 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110톤) 유기성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시 : RDF시설 증설(80톤→190톤) 유기성에너지화시설(BTO방식 추진중)
C권역	인제 · 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100톤) RDF전용보일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제군 : RDF시설(100톤) → 단기계획 검토 전용보일러 설치·발전(30톤/일)
D권역	고성·속초·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시설(70톤) 유기성에너지(16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시 : 소각시설 증설(80톤 → 150톤) 유기성에너지시설 증설(40→200톤)
E권역	강릉·동해·삼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280톤) 유기성에너지(31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 RDF시설 신설(280톤) 유기성에너지시설 신설(310톤)
F지역	평창 · 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F시설(40톤) 유기성에너지(25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월군 : RDF시설 신설(40톤) 평창군 : 유기성에너지시설 신설(25톤/일)
G권역	태백 · 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시설(50톤) 유기성에너지(2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백시 : 소각시설 신설 중(50톤→100톤) 유기성에너지시설 신설(250톤)
H권역	철원 · 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성에너지(80톤) RDF시설(1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원군 : 유기성에너지시설(80톤) 화천군 : RDF시설(100톤)

○ 광역 폐기물자원화체계 구축

- 폐목, 폐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가연성·유기성폐기물 등 폐기물 유형별 자원화 방안 및 처리계획 수립
- RDF⁸²⁾, 자원회수시설(소각),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등 강원도 현황에 적합한 기술적·경제적 충족 기준 설정
- 가연성·유기성폐기물 등에 대한 합리적 자원화 권역 설정
- 경제성 확보 및 국비 지원확대를 위한 광역 폐기물자원화 시설의 구축
- 주변 지역 및 산업 시설에 대한 효율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 주민친화적 시설(PIMFY)로의 추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

○ 해양투기 금지 등 쓰레기 투기관리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도내 주요권역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RDF시설,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치 공동이용 추진

○ 시민참여형 거점형 자원순환센터 조성 및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 권역별 재활용품 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 홍보·교육을 통한 시민의 참여 확대
-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 수거된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활용 산업 활성화
- 도 전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

○ 자원순환센터의 집적화를 통한 에코타운(Eco-town)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사회, 자원순환사회, 환경문제 해결 등과 연계된 유망산업인 재활용 산업 추진
- 회수자원별 자원순환센터 구축 추진 및 특화 전략 수립
-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재활용 기술개발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기술연구센터 조성
- 시민 휴식 공간 및 환경학습을 위한 시민교류 학습센터 조성
- 재활용단지, 실증연구단지 등의 복합 에코타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82) RDF(Refuse Derived Fuel) : 쓰레기 고형화 연료(도시쓰레기 중 가연성 물질을 고른 뒤 가공하여 만든 연료)

일본 오무타시의 단계적 에코타운 추진 사례

구 분	에코타운 1단계	에코타운 2단계
입주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병, 가전제품, OA 기기, 자동차, 형광등 ▪ 폐목재·폐플라스틱 이용 건축자재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사업 ▪ 빠칭고대 재활용사업 ▪ 폐목재·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 토너카트리지·프린터 재이용 사업 ▪ 음료용기 재활용사업

○ 농어촌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자원순환마을 조성

- 농어촌 폐기물 종합시설 설치(시군별로 차수막, 침출수 처리시설 등)
- 음식물 회수시설 등 기타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확대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통한 목재펠릿 공급
- 가연성·유기성 폐기물 자원, 산림자원 및 농업부산물 등 바이오매스가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미래형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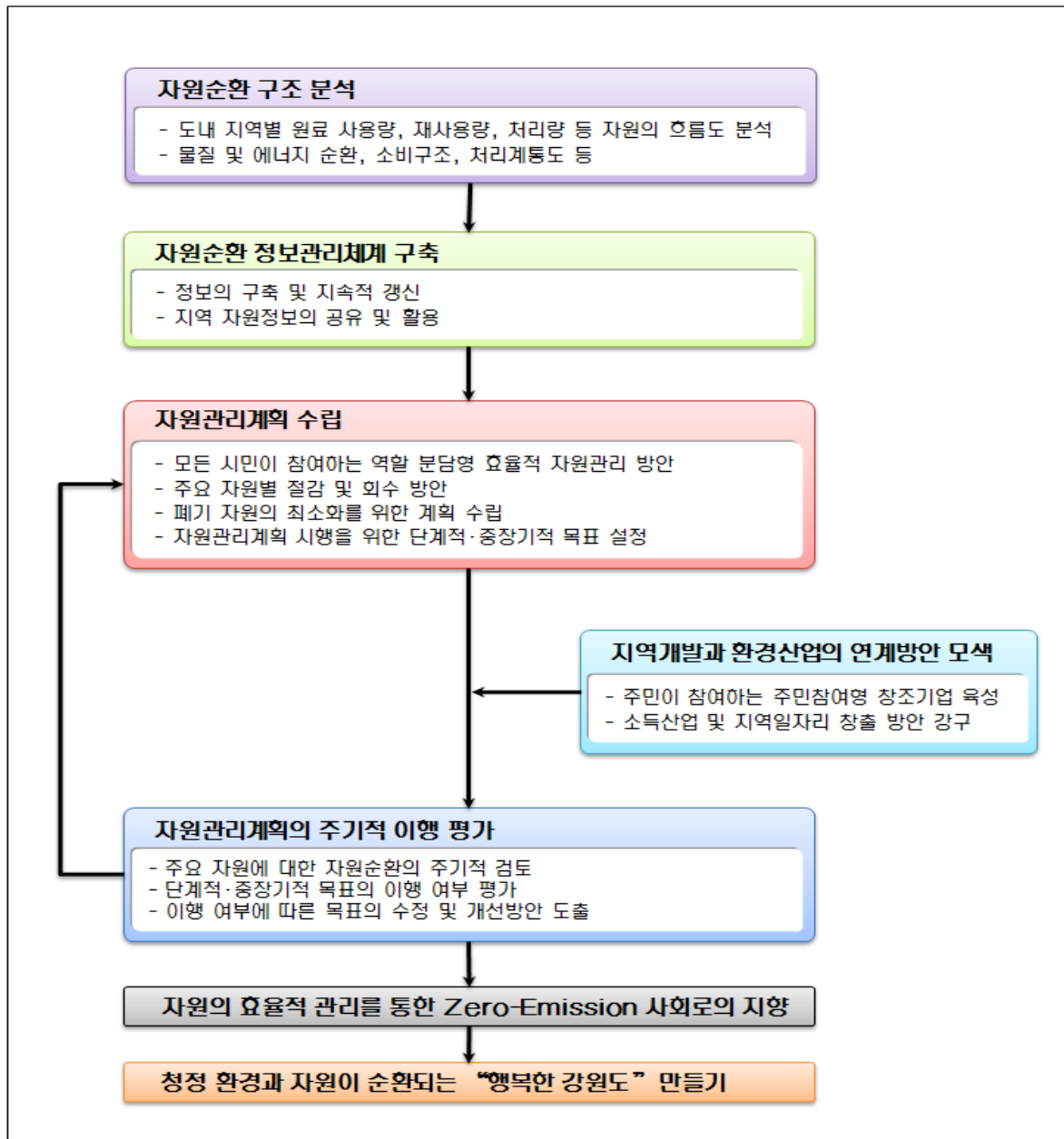
○ 해양 폐기물 등 정화활동 지속적 추진

-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수매)사업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 어선 조업수역 및 어업에서 발생한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 침체어망 인양, 해저에 침적 방치된 폐어망·어구를 인양 제거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자원순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자원순환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원정보의 구축과 공유 및 활용
-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원별 효율적 절감, 회수 및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 배출폐기물의 순환 및 효율적 자원화(에너지화)
- 자원의 최종처분 최소화 및 안정적 처분

자원순환 정보관리를 통한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 등에 주민참여 확대

-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시민과 비정부 조직(시민단체) 등이 참여
- 시민주도의 토론 등을 통한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광역시설화 등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공감대 형성 추진
- 주민편의시설 및 주택난방 설치 등 주민지원 사업 실시

○ 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산업 육성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
- 재활용 선별센터를 민간위탁 ⇒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폐기물 수거·운반업체를 ⇒ 자율적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 기타 건물청소, 가로청소, EPR제품 지역수거센터 등 사업영역 발굴
-

-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
- 식물전분 등 자연재료 포장재 사용 확대 및 기업유치, 육성
 - 대두유 잉크를 활용한 인쇄업 육성
-

〈5-5-2〉 녹색교통체계 구축

○ 개인 녹색교통수단의 교통분담율 제고

- 도시내 인도, 자전거 도로 등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정비
- 개인교통에 편리한 도시내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확보

- 철도의 교통분담율 제고 및 환경친화적 교통수단(하이브리드카 등) 개발·보급 확대
- 도외 지역과 도내 거점지역간 접근망(inter-city transportation)은 철도와 고속도로 중심의 고속교통망 구축
- 도내 순환 교통망(intra-circulation)은 자전거, 청정연료 버스, 지방철도 등 친환경의 '신교통수단' 활용
- 시·군별로 철도역, 버스종점, 인구집중지역 등을 거점으로 순환대중교통체계 구축
- 바이오 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속 확대

○ 강원~수도권 친환경교통망 구축사업 추진

- 고속도로 화물자동차의 액화천연가스(LNG) 개조사업 지원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천연가스 보급용 충전소 네트워크 구성

〈5-5-3〉 리사이클링 생활문화 확산

○ 시민사회 참여활성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환경관련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
- 협력을 통한 녹색 생활문화 확산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 마련
- 지자체의 쓰레기 수거활동을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위탁함으로써 시민운동과 행정의 연계 및 효과적 환경실천운동으로 승화

○ 녹색 생활문화 실천운동 추진 및 확산

-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강원’ 운동의 일환으로 ‘그린강원운동’ 추진
- 가정 및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의 탄소중립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학생(청소년) 참여 환경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음식물 쓰레기 저감, 에너지사용 절감, 폐기물 저감, 재활용 등의 환경실천 녹색생활 운동 추진

○ 홍보 및 교육 환경의 정규화

- 유치등학교부터 녹색환경 및 생활실천운동 교육
- 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에 대한 환경교육 등
- 홍보·교육센터 설립 등 리사이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환경분야 평생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

○ 녹색 제품의 보급과 수요 확대 및 연계 사회적기업 육성

- 그린유통망 확대를 통한 녹색생활의 활성화
- 마을, 단지별 리사이클링 업체와 연계체계 구축
- 강원도의 유망 녹색제품 발굴 및 녹색 제품 전문 판매 센터 구축
- 연계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확대 기반 구축

제6장 스마트·문화삶터 조성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강원도의 주택보급률은 107.4%로 양적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을 달성하였지만, 노후 주택 증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증가, 지역간 수급 불균형 등 주거환경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주거환경의 질적수준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한편, 정주환경의 질적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정보기술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급속한 발달은 생활양식과 공간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
 -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정주 및 경제공간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전환
 - 강원도 인터넷 이용률은 2010년 71.2%로 전국평균 77.8%보다 낮은 수준
 -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분산되어 살고 있는 강원도는 도역 전체를 스마트공간화함으로써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 필요
-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은 문화적 욕구를 크게 증대
 -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실생활에 있어서 문화적 향유여건의 지역차이 인식
 - 상대적으로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은 강원도는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콘텐츠 및 하드웨어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
- 산업과 삶의 질 차원에서 문화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보급하고 강원도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전략 시급

2. 목표와 계획지표

- 쾌적한 자연과 조화된 정주환경의 고품격화를 통한 살고 싶은 강원도 실현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간 구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문화기반 및 주거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욕구 충족

○ 계획지표

지표	2010	2015	2020
최저주거기준 미만세대 비율	20%	17%	12%
경관주택 및 마을 보급	1,500호	2,200호	3,000호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 종사자수	15,000인	17,000인	20,000인
인터넷보급률	71.2%	78%	87%
u-city 시범사업	0개소	4개소	1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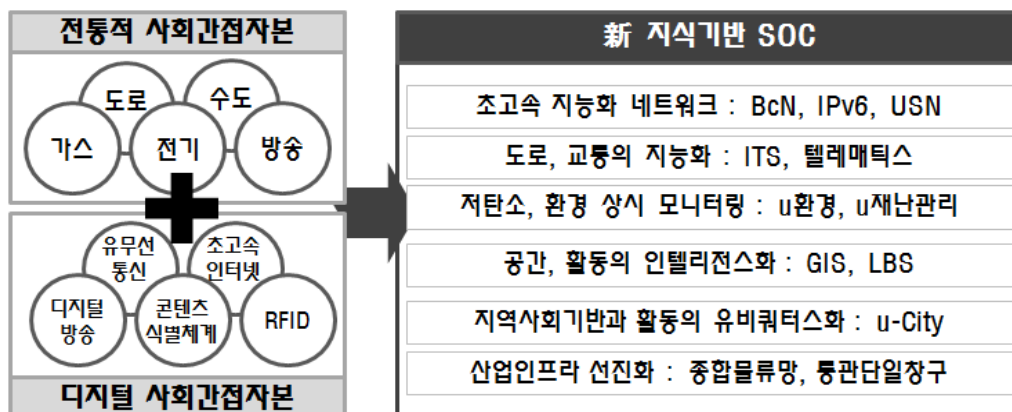
3. 계획과제

- 스마트한 도시생활공간의 형성
 - IT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문화 확산
 -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강원도 특성화 공간 조성
- 쾌적한 정주공간 형성
 - 수요중심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공급
 - 강원도 특성의 주거문화형성
- 전통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향상
 -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
 - 생활 속 문화인프라 확충
- 스마트 문화삶터를 조성하는 토지이용 관리
 -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및 도로명 주소 전환 정착
 - 녹색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 토지이용계획·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

제2절 스마트한 도시생활공간의 형성

1. 실태와 추진과제

-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간 융복합을 활용한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 범부처 모바일 공통 인프라 구축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 공공정보를 활용,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과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 융합 정보기술환경으로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 스마트폰 범용화 등 IT환경 변화에 대응한 「u강원추진전략」을 「스마트강원 추진전략」으로 수정 필요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출현에 대한 대응
 - 스마트 IT와 융복합을 통한 지식기반 디지털 융합행정 체계 구축 및 확산
 - * IT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수단으로 진화 중
- 전통적 SOC와 디지털 SOC를 융합하여 미래지향적 신지식기반 SOC 구축



2. 세부추진과제

<6-2-1> IT환경 변화에 대응한 u강원 추진전략 정비

○ ‘u-강원추진전략’을 ‘스마트강원 추진전략’으로 개편

- 여행자들에게 편리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여행·특산품 추천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 * 여행·특산품 정보에 감성과 이야기가 있는 테마별, 코스별 스토리텔링 접목
- SNS 등을 활용한 관계형성 및 고객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셜적 홍보·마케팅 강화
- 민간(IT업체, 언론 등)과의 공동 이벤트 추진 등을 통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
- 기존 관광·특산품 등의 개별 홈페이지 연계 및 통합
 - * 사이버 강원관광, GW-Mart,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정보화 마을 등

○ 일과 여행이 조화된 강원도형 「네이처 오피스」 조성 추진

-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녹색성장정책의 연계를 통한 신 사무공간 조성
-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고유모델 개발 및 특성화 추진
 - * 시범사업(2011년 하반기) 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한 단계적 확대 추진(100개소)

○ 행정정보의 고도화 및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부가가치 지원

- 강원도 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을 통한 강원 정보화 재정립
- 공공정보 안내·검색·다운로드 및 공공서비스 재사용 시스템 구축
- 기상, 교통, 관광 등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공유서비스 제공
- 공공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오류측정 및 개선 지속

○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IT정책 개발 및 추진

- 정보기술 및 서비스 부문의 급성장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간 환경 조성전략
- 네이처 오피스 구축, 재택근무, 모바일 업무처리 등 원격업무 공간 조성
-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자원 재활용 등으로 자원절약 및 에너지 절감환경 조성
- 원격의료 활성화,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물류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탄소배출량 절감 정책개발 및 추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U-서비스 조성
- 농어촌 지역 IP TV 등 멀티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대역 가입망(BcN) 구축
- 통신사업자 및 정부 지자체 매칭펀드 방법으로 가정까지 광케이블 설치

○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용 CCTV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 센터 구축

- 초등학교 CCTV 시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 전화불통지역 해소의 지속적 추진

★ 2010년 현재 도내 휴대전화 불통지역 : 109개소, 유선전화 불통지역 12시군 137마을

○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추진

- 저소득층 디지털 TV 수신환경 개선 등 취약층 지원 강화

<6-2-2>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문화 확산

○ 정보기술아키텍처(EA)⁸³⁾ 도입 추진

- 조직, 업무,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종합적인 EA 관리체계 수립

○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 구축

- 23개 부서 63개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8개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2010 ~)
- 전자책(e-Book)시스템 이용 활성화(각종 보고 연구자료 등)
-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시군 C/S용 서버, 상용S/W 업그레이드)

○ 유·무선 융합 스마트 인프라 구축 추진

- 도 본청, 농업기술원 등 40개 사업소에 무선인터넷+무료휴대전화 구역(Zone) 조성

○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 추진으로 주민소득 창출

- 마을정보센터 구축, 정보콘텐츠 구축, 주민정보화교육 등
- 정보화 마을 지속적 신규조성(2010년 현재 54개마을 조성)
- 전자상거래 등 주민 소득창출⁸⁴⁾
-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 스마트마을 조성과의 연계, 발전

83) EA(Enterprise Architecture) :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 최고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법을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기술 아키텍처(EA) 도입이 의무화

84) 2010년까지 도내 54곳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연 매출액 60억원으로 증가추세이며 매년 2곳 이상 확대조성

○ 질 높고 광범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목표 설정 등
- 도·시군, 유관기관에서 PC기초, 인터넷활용, 웹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교육
- 주부,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도민 육성을 위해 도민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 도내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시범사업 추진

○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 강화

- 도·시군 행정전산망·정보시스템 850종, PC 19,890대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와와의 사이버침해대응 공조체제 유지 및 대응
- 모의해킹훈련 실시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보안점검 강화
- 공공 I-PIN 조기정착 개인정보 보호 및 DDoS 대응시스템 운영강화
- 강원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운영

○ 강원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상담 및 예방교육추진

-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협력기관(6개소) 및 인터넷 문화학교(24개교) 관리운영
- 가정방문상담, 중독예방 상담전문가 양성 등 인터넷중독예방사업 확대

○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 운영

- 18시군 175개 마을에 PC 5대, 복합기 1대, 인터넷 설치
- 2005~2006년도에 설치된 마을의 노후장비 보수 등 이용활성화 추진
- 마을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추진 등

○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소외계층(장애인, 고령층)집합교육기관 운영 관리
- 장애인방문교육 및 도우미 사업 등 정보소외계층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음성출력기, 터치모니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중고 PC를 정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 무료 보급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화 관련 범죄예방 및 대응 체계구축

<6-2-3> 스마트 서비스 강화

○ 공공시설 스마트화

- 효율적 도시공간 관리 및 산업입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스마트화
-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무인 감시/제어, 원격점검, 안전진단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적용
- 지역별, 부문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반시설 공간정보 시스템의 통합화

○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도입 추진⁸⁵⁾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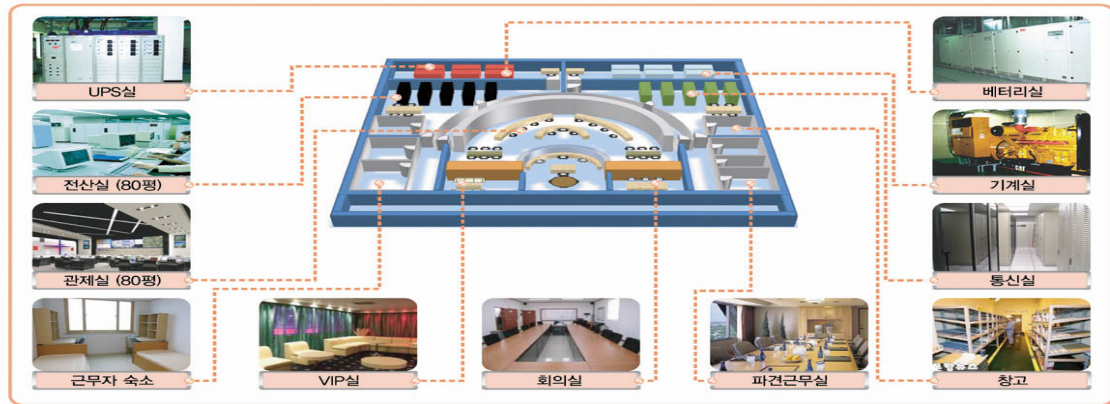
- 급속한 해양교통 환경변화와 해양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해양안전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IT기술을 활용한 해양교통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합

○ 단계적 u-city 통합관제센터 설치

-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공간환경 조성의 핵심시설인 도시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의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85)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국도 3,260km, 2020년까지 6,210km(국도 총 연장의 약 45%) 구간에 ITS를 구축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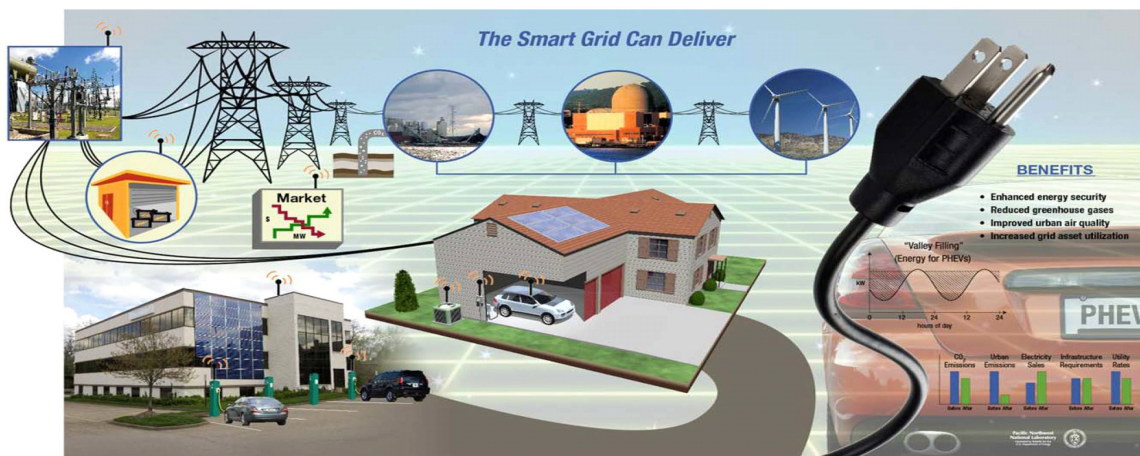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시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3

○ 스마트 그리드 체제의 단계적 도입⁸⁶⁾

- 정부 실증사업(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완료 후 스마트 그리드의 전국적 확대를 대비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 공공공간의 스마트 환경 조성

- 공원, 터미널,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u-서비스 및 무선 인터넷 환경을 우선 조성
- 통신인프라에 대한 BTL 등 민간투자방식 활용한 민간통신사업자의 투자 촉진

86) 현대화 된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구현된 차세대 전력시스템 및 이의 관리체제로 수요자측의 모든 전자기기, 전력저장장치 및 분산된 전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함

○ 본격 스마트시대에 부응한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 발굴

- 소셜 네트워크, 소셜 커머스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발굴
- 민간투자자의 IPv6, BcN, USN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유도 지원
- 인프라 확충수요를 활용한 u-서비스 관련 지역업체 및 산업 육성
- u-시티 서비스 콘텐츠 개발/공급업체에 대한 창업/경영지원
- 공공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확대

○ 농산어촌형 u-서비스 발굴

- 인구밀도가 낮고 농산어촌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산어촌형 공공서비스 정보화 모델 구축
- u-헬스케어, u-시큐리티, 농수산물 스마트 생산관리 및 이력정보화, u-커머스 등 농산어촌의 수요에 부합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발굴
-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에 맞는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핵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u-시티⁸⁷⁾ 환경 조성

- 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 특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서비스 기반구축
- 핵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 후 주변지역으로 확대
- u-시티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u-서비스 수익 모델 개발

〈6-2-4〉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 체계 구축

○ 통합복지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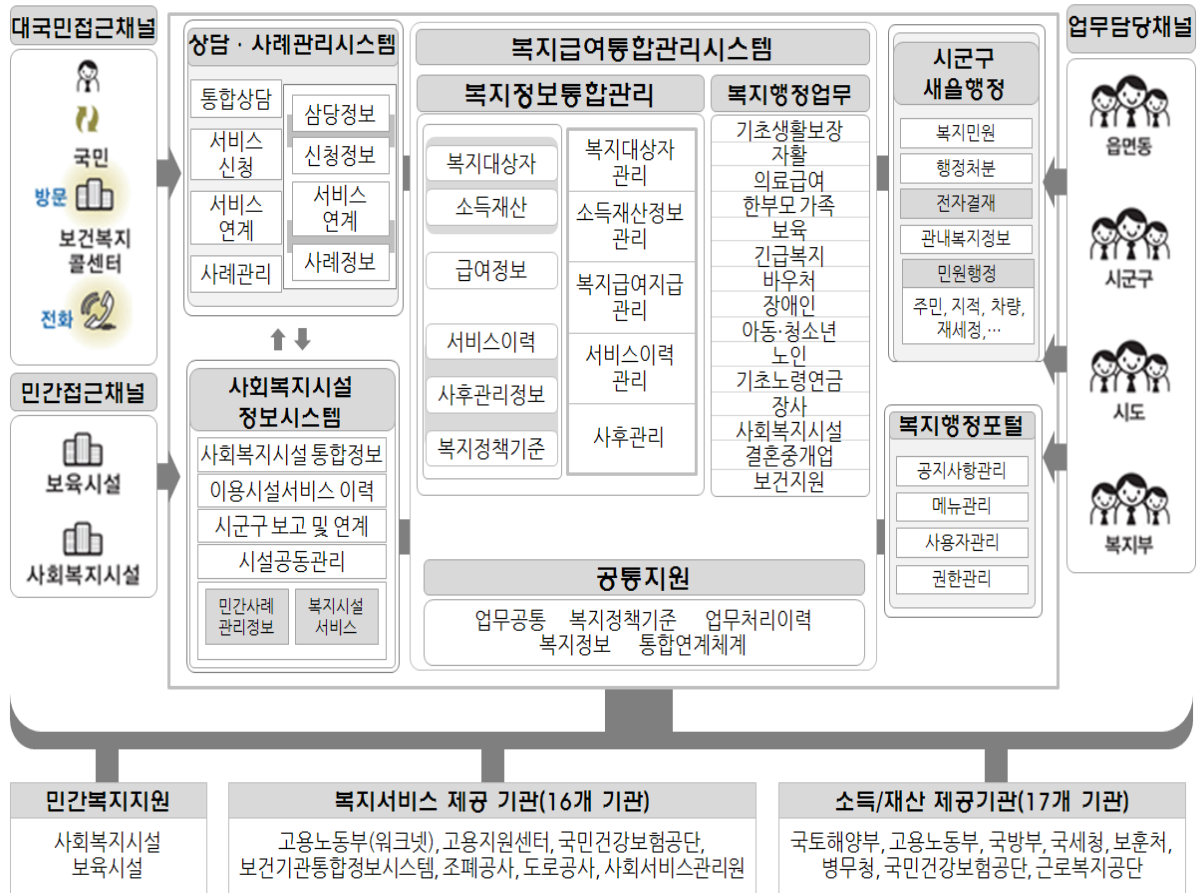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 확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시군 복지전달체계 확립
- 유비쿼터스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 u-헬스 서비스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연계서비스 개발

○ u-생활 서비스 체계 구축

- 초중고 e-러닝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 지역생활정보 DB 구축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

87) 'u-시티'는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자동화한 교통·방범·방재 시스템, 주거공간의 홈네트워크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21세기 미래형 도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조



<6-2-5> 정보기술과 지역특화 상품을 연계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

○ u-IT 기반의 마을, 주거단지,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계획추진

- LBS, RFID⁸⁸⁾, GPS, 홈네트워크 등 u-IT 기술을 활용
- 입주자에게 안전, 쾌적, 고품질의 원격 건강의료 서비스 제공

- 공공 u-헬스 서비스 :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운영, 보건진료소 거점
- 복지시설 u-헬스 서비스 : 도내 복지시설과 u-헬스 서비스 연계(병원 네트워크)
- u-건강증진 서비스 :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에 메디컬 피트니스 시스템 구현
- 관광객(외국인) u-헬스 서비스 : 주요 관광지의 웰니스센터와 병원 연계

88)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LBS : Location-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이력정보시스템 운영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 도 차원의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ERP-SCM 서비스 시스템
- 농축산물 생산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추진
- USN/RFID 기반의 농작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산지의 센서네트워크(USN)를 구축하여 실시간 현장정보의 수집 및 RFID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러한 정보제공

○ 강원도 전역에 스마트 빌리지 조성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빌리지 및 연계된 지역, 고령화율이 높은 곳(u-헬스수요가 높은 곳), 생산물 유통관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u-마켓 전통시장과 연계), 리조트(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 등을 시범지역으로 추진
- －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강원도 전역에 확산
- － 올림픽 빌리지는 완벽한 스마트 빌리지로 조성
- － 2012년~2020년까지 연차적 추진(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대표상품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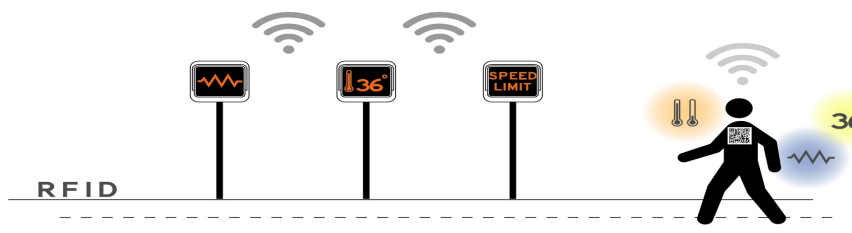
<6-2-6>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강원도 특성화 공간 조성

○ 공공공간의 스마트 환경 조성

- － 도시공원, 리조트 등 공공공간을 와이파이 존으로 설정, 무선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KTF 등과 추진

○ 특정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일종의 테마파크, 테마상품을 개발

- － 로하스 트레일(건강·생명 길 :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산책로)에 개인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장치) 설비를 구축



－ RFID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 ＊ 대상지구(예) : 동계올림픽 특구, 리조트, 공항이나 철도 역세권 등 집객지구, 저탄소녹색 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 홍보교육관 기능지구 등

< 미국 휴스턴 MSA(Main Street America)의 사례 >

- 2012년 오픈 예정의 가구 전시, 체험 테마파크
 - 축구장 2개 크기, 12채의 주택에 가구, 가전제품, 장식품 등 설비(가전제품 등은 해당 회사가 협찬)
 - 각 설비에 수천 개의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방문객들이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이용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

<6-2-7> 전통시장의 u-마켓 구현

○ 전통시장의 정보화

- － 재래시장 IT기반 마케팅/경영 지원 시스템 및 이용자 정보서비스 구축
- － 문화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고도화 사업을 통한 정보화 추진
- － u-마켓 정보포털, 전자/무선결제시스템, 맞춤형 상품정보서비스, u-방법/방재서비스, u-주차관리, u-택배, 미디어보드시스템 등 구축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정보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 － 우수상품 인증시스템과 생산/유통 이력정보시스템 연계
- － 농산물 생산유통 이력정보시스템과 u-Market 시스템의 연계
- － 생산자~전통시장 직거래 시스템 구축

○ 시장상인 정보화 교육 확대

- － u-마켓 시스템 운영주체로서의 시장상인 조직 강화
- － 중기청 시장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시장상인 역량강화
- － 시장상인 대상 u-마켓 시스템 매뉴얼 구축

○ ‘청정, 신선, 신뢰’의 강원도 농축수산물 유통거점 육성

- － 농축수산물의 별도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 수협과 상호 보완관계 구축
- － 농·수협은 전국 유통망 기반, 전통시장은 지역의 특별한 공급 루트로 특화

제3절 쾌적한 정주공간 형성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 주택 보급률은 2010년 현재 107.4%로서 전국 시도에서는 경북(108.7%) 다음으로 높은 수준(전국 시도 평균 101.9%)

주택보급률 실태

(단위 : 천가구, 천호, %)

구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주택수1	주택수2	보급률	일반가구	주택수1	주택수2	보급률
전국	15,887	13,223	15,623	98.3	17,339	14,677	17,672	101.9
강원	521	494	542	104.0	558	536	599	107.4

- 주) 주택수1 = 기존 개념의 주택수(빈집 포함)
 주택수2 = 기존의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거처(거주가능 가구수) 추가
 주택보급률 = 주택수2/일반가구수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2011.7.7)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빈 집은 52천호로써 전체 주택수의 9.7% 차지
 - 전국 시도 중 빈집의 절대숫자는 경기도가 154천호로 제일 많지만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빈집수 비율은 강원도가 제일 높아(2위 충남 8.4%) 강원도의 양적 주택 사정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양적 사정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은 저조한 상황

연도별(2006~2010) 주택건설 실적

(단위 : 호)

구분	'06	'07	'08	'09	'10
국가(전국)계획	520,000	530,000	501,268	430,479	401,000
국가(전국)실적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수도권 실적	172,058	302,551	197,580	255,158	250,218
강원권 실적	20,955	10,677	13,235	12,312	9,312

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 그렇지만 경춘 복선전철 개통,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SOC 확충에 따라 도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향후 전 도역으로 확산 및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강원도의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28%, 아파트 58.4%로 아파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0년에 비하여 아파트 비중은 1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음

종류별 주택현황

(단위 : 호, %)

구 분 (연도)		주택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전국 (2010)		14,677,419 (100.0)	4,089,491 (27.9)	8,576,013 (58.4)	536,070 (3.7)	1,314,452 (9.0)	161,393 (1.1)	303,097
강 원 도	2010	536,485 (100.0)	228,960 (42.7)	270,845 (50.5)	23,434 (4.4)	4,684 (0.9)	8,562 (1.6)	3,599
	2000	419,294 (100.0)	212,408 (50.7)	162,146 (38.7)	21,602 (5.2)	1,885 (0.4)	21,253 (5.1)	2,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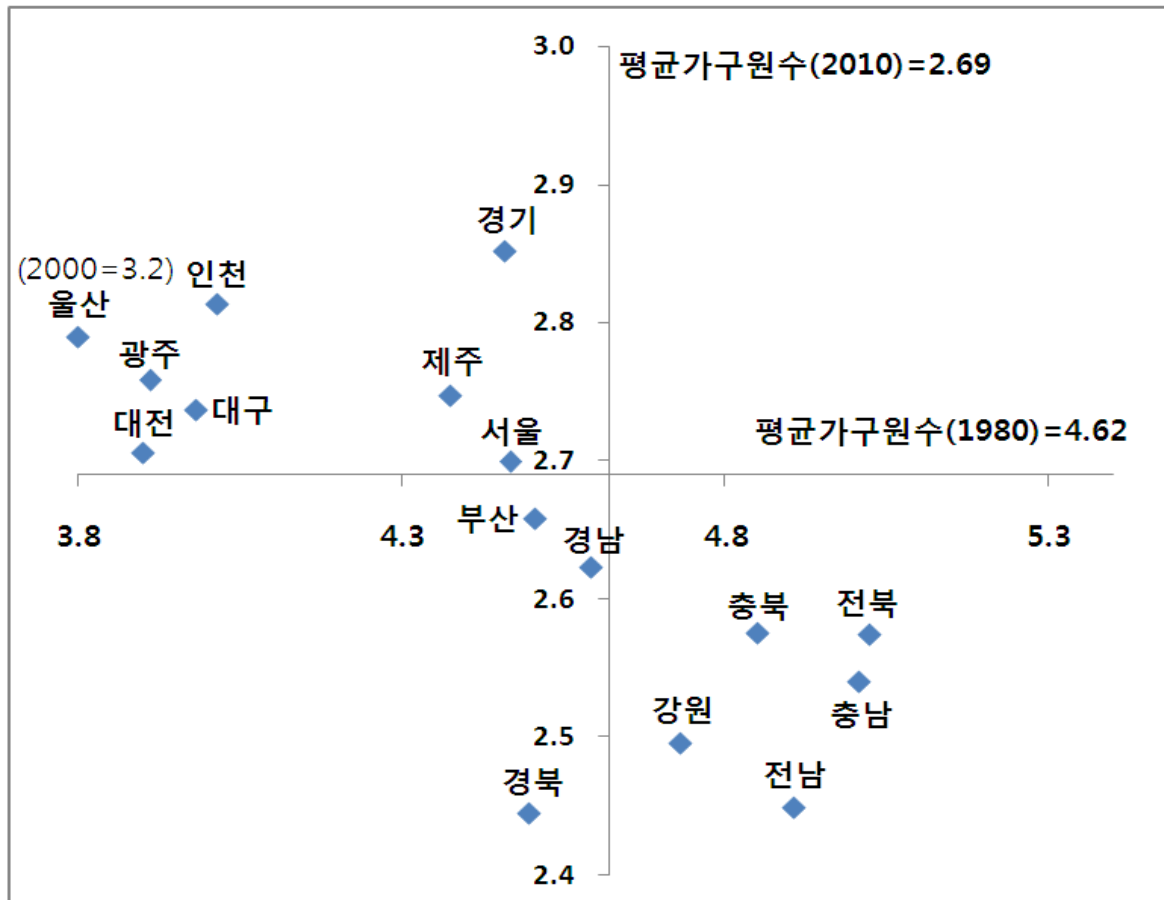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0 및 2000 인구주택총조사

- 주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구수를 보면 2010년 현재 561천가구로서 2005년 522천가구에서 39천가구가 늘어났음(증가율 7.3%)
 - 평균가구원수는 계속 하락추세로 2010년 현재 2.50명(전국 2.69명)이며 전국 시도에서 경북(2.44), 전남(2.45)에 이어 낮은 수준
 - 1인가구도 계속 증가하여 2010년 155천가구(일반가구 기준)
 - 1인가구는 59%가 단독주택, 25.5%는 아파트에 거주(전국평균)

가구원수 및 1인가구 비율 추세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 가구원수 (명)	전국(A)	4.62	4.16	3.77	3.40	3.12	2.88	2.69
	강원(B)	4.73	4.23	3.77	3.27	2.94	2.70	2.50
	B/A	1.02	1.01	1.00	0.96	0.94	0.93	0.92
1인 가구비율 (%)	전국	4.8	6.9	9.0	12.7	15.5	20.0	23.9
	강원	4.6	6.8	9.7	15.0	18.8	23.5	27.9

1980년과 2010년 평균가구원수 비교(전국 시도 분포)



주) 강원도가 속한 제4그룹은 1980년도 평균 가구원수 4.62명 이상이면서 2010년 현재 2.69명 이하인 시도 그룹. 평균 가구원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을 의미

- 강원도민의 자가 비율은 2008년 기준 전국 56.38%(서울 44.91%, 경기 53.69%) 보다 높은 61.1% 이나, 도 단위 평균 자가 보유비율 62.1%(최고 경북 68.5%) 보다 낮음

점유형태별 거주실태

(단위 :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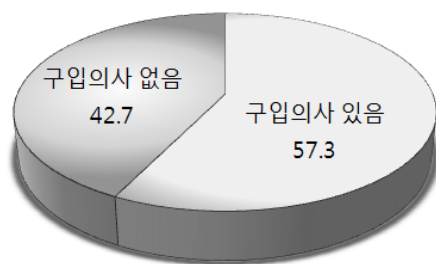
구분	일반가구 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전국	17,339,422 (100.0)	9,389,855 (54.1)	3,766,390 (21.7)	3,148,209 (18.2)	341,583 (2.0)	229,725 (1.3)	463,660 (2.7)
강원	557,751 (100.0)	329,255 (59.0)	75,208 (13.5)	92,381 (16.6)	18,057 (3.2)	10,182 (1.8)	32,668 (5.5)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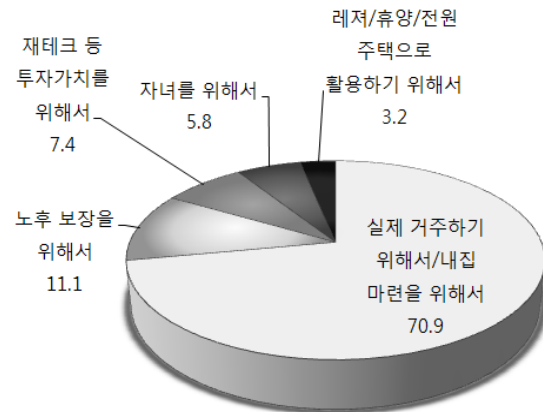
- 주택구입 의식조사에서는 내 집 마련과 노후보장 목적으로 주로 주택을 구입하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전원주택이나 경관주택 선호

향후 주택구입 의식조사(강원발전연구원 2010 조사)

〈 향후 주택 구매 의사 〉
(단위:%)



〈 향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



-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필요성 대두

- 주거가 복지향상의 기본바탕으로 인식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 * 비주거용 건물 및 주택 이외의 거처도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 필요
- 강원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만가구는 전국평균(약 15%)보다 높은 수준⁸⁹⁾
- 농촌지역 불량·노후주택 등은 향후 대두될 잠재적 재고를 고려 해소 필요

최저 주거기준 미만가구

(단위 : 천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전 국	3,344.0 (100)	2,556.8 (100)
수도권	1,126.9 (33.7)	790.3 (30.9)
지 방	2,217.1 (66.3)	1,766.4 (69.1)
강 원	150.6 (4.5)	109.6 (4.3)

자료 : 강원도, 주택종합계획(2008-2017), 2007년

89)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최저주거기준 미만가구는 '05년 현재 109천가구(전국대비 4.3%)로, 도내가구 중 22%로 추정

최소 주거면적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2	부부	1 DK	20
3	부부+자녀1	2 DK	29
4	부부+자녀2	3 DK	37
5	부부+자녀3	3 DK	41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주)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 추진과제

- 수요 중심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공급
- 강원도 특성의 주거문화 형성
- 미래수요 대응 및 주거복지 실현

2. 세부추진과제

〈6-3-1〉 수요 중심의 다양한 정주공간 서비스 공급

○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기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65,100호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전망⁹⁰⁾

- 강원도의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의 주택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주~강릉 철도구간에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 전망
- 평창동계올림픽 전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

- 1단계(2012-2014: 기반구축단계) : 주택종합계획 수립, SOC 사업 준비, 신규주택 사업승인
- 2단계(2015-2017: 본격 성장단계) : 주택종합계획 실행, SOC 사업 확충, 주택건설 본격추진
- 3단계(2018-2020: 안정화 단계) : 주택시장 안정화, 올림픽 파급효과 확산

90) 강원도 건설방재국,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파급효과를 대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전략」, 2011.8

○ 안정적 주택공급 추진

- 도내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추진 중인 사업장의 조기준공 : 총 98단지 45,539호
(공공 30단지 18,604호, 민영 68단지 26,935호)
- 2018 이전 총 7만호 공급계획 추진 : 공동주택 3만호, 일반주택 4만호
- 소형 민간주택 공급 확대
- 계획 중인 사업은 시군 수요분석에 따라 정책적으로 공급 : 32단지 22,504호(공공 8단지 5,462호, 민영 24단지 17,042호)
- 민간주택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택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

-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만족도 제고 및 정주인구 유입 촉진
- 춘천시, 원주시 등 수도권 연접지역, 강릉 등 올림픽 개최도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거점지역에 대한 수요분석 및 공급

○ 도시 정주환경 개선

- 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 주한 미군 공여구역 및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
-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기초생활환경 개선 추진
-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소도읍 육성
- 지역특화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인프라 확충사업 등
- 농어촌의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주택 리모델링 지원체계 구축

- 노후주택의 급격한 증가예상(2017년까지 약 24만호의 노후주택 발생전망)
-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차원에서 주택 개보수 및 리모델링사업 지원체계 구축
-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절차, 면적확대, 부대시설간 용도변경, 자금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
- 현재의 주거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과 기술개발
- 주택관련 종합적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체계 구축

○ 중심도시-배후지역간 교통접근망 개선

-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동해권, 속초권 및 남부 고원해양권의 광역도시권 중심 교통 체계 확충
- 광역도시권 내 시군간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점진적인 확대

○ 시군단위의 통합적, 광역적 도시재생계획 수립

- 전통시장 이전 적합지역 개발, 대학, 역세권 등 거점시설과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
- 정비·재생수요를 감안한 블록단위 재생사업 실행
- 재래시장 및 대학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6-3-2〉 강원도 특성의 주거문화형성

○ 도시은퇴자 및 올림픽지구 이주민을 위한 휴양주거타운 조성

- 24개 지구 303가구 대상의 계획추진

○ 입지별 특성화된 주택경관 및 휴양·복지·주거형 전원마을 조성

- 농어촌, 산촌 등 지역의 랜드마크적 친환경 주택경관 형성
- 경관건축 인증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강원도형 경관주택 건축을 지속추진(경관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체화)
-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융자 등 지원
- 공개개량을 통한 숙박, 커뮤니티 서비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설 활용

○ 랜드마크형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농어촌타운 조성

- 경관주택 확대 보급 : 경관건축 인증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강원도형 경관주택 건축을 지속추진
- 환경친화 농촌주거 유형 모델사업 및 다양화 추진
-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 :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확대, 기존주택의 저탄소 리모델링 지원제도 확립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 압축도시형 밀도 관리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도심상업가로, 터미널 및 역세권, 주요 거점시설 중심으로 고밀 개발 유도
- 2중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외곽 개발의 집단화
- 도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확보 추진
- 하천, 공원, 완충녹지, 오픈스페이스들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도시내 텃밭 조성, 주요 녹지, 중심상업지역과 연계한 보행전용 가로 조성
-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전거길 확대 및 이용편의시설 확충

○ 그린홈(Green Home)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친환경 인증건축물 확산과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건설 확대
- 보금자리주택 설계반영 : 15개 단지 7,731가구

에너지 관리공단 그린홈 100만호 보급계획⁹¹⁾

(단위 : 천호)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태양광주택	21	13	15	16	19	21	25	29	33	39	46	56	69	400
태양열주택	1	2	3	3	4	6	9	14	21	30	41	52	64	250
지열주택	0	0.2	0.5	1	2	3	4	6	8	12	16	21	27	100
연료전지	0	0.5	1	3	5	7	9	10	11	12	13	14	15	100
소형풍력	0	0.1	0.2	0.4	0.7	1	1	2	3	4	5	6	7	30
기타	0	0.2	0.5	1	2	4	6	10	13	18	23	29	38	145
총계	22	16	19	24	32	42	54	71	89	115	144	177	220	1,025

〈6-3-3〉 미래수요 대응 및 주거복지 취약계층 해소

○ 미래수요 대응형 주택 공급

- 생활행태의 다양화에 따라 주택유형에 대한 수요 다양화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택유형의 주택보급 활성화
- 한옥형 아파트/다세대주택 개발 보급, u-Home 시스템 적용 확대
- 고급인력 수요에 부응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

-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기숙사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 주거취약계층의 해소

- 도시빈곤층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
- 공공, 국민임대주택 재고의 지속적 확보(10%이상)
-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공공임대주택의 직접공급 외에 다가구 매입임대·주거급여지원·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유도

91)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 확대를 통한 산업기반 조기구축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일반가정의 에너지 공급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Green Home 100만호" 조성

제4절 전통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향상

1. 실태와 추진과제

- 지역문화의 인적·물적 토대가 취약하여 지역 내에서 문화를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는 자생적인 순환구조 형성에 한계
- 지역문화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 지역특성에 기반한 창조적 문화도시 지향, 지역문화의 경제가치화, 문화의 일상성 강조, 문화분권화의 확대
 - 지역축제도 주민참여를 통한 문화화가 성공의 핵심요소로 작용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나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의향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간 개발에 집중할 필요⁹²⁾

강원도민의 문화향수실태(2008 문화향수 실태조사)

구분	예술행사관람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관련 동호회	창작·발표활동
참여/경험률(%)	50.0(67.3)	10.3(8.6)	34.1(29.9)	3.2(2.9)	6.3(2.4)
의향률(%)	64.3(74.5)	46.2(21.5)	63.5(52.4)	27.0(15.7)	13.5(6.5)

※ ()안은 전국 실태

- 2010년도 말 기준 강원도의 문화기반 시설은 공공도서관 47개, 등록 박물관·미술관 74개, 문예회관 17개, 지방문화원 18개 등 총 156개로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1,979개의 약 7.9%
 - 지역적으로는 춘천 20개소, 강릉·영월 각 19개소, 양양군 4개소, 횡성 3개소로 상대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존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전국	1,979	759	800	192	228
강원	156	47	74	17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92) 예술행사 관람률은 낮으나 관람의향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창작·발표활동 경험률이나 참여 의향이 전국 최고 수준에 있어 잠재적인 문화예술 수요가 매우 큼

강원도 문화기반시설 분포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강원도	47	66	8	17	18
춘천	9	8	1	1	1
원주	3	6		1	1
동해	3	1		1	1
강릉	4	10	2	2	1
속초	2	2	1	1	1
태백	2	2		1	1
삼척	3	4		1	1
홍천	1	2		1	1
횡성	1	1			1
영월	2	14	1	1	1
평창	3	1		1	1
정선	2	1		1	1
철원	4			1	1
화천	1	3		1	1
양구	1	3	1	1	1
인제	2	2		1	1
고성	3	5	1	1	1
양양	1	1	1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강원도 문화재는 총 544개로 국가지정 문화재 140개(국보 8, 보물 58, 사적·명승 24, 천연기념물 36, 중요민속자료 11, 중요무형문화재 3) 지방지정 문화재 247개, 문화재 자료 124개, 등록문화재 33개를 보유⁹³⁾
- 문화시설 건립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예산, 운영프로그램, 운영전문 인력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
- 강원도는 7개 문화콘텐츠산업 총 매출액의 0.5%, 종사자수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를 제외한 6개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체수의 2.8%를 점유하여 문화산업이 자생적으로 형성될만한 관련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
- 추진과제
 -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과 생활 속 문화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유산 보전과 창조, 문화콘텐츠의 문화산업적 이용

93) 출처 : 2010 강원 통계연보

2. 세부추진과제

〈6-4-1〉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

- 지역문화정책 기초자료 축적과 DB화
 - － 예총, 민예총, 공립예술단체 등을 포함한 지역문화 인력, 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정책 생산·집행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실태와 문화 욕구에 대한 조사 실시 등 정례화
- 강원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 강원문화재단의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강화
 - － 강원문화재단과 독자적 사업모델 개발 및 시·군 문화재단과의 협력네트워킹 구축
- 전문예술시설 및 창작공간 확충
 - －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예술시설 및 창작공간을 확충하여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폐교 등 활용
- 문화명품 발굴 브랜드화
 - － 우수 창작 문화 콘텐츠에 대한 브랜드 구축 지원제도 마련
 - * 예 : 대관령국제음악제, 춘천 마임제, 원주 한지문화제, 강릉 단오제 등 국제 명품화

- 국외에서 저명연주가 초청음악회, 음악학교, 지원행사 등 개최
 - 장르 다양화를 통한 연중 상시운영체계 구축
 - EBU·NPR 중계확대, 해외콘서트 개최 등 국제적 명품브랜드화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 지원 확대
 - －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확대조성
 - －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 － 예술가 및 예술단체 중심의 문화예술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국제행사교류 확대 및 전문예술축제를 개최

〈6-4-2〉 생활 속 문화인프라 확충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전략 추진

- 지역의 수요와 여건, 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등)의 균형적인 확충
- 생활공간에서의 소규모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 건립
 - * 문화시설의 집적화로 지역민의 생활권내 문화활동 참여 증대로 활용도 제고
- 문화 생산자와 향유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문화시설 운영체계 구축

○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강원도 차원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재설계

- 선택과 집중 :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 사후지원 : 실연작품 심사후 지원을 결정하는 성과주의적 배분방식(또는 분할지원)
- 간접지원 : 다수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장, 연습장 등에 대한 지원
- 생활 속의 예술 :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결합하여 문화체험·예술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

○ 지역민의 생활권에 보다 근접한 일상에서 체험 가능한 문화복지 실현

- 지역민의 문화수요가 반영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의 참여 유도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소규모 문화활동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장려,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유희 공공시설의 생활문화공간화 사업 추진

- 문화 환경자원으로서의 유희공간 발굴 및 DB 구축
- 기존 문화환경 및 문화정책과 연계 문화콘텐츠 관광 자원화 전략 추진
 - * 각 지역의 역사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적인 경관 및 건축물 자원, 지역축제, 유명인물 등

유희공간의 콘텐츠 개념

구 분	유희공간의 콘텐츠 개념 확대	내 용
문화자원 구축	활용 가능한 자원 구축	유희공간 자원개발
문화 전달의 플랫폼	전달 매체로서의 유희공간 확보	공공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문화 터미널	인적, 물적 자원이 모일수 있는 복합기능 구축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환경을 집중적으로 배치
문화 클러스터	유사 문화환경 조성	시군연계 클러스터 조성

〈6-4-3〉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공공 문화예술교육 강화
 - 지역문화 예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체계 구축
 - 예술인 창작캠프 및 문화아카데미 운영 :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용
 - 지속적인 문화예술 학습과 체험기회를 확대 문화수용력과 문화창조력 함양
 - 공공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의 협력 체계 구축
 - 공교육 현장에서의 예술교육 지원 강화
 - 일반 지역민의 창조력 신장을 위한 예술교육 강화
- 지역문화예술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 예술영재육성,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문화전문기획자, 지역축제전문가 양성, 문화 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개방직위 공모 및 전문인력 채용
 -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지원, 문화기반시설과 단체,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6-4-4〉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창조

-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전승체계 확립
 - 유·무형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보존과 전승체계 개발·지원 확대
 -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방안 제고를 통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조
 - 역사문화도시 및 역사문화권 단위의 종합적인 문화유산 정비·활용 추진
 -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강릉단오제의 보전·전승기반 강화 등을 추진
 - 강원도의 얼 선양, 강원학체계 정립 등 문화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반조성
 -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지식기반 강화
 - 문화정체성과 연관된 인프라 조성
- 춘천권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 : 유인석, 남궁억, 윤희순, 김유정, 충의역사거리, 마을조성 등
 - 원주권 복원문화권 조성 : 강원감영 복원, 법천사지 발굴정비, 전통사찰(구룡사, 국형사, 보문사, 상원사) 정비 등
 -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 : 허난설헌 공원, 김동명 생가, 송담서원, 청학사·용연사 정비 등

〈6-4-5〉 문화 콘텐츠의 문화산업적 활용

- 지역 문화자원과 예술적 특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체계적인 특화·개발 노력
 - 문화산업의 지역적 특화와 공간적 기능분업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역량 강화
 - 독창적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자원의 문화산업화 촉진
 - 문화산업과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활용
 - 고유 문화유산의 산업적 활용과 콘텐츠 개발로 지역문화의 구체적 표현 상품산업화
 - 지역문화콘텐츠 아카이브 및 문화지도 구축
 - 지역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콘텐츠 활용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 지역 단위의 다양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 ‘강원아트랜드’ 조성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 강화
 - 춘천시 캠프페이지 부지와 중도 및 서면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에 예술인 창작과 문화 콘텐츠가 복합된 클러스터 조성
 - 드라마타운, 시네마빌리지, 도립미술관, 강원문화재단 등을 연계 개발하여 세계적 영상 인프라로 구축
 -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춘천권의 문화예술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강원도 문화활동의 구심체로 작동 기대

* 사업기간 : 2012년~2018년(추정사업비 1,000억원 규모)

-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강화
 -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전통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

제5절 스마트·문화삶터를 형성하는 토지이용 관리

1. 실태와 추진과제

- 강원도의 면적은 전국 국토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고시현황을 보면 개발용지보다 보전용지 비중이 월등히 높은 토지상황
- 도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강원도 면적의 5.8%로써, 전국 도시지역 비중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전국 도시지역에서 5.9% 차지)
 -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 면적도 17.2%(전국 25.2%)에 불과

2009년 현재 강원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구분	고시면적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	계획	생산	보전		
전국	100,167.641	16,443.690	25,268.917	10,738.185	4,025.440	10,505.292	51,019.118	7,435.916
	100.00	16.42	25.23	10.72	4.02	10.49	50.93	7.42
강원도	16,882.667	974.882	2,903.731	1,572.894	445.117	885.719	11,124.463	1,879.592
	100.00	5.77	17.20	9.32	2.64	5.25	65.89	11.13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용 편집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1999~2009)

(단위 : m²)

구분		1999년도	2009 년도	증감 (1999~2009)	증감율	
전체		16,874,272,239	16,873,931,636	-340,603	-0.002%	
농 경 지	소계	1,790,783,554	1,721,398,487	-69,385,067	-4.031%	
	전	1,075,388,019	1,043,761,977	-31,626,042	-3.030%	
	답	633,433,849	598,686,449	-34,747,400	-5.804%	
	과수원	9,019,159	9,699,737	680,578	7.016%	
	목장용지	72,942,527	69,250,324	- 3,692,203	-5.332%	
임야		13,675,097,275	13,650,235,337	-24,861,938	-0.182%	
도 시 용 지	소계	345,421,216	438,733,829	93,312,613	21.269%	
	대지	125,619,717	153,825,847	28,206,130	18.336%	
	공장용지	14,309,336	19,945,862	5,636,526	28.259%	
	공공용지	학교용지	16,283,445	18,001,925	1,718,480	9.546%
		도로	173,458,287	231,558,500	58,100,213	25.091%
		철도용지	15,750,431	15,401,695	348,736	-2.264%
하천		374,678,430	377,897,745	3,219,315	0.852%	
기타 ⁹⁴⁾ (미복구 토지)		688,291,764 (311,806,916)	685,666,239 (260,648,063)	3,047,982 (-51,158,853)	-0.383% (-16.40%)	

- 지난 10년 동안의 강원도 지목별 토지이용 추세를 보면 농경지, 임야 등 면적이 소폭 줄고 도시용지가 21%의 큰 폭으로 상승
 - 특히 공장용지, 도로용지가 크게 늘어나서 강원도의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최근 수도권과 교통망이 크게 개선된 춘천-원주축의 토지수요가 급증
- 향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와 철도 등 SOC 확충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도시적 용지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평창 등 올림픽 개최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전면 개편 필요
 -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도시의 도시적 용도의 토지자원 비축·확보가 중요한 과제
- 강원도의 토지이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 대표적 토지이용 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관련 규제 등이 중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⁹⁵⁾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을 지정 규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현황

(단위 : km²)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비 고
3,112.27	1,165.11	1,527.93	419.23	• 강원도 행정구역의 18.4% •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5% 차지(경기 34%, 인천 3.6%, 기타 27.4%)

자료 : 강원도 건설방재국(2011.1.1 현재)

- 추진과제
 -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및 도로명 주소전환 정착
 -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및 주민중심 토지행정 구현
 - 녹색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 토지이용계획·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
 - 개발가능 토지자원의 확보

94) 광천지,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미복구 토지

9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893호) 제5조 관련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지정 강원도 관련 187개

2. 세부추진과제

〈6-5-1〉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및 도로명 주소 전환 정착

○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운영

- 투자유치지원·3차원공간정보·정책결정지원·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체계 구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해상도 항공사진영상(25cm) 적용

○ 도로명 주소전환 및 조기정착

- 시군의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완료,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 공공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추진(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가족관계 등록)
- 광역도로구간 안내시설물 보강 및 추가설치

〈6-5-2〉 정확한 지적정보 및 주민중심 토지행정 구현

○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KLIS) 운영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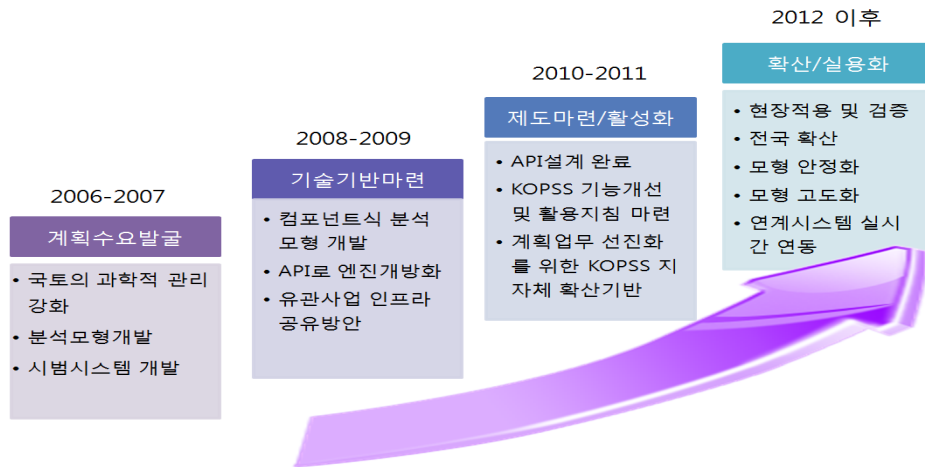
- 도면자료 중복생산·관리 방지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간자료 및 속성자료를 DB화하여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전환 대비 고도화 및 안정화사업 지속 추진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OPSS)⁹⁶⁾ 활용

- GIS의 발전에 따라 공간정보와 인문·사회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
-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정비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의 공간계획 업무를 GIS와 공간통계 등 분석 지원

96)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KOPSS)는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정비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의 공간계획업무를 GIS와 공간통계 등 분석방법으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도구

정부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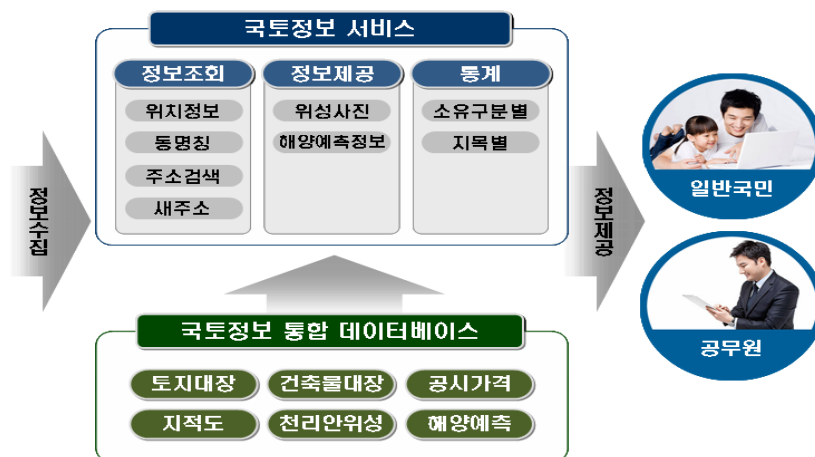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6.23)

○ 투자유치 등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

- 투자유치지원 토지정보시스템에 투자유치지원 각종 공간정보 제공
-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협의체 운영

○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부동산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 개념도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6.21)

○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 학교, 아파트 등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의 법정 동·리 경계, 시군간 경계 조정

○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정리 및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 산지관리법 개정시행(2010.12.1)에 따른 정리 추진
- 공용·공공용 시설, 국방·군사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 인·허가 등에 저촉되는 토지 정리방안 강구
- 공공용 국·공유 토지 지가산정 확대 추진(전체 토지의 95% 이상)
- 대규모 개발예정지 지가 산정 및 지적측량 분쟁의 공정한 조사

<6-5-3> 녹색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 거점도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 조성 추진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2009)에 따른 시군별 탄소배출 조사 및 감축목표 설정
- 녹지의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녹지계획체계 수립

- 산지형 도시개발을 통해 면적의 82%가 산지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강원도형 도시계획으로 유도
- 용도별 혼합과 도시골격형성을 위한 완충녹지 구축,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를 따라 소공원,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의 재배치, 상징과 축제의 장으로서 테마가로와 공원을 거점으로 형성
- 상대적으로 부족한 평야지대는 장래 개발을 위해 유보지로 확보 및 기타 녹색도시 계획 요소의 도입
- 자전거 도로, 대중교통 지향 교통체계 등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 자연형호수, 저류지, 자연형하천, 실개천, 인공유로와 소류지 등을 연계한 수환경네트워크 조성
- 맑은 공기의 공급과 습도조절, 대기오염조절을 위해 자연형하천 등을 따라 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 네트워크 형성
- 중수도 시스템 보급
-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복합적 토지이용 확대 및 도시밀도 관리 체계 구축

-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컴팩트한 도시개발을 유도 하여 도시에너지 및 토지 소비량을 저감
- 토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구역내의 토지를 성장유도지역, 성장억제 지역, 성장유보지역 등으로 세분
- 기존 시가지의 공장, 교육시설, 공공청사,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이전 적지 활용계획 수립

-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기준 마련 및 적용
 -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개발밀도 등 해안침식 대응
 - 주요 해안침식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설정 및 해안침식방지사업 추진
- 탄소배출권 효율적 활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 관리체계 구축
 - 탄소흡수원, CDM 사업 지도, 통계DB 작성을 통한 도시개발 관리
 - 개발사업에 따른 탄소배출 총량관리 DB 구축
 - CDM사업 연계 도시개발 촉진(건설, 수송, 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분야)

〈6-5-4〉 토지이용계획·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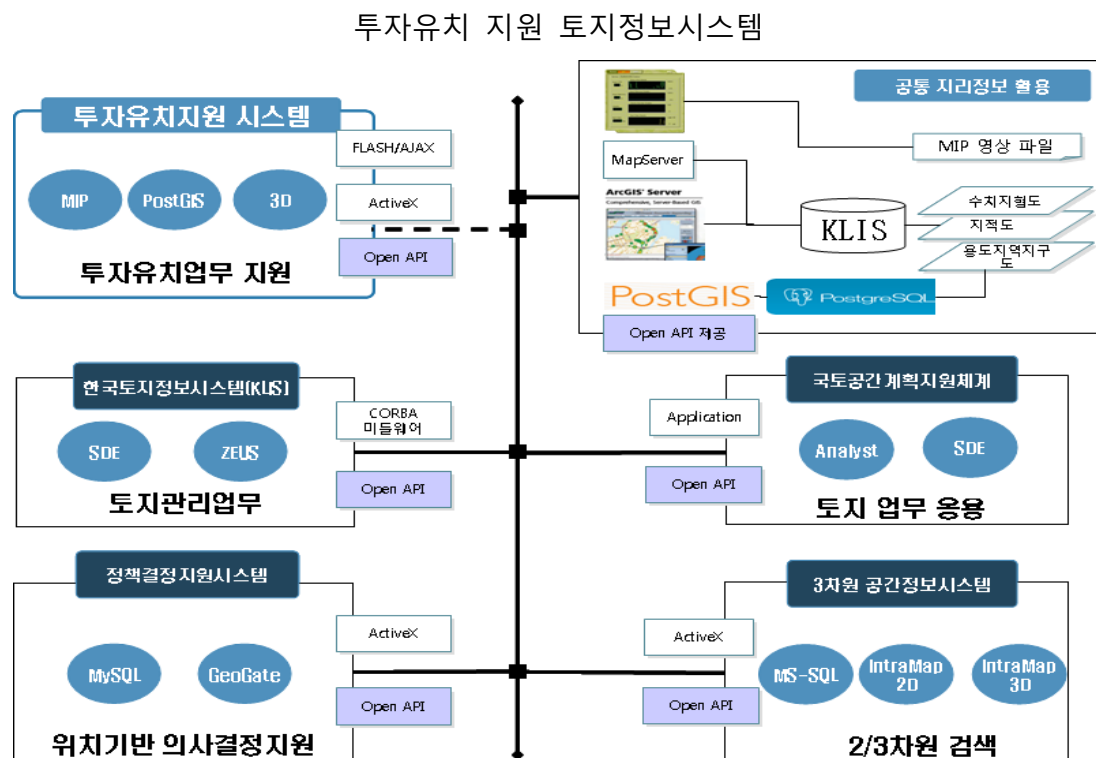
- 도 전역에 대한 중복, 불합리 규제 지역 검증
 - LMIS(공간자료관리 프로그램)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규제 타당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조정
 - 관리계획 수립시 중복, 불합리 규제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규제 조정
 - 농림지역 중 활용도가 낮은 관리지역 인접지역의 관리지역 전환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해제 지속 추진
 - 해제 및 완화지역 일제조사('10.9월~12년) 실시후 대대적 조정
 - 시가화지역(도시지역)내 보호구역 해제 : 42km²
 -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 완화 : 강릉, 속초(양양)비행장

〈6-5-5〉 개발 가용 토지자원의 확보

-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
 - 단계적인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규제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규제 조정 추진
 -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관리지역 세분화 :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토지면적의 최소기준 적용을 통해 실질적 개발가용지 확대
 - 농림지역 중 활용도가 낮은 관리지역 인접지역의 관리지역 전환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조정

○ 토지자원 활용 중심의 공유지 관리체계 구축

- 도유지/시군유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토지기획단을 통한 공유지활용 민간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
- 개발 가능 공유지 조사 및 DB 구축
- 공유재산 위탁개발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토지비축제도 조례화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 집산화 유도

- 비도시지역의 대규모 개발가능지 중 개발을 유도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가용 토지자원 확보

○ 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강원도 거점도시의 가용토지자원 비축 및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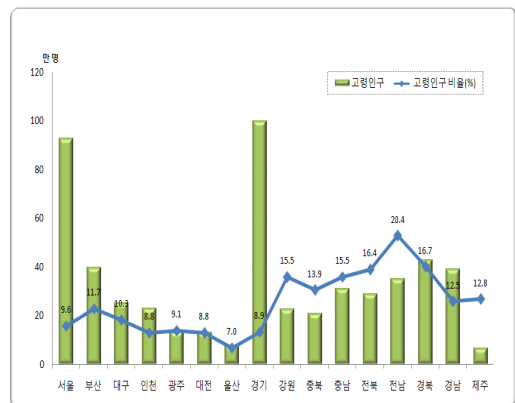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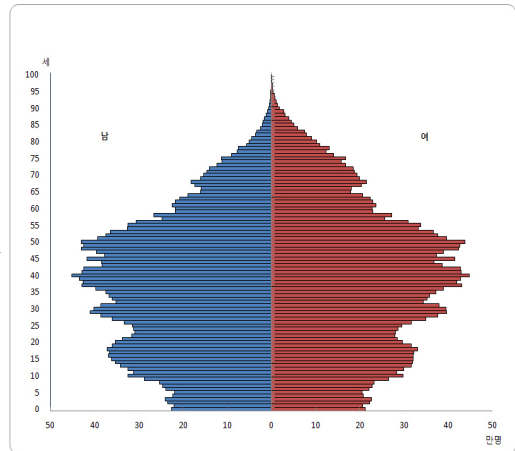
- 전면적으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

제7장 저출산·고령화 대응사회 형성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2010년 통계청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542만명으로 총인구의 11.3%를 차지,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전체 고령인구의 40%인 22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인접한 강원도에 영향변수로 존재
- 인구구조는 30대, 4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은 38.1세로 2005년보다 3.1세 증가
 -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명당 고령자 7명 수준인 69.7로 2005년(48.6)보다 21.1 증가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437만명(9.3%)보다 106만명(24.3%) 증가
-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 진입
 - 전남 20.4%, 경북 16.7%, 전북 16.4% 순이며, 울산이 7.0%로 가장 낮음
 - 강원도는 15.5%로 충남과 함께 고령화율 4번째 순위



- 고령인구의 증가는 주력 생산층 인구를 감소시켜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담을 증가시킴
 - 현재 인구추세치가 지속된다면 통계청의 전망에 따른 강원도의 주력 생산층 인구(25세~54세 연령층)는 126천명의 대폭감소 예상(추계인구 기준)
 - * 2010년 : 652천명, 2015년 : 584천명, 2020년 : 526천명
 - * 전체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인구)는 2010년 996천명에서 2015년 979천명, 2020년 922천명으로 74천명 감소
 - * 65세 이상 고령자는 221천명에서 273천명으로 52천명 증가
 - 연 단위 취업인구도 2008년 707천명에서 2010년 694천명으로 감소
- 고령화로 인한 활력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성의 출산과 사회활동 양립기반 구축, 고령 친화적 산업구조의 형성 및 복지건강 서비스기반 확충이 필요
 -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220만명의 고령자를 수요자로 끌어들이는 방안 강구에 있어서 복지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요소

2. 목표와 계획지표

- 여성의 출산과 사회경제활동 양립화 기반 조성
 -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활성화
- 고령자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육성과 고령자 경제활동 촉진 산업체계 형성
- 건강복지기반 조성
 - 건강 100세를 지향하는 복지·건강 및 직업능력 제고 평생학습체계 형성
-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합계출산율	1.313	1.400	1.6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48%	52%	58%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37%	40%	50%
50대 이상 생활체육참가율	-	30%	40%
성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참가율	-	30%	40%

3. 계획과제

○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형성

-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반듯한 일자리 확보⁹⁷⁾
- 장수사회 도래에 따라 생애단계별 일자리 수요 및 공급 창출
- 강원도 청년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개발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기반 확충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활력과 삶의 질 제고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지속 추진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
- 다문화가정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독거 노인 등을 위한 노인 복지 확대
- 저소득층 자립 제고
-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통합사회 기반 조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실현
-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

○ 건강보건의환경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등 생활밀착형 국민 건강관리
- 공공의료 강화와 지방의료원 육성
- 건강한 여가 활용 생활체육 활성화

○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 평생교육 기반구축
- 미래글로벌 지역 인재 육성 및 성숙한 시민양성
- 직업능력 제고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사회통합 추진

97) 지금까지 일자리 개념은 통계청의 취업자 조사목적에 맞춘 개념으로 통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통계청 조사는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느냐'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개인복지와 지역경제의 안정성·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일자리 본연의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제2절 지속가능한 일자리생태계 형성

1. 실태와 추진과제

○ 정부가 발표한 2011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제활동인구는 729천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60.8%, 고용률 59.6%, 실업률 1.9%

- 전국과 비교할 때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강원도의 취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농림어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에 치우친 특성에서 오는 이유로 유추

2011년 7월 전국 및 강원도 고용동향 비교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 인구(A)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A-B)	경제활동 참가율 (B/A)	고용률 (C/A)	실업률 (D/B)
		계(B)	취업자(C)	실업자(D)				
전국	41,087	25,473	24,636	837	15,614	62.0	60.0	3.3
강원	1,200	729	715	14	471	60.8	59.6	1.9

취업구조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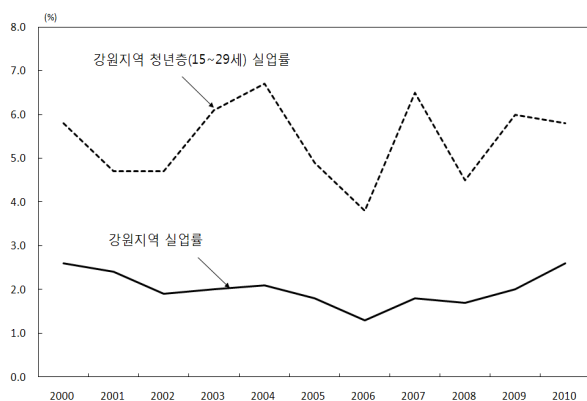
구 분	강원도		전 국	
	2008	2010	2008	2010
농림어업	20.9	17.9	9.1	8.6
제 조 업	6.7	6.3	17.1	17.0
광 업	1.1	1.0	0.1	0.1
건 설 업	7.9	7.8	7.6	7.2
도소매업	12.5	12.4	15.2	14.5
음식숙박업	11.3	11.0	8.2	7.7
공공행정국방	5.7	7.1	3.5	3.8
교육서비스	7.9	7.6	7.5	7.4
보건사회서비스	4.4	5.9	3.9	5.3
기타 서비스업	21.6	23.0	27.8	37.0
계	100.0 (707천명)	100.0 (694천명)	100.0 (23,847천명)	100.0 (24,054천명)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14.6	14.6	12.2	12.2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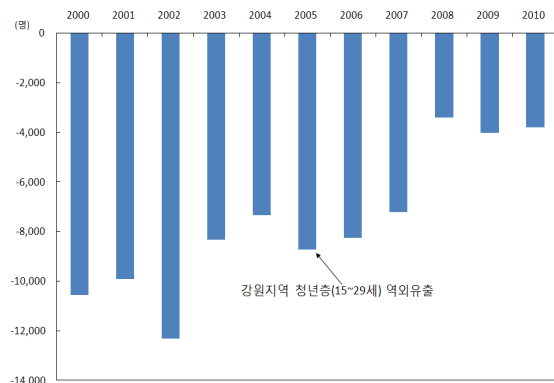
○ 강원도 청년의 역외유출 심화

- 강원도의 청년실업률(2010년 5.8%)은 전국수준(8.0%)을 크게 하회하는데, 이는 지역 청년층의 지속적 역외유출로 인한 결과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조를 보더라도 전국에 비하여 중졸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대졸의 비중이 낮은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의 반증인 동시에 고학력 청년층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작용

강원지역 청년실업률



강원지역 청년층 역외유출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구조

(단위 : %)

구 분	강 원			전 국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중학교 졸업 이하	25.7	39.1	31.5	16.8	26.8	21.0
고등학교 졸업	40.8	33.6	37.6	40.7	38.3	39.7
대학교 졸업 이상	33.7	27.4	30.9	42.5	34.9	39.3

주) 2010.9월말 기준(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강원본부

- 산업활동이 취약하고 타 지역보다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맞고 있는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문제는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과제

○ 추진과제

- 일자리 추진목표의 설정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활동 촉진 및 일자리 수급불균형 해소

2. 세부추진과제

〈7-2-1〉 일자리 추진목표의 설정

○ 목표연도(2020년)까지 100만개(스톡) 사회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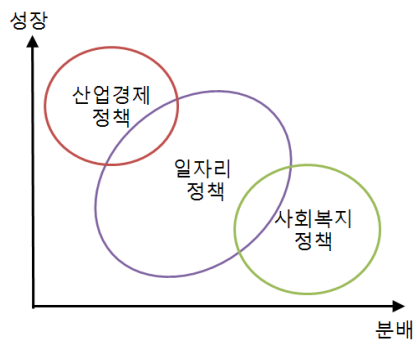
- 2020년까지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스톡 창출
 - * 현재의 일자리 스톡 : 70만개(취업자수를 감안하여 가정)
- 이를 위하여 매년 4만개 수준(감실분 감안)의 신규일자리 창출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

- 현재 58%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8%로 제고
- 현재 56% 수준의 고용률을 67%로 제고

비전/ 목표	‘일자리 2배, 활력 2배’ 행복강원 만들기 (일자리 30만개 창출, 경제활동참가율 68%, 고용률 67%)			
	↑	↑	↑	↑
전략 분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청년 일자리 창출	올림픽 일자리 창출	일자리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❶ 섬성옥수 여성일자리 창출 ❷ 팔팔활활 고령자 일자리 창출 ❸ 도농협동 ‘4도3촌’ 농어촌일자리창출 ❹ 일토불이 주민중심 풀뿌리기업 육성 ❺ 사회서비스 및 지렛 대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생태계조성 과 지역창업 활성화	❶ 성장동력 산업 육성 ❷ 청년창업 활성화 ❸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확대 ❹ 우수인재 정착 기반 조성	❶ 문화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❷ 지역개발 소요 일자리 창출 ❸ 자원봉사와 연계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	❶ 사회적 서비스시장 및 인프라 확충 ❷ 일자리 지역 거버 넌스 구축과 지역 노동시장 형성 ❸ 통합행정지원체계 구축 ❹ 직업훈련체계강화

○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반듯한 일자리’ 추진



-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 분배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중간적 위치에 ‘일자리 정책’이 존재
- 내수기반을 형성하여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성

〈 강원도 경제정책의 두 트랙(two-track)전략 추진 〉

- ① 지식기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GRDP 성장추진
- ② 도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튼튼한 내수 및 복지기반 형성

○ 시장균형 측면의 일자리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 한국은행강원본부의 자료(『강원지역 인적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2011.4월)에 따르면 강원지역 기업은 인력부족 상태

강원지역 기업의 인력사정 BSI⁹⁸⁾

구 분	2009.12	2010.3	2010.6	2010.12	2011.3
제 조 업	113	82	84	96	87
비제조업	106	85	80	89	85

- 기업의 인력구조상 기술직 비중이 큰 반면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많으며,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의 41%가 고졸인데 반하여 고졸자들은 대부분 취업보다 진학을 택하는 현실

강원지역 기업 인력구조

(%)	
직 종	비 중
기 술 직	63.3
사 무 직	33.0
연구개발직	3.7

주 : 임시직 포함

채용이 어려운 분야

(%)	
구 분	비 중
기 술 직	56.3
일 반 직	20.7
연구개발직	16.1
기 타	6.9

주 : 정규직 기준

채용이 어려운 이유

(%)	
구 분	비 중
지 원 자 부 족	44.4
임 금	27.2
자 질 부 족	21.0
기 타	7.4

주 : 정규직 기준

* 강원지역 기업 인력채용 요구 학력수준 비중(%) : 고졸 41%, 대졸 55.3%, 대학원졸 3.8%

98) BSI(Business Survey Index) :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 인생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체계 구축

인생단계	현재의 일자리 생활	미래의 일자리 생활
70대 이상	은퇴 후 생활	제2의 경제활동기간 타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스스로 충당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생활 필요
60대		
50대	일자리 현장으로부터 은퇴준비 경제활동의 여력 보유	일자리 주력계층 full-time 일자리, multi-job 등 왕성한 경제활동에 부응하는 일자리 여성의 경제참여를 위한 양육부담을 줄여 주는 사회서비스 증대
40대	일자리 주력계층 왕성한 사회,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일자리 중요성	
30대	부모양육, 자녀양육, 세금납부 등 사회 서비스 비용부담	복선화되는 교육-직업경로 평생학습사회의 진전으로 취업연령의 다양화 진전 '좋은 직장'의식의 다변화와 창업 등 최초 일자리 선택에 대한 다양성의 확대
20대	단선화된 교육-직업(좋은 직장)경로 '교육 후 평생직장' 의식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와 취업연령의 상대적 고령화 현상	

⇒

〈7-2-2〉 일자리 생태계형성 및 전략부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의 밑바탕이 되는 사회적자본 축적

-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사회 편익 증진 기업활동 지원
- 재정지원 일자리를 매개체로 활용하여 기업가 발굴, 제도의 형성, 의식 및 문화의 확산 등 사회적자본 형성방안 추진

○ 통합행정 지원체계 구축

- 도, 시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 단위 중앙부처 하부기관 등 행정조직과 관련 시민단체, 학계 등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성
- 전체 네트워크의 사무국 기능과 기획연구조사 및 네트워크 센터로서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인재개발센터 기능 활성화

○ 시민 자원봉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연계체계 확립

- 저출산, 고령, 복지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외부인재를 불러들이고 내부인재 유출을 막는 역할 및 연계산업의 육성을 통한 총체적 지역발전 견인
 -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인력수급 균형이 이미 이뤄진 상태이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분야
 - 인적기반이 취약하고 산업이 미약한 강원도의 경우 지역성장을 촉발시킬 전략적 선도 산업부문 일자리발굴

- 이머징 섹터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바이오메디, 생명다양성, 희귀비철금속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강원도의 자원과 정체성을 살린 이머징 섹터 일자리 개발
- 콘텐츠, MICE 등 관광연계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등 작업자, 기능기술인, 기획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동공간 형성
- 프리미엄 낙농, 유기축산, 공장형 농장 등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일자리 개발 : 강원도의 축산 및 낙농산업 구조혁신과 연계
- 개인맞춤형 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틈새일자리) : 스트레스 해소 향기관리사, 건강식단 기획가, 토종감별사, 전통식품 레시피 전문가 등 다양한 강원도형 개인맞춤 일자리 개발

〈7-2-3〉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여성 일자리 창출⁹⁹⁾
 - 교육, 보건 등 여성의 취업계수가 높은 분야, 노동강도가 크지 않고 근무여건의 탄력성이 높은 일자리 중점 창출 :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

학력 및 성별 취업계수

구 분	학 력			성 별	
	대졸이상	고 졸	중졸이하	남	여
음식료품	0.8	1.7	1.4	2.0	1.9
섬유 및 가죽제품	1.3	3.7	3.6	3.7	4.9
전기 및 전자기기	1.3	1.7	0.3	1.9	1.3
도소매	7.3	13.1	4.9	13.5	11.9
음식점 및 숙박	3.1	12.9	8.6	7.6	17.0
금융 및 보험	3.5	2.4	0.3	3.1	3.1
교육 및 보건	11.6	3.5	0.8	5.6	10.4
사회 및 기타서비스	4.8	8.4	4.4	8.9	8.7

주)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

자료 : 한국은행강원본부 지역산업연관표(2005, 한국은행)를 활용

99) 활동성이나 가정적 이유로 사회적 이동성 제약이 큰 집단으로 생활권(지역사회)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일자리 공급

- 전문성을 갖춘 퇴직고령자는 강사, 상담사, 해설사, 향토문화 연구, 공공시설 관리 등 전문성과 업무의 유연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일반고령자는 생활주변의 자원(풀 공예, 전통식품 등)을 활용한 일자리
 - 스쿨존 교통지원, 도심미관 조성사업, 자원 재활용 등 기존 일자리 외에도 지역 관광지 개발, 지역축제 준비 및 운영에 노년층을 적극 활용
 - 시장형 사업, 유기농 농산물공장, 택배사업 등 시니어클럽을 통한 사업 창출
- 전문성을 갖추고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은 재교육 강화 및 파트타임제 활성화, 잡 셰어링(job sharing) 등 업무유연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다문화가정 주부, 군인가정 주부, 일반여성 등 젊은 여성층에 대한 인력개발 교육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¹⁰⁰⁾

〈7-2-4〉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킬 창업활동 촉진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정부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된 창업촉진
 - 기존기업의 지속적 성공모델 개발을 통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 전문성을 갖춘 준고령 퇴직자(55세~64세) 및 여성들의 창업지원
 - 창업동아리, 준고령 퇴직자, 마을주민단체와 연대하는 다양한 창업활동 촉진
 - 도시의 청년, 직장인 등과 주변 농어촌 마을을 연계한 사업 아이템의 발굴
- 지역의 전통기능장인 및 향토산업을 연계시킨 창업 및 일자리 개발
 - 전통문화의 향토산업화 및 제조업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일자리로 창출
-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다양한 소기업이 서로 거미줄망을 형성하는 고용 창출
 -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밀집된 마을, 단지를 중심으로 연계서비스 사업 창업 촉진(청소, 세탁, 택배, 농산물 유통 등 대행사업체 육성)¹⁰¹⁾

100) 단기적으로 도소매업, 콜센터 등 여성고용 유발계수가 높은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개발, 장기적으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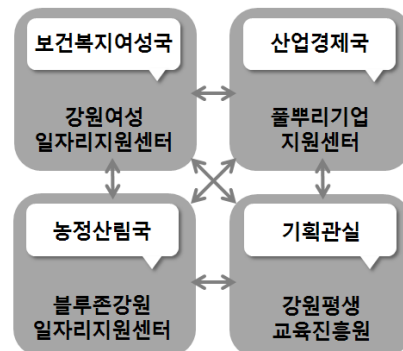
101) 일본 펜션단지 성공의 예 : 소규모의 펜션은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 및 이부자리 세탁이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 따라서 일본에서는 펜션단지마다 청소 및 이부자리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대행업체가 활성화됨으로써 각 펜션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성(예, 프랑스 요리, 음악프로그램 운영 등)을 살려 전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

<7-2-5> 도민 역량강화와 외부인재 영입을 통한 일자리 수급불균형 해소

- 대학의 인력양성구조를 이공과학계 중심으로 개편
 - 강원도의 전략산업 부문과 연계하여 점진적인 학과체계 개편
- 전략적인 외부인재 영입 병행 추진
 - 국내 대기업 등과 연계한 산학협력연구 등을 활성화하면서 외지 전문가들을 연구팀으로 활용 및 자연스런 유치 분위기 형성
 - 우수인재를 위한 거주환경 여건개선 및 인재유치기금 조성
- 해외 연구인력의 유치
 - 러시아, 동구권 등 과학기술계 전문가를 도내 대학 및 고등학교 등에 유치
 - 미국, 일본, 독일 등 은퇴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유치·활용

<7-2-6> 통합행정지원체계 구축

- 도청 및 시군청의 일자리 담당부서 조직 확충 추진
 - 최소한 과 단위 조직으로 확충 : 고용총괄과 또는 고용정책과
 - 타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통합, 운영, 관리
 -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및 일자리 지역거버넌스 운영지원
- 각 부문의 일자리 관련 업무가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의 설치
 - 장기적으로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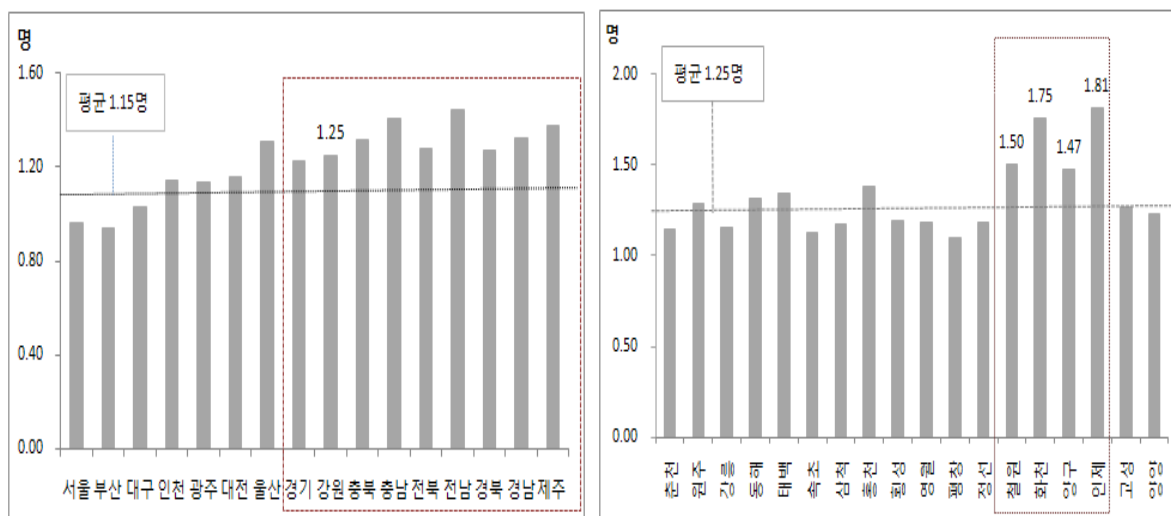
제3절 여성의 사회경제활동기반 확충

1. 실태와 추진과제

○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출산율 및 지역 간 편차

-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출산율이 높으나, 도 단위지역 가운데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낮음
- 강릉, 고성 등 영동지역 일부와 영월·정선·평창 등 내륙지역의 출산율 저하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인제·화천·철원·양구 등 접경지역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아 지역별 대책 마련 요구
- 도내 학령인구의 감소, 생산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우려

전국 및 강원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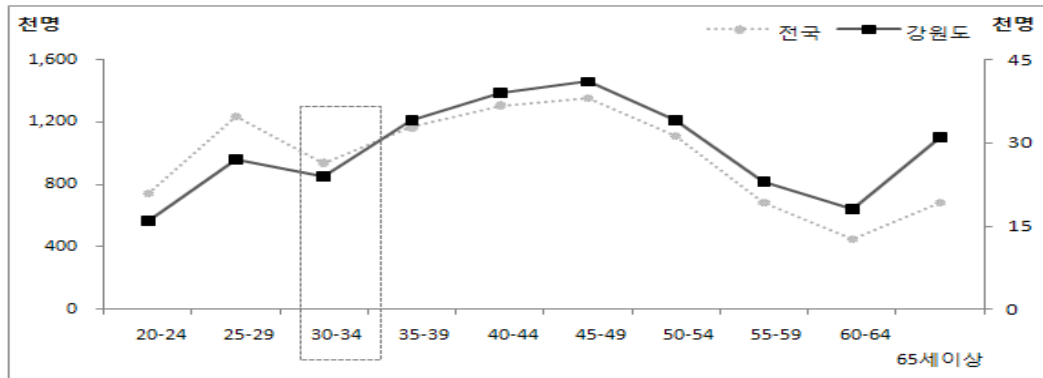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9 인구동태조사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여 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여성 취업률

- 2010년 현재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남성 66%, 전국 49.4%)
- 한창 생산력이 높은 30대 전반에 있어서 현격히 낮아지는 여성경제활동

강원도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실태



자료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도내 농촌 지역에 고령인구 집중¹⁰²⁾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

- 강원도의 1인가구는 15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9%(전국 23.9%)
- 70세 이상이 35천 가구, 22.7%, 30세 미만의 경우도 18천 가구, 19.8%
- 노인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도 평균 18.7%수준(전국 평균 18.1%), 시지역(19.0%)보다 군지역(20.1%)에 독거노인 비율이 높음

○ 주요경제활동 인구인 베이비 붐 세대¹⁰³⁾ 은퇴 본격화

-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강원도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222천명으로 인구의 15.2%(전국 695만명, 14.5%)로 퇴직이후 소득감소와 노후생활수단 미미¹⁰⁴⁾

○ 여성 가구주 및 단독가구의 증가추세

- 2010년 우리나라의 총 17,339천 가구 중 여성가구주는 449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9%로서 2000년 18.5%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
- 2007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 예측한 22.2%보다 3.7% 포인트나 상승
- 2010년 강원도의 여성가구는 147천가구, 26.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여성 가구 중 56.9%(84천 가구)가 1인 가구

102) 2009년 현재 18개 시·군 중 4개 군지역(횡성, 영월, 고성, 양양)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며, 나머지 군 지역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향후 노인복지수요 급증이 예상됨

103) 베이비붐 세대란 6·25 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실행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출생한 695만 명의 인구집단

104)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2011.7.)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의 67~71%가 평균 7513~8806만원의 부채를 보유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자녀 증가

- 강원도 다문화가정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증가
- 강원도 자료에 따르면 2006년6월~2010년7월 4년 동안 다문화가정은 530%나 증가하였으며, 자녀수도 4,356명에 이름
-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은 강원도 저출산 인구구조를 완화시키는 소중한 자원이며 향후 인구증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취학연령 자녀의 비율증가에 따라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 욕구 급증 예상
- 언어 및 문화소통의 문제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 대응정책이 필요

결혼이민자 현황

구 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합 계
강 원	3,034	1,470	4,504
전 국	125,087	56,584	181,671

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강원도 다문화가정 현황

2006. 6	2010. 7	증가율(%)	자녀수
676가구	4,261가구	530.3	4,356명

자료 : 제2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 추진과제

- 여성가족부문의 목표 설정 및 제도기반 확충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2. 세부추진과제

〈7-3-1〉 여성·가족부문 목표의 설정과 제도기반 확충

- 강원도 여성가족부문 비전¹⁰⁵⁾ :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강원도’
- 성주류화 실천 및 거버넌스 확대
 - 성 주류화 실행전략 구축 : 강원도 성평등지표 개발, 성별영향평가 전문야 확산, 성인지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
 - 여성정책 거버넌스 확대 : 여성정책 모니터링 운영 내실화, 여선 민관네트워크 열린 정책포럼 운영, 여성가족 관련 협의회 운영 내실화,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등
- 여성 역량강화 및 일자리 지원¹⁰⁶⁾
 -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여성친화 우수기업 지원,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개발,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
 - 여성경력 단절방지 환경조성 : 여성생애설계 운영, 경력단절방지를 위한 기업문화 형성
 - 출산후 3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에 대한 취업교육 등 강화
 - 여성 취업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개선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 여성인권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폭력여성 지원 내실화 : 긴급도우미 전문성 강화, 여성폭력지원상담소 및 시설지원 개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운영(긴급구호, 연계서비스 제공, 긴급도우미 등)
 - 강원여성폭력피해자,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 및 여성친화시범마을 조성, 여성전용 건강관리센터 운영

105) 제2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106) 통계청 보도자료, 2010년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0.7.5.) : 2010년 남성의 임금을 10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임금은 66.9로 여전히 남성 임금의 70 수준, 남성의 근로시간을 10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근로시간은 95.5로 2009년(96.1)에 비해 다소 감소

〈7-3-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 구축

- 시간제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제 도입 등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지속 추진

		출산율 안정/정주인구 확보
		3단계(2016~2020)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	자녀양육환경 수준 제고	
	2단계(2011~2015)	
1단계(2008~2010)		
가정과 직장의 양립	: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안심하고 가사·육아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해소	: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정주인구 확보 위한 여건 개선	: 「산업·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및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정주여건이 향상되는 사회」	
미래세대 건전 육성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담당할 미래세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육성될 수 있는 사회」	

자료 : 강원도,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계획(2008-2020)』

○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및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신혼부부 결혼준비 비용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로 가족형성 여건 조성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임신출산비용지원확대,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양육수당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부부 육아휴직 프로그램의 활용을 권장하는 사회 및 직장분위기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및 취약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국공립전환 등을 통하여 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확충
-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대상으로 타 시도 수준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지원 확대

〈7-3-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비전 : 아동·청소년이 행복과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전 강원도
-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빈곤아동 통합복지서비스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위기아동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위스타트 마을센터 지원
 - 빈곤·요보호 아동 지원강화 : 아동급식지원, 조손가정 아동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등 기반시설 확충, 학교폭력 예방 및 일탈청소년 대안 프로그램 운영
 - 복지사업 지원강화 : 방과후 아카데미, 공부방 운영
 - 역량강화사업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 위기가정 아동사례관리 시스템 확대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축
 -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아동공급의 시사점

구 분	현 황(2010년)	필요공급내용
지역아동센터	160개 설치 운영중	읍면당 최소 1개 센터 설치
드림스타트센터	10개 시군에 설치운영	1시군당 1개소 설치
위스타트센터	6개 센터 설치운영	체계적 지원 및 자문 시스템
저소득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자립, 교육비 지원	시군단위 사례관리체계 구축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21개소 등 25개소	아동청소년보호 지역연대 구축운영
결식아동	18000명에 도시락 배달	급식서비스의 양과 질 향상
다문화아동	1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취학아동 학교복지시스템 운영
위기가정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권역별 지원시스템 구축

자료 : 제2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7-3-4〉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 15기관·단체(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기관 등)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정보 교류,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등
- 결혼이주여성, 탈북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 정책대상 확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확대 및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및 서비스 확대¹⁰⁷⁾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및 이중 언어 지원사업 확대
- 외국어 강사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

○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시

단계	정책 방향	참여 기관
1단계 결혼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결혼준비교육 ·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주요 관련기관간 연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관련 부처, 도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강원도 소재 결혼중개업체
↓		
2단계 가족 관계 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록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적응교육 의무수강 · 지역사회기관 및 관련 제도 정보 제공 · 임신·출산 관련 교육 · 가족통합교육 · 통·번역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군청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건소 · 평생교육시설
↓		
3단계 자녀 양육 및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중급과정 운영 · 자녀양육 지원 : 임신·출산·양육 정보 및 도우미 지원 등 · 지역사회활동 지원 :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취업활동 지원 : 맞춤형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건소 ·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시설 · 강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 지방노동사무소
↓		
4단계 역량 강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고급과정 운영 · 취업활동 지원 : 평생직업교육, 보수교육 등 직무능력 · 노후생활 지원 : 노후설계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평생교육시설

1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춘천·원주·강릉 3개 거점도시별로 중점추진 시책 설정 운영후 확대

제4절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

1. 실태와 추진과제

-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층, 다문화 가정 등은 통상적 시장경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 장애인은 사회 내 시설 및 활동기반이 아직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미진
 - 취약계층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일반적 취약계층이 빈곤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 해소 필요
 - * 최근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는 1인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그 중 여성가구의 비중이 높은 상태로 대부분이 빈곤가구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0년 기준으로 전국 비율 2.9%에 비해, 강원도는 4.1%(39천가구, 63천명이 수급)로 높은 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 호, 명, %)

구 분	2003년			2010년		
	가구수	수급자수	수급율	가구수	수급자수	수급율
강원도	32,213	55,264	3.6	38,876	62,850	4.1
전 국	717,851	1,292,690	2.7	878,799	1,458,198	2.9

주) <주민등록 인구기준> 2003년 전국 48,386,823, 강원도 1,527,034
2010년 전국 50,515,666, 강원도 1,529,818

자료 :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10년 강원도 등록 장애인 인구는 강원인구의 6.6%에 해당하는 101,067명으로 전국 평균 5.0% 보다 매우 높은 편(여성 장애인 인구는 41,474명으로 여성 인구대비 5.5%이며 남성 장애인은 59,598명으로 남성 인구대비 7.7%)

2010년 장애인 인구 현황

구 분	등록 장애인 수(명)			주민등록 인구대비 비율(%)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강원도	41,474	59,593	1,061,067	5.5	7.7	6.6
전 국	1,048,979	1,468,333	2,517,312	4.2	5.8	5.0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통계현황

○ 추진과제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독거노인 등을 위한 노인복지 확대
- 저소득층 자립제고와 장애인 참여확대 및 통합사회 기반조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실현
-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
-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

2. 세부추진과제

〈7-4-1〉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다변화, 다원화 된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추진

<중앙정부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개요>

- 새로마지 플랜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개요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재취업, 창업, 직업능력 개발 강화 등 정책방안 지원
-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역모기지(주택연금) 등 보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여가문화 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성화

○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안정적인 노인요양 지원체계 구축

-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복지시설 확충정비, 농어촌 종합재가복지시설 설치
-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치매상담센터, 치매요양병원, 치매대응 수발교육 등 치매노인 종합관리지원체계 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령자 활동 및 복지기반 확충

1단계(2011~2015)	2단계(2016~2020)	3단계(2020 이후)
개별산업의 집중육성	산업 융복합을 통한 확산	복지·산업 그리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 고령친화 의료산업 육성 ▶ 고령친화 건강산업 육성 ▶ 고령친화 교육복지산업육성 ▶ 고령친화 농업 육성 ▶ 고령친화 주택산업 육성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원격의료진단+건강+복지산업 육성 ▶ 고령친화관광휴양산업+의료산업 ▶ 고령친화농업+주거단지+의료+관광산업 <p>→</p>	<p>강원도 전역이 고령친화적 산업체계와 복지가 연결된 복합 공간 그리드(grid)를 형성</p>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확충 : 특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 전승자로서 자원봉사 기회 확대
- 노인여가시설 조성 확대 및 노후프로그램 확대운영¹⁰⁸⁾
-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 권익 강화 : 재가복지시설 확충¹⁰⁹⁾,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¹¹⁰⁾, 독거노인¹¹¹⁾ 및 학대노인 등 보호 강화

108) 2010년말 현재 노인여가시설 3,465개(노인복지관 9, 경로당 2,853개소, 노인교실 23개소 운영), 노인여가 프로그램 9개사업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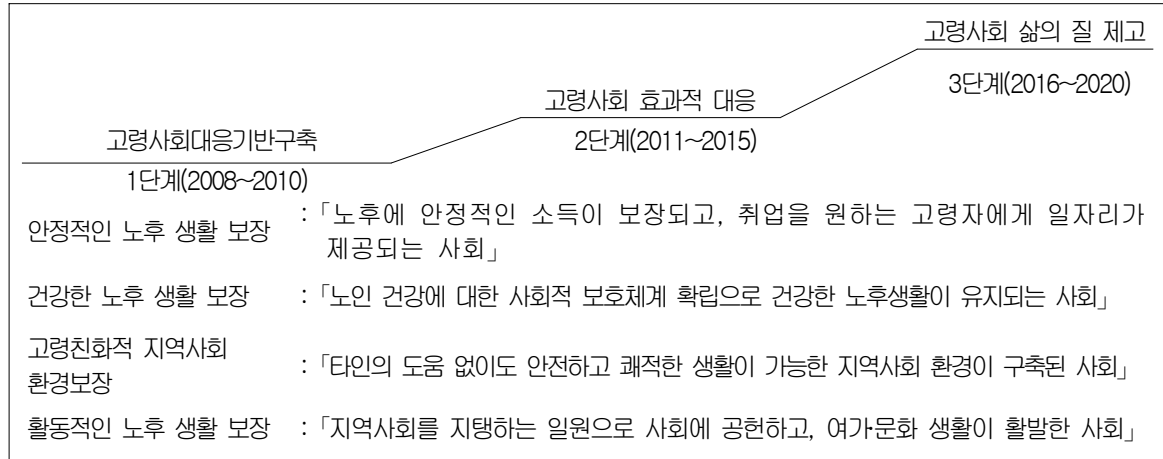
109) 2010년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66개소

110) 2010년말 현재 189개소(요양127, 공동생활62)

111) 2010년 기준 노인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도 평균 18.7%수준(전국평균 18.06%)임. 시지역(시지역 평균 19.0%)보다 군지역(군지역 평균 20.1%)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상황

〈7-4-2〉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2단계 사업 지속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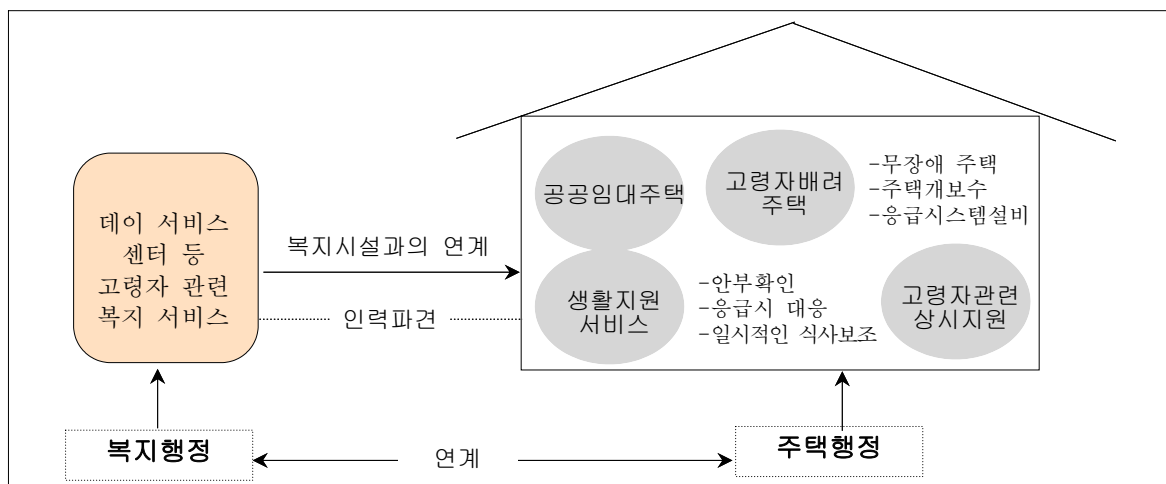


자료 : 강원도,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계획(2008-2020)』

○ 복지프로그램과 고령자 주거의 연계체계 구축

- 고령자 가구에 적절한 주거복지 서비스와 함께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 형성
- 중증고령자의 생활특성을 배려한 그룹홈·데이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임대주택, 실버타운 등 고령자 가구의 다양한 주거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거형태 보급개발을 추진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 지원(무장애 설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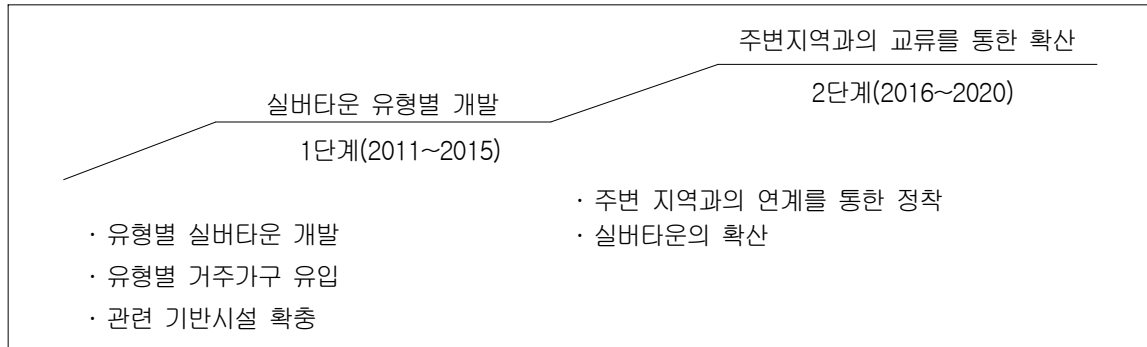
주택과 복지프로그램 연계구상의 한 형태



자료 : 강원도, 『강원도 주택종합계획 보고서(2008-2017)』

○ 강원도형¹¹²⁾ 실버타운 조성 활성화

- 강원도의 고령친화 융복합산업과 연계하여 실버계층의 주거타운으로 개발



○ 고령 친화적 지역 환경 구축

- 지역개발 추진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을 조성 추진¹¹³⁾
- 노인전용 주차장 지정 및 실버마크 제도의 활성화 등 고령 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 아동 등의 교통사고가 생활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면도로, 생활도로의 정비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 일본의 안심보행환경 개선사업 >

- 현재 일본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중인 “안심 보행 환경 개선사업”은 고령인구와 어린이의 보행교통이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신호, 노면표시, 도로폭원 등 종합적인 사고대책으로 접근하고 있어 매우 큰 효과를 얻고 있음

○ 공공건물 등에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체감도 제고¹¹⁴⁾

- 도내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매우 높음
- 이용만족도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보전 및 사후관리 강화

○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대상자 등에게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지정기관¹¹⁵⁾과 연계 이용자쿠폰 발급 및 지정기관 차량이용

112) 농어촌형 주거환경+도시수준의 복지서비스+고령친화산업이 어우러진 쾌적한 전원도시형 복합타운

113)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고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도시와 생활환경 구축을 지역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6년 일본 도도부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D)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UD개념을 적용한 주택, 건물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114) 2006년 현재 99% 설치 및 2년마다 도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평가 실시

115) 2010년말 기준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지정기관은 49개소, 생애주기건강검진, 행정민원서류발급, 보건소진료 이용

〈7-4-3〉 저소득층 자립 제고

○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생계보호 강화
-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체계 확대
- 65세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이하 기초노령연금 지급¹¹⁶⁾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차상위 계층 지원체제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 구축

- 차상위 계층의 자격기준 마련 지원 및 관리 표준화, 체계화
- 차상위 위기가구의 한시적 지원을 통한 빈곤진입 예방을 위해 긴급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추진(휴폐업자, 영세자영업자, 파산, 출소자 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지역선택형(서비스 수요가 고르고 전국단위 공급이 용이한 사업) 및 개발형(지역 여건 주민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 발굴 추진
-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수급 활성화

○ 근로빈곤층의 자활 지원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및 자활촉진자금 대여
- 자활사업 참여 확대 및 자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 자활사업을 디딤돌로 일자리 상향이동촉진 정책 추진

○ 정부시책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

-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간병인, 택배기사, 지방 퀵서비스 등)산재보험 미적용 취업자 적용확대
- 국민연금 적용제외제도를 축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 근로장려세 도입(2014년 부터)에 따른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간 정보연계 강화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역 완화 추진

116) 연금수급현황('10년기준) : 전체노인의 73% 수급(전국평균 69%)

〈7-4-4〉 장애인 참여 확대 및 통합사회 기반 조성

○ 장애인 복지 선진화

- 장애인 주택개조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 강원도재활병원,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속확충

○ 저소득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 저소득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지원 발굴 및 지급

- | | |
|--------------------------|-------------------------|
| ▪ 비급여의료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건강검진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무료급식(기초생활수급 독거장애인 가구) | ▪ 장애여성출산비 |

○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인 기업 및 창업 지원

○ 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 생산품 배송비 지원
- 생산품 판매시설 마케팅 전담인력 지원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 강화

○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 장애아동 보육·교육·고등교육 지원 강화 및 장애인 문화접근성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Universal Design(범용디자인)에 입각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환경 조성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정보접근권 개선

〈7-4-5〉 취약계층 교육복지 실현

○ 교육여건 및 교육기회의 지역·계층간 격차 심화

- 수도권에 비해 취약, 도농격차로 지역 우수인재의 외지 유출과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반복¹¹⁷⁾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탈 농어촌 및 폐교 증가

강원도 폐교 현황

연도별	'82~'91	'92~'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학교수	60	287	8	6	4	8	4	12	8	9	5	411

자료 : 강원도 교육청(2010.6월 현재)

○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추진¹¹⁸⁾

- 한부모 가족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취약계층 영유아 무상보육 추진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보육료 지원
-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 저소득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로 교육, 보건, 복지의 통합지원 실시

-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농어촌지역을 우선 또는 시범으로 하는 사업 추진

○ 취약계층 교육복지 사업의 실효성 강화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CYS-net 등

117) 지역혁신의 패러독스와 교육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딜레마 : 지식과 인적자원은 기왕에 집적이 이뤄진 상대적 발전지역(주로 대도시)으로 누적적 이동과 집적의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촉발할 혁신창출의 필요성이 큰 상대적 낙후지역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패러독스가 존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교육에 투자하면 할수록 우수인재는 외지(상대적 발전지역)로 유출되어 해당지역의 발전에 기여. 낙후지역이 발전 지역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꼴. 그렇다고 주민에 대한 교육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딜레마

118) 2007년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을 보면, 전가구 12.9%, 도시근로자가구는 10.7%로 나타나,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아동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10년 현재, 강원도 취약계층 아동은 30,792명으로 전체 18세 미만 아동의 약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지역은 9.9%, 군지역은 10.9%로 군지역이 도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 취약계층 아동 현황

시 군 별	18세 미만 아동	취약계층아동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급식 지원 대상 아동
		명	비율	계	시설 보호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계	모자 가정	부자 가정		
계	302,355	30,792	10.2	2,601	707	1,826	68	8,592	6,188	2,404	4,356	15,243
춘천	56,317	6,254	11.1	225	81	138	6	1,396	992	404	490	4,143
원주	70,234	5,264	7.5	458	259	189	10	1,971	1,570	401	797	2,038
강릉	43,630	4,266	9.8	334	146	184	4	1,931	1,370	561	241	1,760
동해	19,871	2,206	11.1	68	3	65	-	668	478	190	101	1,369
태백	9,316	873	9.4	103	13	90	-	214	165	49	109	447
속초	17,845	2,654	14.9	120	6	113	1	803	587	216	131	1,600
삼척	12,290	1,305	10.6	240	5	222	13	286	189	97	196	583
소계	229,503	22,822	9.9	1,548	513	1,001	34	7,269	5,351	1,918	2,065	11,940
홍천	12,499	942	7.5	129	66	63	-	197	143	54	416	200
횡성	7,149	1,154	16.1	151	24	119	8	210	136	74	258	535
영월	6,285	765	12.2	161	21	140	-	124	83	41	177	303
평창	7,223	594	8.2	91	26	63	2	72	52	20	235	196
정선	6,147	825	13.4	81	6	68	7	111	69	42	235	398
철원	9,622	850	8.8	86	-	86	-	164	97	67	253	347
화천	4,510	593	13.1	94	47	46	1	76	39	37	153	270
양구	4,172	506	12.1	52	4	40	8	54	26	28	182	218
인제	6,258	545	8.7	73	-	68	5	66	45	21	106	300
고성	4,633	584	12.6	44	-	44	-	153	90	63	170	217
양양	4,354	612	14.1	91	-	88	3	96	57	39	106	319
소계	72,852	7,970	10.9	1,053	194	825	34	1,323	837	486	2,291	3,303

자료 : 강원도 사회복지과(2010년 9월 현재)

〈7-4-6〉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민간 및 지역자본을 활용한 기금조성

- 이자수입,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기금조성
- 도 재정상황에 따라 연차별·탄력적 도비출연 추진

○ 새로운 기금사업 발굴·추진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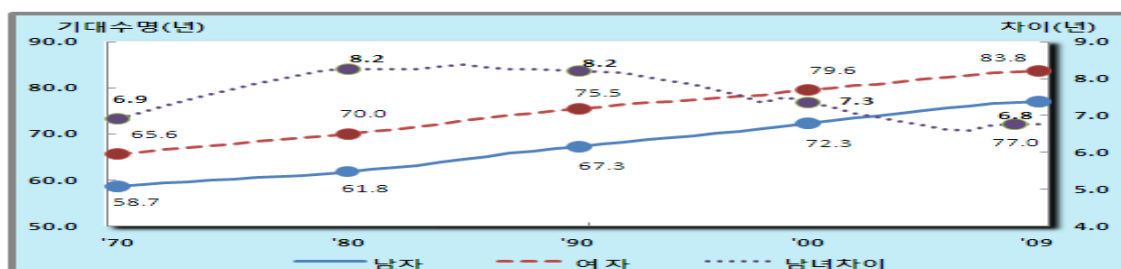
제5절 건강보건환경 구축

1. 실태와 추진과제

○ 기대여명(餘命)의 증가

- 2009년 생명표에 의하면 전년(2008년) 및 10년전(1999년) 대비, 2009년 연령별 기대여명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

기대여명 증가 추이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10.12.9)

○ 강원도민의 낮은 건강수준과¹¹⁹⁾ 의료접근성 제약

- 타 지역에 비해 남성흡연율 전국최고 52.7%(최저 광주 43.3%), 성인 고위험 음주를 또한 18.9%로 전국최고(최저 전남 10.8%)이며, 자살율도 높음
- 도민 유병률은 24.4%로 높은 수준이며(서울 15.9%, 경기 19.5%, 전국 평균 20.7%), 평균 유병일수도 8.4일로 높은 편(전국 7.3일, 경기 6.4일)¹²⁰⁾
- 건강에 대한 정보·인식이 부족하며,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중 교통수단이 미흡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기인

전국/강원 인구(10만명당) 대비 의료공급 현황(2010년 말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보건의료 기관수	입원 병상수	의사			약사	간호사
			의사	치과	한 의사		
전국	156.0	1,036	163.1	41.6	32.2	49.2	230.9
강원	144.5	1,098	157.4	37.3	29.1	48.0	259.3

주) 1. 보건의료기관수 : 병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기관, 약국

2. 간호사 : 간호조무사 제외

자료 :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119) 질병관리본부 2010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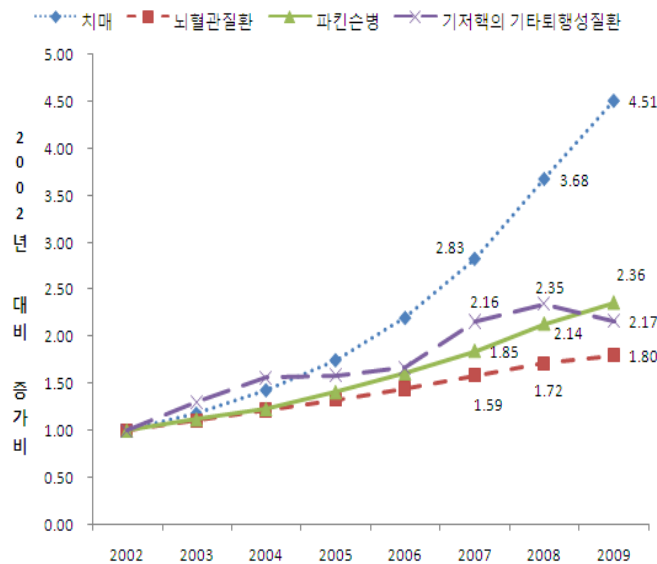
120)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보고서 참조

2010년 기준 의료기관수

구분	일반 병의원			요양 병원	치과		한방		결핵 병원	한센 병원	정신 병원	부속 의원	조산 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전국	318	1315	12061	867	191	14681	168	12061	3	1	143	186	37
강원	15	40	656	19	2	313	2	305	-	-	5	4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 및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



- 2002년 대비 2009년 노인성 질환 진료실 인원 205.7% 증가 (49만9천명 → 102만7천명), 노인성 질환 총진료비 419.5% 증가(5,813억 → 2조 4,387억원)
- 2002년 대비 2009년 치매질환 진료실 인원 451.3% 증가(4만 8천명 → 21만6천명), 치매질환 총진료비 1,107.5% 증가(561억 → 6,211억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1.1.31)

○ 정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20)의 국민건강수명의 목표치는 2020년 75세(남자 73.2세, 여자 76.6세)

○ 추진과제

-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IT와 융합된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 건강생활환경 조성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2. 세부추진과제

〈7-5-1〉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함께 생애주기별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 출생,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확대(40세, 66세)
- 취약계층 참여율 향상을 위해 장애인 검진도우미 제도, 다문화가정 검진

○ 보건소 중심 통합 건강관리 체계구축

- 개인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로드맵에 따라 보건소 핵심건강증진사업 제공
- 수준별(건강군, 위험군, 질병군) 통합적(운동, 영양,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개선 도모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기능보강

- 도립 어린이 병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 권역별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 추진

- 원주 의료원 : 재활치료센터 및 재활요양병동 운영
- 강릉 의료원 :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통한 특성화 추진
- 속초 의료원 : 재활요양병동 확충
- 삼척 의료원 : 양한방 협진센터 구축
- 영월 의료원 : 진규폐전문병동 건립

○ 기초의료서비스 확대

- 사전예방 차원 통합 건강관리 체계 및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구축
- 농어촌 보건소 시설확충 및 역량 강화
-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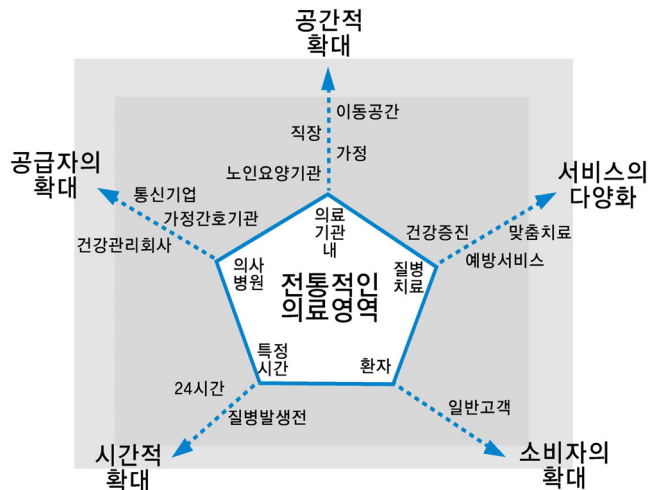
○ 감염질환의 효율적 예방·관리

- 질병관리본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말라리아 방역정보시스템 구축
- 각종 감염질환이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로 연중관리체계 구축
- 감염질환에 대한 면역력 강화 추진 및 예방관리사업 강화

〈7-5-2〉 IT와 융합된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 u-헬스의 의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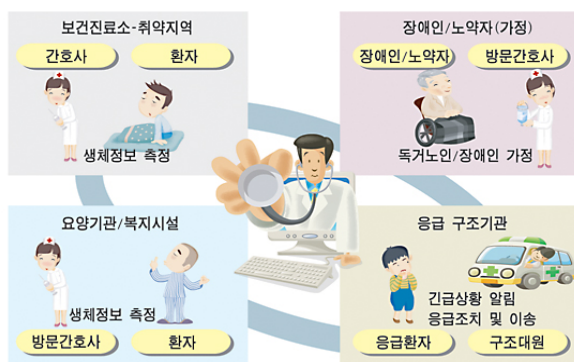
- 전통적 의료영역에 IT 기술이 융합된 u-헬스(ubiquitous health)로 패러다임 확장 추세

- 정부는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 산업 세부추진계획에 글로벌 헬스케어 선정을 하고, u-헬스¹²¹⁾ 선도국가 진입을 목표로 설정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201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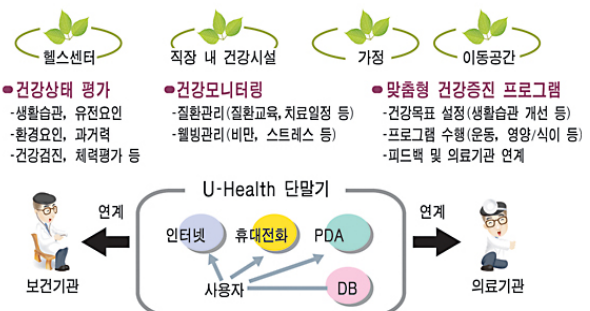
U-헬스 분류 및 원격관리 체계도

-원격진료 : 의료취약지역/계층대상>의료기관 직접 방문불편 해소



■ U-Health분류-원격건강관리

-원격 건강관리 : 예방/건강증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2009.5월)

121) U-Health(Ubiquitous Health)는 종래의 원격 보건의료·헬스케어(e-Health)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첨단 IT 기술과 보건의료 서비스가 결합해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의료서비스를 가정 등 일상생활속으로 확산, 언제 어디서나 예방·진단·치료, 사후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함

○ 농어촌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물 신·증축
- 보건소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차량 등 장비 보강

○ 전문 클리닉 육성

- 불임, 아토피, 도박/알코올 중독 등 의료/보건문제의 전문 클리닉 육성

○ 스마트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 u-헬스 및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도입
 - * 바이오 인포매틱스 도입 및 보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보급

○ 공공 u-헬스 서비스 추진

- 의료취약지역 고혈압, 당뇨병, 치매, 노인 체력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진료소(고혈압, 당뇨) ↔ 보건소, 종합병원 간 원격진료·관리 시스템 구축
- 원격기반 건강모니터링, 원격진료, u-방문간호, u-체력증진 등¹²²⁾ 추진

○ 계층별 특성화된 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 어린이 병원 건립, 호흡기질환센터 건립(강원대병원)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격 시스템 확대 구축
- 노인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연구를 위한 보건 의료센터, 노인전문 병원 등 건립

○ 의료관광활성화를 통한 의료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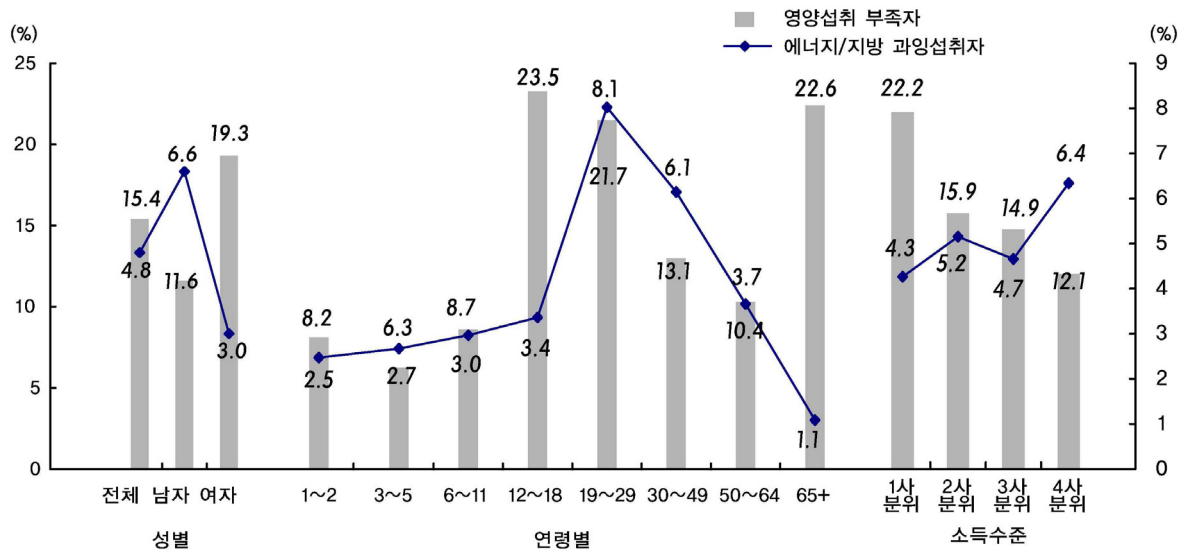
-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촉진
- 도내 리조트와 의료관광의 연계 추진
- 아토피 치유센터 등 자연생태 치유마을 조성
-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치유마을 조성

122) 2010년 현재 정부 공모사업으로 강릉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 u-헬스(원격의료) 표준화방안 마련에 따라 도내 보건기관 확산

〈7-5-3〉 건강생활환경 조성

- 국민의 상당수가 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으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

사회경제적 배경별 영양섭취 부족자 및 과잉자 비율(전국)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2011.7월

○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

-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식중독 예방시설 지원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시설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지원
-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등급제」 실시를 통한 위생관리 및 시설개선 유도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작용 감독 강화

○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식습관¹²³⁾ 형성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확대 보급
- 아동 및 노인 대상의 건강한 식단 보급 및 급식체계 형성
-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건강한 식문화 교육강화 및 생활습관을 개선
- 보육시설, 학교 위생점검 체계 강화 및 결식아동, 결식노인 해소

123) 2010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결과 장수사유는 절제된 식생활 습관을 응답(800명)한 경우가 54.4%로 가장 많음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착

-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지원부터 시작하여 무상급식 단계별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식재료 이용 확대
-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후 시범성과 분석을 통한 확대 추진

○ 정신건강 정서 함양을 위한 마을단위 커뮤니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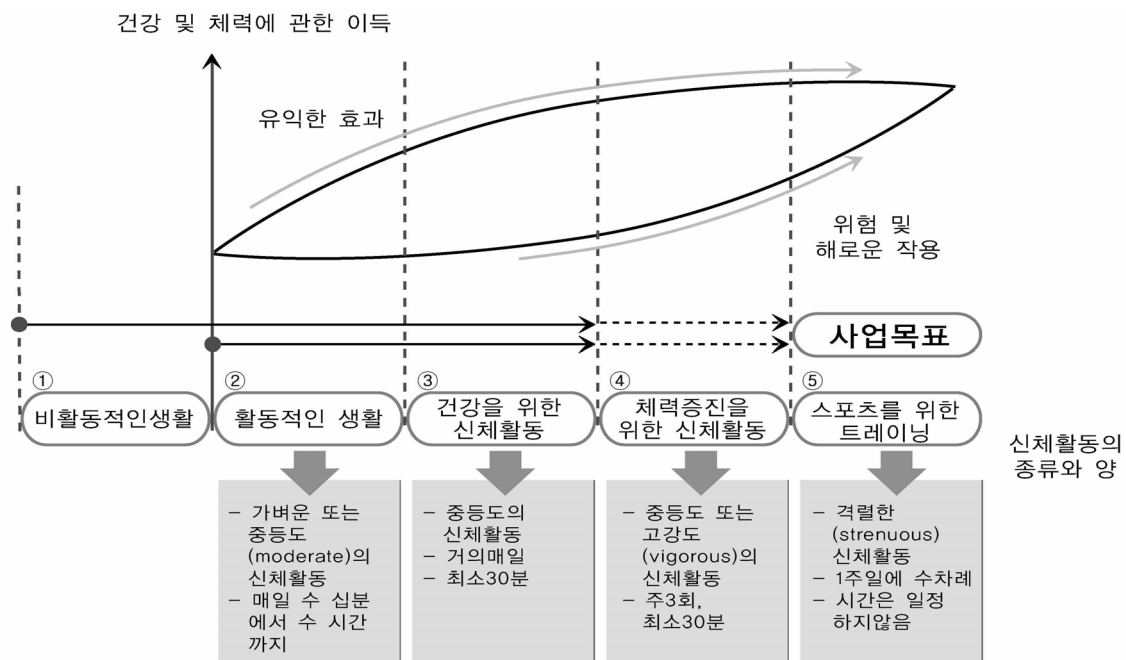
- 취약계층 주민의 지역커뮤니티 보호시스템 구축
- 금연할 수 있는 환경조성(금연구역 확대 및 담배 자동자판기 철거)

○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의료분쟁 및 약화사고 예방
-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속 시행
-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

〈7-5-4〉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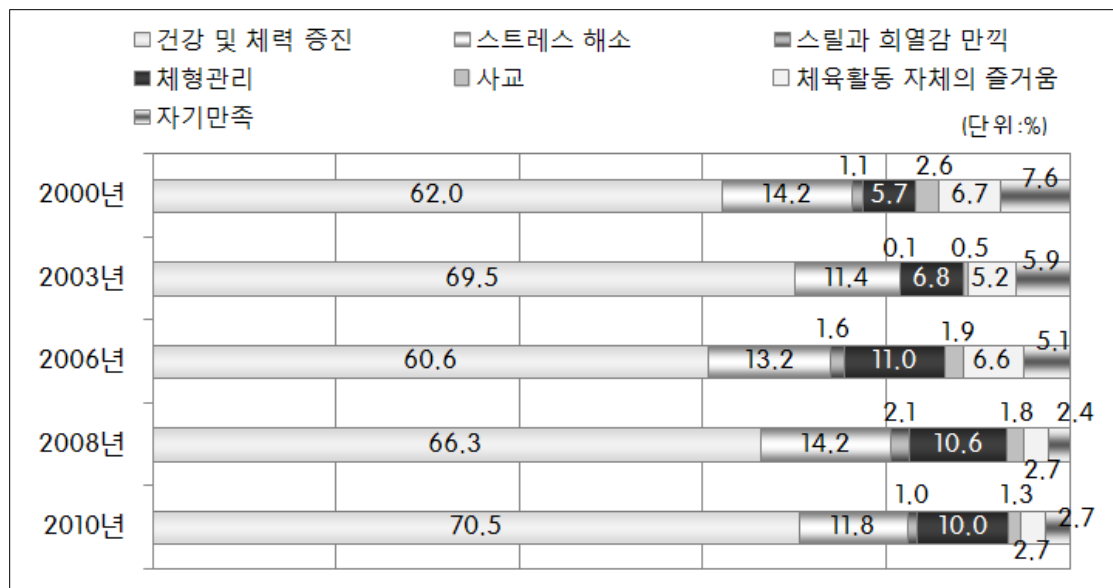
신체활동의 강도에 따른 건강 및 체력에 관한 이득간의 관계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2011.7월

- 적당한 신체활동의 증가는 사람들의 건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변수로 작용
 - 일상생활보다 강한 수준인 중등도의 체력활동은 건강에 상당히 유익한 결과를 초래
 -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체력활동을 촉진하는 생활체육은 매우 중요한 건강정책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
- 생활체육 활동 수요증가 대응 생활체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은 41.5%로 지속적 상승하고, 2008년도 34.2% 대비 7.3% 증가¹²⁴⁾
 - 실내 체육 시설 조성 확대를 통한 체육 활동 참여 효과 거양
 - 10대 청소년의 체육 활동 참여 정책 확대
 - 다양한 체육 활동 참여 유인 정책 추진
 - 올바른 체육 활동 참여 문화 확산

체육활동 효과 연도별 비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124)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결과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달에 2~3번(69.43점)만 참여해도 비참여자(65.49점)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걷기(31.9%), 등산(16.2%), 보디빌딩(12.8%), 축구(10.1%), 자전거(5.5%), 수영(5.3%), 배드민턴(3.7%), 농구(3.3%), 골프(2.9%) 순이며 읍/면 단위에서 종합스포츠센터(30.7%), 공원(13.2%) 등 필요하다는 응답

2010년 기준 주요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 설 항 목		전국		강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5,145	118,143,030	1,112	6,700,684
1. 육상경기장		211	15,619,773	25	1,375,149
2. 축구장		622	17,985,544	38	871,946
3. 하키장		12	738,869	1	21,239
4. 야구장		77	2,449,691	8	232,768
5. 싸이클경기장		11	367,587	1	33,226
6. 테니스장		550	5,866,558	61	484,697
7. 씨름장		34	65,704	4	7,869
8.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11,458	42,301,195	752	1,444,886
9. 체육관		642	14,937,485	47	593,987
	구기체육관	279	8,033,410	24	356,673
	투기체육관	39	217,006	9	92,867
	생활체육관	324	6,687,068	14	144,447
10. 전천후게이트볼장		733	2,699,817	100	340,250
11. 수영장		279	7,144,815	12	107,063
12. 롤러스케이트장		117	1,370,414	8	146,799
13. 사격장		20	959,229	4	56,416
14. 국궁장		233	1,830,694	32	353,456
15. 양궁장		19	458,268	2	119,463
16. 승마장		14	539,842	3	83,391
17. 골프연습장		55	880,434	5	37,029
18. 조정카누장		8	1,056,786	1	4,191
19. 요트장		17	289,768	2	30,396
20. 빙상장		20	197,772	2	39,294
21. 설상경기장		3	313,173	3	313,173
22. 기타시설		10	69,615	1	3,99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지역별 특화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¹²⁵⁾

- 1시군 「1국민체육센터, 1생활체육공원」 확보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
-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하
-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등 건립 지원

○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건립 및 개·보수 추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¹²⁶⁾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생활체육사업 추진
-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지도자 배치)
-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지원

- 우수선수 육성 및 지도자 배치 확대
-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 동계 꿈나무학교·선수 육성 지원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스포츠클럽 육성

125) 강원도의 공공체육시설은 1,112개소로 전국 15,138 개소의 7.3%(면적기준 5.7%) - 마을체육시설(간이운동장)은 전국 11,458개소의 6.6%인 752개소(면적기준 3.4%)로 인구수를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하나 시군별 격차 상존

126)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2007)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는 의료비 지출에서 1인당 1년에 최소 6,200원 최대 약 80,000원의 의료비 절감효과, 전 국민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1년에 최소 2,170억원 최대 2조 8,000억원의 잠재적 의료비 절감효과

제6절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1. 실태와 추진과제

- 2010년 현재 도내에는 117개 고등학교에 56,711명, 20개 대학(대학교 10개교, 전문대 9개교, 직업훈련계 대학 1개교) 26,853명(입학정원)
 - 대학생의 경우, 2004년(31,082명)대비 86.4%로 지속적 감소 전망¹²⁷⁾

2010년 기준 도내인적자원 양성기관

구분	대학교	전문대	직업훈련 대학 ¹²⁸⁾	계	인문계 고교	전문계 고교	계
학교수	8	9	2	19	70	47	117
입학정원	17,566	8,999	288	26,853	11,390	8,029	19,419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대학, 전문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고교), 폴리텍 홈페이지

- 도내 소재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44개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전국대비 3%에 불과한 11개

구분	합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전국	1,138	167	199	772
강원	44	7	4	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

- 200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16개 시도중 15위(73.8%)이며, 이중 정규직 취업률은 11위(54.5%)로 타시도에 비하여 낮은 취업률
 -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82.7%)이 대학 취업률(68%)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2008년도 강원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조 사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정규직 취업자	비 고
27	22,002 (100)	14,586 (73.8)	10,763 (54.5)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정규직 취업률(%) = 취업자(정규직+정규직 대기발령)/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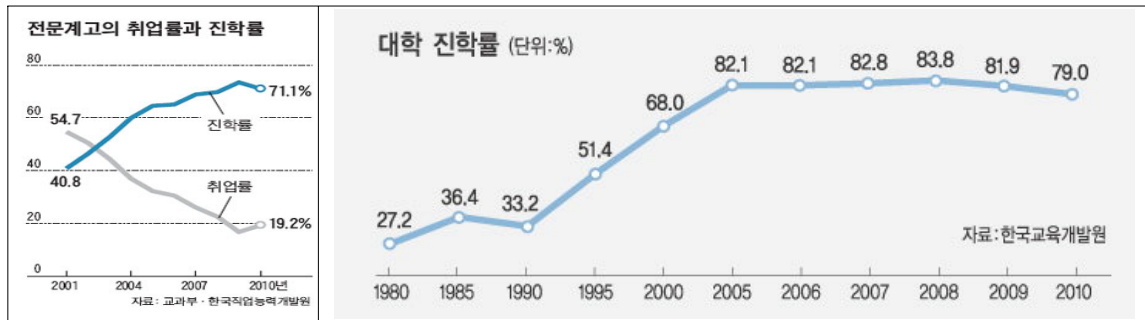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127) 전문대학의 경우 2010년도 인문사회계열(63.6% 입학) 및 예체능 계열(66.1% 입학)은 입학정원에 미달

128) 직업훈련계 대학은 2011년 학위과정 입학정원 기준(단기 기능사 양성과정 제외)

- 전국적으로 대학 진학률은 80% 내외로 높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 2001년 40.8%에서 2010년 71.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전문계고의 취업률과 진학률 및 대학진학률



자료 : 한국일보, 조선일보 보도자료 (재인용)

- 지식 기반형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 창조성 강조, 저출산 고령화·도시화 사회, 사회통합형 평생학습, 국가경쟁력 강화, 직업과 생활에서의 평생학습의 필연적 요청

<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

- 사회·경제패러다임의 변화 :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 대두
 - 산업 및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창조적 지식」 근로자 양성을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의 창출-교환-활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필요
- 인구패러다임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도시화 사회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간, 도시내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필요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 사회통합형 국가 전략으로서 평생학습 필요
 - 평생학습은 새로운 위험 등을 줄여서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하는 국가 안전망 전략 및 사회적 안전밸브의 역할
- 글로벌(Global) 패러다임의 변화 : 글로컬(Glocal)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 간, 지역 간, 지역 내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평생교육 내용 등 평생학습 자원 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운영 지원 필요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교육이란 학교졸업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부단히 계속되는 평생활동
 - 지식과 기술의 노폐율 증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끊임없는 산출, 인간 수명의 연장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필연적으로 요구

- 2010년 기준으로 평생학습 교육기관은 137개(전국 4,193개)로 전국 대비 3.2%, 학습자수 70,521명(전국 27,749,111)명으로 전국대비 2.5%에 불과¹²⁹⁾
 - 강원도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 넓은 면적 적은 인구 등 지리적 특성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18.16%(전국26.40%)¹³⁰⁾

2010년 현재 강원도 평생교육기관 현황(요약)

(단위 : 개소, 명)

구 분	교육기관 현황		학습자수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총 계	4,193	137	27,749,111	70,521
비형식교육기관 (기관부설, 주민자치센터 등)	3213	91	27,026,042	64,972
준형식교육기관 (공민학교, 방통대,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원경대학 등)	980	46	723,069	5,54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 추진과제

- 평생학습기반 확충
- 평생학습을 통한 선진 지역인재 양성
- 미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 성숙한 시민양성
-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 직업능력 개발
- 소외계층 평생학습기회 확대

129) 방송통신대학교, 원경대학,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중인 도민의 학적은 수도권에 포함됨에 유의할 때 3%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130) 한국교육개발원, 2008년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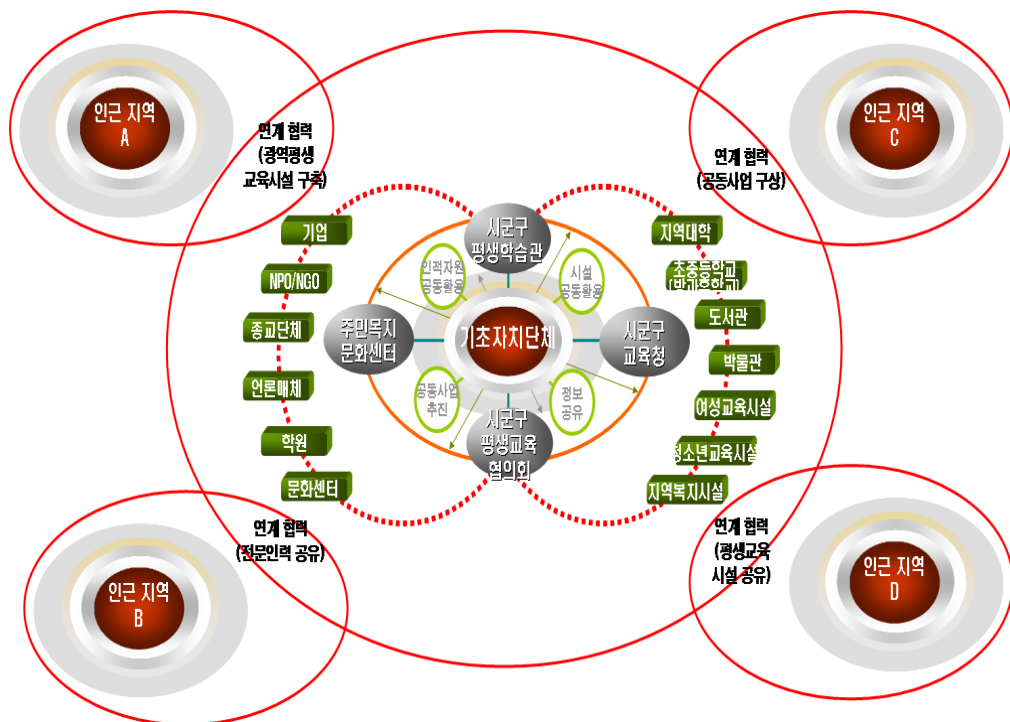
2. 세부추진과제

〈7-6-1〉 평생학습기반 확충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평생학습진흥체계 구축

- 2009년 9월 제정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강원도평생교육원을 설치 및 지정·지원을 명기
 - * 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주민 대상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평생 학습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평생교육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강원도정과 연계하여 도민들의 평생교육·학습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
- 진흥원을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청,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기반 강화

기초지자체 중심 평생학습 네트워크 모형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

○ 내발적 평생학습도시¹³¹⁾ 형성

- 강원도 18개 시군을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형성 촉진

평생학습도시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 교육기관·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 평생학습 저변확대 및 서비스 제공수준 향상을 위해 도서관, 문화복지센터 등 평생 교육시설 확충 추진
-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개정)
- 전담인력의 효율적 배치(평생교육사 관련기관 배치, 자격취득의 기회 제공)
-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관주도형 평생학습에서 민간주도형 평생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7-6-2〉 평생학습을 통한 선진 지역인재 양성

○ 지역의 핵심리더 양성

- 30~4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 할 리더 양성

131) 평생학습도시의 의미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위한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으로 지역의 인적, 물적 평생학습자원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 /2011년 현재 전국에 82개의 평생학습도시 지정(도내 4개 강릉, 삼척, 횡성, 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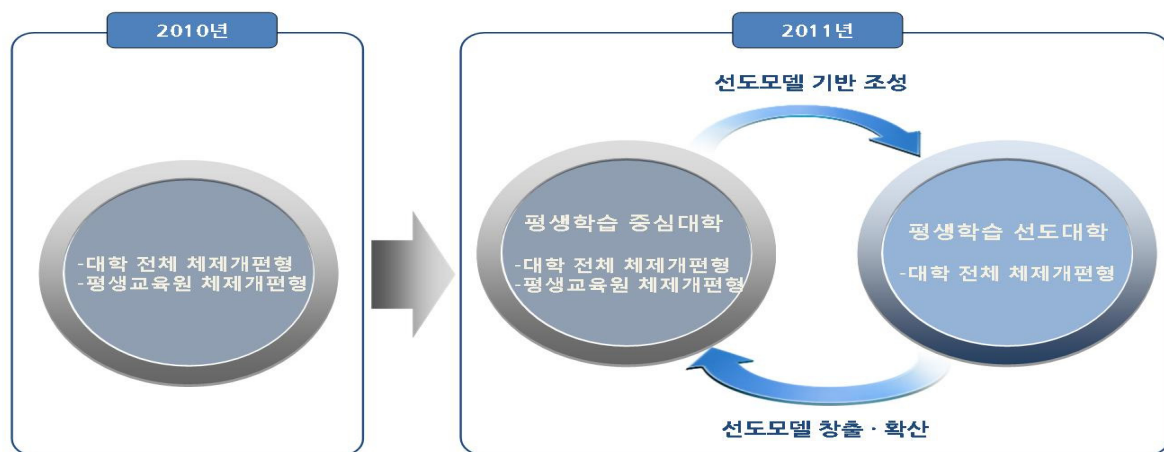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

-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 기업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

○ 평생학습 선도대학 지원

- 기존의 대학 전체 체제 개편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모델 창출 확산
 - * 선행학습 평가인정(RPL) 구축('11 시범운영→'12 확대운영→'13 운영 정착)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창업을 연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선도대학 육성체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보도자료(2011.5.24)

〈7-6-3〉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 도내 대학 등 교육자원 등을 활용 외국인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추진

- 춘천·원주·강릉 권역별 외국인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 투자유치기업 직원자녀 교육 등 투자유치 인프라로 활용

○ 학령인구 감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전환 추진

- 발전전망이 있고, 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집중육성
- 학생의 특기적성 발굴과 경쟁력 강화로 진학 및 취업 지원
- 통·폐합 학교 특성화, 학생 외부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초·중·고생 외국어 학습 및 학력향상 지원

- 중고교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
- 창의·리더 인재 육성(리더십 및 동기·행동·인지조절 교육, 지도교사 양성 등)
- 군인자녀 대상 원어민 영어회화, 논술, 과학, 체육, 리더십, 경제특강 등
-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지원
- 지역에 이주 또는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자원봉사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지역대학과 협력)

○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 초중고생 대상 학기 중 주말 수학, 과학 등 7개 과목 수업

○ 동계스포츠 꿈나무 학교·선수 육성

- 도내 동계종목 육성학교(초·중·고) 및 선수 대상 도교육청과 공동 추진

〈7-6-4〉 성숙한 시민 양성

○ 시민의 역량강화 제고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등 운영

- 지역주민 및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의식 제고를 위한 강좌 개설
-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모아카데미 운영
- 자원봉사활동의 기술과 지식 습득을 지원할 자원봉사 대학원 운영
- 건강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내 초·중·고 교사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관련 학술강좌를 운영

○ 고령자의 문화활동 참여촉진 및 건강한 신체활동 유지를 위해 실버예술단 등 동아리 지원

- 건강교육 추진으로 고령자 건강 및 사회활동 지원

〈7-6-5〉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중심의 문화행사 개최

○ 원거리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 소외되기 쉬운 원거리 주민을 방문, 취미 및 교양강좌를 실시

○ 주민영양교육

- 생애주기별·대상별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등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교육 실시

○ 주민의 외국어 능력 함양 지원

-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을 위한 자율 참여식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소수정예요원 집중 육성

○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아동·임산부·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별 수요에 맞는 교육추진
- 교양, 스포츠, 취미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6-6〉 직업능력 개발

○ 직업능력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 대학연계 특성화분야 인재 육성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강원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폴리텍대학, 강원인력개발원, 대학부설 기관(창업지원센터 등) 등 직업능력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
- 도내 평생교육에 대한 현안과 방향 및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직업교육의 일상화

- 초등학교부터 직업에 대한 이해 등 교육과정 운영
- 학습~취업 연계를 위한 청소년 인턴제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취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 평생학습 계좌제의 활성화

-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
- 평생학습자의 학습 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 학습설계 촉진

○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

-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컨설팅 및 필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군인 등 비강원인의 도내 근무자의 퇴직 후 도내 정착을 위한 재취업 교육 확대

〈7-6-7〉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장애인 학습권 등 보장

-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점자컴퓨터 교육 등 실시
- 청각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및 일반인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문해교육 등 전문프로그램 및 과정 운영

○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교육을 통해 자활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곤란한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고교 3년생 대상 등록금, 기숙사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습지원비 지원
-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활용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 다자녀가정 교육비 특별지원

- 셋째 아이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추진

-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습보조비 지원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초·중·고 능력개발비, 교복비, 기숙사운영비 지원
-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녀)
-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성인 문해학교 지원 및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해교육 시행

-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및 기초생활 관련 교육 실시
- 비문해를 최소화 및 다문화 사회화에 따른 문해교육 시행¹³²⁾
- 내국인과 외국인 문해 교육대상의 차별화된 교육시행

문해교육 대상자의 구분

구 분	내국인(모국어 문해)	이주민(비모국어 문해)
주요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학·저학력자 ▪ 중고령인구 ▪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 결혼 이민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는 능하나 문어(글자) 생활이 불가능 ▪ 문화 습득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어 및 문어생활 모두 불가능 ▪ 문화 습득 필요

자료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전은경, 다문화 사회의 이민자를 위한 문해 교육의 현황과 과제

132) 국립국어원 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에 의하면 19~79세 성인의 5.3%(약 198만 명 추정)는 문장 이해력이 거의 없는 반문해(半文解, semi-literacy) 상태로,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으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신문 기사, 공공 기관 서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행이나 관공서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도 남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 어려움

2010년 현재 강원도 평생교육기관 현황

구 분		교육기관 현황		학습자수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총 계		4,193	137	27,749,111	70,521
비 형 식 평 생 교 육 기 관	소 계	3,213	91	27,026,042	64,972
	유·초·중등학교부설	12	1	3,283	600
	대학(원)부설	388	9	883,196	11,252
	원격형태	781	2	23,123,612	-
	사업장부설	298	8	1,236,890	16,011
	시민사회단체부설	386	22	169,401	19,066
	언론기관부설	203	1	119,007	-
	지식·인력개발형태	761	16	768,736	2,183
	평생학습관	384	22	721,917	15,860
		<28>	<->	<48,797>	<->
	학원	(4,948)	(101)	(736,877)	(5,614)
	주민자치센터	(2,646)	(87)	(-)	(-)
준 형 식 평 생 교 육 기 관	소 계	980	46	723,069	5,549
	공민학교	1	-	19	-
	고등공민학교	4	-	200	-
	고등기술학교	10	-	1,194	-
	각종학교(중학)	10	-	4,658	-
	각종학교(고등)	10	-	2,899	-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4	-	286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6	-	253	-
	방송통신고등학교	40	7	15,219	982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초등)	6	-	2,256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중학)	27	3	8,352	130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고등)	53	3	33,014	211
	방송통신대학	1	-	272,452	-
	산업대학	11	-	133,736	-
	기술대학(대학과정)	1	-	121	-
	기술대학(전문대학과정)	-	-	34	-
	각종학교(대학과정)	2	-	1,213	-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1	-	55	-
	사이버대학(대학과정)	15	-	93,297	-
	사이버대학(전문대학과정)	1	-	2,399	-
	원격대학(대학과정)	2	-	3,646	-
	원격대학(전문대학과정)	1	-	2,855	-
	사내대학(대학과정)	1	-	92	-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1	-	79	-
	특수대학원	772	33	144,740	4,226

주 : ()는 총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는 다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된 평생학습관을 나타내며, 평생학습관 합계 및 (총)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제8장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

제1절 목표와 과제

1. 여건 및 전망

○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강원도 전역에서 재난·재해 발생

-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유실 피해의 상시화
- 연중 갈수기의 확대로 산불 등 피해와 용수부족 등 생활불편 심화
- 몽골 등 대륙의 사막화 및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른 황사, 산성비 등 주변국과 연계된 글로벌 환경피해의 심각화
- 일본 지진의 여파로 동해안의 쓰나미 피해도 우려

★ 강원도 지진해일 사례 : 1983.5.26, 아키타 지진해일(원덕, 삼척, 울진). 1993.7.12, 오쿠시리 지진해일(강원, 경북 동해안). 도달시간 1시간 18분-1시간 30분, 진도 7.7-7.8

○ 유엔 자연재해 경감전략기구(UNISDR)의 국가별 자연재해 위험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열대성 폭풍 8위, 가뭄11위, 홍수 19위, 산사태 24위

- 강원도는 기상변화에 맞물려 백두대간과 동해바다에 면한 지형적 요인으로 폭설, 홍수, 산사태,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에 취약한 구조
- 자연재해 사전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

- 2011. 2. 11~12일 영동지역, 1911년 강원지방기상청 개청 이래 100년만의 최대폭설 → 동해 100.1cm, 북강릉 82.0cm, 대관령 56.3cm(최심 적설값)
- 최근(08~10년) 동해안 연평균 3시간 신적설 합계는 속초가 '08년 133.3cm '09년 14.5cm, '10년 198.2cm, 북강릉은 '08년 57.0cm, '09년 17.2cm, '10년 219.8cm이고, 신적설 5cm이상 동해안 연평균일수는 6.2일로 전국 2.4일의 2.6배(최근 3년 속초 7일, 북강릉 5.3일)

○ 2001~2008년 중 자연재해는 총 28회, 피해액 52,446억원, 복구액 77,526억원

구분	합계	태풍	호우	폭설	강풍 등	피해내용
횟수	28	8	11	2	7	인명피해 297명, 주택피해 42,341동 농경지 30,041ha, 공공시설 25,383건

자료 : 강원도, 기후변화기본계획, 2010.2월

- 1994~2010 기간 중 남한지역에서 총 556건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중 강원도에서는 38건이 발생하여 경북(8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빈도

* 2007.1.20. 평창군에서 진도 4.8 지진발생¹³³⁾

- 자연탐방활동, 아파트생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사고도 증가추세

- 개별적 경험을 중시하는 개인가치관의 변화와 자연탐방객의 증가로 조난, 실족, 익사 등 관광활동 중 재난사고의 증가
- 아파트, 도시가스, 교통 등 도시시설의 집적화로 도시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도 도시적 재난발생 증가추세
- 특히 강원도는 외지인의 방문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

*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건수(2009년 현재) : 전국 평균 11.86건인데 비하여 강원도는 14.83건으로 높은 수준(전국에서 광주 다음으로 두 번째)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높은 수준 : 전국 평균 31.0명, 강원도 43.6명(2006년 31.6)

- 강원도의 방재관련 행정조직은 총괄업무부서인 소방본부, 건설방재국이 이원적 협력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평시 및 비상 등 4단계 준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강원도 재난관련 근무체제

구 분 \ 체제별	평시체제	준비체제 (사전대비)	비상체제 (Ⅰ 단계)	비상체제 (Ⅱ 단계)
상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정보 예비특보, 주의보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우 또는 태풍 경보 발령시 ▪ 해일, 대설 등으로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강원도내 지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시
근무인원	▪ 10명 이내	▪ 30명 이내	▪ 50명 이상	▪ 50명 이상

- 강원도 소방본부 조직(2011년 기준) : 12서, 59센터, 소방학교, 항공대, 119상황실

- 인 력 : 12,330명(소방 2,179, 의용 10,050, 의무 28, 공익 73)
- 예산비중 : 도 일반회계의 4.1%
- 장 비 : 543대 (헬기 2, 구조정 1, 차량 540)

* 장비 노후율 20.8%, 심정지 환자 소생율 : 선진국 15%, 한국 4.6%

133) 소방방재청(2011.1.1.) 소방방재 주요통계 및 자료에서 발췌

○ 강원도내 경보통제소 인원은 30명, 1,055개의 예·경보 시설을 보유 운용 중

강원도 예·경보 시설 현황

구 분	계	민방위 경보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너울포함)	자동기상 관측장비 (적설량계)	무선원격 수위 계측기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재난경보 방송 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강우량 계
계	1,055	152	97(13)	32	98	123	345	30	45	133
춘천시	49	15		1	2		15		5	11
원주시	63	17		1	6	2	22		2	13
강릉시	89	15	20	1	14		23		1	15
동해시	43	6	16		1	3	13		2	2
태백시	60	6			3		44		2	5
속초시	45	4	8(2)				28		2	3
삼척시	87	10	26(6)	4	9	3	22		3	10
홍천군	66	11		4	4	14	20		3	10
횡성군	79	9		1	8	21	29		5	6
영월군	53	9		2	6	26			1	9
평창군	50	8		2	4	21	6		1	8
정선군	71	11		1	10		35		3	11
철원군	93	5		1	7	11	62		2	5
화천군	50	5		1	4			30	5	5
양구군	12	5		1			2		1	3
인제군	54	6		4	6	19	11		2	6
고성군	36	5	14(2)		7	3			2	5
양양군	49	5	13(3)	2	7		13		3	6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 공간을 지향

-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국토,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사람 중심의 안심국토 조성을 과제로 설정하고, 통합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재대응 능력 제고
- 강산해 통합관리 개념과 연계하여 백두대간 중심의 산불방어축, 하천변 중심의 홍수 방어축, 연안지역 중심으로 해일방어축 등 ‘녹색방재축’ 구축 제시

2. 목표와 계획지표

- 지역사회와 총체적 재난·재해대응력 제고
 -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자연 방재력의 확충
 -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대응력 강화
 - 재난대응 거버넌스 확충으로 지역사회 방재력 제고
- 재난재해 취약지구의 철저한 파악과 관리의 충실화
 - 취약지구의 확대관리
 - 취약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 계획지표

구 분	2010	2015	2020
재해위험지구 정비	93%	100%	100%
지역거버넌스 구축	-	50%	100%
마을단위 재해위험지도 및 대피지도 작성	-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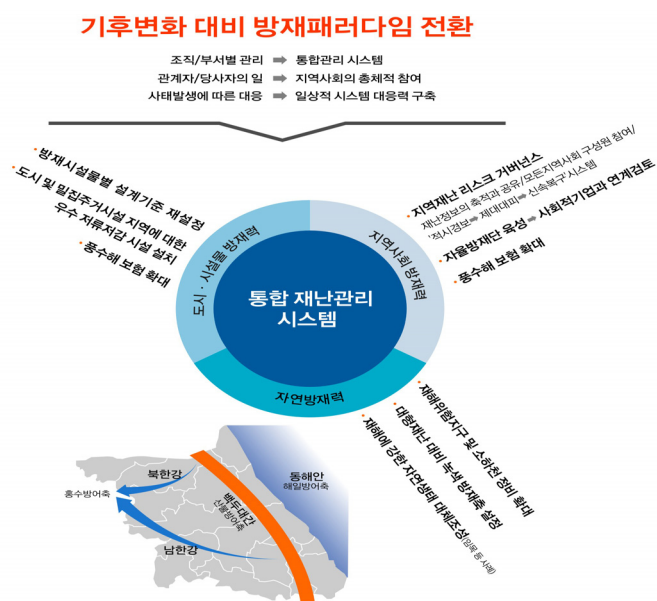
3. 계획과제

- 재난관리체계 강화
 - ‘예·경보-대피/대응/방어-응급구호 복구’라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시스템 구축
 - 일관되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의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방재력 제고
 -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반 정비
 - 지역사회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 도시형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람 중심의 안심공간 조성
 - 재해취약계층의 보호
 - 생활공간으로서의 쾌적성 증대

제2절 재난관리체계 강화

1. 실태와 추진과제

- 앞으로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복합 재난(hybrid disaster)의 형태로 파급 효과나 영향은 광역적이고 대규모화 되어 관련 기관간 정보의 통합연계 방재 패러다임으로 전환 시급



- 재난관련 분야는 지역사회, 도시·시설물, 자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각 분야는 인간생활과 관련하여 서로 연계
- 특히 도민의 삶과 밀접한 백두대간, 동해안, 남한강, 북한강 수계 등 자연재해 취약 축의 관리는 어느 한 전담부서만의 힘으로 부족

- 전체로서 통합적 대응력을 가지는 재난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현안
 - 재난발생이 일상화되면서 현재 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방재전담 부서와 건설도시 부문, 산림환경부문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부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제기
 - 재난발생은 특수성(전문성)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상호 대체적 관계
 - 최근에 빈발하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 생물학적 재난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심화되고 있는 양상
- 추진과제
 - 재해·재난 대비 통합시스템 구축
 - 재난대응 인력 및 장비의 확충

2. 세부추진과제

〈8-2-1〉 통합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통합적 재해·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발적 재난과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경보-대피/대응/방어-응급구호 복구’라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시스템 구축
- 일관되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의 강화
- 현재까지 구축된 지적, 도시, 건축, 주택, 환경 등 각 분야의 GIS 기반 자료를 통합하여 비상대응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성

<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의 개념 >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현장에서의 대처를 중심으로 표준화한 대응시스템
- 방재총괄부서를 컨트롤 타워로 책임성 부여 : 평상시 각 관련 전문부서의 동향을 파악, 유사시 일원화된 대응팀 구성
- 각 부서는 평상시 해당분야의 재난관련 취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총괄부서와 밀접하게 소통, 협력. 유사시 총괄부서의 지시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계하여 재난상황에 대응
- 도 정부에서 총괄재난대응부서를 중심으로 시설·장비·인력·절차·정보의 흐름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
- 도청 내 조직은 물론 시군과 주민 등 모든 관련주체의 참여와 다양한 방재자원이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에 따라 계획, 관리되도록 구축
- 모든 재난유형과 규모, 복합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운영

○ 재난관리 부서의 책임/권한 명확화

- 통합시스템 성패는 각 부서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협조가 필요
- 전담직원 배정을 통하여 평상시 모니터링, 정보축적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
-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으로 가기 위하여 중심적 정부기능인 도청의 방재총괄기능부서로서 「강원도소방방재본부」의 출범 검토
 - * 전국 시도에서 소방본부에 재난방재조직이 있는 경우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의 세 곳에 불과

○ 도 및 시군의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연계운영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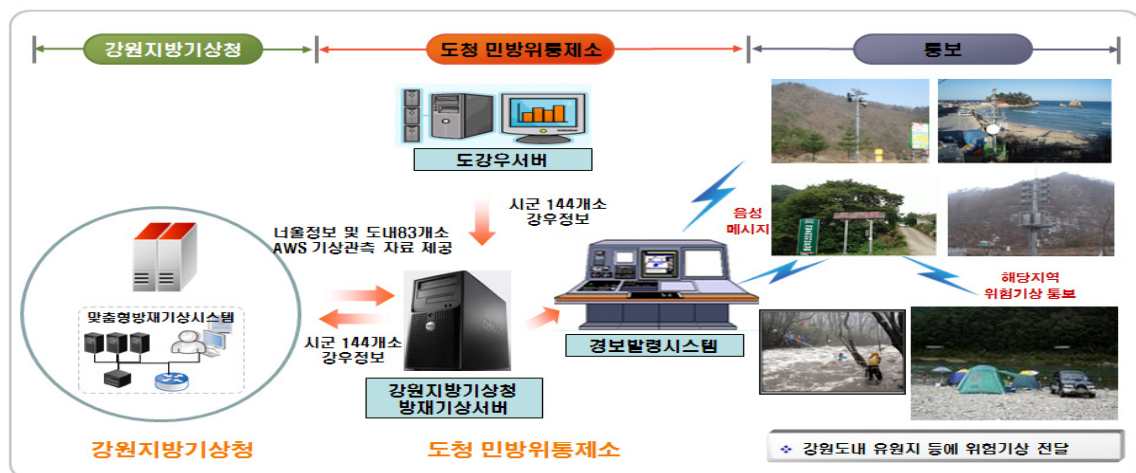
< 실시간 종합관제시스템 운영 >

- 위 치 :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
- 사업기간 : 지속추진
- 사업내용 :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및 시스템 정비 등 실시간 상시운영
- 2010년까지 도 및 16시군 재난상황실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2011년 양구군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추진
- 2012년 철원군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계획

○ 재난에 대한 예보와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또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상청과 군부대의 협조가 절대적

- 도 및 시군, 소방본부, 기상청의 DB를 공유하고 예보시스템으로 활용
- 최근 재난이 기상변화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상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상청 참여
- 군 부대는 강원도의 크고 작은 재해재난복구의 중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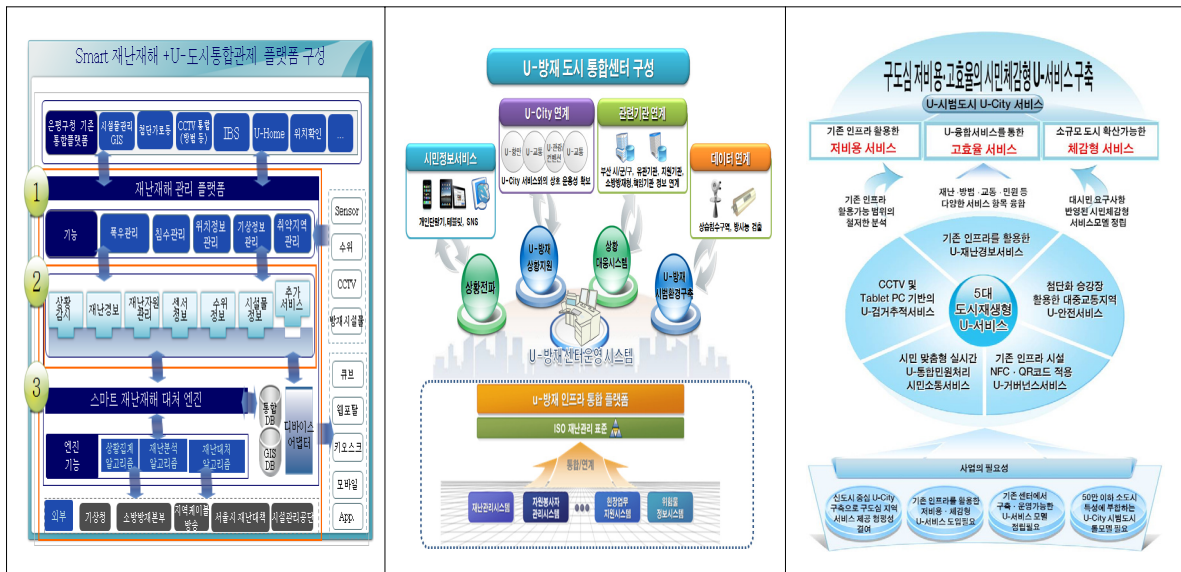
기상청의 실시간 예·경보 자동시스템 개념도



○ u-도시방재 시스템 구축

- 도시침수 통합방재 및 배수펌프장, 붕괴위험시설물 모니터링
- 도로결빙/설해 모니터링 및 융설 관리시스템
- 원격 화재안전 관리 및 비 도시지역 재해위험지역의 재해유형별로 필요한 u-방재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적용
- 주민체감형 Smart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u-시티 사업 구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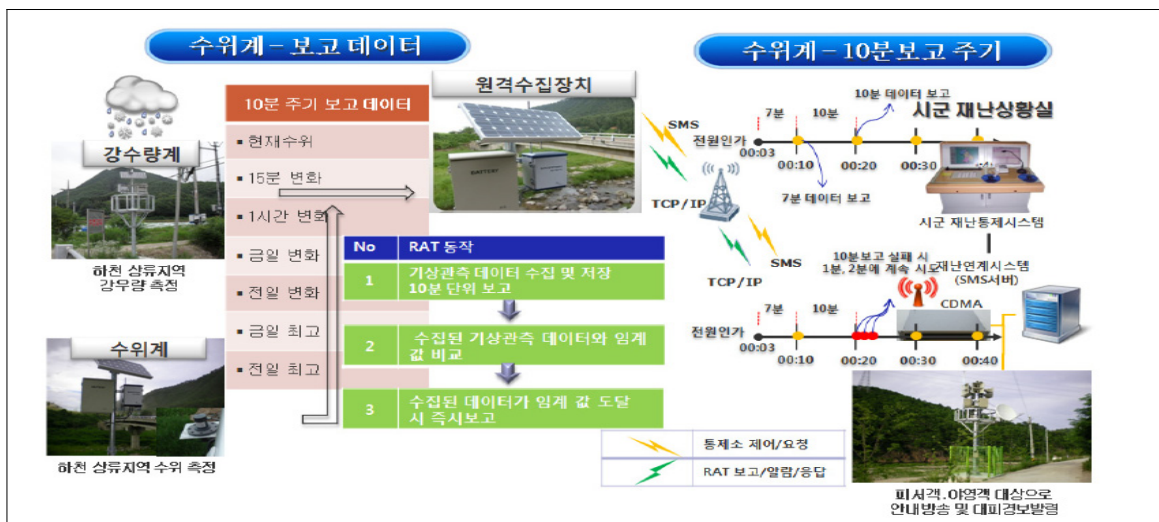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6.29.)

○ 재난 예·경보 및 통제 관측시스템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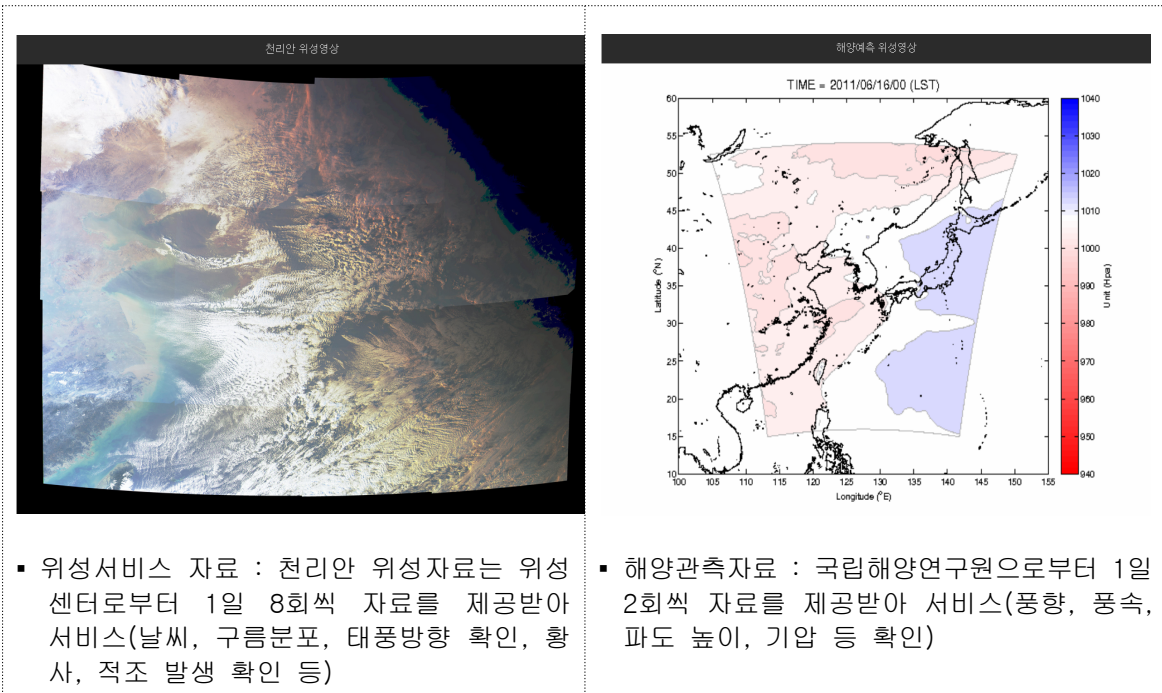
- 시군 자체적으로 경보발령이 가능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기구축 1,055개)
- 휴대폰을 이용 재난 경고 문자 메시지 제공 등 각종 관련 기술의 응용을 통해 재난 발생 조기경보 체제(Early Warning System) 구축
- Smart Dust 활용을 통한 자연재난의 피해 예상 규모의 사전 예측
 - 정확한 진로 확인으로 피해 예상 지역 주민의 소개 및 피해 규모 축소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의 시스템 구성 사례



○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서비스 체계구축

-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재난 취약지 정보를 제공, 인명피해 최소화(재난취약사항, 과거 피해내용, 재난발생시 연락처 등)
- 스마트 폰을 활용한 위성자료·해양관측 자료 서비스 적극 활용 및 홍보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6.27)

○ CBS·DMB 재난경보방송 활성화

-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도내 재난관련 예보와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CBS 기능 활용¹³⁴⁾

○ 평화/안전 올림픽 개최를 위한 비상대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강원도와 각 시군이 구축한 지적/환경/도시 관련 GIS 자료와 재난관리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동된 스마트 환경 구축
- 긴급구조/구호/의료, 기상안내, 도로/항만/운전상태 안내, 대기/음용수 안전 안내 등의 웹기반 GIS/LBS 시스템의 구축
- 장비의 운용을 위한 전문가 육성

134) 현재 2G폰에는 재난문자방송(CBS)이 수신되나 3G폰은 배터리 과다소모의 이유로 CBS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2011년에 출시되는 4G폰에 CBS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추진 중

〈8-2-2〉 재난대응 인력 및 장비의 확충

○ R&D 및 전문인력 확충

- 통합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 정보의 분석과 예측기능을 담당할 R&D 기능 확충
- 외부의 전문인력 및 조직 아웃소싱을 위한 네트워킹 확대

○ 재난관리 부서 근무자의 전문화 교육강화

- 시군의 재난부서를 건축/도로/하천/기계/화공/산림 등 전공자로 다양화하여 불가측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응
- 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성 교육 강화
- 시군 간부직원의 필수 이수 교육 과정으로 방재과정을 채택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 재난관리 능력 고취

○ 시설장비의 현대화

- 헬리콥터 등 현대화된 대응·복구장비 확충(소방항공대 강화)
-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119 구급/구조장비 확충 및 방재전용 통신망 확충
- 화재조사(연구) 업무의 전문화(강원소방학교 교육기능 강화)

○ 산불대응력 강화

- 통계적 기법의 산불발생 위험지 추출
- 중규모 지형공간 기준의 산불확산 모델 구축
- 야간산불 진화자원의 확보

○ 복구장비의 보강

- 호우, 폭설에 취약한 동해안 지역, 산간지역 등에 있어서 시설장비 보강
- 각 지역마다 군 장비 등을 포함하여 긴급상황시 동원 가능한 장비(종류, 소유자, 위치 등 상세정보 등록) 현황 관리 및 확충

제3절 지역사회 방재력 강화

1. 실태와 추진과제

- 지역사회의 방재력이란 재해재난이 닥쳐왔을 때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방어 및 치유·복구의 내적 힘을 의미
 - 총체적인 자연의 환경용량(방재, 복구력을 포함한)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성에 치우친 개발욕구에 의하여 지역사회 방재력은 매우 취약해졌음
 - * 예 : 하천의 직강화, 복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도시 및 농촌의 콘크리트화
 - 강수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하류에 대규모 홍수 발생
-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에는 재해재난 취약시설 및 지구가 산재
 - 자연파괴로 수천년 이상 형성되어 있던 물길, 바람길 등이 인위적으로 변형
 - 도시인구 집중에 의한 난개발 등으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 지구가 확산

주요 태풍피해 유형과 문제점

주요 태풍사례	피해유형	1차적 피해원인	피해를 가중시킨 국토도시의 문제점
곤파스 (2010.9.2)	강풍	태풍으로 인한 강풍(최대순간풍속 35m/s)	· 바람길, 지형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건물입지 · 강풍대비 시설물 설계기준 부족
나리 (2007.9.15)	침수, 범람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시간당 99mm, 12시간 강수량 410mm)	· 도시 내 불투수면적 증가, 하천복개, 산지개발 등 · 하천 설계기준 부족
매미 (2003.9.12)	강풍, 침수, 범람, 산사태	강풍과 급격한 조위상승을 동반한 태풍(조위 148cm 상승, 최대순간 풍속 60m/s)	· 방재를 고려하지 못한 해안변 토지이용 · 하천, 도로배수시설, 강풍대비 시설물 설계기준 부족
루사 (2002.8.30)	침수, 범람, 산사태	태풍으로 인해 내린 단기간 집중 호우(일 최다 강수량 870.5mm)	· 방재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토지이용 · 하천, 도로배수시설 설계기준 부족

자료 : 심우배, “대형태풍의 피해특성과 대응방향”, 『국토』 (2011.5월), 국토연구원

- 추진과제
 - 지역재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 방재기반 정비
 - 기후변화 대응체제 및 자연방재력 강화

2. 세부추진과제

〈8-3-1〉 지역재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 지역방재계획 수립

- 시군 및 마을마다 예상되는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예방-대피/대응/방어-복구’의 시나리오에 의한 방재계획 수립
- 방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물의 방재력 기준 조정
- 재해취약지구 및 대피지도 작성
- 주민 대피용 공공시설물(학교 등) 시설유지관리 및 유사시 대비체계 구축

- 도시계획수립, 시설물 건축 등에 이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개발에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효과 도모

○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대응체계 구축

- 「예·경보-대피/대응/방어-응급구호복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리스크 거버넌스가 발전되어야 적절한 방재효과 달성¹³⁵⁾
- 적시경보 → 제때 대피 →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대비훈련 강화

- 일본 전국 해안마을에서는 지진해일 대비 대피연습이 일상화 :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주민이 대피지도를 들고 자기가 가야 할 높은 지점으로 일제히 이동
- 스톱워치를 들고 지난번 훈련 시 기록과 비교하며 훈련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

- 소지역 단위의 자주방재, 상호협력 및 연대를 위해 자율방재단 조직·운영
- 도, 시군, 군(軍), 민간단체, 광역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재난 대응 매뉴얼 보급

-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각종 재단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safe korea exercise) 정례적으로 실시
- 재난 대피 지도 보급

135) 2011년 3월의 일본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들이 보여 준 놀라운 침착함과 질서정연함, 그리고 정부와의 공조는 리스크 거버넌스의 전형을 나타냄

-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 교육·홍보(자연재해 유형별 표준 매뉴얼 활용)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불, 황사, 등산, 나들이 안전 점검 등	장마, 피서지, 폭염, 태풍 등	태풍, 등산, 나들이, 환절기 안전관리 등	폭설, 풍랑 강풍, 화재 및 산불 등

○ 도민 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도민 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재해구호 및 방재 활동이 어려운 산간지역 및 연안지역 마을은 마을단위 자연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어린이 안전문화 행사개최, 안전체험캠프, 소방안전 조기교육 등
- 지역자율방재단,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강화
- 강원소방학교특화 운영(주택·항공기·지하화재, 위해 동식물, 수난사고 등)
- 소방차 길터주기 범도민 운동추진(사회단체 공조)

○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 추진

- 주택, 비닐하우스를 대상 1년 소멸성 보험(2008. 4. 1부터 전국판매)

○ 시군별 안전한 마을 만들기 모델 사업의 전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¹³⁶⁾ Day 지정 운영(소방대원 등 방문 점검)
- 멀리 떨어진 자연마을 선정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
- 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 주택 무료 소방안전점검, 풍수해 보험 가입 등
- 복합적인 방재시범마을 구축 확대 시행¹³⁷⁾

방재시범마을 추진사례 : 삼척시 정라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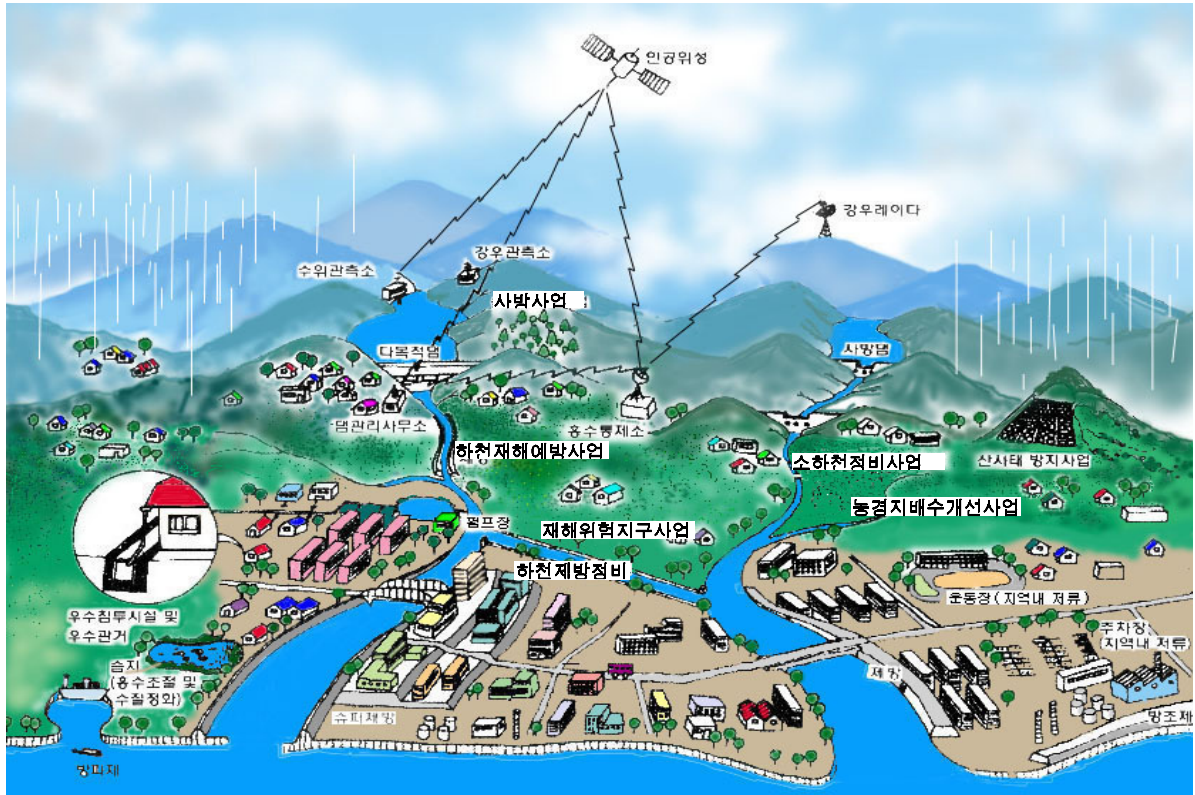
구 분	사업개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옥이주 51동, 유수지 1개소, 배수로 570m
방재시범마을 사업	방재형 생태습지, 방재문화역사존, 방재형 체육공원, 방재미래센터, 방재생태하천
타부처 유관사업	하수관거 정비 3,510m
민간사업	육향산주변 담장정비 500m

자료 : 소방방재청 보도자료(2008.8.20)

136)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화재경보기

137) 관리주체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재해위험지구, 소화천, 각 부처 유관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패키지(Package)화하여 지구단위 방재개념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예방 사업

방재시범마을 구축 이미지



<8-3-2> 지역사회 방재기반 정비

○ 기후변화 대비 시군단위 재난위험 조사 실시

- 읍면동별로 가뭄, 홍수 및 산사태, 해안침식에 대비한 정성적 위험도 실태를 조사하고, 각 공동체별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미래의 토지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토석류 위험계곡은 1~3등급까지 등급화하고 조사결과를 읍면동 단위 지도로 작성하여 고시(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자기책임형 방재 실천’의 수단)

- 1,2등급지는 행정과 주민 공동부담으로 재해위험요인 해소사업을 추진하도록 시군 조례로 제정, 3등급지 행정이 권고하는 방법으로 방재활동을 실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재해유형별, 지역별 방재기준 설정 및 단계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
- 2010년 기준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194지구(붕괴76, 침수88, 고립7, 취약9, 유실11, 해일3)로 중기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 추진

○ 급경사지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 도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비탈면 경사 및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 농산촌, 특히 고랭지의 급경사지는 재해영향을 고려하여 경작기준 강화

○ 우수저류시설 저감시설 설치 확대

- 댐 방류시 도심 저지대의 침수예방 및 물의 자연순환체계 회복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소규모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
- 하천변의 녹지대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저류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활용하여 소공원, 습지 등 도시 생태축으로 활용하는 방안 병행추진

○ 재난취약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정비 및 안전점검 강화(2010현재 8,466개소)

- 특정관리대상 5,586개소, 시특법 대상 859개소, 기타 2,021개소

<8-3-3>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시설물에 대한 방재형 설계기준 및 공법의 적용

- 풍수해 대비 신규 및 기존시설물의 내수 및 통수 기능을 강화
-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 및 면진설계 적용
- 신규아파트단지 건축시 우수저류시설, 중수도 이용시설 등 설계기준을 강화

○ 구조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대중이용 생명관련 시설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
- 준공 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에 근거한 시설물관리 강화
-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적용을 위한 방재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진단기준 강화
- 대규모 개발에 대한 심의단계 방재기준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어항시설 재정비계획 추진

-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현상 발생
 - * 지난 43년간(1964~2006)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
 - * 2008년 대비 2050년 9.5cm, 2100년 20.9cm 해수면 상승 전망
- 잦은 태풍 내습 등 어항시설물 피해가 커짐에 따라 '05년도 '전해역 심해 설계과'를 재산정한 결과 설계과 상향조정(6m→8m)
 - * '05년 이전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은 방파제 높이가 2~3m 낮게 시공됨
 - * 어항피해('05이후) : 470억원/ 어선피해('05이후) : 95척, 7억원
- 지방어항 방파제 높이 보강이 시급하나, 보수·보강 사업은 지방비 투자 원칙에 따라 지방비 재원만으로 추진에 한계
 - * 지방어항(8개항) 방파제 천단고 2m 보강시, 약 240억원 소요(항당 30억원)
- 지방어항(8개항) 재정비계획 및 설계용역 시행 ⇒ '12년 도비 3억원 소요
- 기술적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재해예방 차원의 국비확보 추진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에 따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대응

- 동해안 연안침식 모니터링 확대시행
- 재해에 대비한 연안완충구역 제도 도입
- 재해 취약지역 시설 재배치 유도

<8-3-4> 자연방재력 강화

○ 대형재난에 대비한 녹색방재축 설정

- 백두대간 산불 방어축, 북한강 및 남한강 수계 홍수 방어축, 동해안 해일 방어축

○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녹색성장 원동력」인 강원산림의 가치 보존

- 예방전문진화대, 감시원, 이통장, 사회단체 등 감시·진화 인력 운영
- 산불홍보, 헬기임차, 감시카메라, 진화차, 무전기 등 예방·진화장비 확충

○ 동해안 대형 산불 및 동계 올림픽 벨트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 및 동계 경기장 주변 산림(84천ha) 보호강화
- 예방·감시·진화에 시군 실과 및 공무원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 방재력 제고

- 정부계획¹³⁸⁾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 강원도 소하천의 지속적 정비 추진
- 국가하천 살리기 추진(영월 강변저류지, 강촌·화천·호저·섬강·지정지구, 하중도, 후용·간현지구 등)

○ 저수지 안전점검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정비가 시급한 저수지의 경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추진
- 저수지 하류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 태풍 루사가 내습시 강릉의 저수지가 붕괴되면서 하류주거지에서 많은 인명피해 발생사례

○ 해안선의 방재력 강화

- 일본 서해안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강원도 동해안이 해일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지구의 설정 및 발생시 대피체계 구축¹³⁹⁾
- 연안침식모니터링, 침식방지시설, 해안접근로 등 친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불리한 강원도 자연조건 및 지방재정 악화 대책 마련

- 자연재해대책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으로 제설, 하천정비 등 국비지원 증액

138) 현재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율은 80% 이상이나 소하천은 41.2%에 불과,- 정부는 총 10조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

139) 사례 : 1983.5.26, 아키타 지진해일(원덕, 삼척, 울진). 1993.7.12, 오쿠시리 지진해일(강원, 경북 동해안). 도달 시간 1시간 18분-1시간 30분, 진도 7.7-7.8

제4절 사람 중심의 안심공간 조성

1. 실태와 추진과제

○ 복합재난으로 인한 핵심기반 붕괴 위기

- 자연재난 또는 인적재난으로 인한 금융, 정보통신, 교통수송시스템 마비
- 안보 위기로 인한 댐, 원자력발전, 전력시스템 붕괴 및 마비 등

- 1995년 이전 :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위주의 관리체계 운영
- 2003년 까지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자연재난+인적재난 관리 체계로 확대 개편
- 2003년 이후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 사스(SARS),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재난위기 발생으로 인해 자연재난+인적재난+핵심기반 재난 위기관리 체계로 확대

○ 2010년도 사고종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

구분		합계	화재	교통 사고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구조 건수	전국	281,743	30,104	26,546	6,690	117	1,928	7,718	2,347	206,293
	강원도	13,521	1,089	1,540	262	5	78	1,210	85	9,25
구조 인원	전국	92,391	3,509	23,618	5,824	39	1,383	7,505	134,269	50,223
	강원도	5,854	119	1,728	311	1	68	1,436	85	2,106

○ 구급 활동 현황

구분	구급대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 환자수	구급대당 이송건수	구급대당 이송환자	1일 이송건수	1일 이송인원
전국	1,242	2,045,097	1,428,275	1,481,379	1,139	1,181	3,913	4,059
강원	96	87,257	62,338	66,243	649	690	171	181

자료 : 소방방재청 2010년도 소방백서 발채

○ 추진과제

- 안전·안심 생활공간 창출
- 시설물 안전 확보와 범죄취약환경의 정비
- 접경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2. 세부추진과제

〈8-4-1〉 안전·안심 생활공간 창출

○ 국민생활 위기유형의 다양화에 대응

- 재정위기, 공공사업위기, 서비스전달위기, 경제불황, 테러공격, 사회적 소요, 환경재난 등 각종재난 유형 파악 및 대응

< 국민생활 위기 유형 >

- 취약소비자 :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사고 노출 위기
- 생활경제 : 실업, 파산 등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마비로 인한 위기
- 생활치안 : 납치, 유괴, 폭행, 살인, 강도 등 생활과정에서의 위기
- 교통생활 : 법정·비법정 도로에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 위기
- 직업생활 : 사업장·비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위기
- 학교생활 : 학교 시설, 설비, 환경 및 급식, 교통, 교육과정 사고 위기
- 생활식품 : 인체유해물질 또는 안전위험 식품 유통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서 공산품 사용과정의 안전 위기
- 생활건강 : 유해건강기능식품, 무허가 및 불법 제조, 항정신성 의약품 위기
- 생활시설 : 공공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련 사고 위기
- 생활환경 : 환경오염 또는 산업 및 경제활동에서 유해환경 조성으로 인한 위기
- 생활기반 : 금융, 전력, 공중보건, 에너지부족 등 국민생활 기반의 마비 위기

자료 : 이재은(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위기관리 국가미래전략

○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전기, 가스 등) 점검·정비 추진

- 민간단체 안전점검의 날 참여확대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 안전문화학교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비 및 자재비 지원 등

○ 구조물 안전 관리 체계 강화

- 대중이용 시설물 및 life-line 관련 시설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등 법령에 근거한 시설물관리 강화

○ 기초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경보형 감지기 등) 보급 확대

- 기초생활 수급가구, 민통선 마을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보급
- 소화기·감지기 선물하기 운동전개
- 화재피해 10% 저감추진, 사고현장 5분 이내 도착율 제고

○ 권역별 「특수구조대」 운영 (비상설, 60명)

- 5개분야 : 수난, 산악, 매몰, 방사능, 생·화학사고
- 3개권역 : 동부(4개서), 중부(3개서), 서부(5개서)
- 특수·대형재난 발생시 긴급투입 시스템 구축
- 소방헬기 EMS(응급의료서비스)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외국인 119안전서비스 제공

- 상황실에 외국어 능통자 및 외국어 신고·접수 대응매뉴얼 비치
- 1330(관광통역)·1345(외국인종합안내) 운영기관과 3자 통화기능 구축
- * 119신고자 ↔ 119상황실 ↔ 인력풀간 3자통화를 통해 119서비스 제공

○ 긴급신고전화 119로 일원화

-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 : 13종 → 119종합상황실
- 119상황실 ↔ 유관기관 간 3자통화, 접수내용 자동전송(SMS)
- 신고접수처리 결과를 신고자에 문자전송

○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기회 확대(연평균 5만명 교육목표)

- * 소방서(12개소) → 119 안전센터(59개소)까지 교육·체험장 설치



자료(사진) : 강원소방학교 홈페이지

〈8-4-2〉 범죄 취약환경의 정비

○ 범죄예방설계(CPTED)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설계 지침 마련
- 범죄약자 거주지역, 범죄취약지역의 방범시설 확충¹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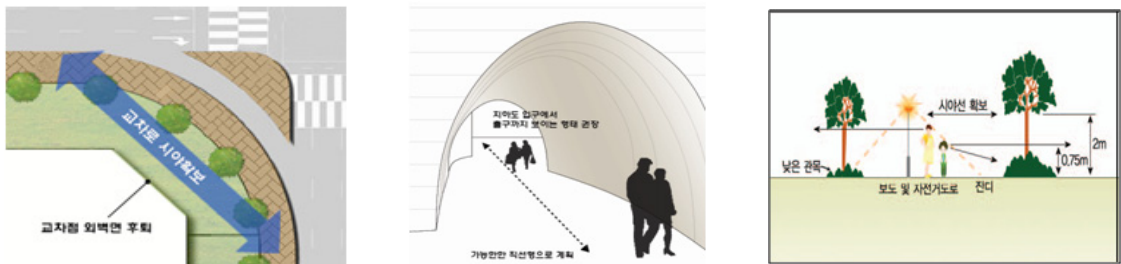
140) 2011. 7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757개소중 382개 CCTV 설치

< 범죄예방 환경 설계 >

- 도시개발설계 단계에서 범죄유발 환경을 사전 발굴하여 범죄예방 및 안심할 수 있는 도시공간 설계
- (건물 계획) 주출입구·주차장 접근통제 및 폐쇄회로TV 설치, 취약부분 집중 조명 설치
- (공공시설 계획) 교차로 부분 라운드화로 가시권 확보, 지하도 직선화 및 절점부 비상벨·CCTV 설치, 공원 경계는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으로 영역 구분, 벤치는 개방공간에 가로 등과 함께 설치



조명등 처럼 보이는 CCTV



가로의 가시권 확보 예시

<8-4-3> 시설물 안전 확보

- 『안전체험테마파크』를 전 국민의 안전체험 학습 및 연구공간으로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안전 인프라로 확충
 - 자연재해와 도시 및 산업재해를 아우르는 안전체험공간으로 시설확충
 - 시설물 설치 시 어린이, 노약자 등 재해약자에 대한 실험설비를 도입하여 안전시설 설치의 임상적 연구시설로 활용
- 보행자 안전 및 준법운행 환경 조성 지속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交通安全시설(방호울타리 등) 지속 설치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로, 횡단보도 개선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공간 확보
 -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택시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등
 -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및 이면도로의 보차혼용도로 설계 적용

○ 도로시설 구조 개선

- 주요 교통사고 빈발지점 등 도로구조의 사고유발 가능성을 조사 개선
- 교차로 신호체계 및 구조 개선

〈8-4-4〉 접경지역 안전시설확충 및 정비

○ 민통선 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과 개활지 등에 위치한 접경지역 마을에 대피 시설(1인당 면적 1.43㎡ 이상) 및 경보시설 확충

-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 관공서를 신축할 경우 주민대피가 가장 쉬운 곳으로 지하 시설을 대피용도로 설치
- 사유재산 점유에 따른 민원 등을 감안, 가능한 국·공유지에 시설 구축

○ 민통선 인접 지역 및 장마철 유실지뢰 안전대책 마련

- 자연친화적 지뢰제거작업 실시로 접경지역 안전지대 확보(군부대 협조)

접경지역 지뢰관련 현황

접경지역 지뢰 및 미확인지뢰지대 현황

북 DMZ
남 DMZ
민간인통제구역

○ 지뢰지대
● 미확인지뢰지대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접경지역 지뢰지대 관리 실태

구 분		매설 관리지
강원도 (30개소)	철원	10
	화천	1
	양구	8
	인제	1
	고성	4
경기도 (17개소)	연천	12



제4편 계획의 집행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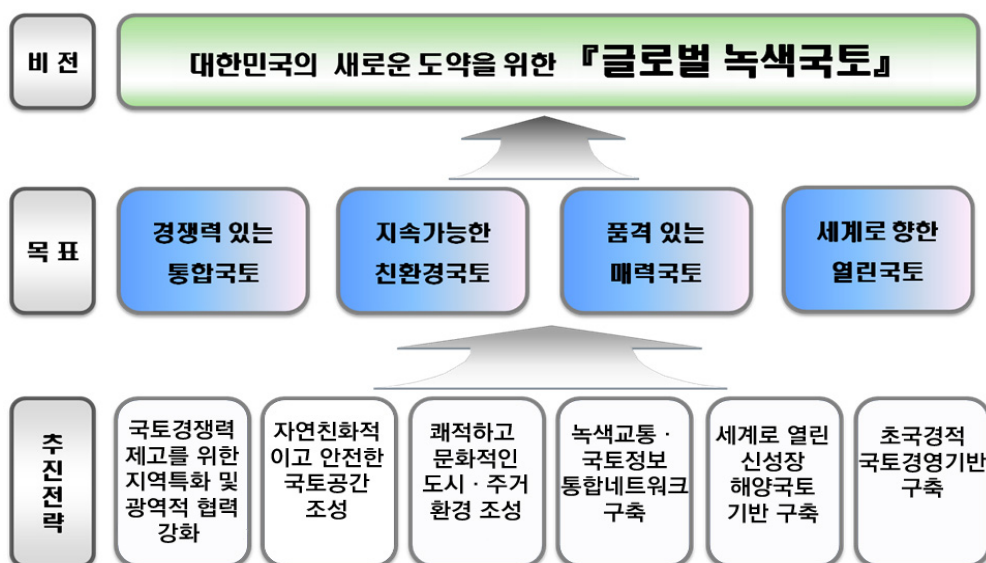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1절 계획추진체계 구축

1. 국토계획과 정합성 확보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비전 실천
 - 남북접경과 환동해경제권의 중심권역으로서의 강원도 역량강화로 글로벌국토 형성
 - 강원도의 청정자연환경을 더욱 가꾸고 활용하여 녹색국토 형성
- 광역경제권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기초 생활권 :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 강화
 - 광역 경제권 : 신성장산업 및 선도도시 육성
 - 초 광 역 권 :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구축
- 녹색경제체제 및 초국경협력체계 구축
 - 강·산·해 통합국토관리체계, 통합방재시스템, 녹색교통체계
 - 해양산업/해양의 성장거점화, 설악·금강 국제관광권 개발



자료 : 대한민국 정부,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2011.1월

2. 계획체계의 정비

- 중앙부처의 개별적 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각종 계획이 난립함에 따라 지역계획체계 혼란
 - 산업, 환경, 경제, 도로교통, 농촌, 해양, 복지, 교육 등 도정의 모든 부문에서 각종 계획의 홍수
 - 각 소관 중앙부처와 수직적 연계를 가지고 수립되면서 상대적으로 도내의 수평적 연계는 미약한 상황
 -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비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계획의 위상과 연계체계가 모호한 상태

- ‘강원도종합계획’을 도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최상위계획으로 하여 전체적인 계획 체계를 단순화

강원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행정조정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 - 도정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설정 -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매 4-5년마다 보완·수정
실국별 부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부문을 다루는 실국 주관 - 강원도종합계획의 방향과 소관 중앙부처 계획을 연계하여도 단위 세부추진계획 수립·운영
시군별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주관 - 강원도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발굴과 전략계획 수립·추진

- 본 계획은 종합행정 조정부서인 기획관리실 소관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
 - 사업계획은 각 실국별 소관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고 실국별 부문계획과 시군별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 지침이 되도록 방향 지시적 계획으로 수립 관리
- 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 단위 추진계획과 성과의 모니터링 체계 확립
 - 각 부서별/연차별 사업/행정계획 수립 및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계획지표 동향, 세부과제별 코드부여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 운영

3. 계획 추진에 있어 관련 개별법의 존중과 협의과정 충실히 이행

○ 각종 도로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나 시행 중인 도로건설사업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 계획 중에 있거나 공용 중인 고속도로와 저촉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협의

○ 농지법 관련계획 추진 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및 법적절차 이행

- 도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각종 개발계획 예정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및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 각종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경우에 본 협의절차와는 별도로 농지편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해제 절차를 이행

○ 군 작전 및 군사시설 관련 계획의 추진 시 국방부와 협의 및 법적 절차 이행

- 교통망구축을 위한 도로신설 및 선형개량 등 사업계획 시군 차량 이용도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선 폭 확대 고려
- 접경지역의 개발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민통선 내 계획사업은 출입 및 안전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세부계획 수립시 협의
- 동해 해안선 연안관리계획은 군 경계(소초, 초소, 철책, 감시장비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협의

○ 단위별 개발사업 시행 시 문화재청과 협의 및 법적 절차 이행

- 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과 주변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집중분포 지역은 보존용도지구로 계획하여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나 공원지역으로 조성하여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향후 구체적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보호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산지전용이나 산지변경이 필요한 개별사업의 진행시 산지관련법 절차 준수 및 산림청과 협의

- 향후 시가화예정용지 및 시가화용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산지관리법」 및 관련 법령,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
-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그리고 보전산지 및 형질이 우량하고 집단화된 준보전산지 등은 각종 계획단계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편입을 최소화
-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산지 편입이 불가피할 경우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물(eco-bridge 등) 설치계획을 수립
- 녹지지역과 공원, 완충녹지, 가로수 식재공간이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지역내 산림에 대하여 도시림 조성 및 숲 가꾸기 등 적극적인 산림(녹지) 경영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지역 내 산림보전 및 산지전용 제한, 조성녹지의 최대 확보를 통해 1인당 공원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산지에 관해서는 산림부서와 협의
- 2012.04.05.이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 사용허가(협의) 등에 관하여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허가기준 적용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산림의 훼손방지, 도시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 지역을 최대한 확대하고, 반면 보전용지의 축소 원인이 되는 시가화 예정용지, 각종 개발계획지역 축소 또는 적절한 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대처

4. 행정(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 국토계획의 기조는 현재 기준에서 제시된 경우가 많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정책적으로 수정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 광역경제권 사업 등은 실질적 내용은 유지할 수 있어도 명칭이나 추진체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확립 필요
 - 녹색경제체제 구축, 초국경적 협력관계 형성은 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

○ 행정조직의 탄력성 제고

- 자치시대의 지방행정 수요는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
- 국제관계, 기획, 인재개발, 평생학습 등 강원도의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부서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 태스크 포스(T/F) 등 사업 중심의 조직운영 활성화

< 태스크 포스(T/F) >

- 업무 : 기존 소속부서의 업무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해당업무에 전념
- 팀장 : 직급과 상관없이 해당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 해당사업에 대하여 업무권한 부여 → 직급서열 파괴
- 보고 : 사(私)기업의 경우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기업총수에게 팀장이 직접 보고하는 체제 → (수직적)업무수행과정 파괴
- 평가 :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책임

○ 행정조직의 전문성 제고

- 잦은 순환근무 명령체계를 지양하고 가급적 동일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동아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진학, 유학, 연수 등 기회 확대

○ 행정계층과 구역의 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배분과 재배분 문제 대두시 탄력적 대응태세 준비(강원도 차원의 논리개발 연구수행 등)

○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는 정책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 입안, 집행 등 정책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로 정책효율성 제고

5. 도정과 시·군정의 조화

○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위상 및 역할 정립

- 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의 분권과정이 미진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의 위상 정립이 불충분한 상태로, 지속적인 광역자치단체의 위상확립 추진
-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내의 사업 및 복지사무를 주로 다룬다면,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정부기능을 분담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지원·조정하는 역할

○ 국가기능과 기초단위 지역행정기능 사이의 연계총괄 기능 강화

- 평생학습, 사회적 기업 등 국가단위 사업의 광역자치단체 이관 증대 추세
- 국가재정지원에 의존함으로서 자치적 업무라기보다 국가기능 연계업무 성격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사업의 연계로 총괄기능 강화

< 예 : 강원도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

- 업무 : 일자리 및 지역인재개발부문에 대하여 투입되는 국가재정자금 사업의 효율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기획, 조정, 모니터링 기능
- 구성 : 도내 유관기관의 장 및 시장, 군수(의장 : 도지사)

○ 시군의 현안파악을 위하여 정례적인 「시군실태 모니터링 조사」 실시

- 공무원 및 시군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슈, 실태, 주민과의 갈등이나 요구사항, 문제점 등 파악

○ 도정의 의사결정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 최종 의사결정 이후 전달과정 이전에 관련 시군과 의견조율 활성화
-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실국별·시군실무협의회 등을 활용

○ 시군 협력강화 및 분쟁조정기구 운용

- 시군 간 분쟁 또는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협력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시군 공동발전 업무활성화를 도모

○ 광역행정협의회의 활성화(인접시도 포함)

- 생활권(도로망) 위주의 응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회 구성 활성화(각종 사업의 연계 협력, 분쟁의 사전예방 등)

제2절 주민참여 지역 뉴 거버넌스¹⁴¹⁾ 구축

1. 필요성

- 본 계획기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통한 강원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기
 - 영동과 영서, 산악지역과 내륙·해양지역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통합과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도정구축에 많은 어려움 존재
 - 세계경제의 하강국면으로 국내의 경제동향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자원의 동원과 투자에 지역적 관심과 경쟁이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
-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주민의식의 성숙과 내발적 발전체계 구축이 진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순환경제 체제가 발아하면서 내적 참여에 의한 지역발전의 욕구가 증대하는 추세
 - 내적자원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과도한 경쟁관계를 표출
- 지방행정체제 개편(시·군 통합)의 실행시기로 시·군간 갈등과 진통 예상

< 지방행정체제개편 계획일정(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

 - 2011. 8월 :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하여 2012.6월 종합기본계획 작성 예정
 - 시군구 통합기준안(검토) : 인구 15만명 이하 시 지역,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만 3천명 인구 이하'인 군 지역,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 (결과예상) 최대 13개 시·군 대상(춘천, 원주, 강릉, 속초, 정선 제외)¹⁴²⁾
- 총체적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

141) 뉴 거버넌스는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분권화·네트워크화·기업화·국제화를 지향함에 따라, 종래의 집권적 관료구조에 바탕을 둔 전통적 행정을 대체하는 개념(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으로 형성. (뉴)거버넌스의 속성개념으로는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network) 또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 민·관의 파트너십(partnership), 공공 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co-production),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기법의 도입 및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최소 국가(minimal state),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등을 말함

142) 참여정부 개편안 ⇒ 춘천·화천·양구, 원주·홍천·횡성, 강릉·동해·삼척·태백, 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인제, 철원은 경기도와 통합

2. 뉴 거버넌스 구축

-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사결정의 틀 구축
 - 민간 주도의 포럼 등을 활성화하여 정책기조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학계 및 행정계의 정책 도출과 추진이 따라가는 체제 도입
 - 단체장의 변경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범도민 운동인 「그레이트 강원운동」을 대표사업으로 전개하여 도민통합 및 거버넌스 구축 분위기 확산
- 강원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거버넌스 체제로 활성화
 - 광역경제권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기구로 각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행정구역과 권역이 일치되어 도청이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¹⁴³⁾
 - 위원회 조직을 행정외부화 하여 지역발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진정한 거버넌스 체계로 육성하여 자치단체장의 변경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전략 창출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단체 NGO활동의 육성
 -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합의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특정한 계층 중심이 아니라 전 도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원 및 교육체계를 조성
 - 지역시민단체들이 활동범위 확대 및 중앙단위에서의 입지 강화 지원
 - 주민과 도정의 협력기반 구축, 자원봉사자 도정 참여 확대, 민간단체 활동력의 적극 이용, 공익적 주민단체 활동지원
-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활용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
 - 건전한 사회적기업 운동의 도내 확산과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프로그램(예,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등) 추진 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건강한 시민 활동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143) 2-3개의 광역자치단체 구역이 통합되어 설정된 타 권역은 위원회와 사무국이 시도청과 별개의 기구로 독립되어 설립되어 사무국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타 권역의 위원회는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강원권의 경우 행정이 주도하는 형태로 도정과 강한 연계성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민간의견수렴이 형식화할 우려 또한 내포

○ 거버넌스 구축 분위기 조성

-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참여의식 미성숙, 수직적 의사결정이 빠른 의사결정방식이라는 인식, 비적극성 및 폐쇄성(비밀주의) 등으로 구축 어려움 예상
- 주민커뮤니티 조직의 활성화, 의견수렴의 과학화와 다양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견 적극 수렴장치 마련
- 사업결과평가제도 마련, 행정정보공개와 시민단체(NGO) 참여 확대
- 강원도 내 주둔 군(軍)의 도민화 등 민관군 협의체의 지속적 활성화 및 기타 주민 참여 활성화와 도민통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 커뮤니티 리더의 체계적 육성

-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행정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사회 리더의 발굴과 육성
- 학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마을발전체계 형성에 기여할 리더 양성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 과제

시 책	추진과제	추진사업(예시)
주민통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강원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제시 · 지역지도층의 단합 및 신뢰회복 ·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 개방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 · 배타적 지역이기주의를 극복 노력 · 주민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레이트 강원 운동 전개 · 행복한 강원위원회 운영 · 지역이미지 사업(RIP) 추진 · 지역사회 리더 양성
주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도정의 협력 기반 구축 · 자원봉사자의 도정 참여 확대 · 민간활력의 적극적 이용 · 공익적 주민단체 활동지원 · 주민커뮤니티 조직의 활성화 · 사업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견 적극 수렴장치 마련 · 사업결과평가제도 마련 · 행정정보공개제도 적극 활용 · 시민단체(NGO)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세상 아카데미의 확산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 주요사업 주민의견수렴 제도화 · 도계획 주요사업 주민평가제 · 정례적 행정수요조사 실시 · 행정정보자료의 DB화 · 주민 종합정보센터 활성화 · 주민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단체 및 NGO활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단체활동의 내실화 · NGO활동의 육성 및 광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협회 등 사업자협회의 활동을 촉진시켜 정책과의 보완성 강화 · 사회적기업을 통한 시민단체의 육성

제3절 국제관계 위상 강화

1. 국제관계 업무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

-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될 전망
 - 「강원도」라는 이름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게 될 것
 - 강원도 브랜드를 프리미엄 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강원도 국제관계 업무의 방향이자 목표

- 조직체계 확충과 직원의 전문성 제고
 - 동북아시아성장회의, EATOF(동아시아관광포럼) 등 국제관계조직의 정비와 내실화
 - 유네스코 창조도시, 세계문화유산, 슬로우시티 등 국제적 지역브랜드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 도청 및 시군청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강화(‘1인 1외국어’ 특성화추진)
 - 민간 전문가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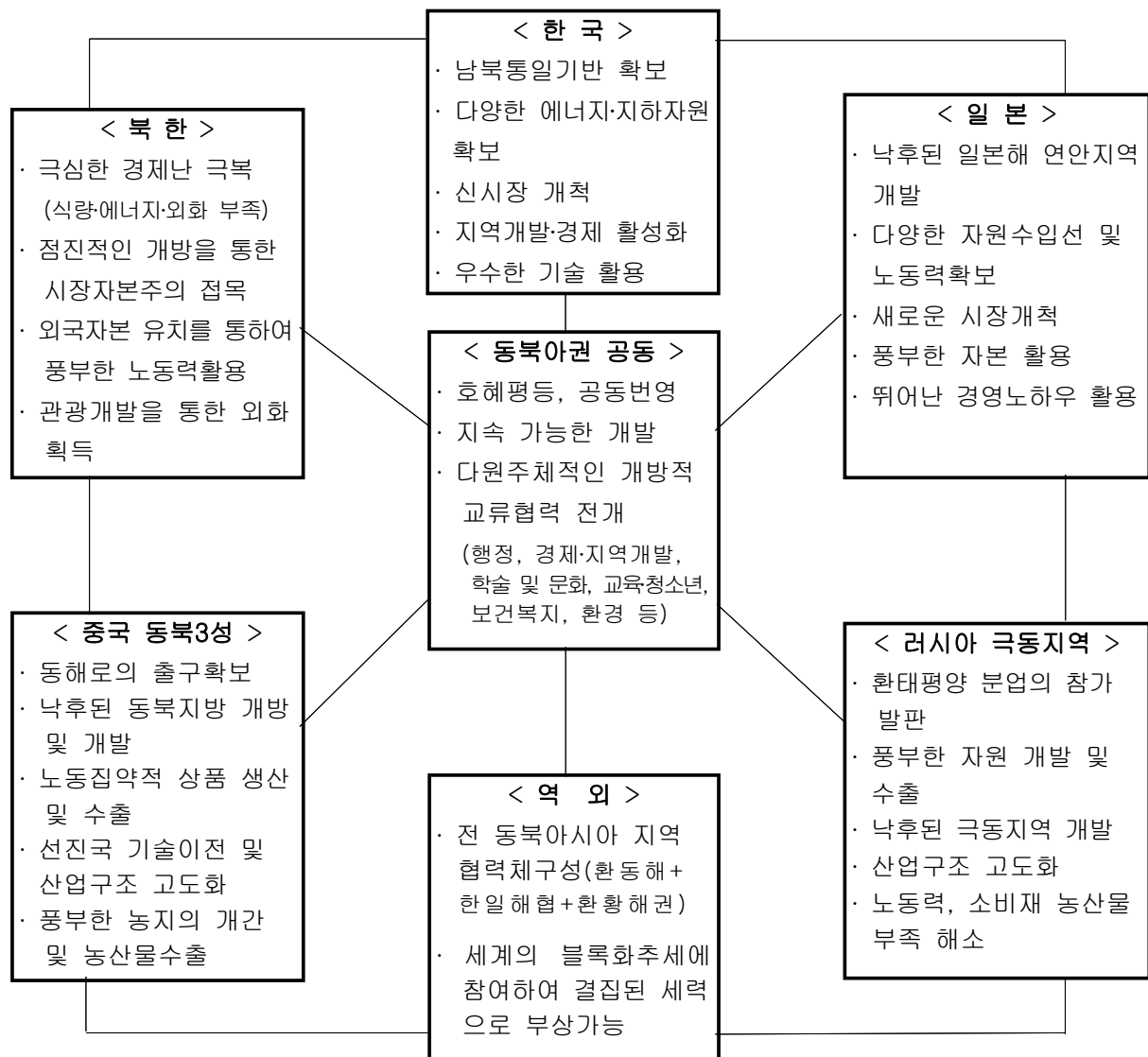
- 지역사회 국제소통 역량강화
 - 학교, 마을단위의 국제문화이해하기 동아리 그룹 활성화 지원
 - 이정표, 간판, 소개책자 등 외국어 표기 확대
 - 강원도 방문 외국인을 위한 휴대폰통역 및 지역안내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 국제교류의 구심력과 원심력 기반구축
 - 국제교류는 사람과 돈, 기업을 끌어들이는 구심력과 해외시장의 개척, 강원도 인재와 기업의 국제진출 등 원심력을 두 축으로 함
 - 도내 교통물류망 구축과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기반 확충 등을 구심력있는 기반으로 활용하여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추진
 - 환동해권과 미주권에 치우쳐 있는 국제교류 대상을 유럽과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까지 넓혀 강원도의 원심력 반경을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노력 필요
 - 특히 FTA 체결이나 TSR 등 교통망 연계를 감안하여 유럽진출 적극 추진
 - * 기 교류협정을 체결한 독일 HWK 등 연계망 적극 활용

2. 환동해권 교류의 내실화

- 본 계획상 북극항로 개발 등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동해권 교류기반이 절대적으로 중요
 - 그 동안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동북아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EATOF 등 기존 교류기반을 적극 활용
 - 2011년 강원도에서 총회가 개최된 GTI(Greater Tumen Initiative) 적극 참여
- 실질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기여

동북아권 교류 및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3.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지속추진

○ 전면 자치시대 출범 이후 강원도와 북강원도는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

- 2008년도 단절되기 전까지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 진행
- 남북백두대간에 대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설지원, 남북 강원도 체육 및 문화교류 등 추진

남북강원도 현황 비교

구 분	강 원 도	북 강 원 도
행정구역	· 7시 11군 187읍면동	· 2시 15군 445개 리동 7노동지구
면 적	· 16,874km ² (남한면적의 17%)	· 11,092km ² (북한면적의 9%)
인 구 (직업별)	· 150만명 (1차 22.4%, 2차 8.8%, 3차 68.8%)	· 분단전 57만명이었으나 원산, 문천 등의 편입으로 현재 168만명(농민 26.4%, 노동자 47.5%, 사무원 24.9%)
농업생산	· 정곡 84%, 채소류 14%, 특용작물 등 2%	· 정곡 76%, 채소류 14%, 특용작물 10%
도 로	· 총 7,001km(포장률 64.6%)	· 총 5,271km
교육시설	· 대학 18, 고등학교 113, 중학교 161, 초등학교 585, 유치원 451	· 대학 13, 고등전문학교 40, 고등중학교 367, 인민학교 399, 유치원 1,300
보건의료 시 설	· 종합, 병원 31, 의원 389(병상수 9,978)	· 군인민·산업병원 36, 리인민병원 82 (병상수 6,670)

* 강원도 미수복지구 : 8군 53읍면 594리 567,734명(통천,화양,평강,이천,김화-철원,양구,고성)
 - 국내거주 미수복 도민 341천명, 도내거주 실향민 543천명

○ 역사와 지리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많이 보유한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강화는 실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북극항로 개척 등 강원도의 국토역량을 강화 및 북한 개방유도
-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설악산 연계개발, 기타 적극적 교류활동 전개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과제

구분	주요 내용
도민적 합의·참여 토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 도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 남북교류협력의 현실과 전망, 통일을 준비하는 도민의 자세 등 - 교육방법 : 농업기술연수원, 여성수련원, 설악수련원 등을 활용하고, 공무원 교육은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담당 - DMZ박물관 등 현장시설 적극 활용
지식·정보 토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연구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의 통일 전후 사회단체간의 분야별 협력실태를 파악하여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방안을 모색 ▪ 접경지역종합관리 방안, 북강원도 편람 등 지속발간 ▪ 기초자치단체와 정보공유체계 구축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진척에 따라 동해안 평화공단 조성 추진
지방정부차원의 협력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사·성장회의」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꾸준히 유도 ▪ 북강원도 혹은 함경북(남)도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어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논의
지역경제와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 확대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과 설악산 및 지역문화재를 연계하는 관광 프로젝트 개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의 제2하나원과 연계하여 탈북주민 수용에 대한 체계적 대책 강구 ▪ 도민들에 대한 탈북주민 수용교육 추진 : 다문화가족의 일환으로 교육 ▪ 민간지원 시설의 확충과 민관협조체제 구축
남북한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강원 도 접경지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는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의 평화구역 조성 및 남북교류도시 건설 ▪ 2단계에서는 남한측 지구의 선도개발 ▪ 3단계는 공동건설 및 완성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간에 단절된 교통체계를 복구하여 교류단계에서 이를 활용, 교류의 장과 협력사업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 ▪ 북한 이주민 정착시설은 예상 이주민의 수를 감안, 단계별로 정착지를 설정하여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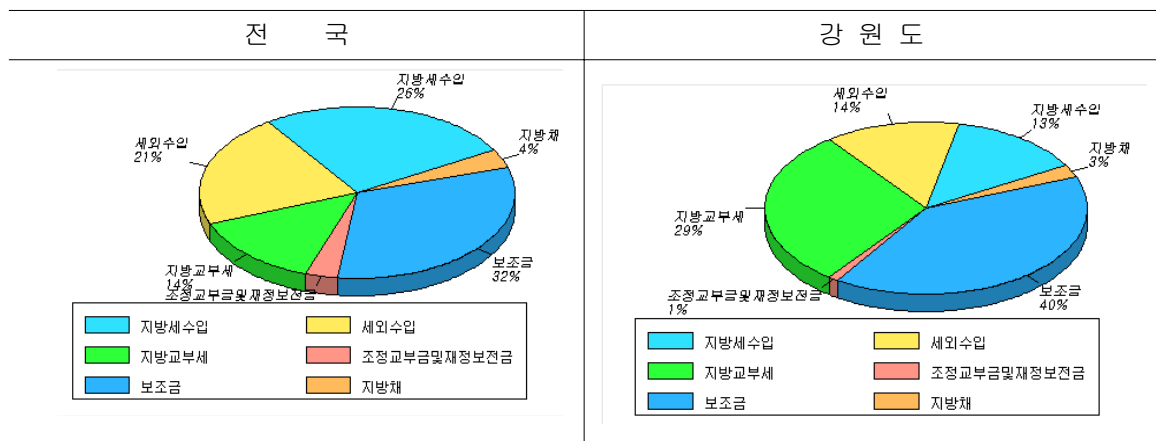
제2장 재정계획

제1절 재정 여건

1. 지방재정 현황

- 2010년 강원도 및 18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는 8조8천억원 수준으로 편성
(도 본청 3조 3325억원, 시·군청 5조 4907억원)
- 낮은 자체(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비율 등으로 재정 건전성은 타 시도 평균 이하

2010년도 지방재정 현황(본예산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고

- 2000년 이후 연이은 재해복구, 지방교부세(2009년) 및 취득세 감액분(2011년)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 증가로 재정운용 압박
 - 2010년말 도 본청의 지방채 규모는 5,864억원(재해 1,279, SOC 3,095, 세수결합 1,470, 기타 20)이며, 시군은 7,746억원
- 도 본청 채무건전성지표는 행안부 기준상 2유형으로 2009년보다 다소 악화¹⁴⁴⁾

144) '09년 대비 '10년 지방채 규모는 112억원 감소하였으나 일반재원이 '08년~'09년('07년/18,497억원, '08년/16,311억원, '09년/15,455억원) 감소하여 지표는 다소 악화

- 도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¹⁴⁵⁾는 27% 내외로 다소 하향 추세이며, 도 본청은 21%, 시평균 26%, 군평균 15% 내외
- － 도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 39.1%(전국 75.7%), 2009년 33.7%

강원도 재정자립도 추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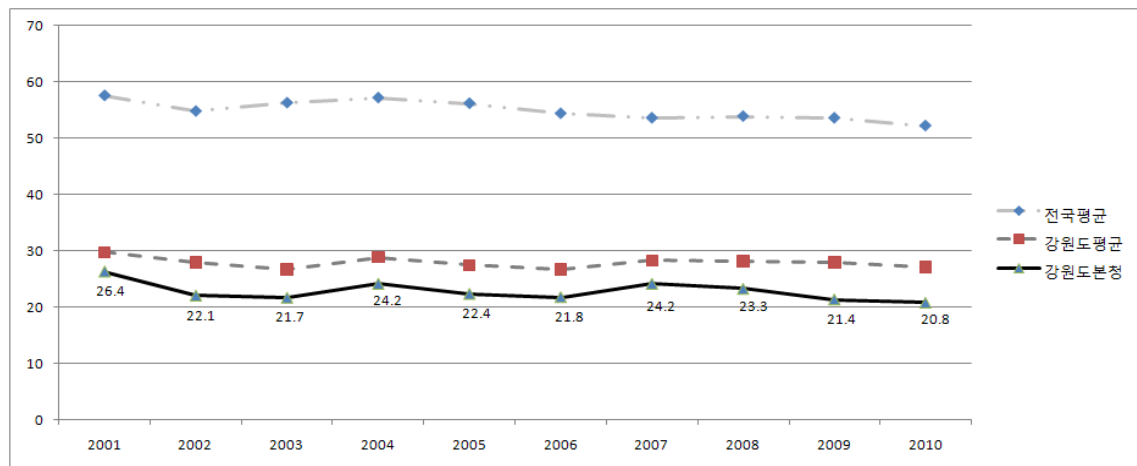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평균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강원도 평균	29.8	28.0	26.7	28.9	27.5	26.7	28.3	28.2	28.0	27.1
강원도 본청	26.4	22.1	21.7	24.2	22.4	21.8	24.2	23.3	21.4	20.8
강원 시 평균	30.5	27.3	26.6	26.7	26.7	25.8	26.7	26.6	25.4	26.0
강원 군 평균	16.5	16.7	16.1	17.3	17.9	15.1	14.9	15.2	15.3	15.4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100,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자료 : KOSIS

-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시 낮은 수준으로 하향 추세¹⁴⁶⁾

전국과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추세비교



145) 재정 자립도는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을수록,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등) 비중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면 자립도는 낮아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활동 역량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정부는 재정자주도의 개념 사용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146) 재정자립도에서 중요한 지방세는 취득세(1/2의 비중), 지방소비세(1/4 비중), 지방교육세(1/6 비중), 지역 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구성되어 구조적으로 부동산 등 경기에 크게 의존

2. 세입·세출 현황

- 세입은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세출은 법정필수 경비·지역개발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결산기준 세입현황은 중앙재원 의존비율(지방교부세+보조금)이 70% 내외로 높은 수준¹⁴⁷⁾
 - 지방세 15-20%, 세외수입 7%내외로 전체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사용료·수수료 징수, 사업수입 등의 경상적 수입보다는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수입 의존도(2010년도 89.9%)가 커서 수입기능 미약

강원도 세입현황(결산서 결산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 계		3,228,546	3,802,462	3,725,020
일반회계	소계	2,754,401(100)	3,362,424(100)	3,244,888(100)
	지방세수입	505,374(18.3)	501,403(14.9)	632,069(19.5)
	세외수입	258,482(9.4)	239,400(7.1)	243,868(7.5)
	경상적 세외수입	34,688	22,279	24,565
	임시적 세외수입	223,804	217,121	219,303
	지방교부세	587,720(21.3)	554,423(16.5)	569,838(17.6)
	보조금	1,372,825(49.8)	1,850,198(55.0)	1,731,613(53.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000(1.1)	217,000(6.4)	67,500(2.1)
특별회계	소계	474,145(100)	440,038(100)	480,132(10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248,280(52.4)	231,849(52.7)	282,008(58.7)
	기타특별회계 (도립대,의료급여,학교용지)	225,865(47.6)	208,189(47.3)	198,124(41.3)

자료 :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서

147)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중앙대지방의 지출 비중은 6:4지만 수입구조는 2:8로 중앙에 집중되어 중앙의 재정 지원에 의존 불가피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 하락

- 강원도 기능별 세출 현황은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전분야 증가하다 2010년
 긴축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기본적 경비 이외 전반적 감소
- － 사회복지, 보건 등 새로운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었으며, 장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소

강원도 기능별 세출현황(결산서 예산액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합 계		3,083,470	3,678,468	3,631,354
일반회계	소계	2,609,325(100)	3,238,430(100)	3,151,222(100)
	일반공공행정	149,053(5.7)	179,562(5.5)	198,193(6.3)
	공공질서 및 안전	90,251(3.5)	115,589(3.6)	151,367(4.8)
	교육	157,322(6.0)	165,042(5.1)	164,926(5.2)
	문화 및 관광	187,563(7.2)	160,807(5.0)	171,922(5.4)
	환경보호	215,574(8.3)	389,381(12.0)	337,210(10.7)
	사회복지	504,496(19.3)	678,473(21.0)	622,532(19.8)
	보건	50,807(2.0)	77,446(2.4)	52,791(1.7)
	농림해양수산	435,693(16.7)	488,957(15.1)	468,854(14.9)
	산업·중소기업	110,666(4.2)	135,903(4.2)	145,430(4.6)
	수송 및 교통	224,582(8.6)	276,219(8.5)	274,069(8.7)
	국토 및 지역개발	264,351(10.1)	341,670(10.5)	325,190(10.3)
	과학기술	3,135(0.1)	2,220(0.1)	2,167(0.1)
	예비비	2,754(0.1)	5,170(0.2)	2,850(0.1)
	기타	213,078(8.2)	221,991(6.8)	233,721(7.4)
특별회계	소계	474,145(100)	440,038(100)	480,132(10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248,280(52.4)	231,849(52.7)	282,008(58.7)
	기타특별회계 (도립대,의료급여,학교용지)	225,865(47.6)	208,189(47.3)	198,124(41.3)

자료 :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서

제2절 강원도 재정전망

1. 강원도 중기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에서 강원도가 상정하고 있는 연평균 재정신장률은 3.9%(자체재원 신장률 5.3%, 의존재원 신장률 3.5%)
 - 2011~2015년 국가 총수입은 연평균 7.2%, 예산수입은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중기재정전망에서는 4.8%로 증가수준 관리계획
 - 강원도의 경우도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3.9%의 보수적 관리계획

강원도 재정 신장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신장률
국가재정	1,968,713	2,012,835	2,099,303	3.3
도(본청) 재정	30,690	33,325	32,251	4.1

*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상 평균 신장률 : 국가 4.8%, 강원도 3.7%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하는 강원도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 가능

강원도 재정의 전망(시나리오)

구 분			과거추세 (2005-2010)	전망 I (2011-2018)	전망 II (2018-2020)
일반 회계	자체 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침체 후 회복추세 일정유지	중폭 증가 점진적 증가	안정/활성화 안정/유지
	의존 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일정증가 증가추세	중폭 증가 중폭 증가	일정증가 일정증가
	계		일정증가	중폭 증가	안정/증가
특별 회계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일정증가 불규칙증감	일정증가 일정증가	일정증가 일정증가
	계		일정증가	일정증가	일정증가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중기연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금 액	신장률
① 세 입	3,460,850	3,606,703	3,772,614	3,937,400	4,056,112	3,766,736	4.0
지 방 세	638,200	683,000	818,000	850,000	922,000	782,240	9.8
세외수입	310,674	206,907	221,220	252,076	242,461	246,668	△4.1
경상적수입	47,441	40,159	39,544	38,293	35,911	40,271	△6.6
임시적수입	263,233	166,748	181,676	213,783	206,550	206,397	△3.4
의존재원	2,511,976	2,716,796	2,733,394	2,835,324	2,891,651	2,737,828	3.6
지방교부세	625,820	654,420	666,569	699,922	729,591	675,264	3.9
국고보조금	1,886,156	2,062,376	2,066,825	2,135,402	2,162,060	2,062,564	3.5
② 경상지출	524,475	571,206	605,322	629,080	641,676	594,352	5.2
행정운영경비	265,003	284,902	293,525	302,418	311,601	291,490	4.2
인력운영비	255,171	274,584	282,705	291,066	299,687	280,643	5.1
기본경비	9,832	10,318	10,820	11,352	11,914	10,847	4.9
재무활동	207,022	230,307	234,713	260,336	260,619	238,599	6.0
내부거래지출	52,670	54,530	55,100	56,200	57,500	55,200	2.2
보전지출	154,352	175,777	179,613	204,136	203,119	183,399	7.3
예 비 비	52,450	55,997	77,084	66,326	69,456	64,263	8.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936,375	3,035,497	3,167,292	3,308,320	3,414,436	3,172,384	3.8
④ 사업수요	3,076,375	3,170,497	3,302,292	3,443,320	3,549,436	3,308,384	3.6
⑤ 부족재원 (④-③)	140,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6,000	△0.9
지 방 채	140,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6,000	△0.9
(채무부담행위)	(3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1,000)	(△3.8)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3,600,850	3,741,703	3,907,614	4,072,400	4,191,112	3,902,736	3.9

2. 강원도 재정전망

- 2011년 하반기에 들어 유럽 및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제경제위기의 재점화와 함께 국가경제 전반에 불확실성 확대로 정밀한 재정전망에 한계

- 지방세 확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지역적으로 밝은 전망
- 정부 의존재원 수입은 내국세의 증가추세,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일부 증가 및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일자리 창출 등 정부기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대 전망
- 정부가 신규 지방채 발행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채무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 등 고려 소폭 증가 전망
- 동계올림픽 경기장, SOC 등 건설, 민선 5기 공약사업, 지역 기반형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접경지역 개발, 소도읍 육성 등 중앙부처 주관 사업,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강원도 본청 재정 규모전망(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본 계 획	재정	39조 9166억	31,846	33,438	35,110	36,865	38,709	40,644	42,676	44,810	46,602	48,466
	사업 비	34조 9669억	27,897	29,291	30,756	32,293	33,909	35,604	37,384	39,253	40,823	42,456
중기재정 계획		-	31,846	33,314	34,806	36,030	37,140	-	-	-	-	-
수정계획 (2008)		46조 9,883억	34,988	37,068	39,274	41,614	44,095	46,726	51,686	54,787	58,077	61,568

주)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부수적 재정소요가 증대한다고 볼 때, 현 중기재정계획상 일반회계 재정 신장률 3.9%보다 높은 5%를 적용하되 2019년과 2020년은 4% 적용하고, 중기재정계획은 전체 재정 중 사업소요액의 비중을 평균 87.6%로 상정한 기준 적용

제3절 투자·재원 조달

1. 강원도종합계획(2012~2020)의 투자소요 추정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투자계획 현황

- 2006~2020년 기간에 도 종합계획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투자 소요액을 약 108조 3,371억원으로 추정¹⁴⁸⁾
- 주체별 투자비중은 국비 55%¹⁴⁹⁾, 지방비 13% 수준, 민자와 기타부분 32%
- 기간별로는 2008~2010년의 3개년간 전체의 42%인 37조원 배정, 2015년까지 33%, 2016년~2020년 기간에 25% 배분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 총투자비 산정

(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비		주체별 투자내역			기간별 투자배분		
	구성비 (%)	금액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08-'10	'11-'15	'16-'20
계	100.0	1,083,371 (100.0)	592,583 (54.7)	138,968 (12.8)	351,820 (32.5)	369,348 (41.8)	291,226 (32.9)	223,916 (25.3)
도시,농산 어촌	15.1	163,912	17,605	22,250	124,057	42,617	32,782	65,565
사회간접 자본	45.8	495,658	409,311	17,374	68,973	177,198	148,697	74,348
산업경제	14.1	152,172	52,411	19,076	80,684	59,347	38,043	22,825
문화관광	12.6	137,027	28,265	35,996	72,766	44,534	34,256	34,256
생활복지	7.0	75,921	56,380	18,266	1,275	24,674	22,776	15,184
환경	5.4	58,677	28,609	26,005	4,063	20,977	14,669	11,735

자료 : 강원도(2007.12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 계획(2008~2020)』

148) 계획수립 중 계획기준년도가 변경되어 기 투자액을 제외하고 2008~2020 기간 중 88조 4,492억원 추정

149) 국비부담이 높은 이유는 도로 등 SOC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등 국가재원조달 정책방향¹⁵⁰⁾

- 2000년대 이후 복지재정의 지출 증가추세 등으로 인프라 재정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 하락¹⁵¹⁾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 여건에 따라 공기지원이 자주 발생하고, 민간투자는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적정한 민간투자 규모 유지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재원조달의 다양화를 제시

- 지방채는 상하수도, 교통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방채 총량규모 설정 관리
- 외국법인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간접자본에도 외국자본을 유치(외국법인과 국내법인 공동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SOC, 산업용지 등 공공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활용 고려
- 민간투자 확대방안으로 민간투자가 비용절감 및 서비스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정부지원비율의 탄력적 운영
-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네거티브 적용 시스템 적용을 통한 대상사업의 다양화 (공공부분과 민간 역할분담 기준 설정)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민간투자 확대, 민관 합동법인 설립,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책 마련

○ 투자비 부담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상 부문별 국·도비 부담률을 고려하여 배분

강원도 예산에서 사업기능별 재원 부담률

(단위 : %)

구분	전체	일반공 공행정	공공질 서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 소기업	수송 교통	국토지 역개발	과학 기술
국고보조금	39.5	0.4	24.1	-	3.6	74.7	69.8	32.1	26.0	14.4	4.4	68.3	5.3
광특보조금	18.3	-	15.1	0.1	23.5	15.3	1.4	0.1	49.8	38.2	19.1	20.0	-
기금보조금	2.5	-	1.1	-	24.6	0.2	1.3	28.2	2.1	-	-	-	-
사·도비	37.4	73.7	59.6	99.9	48.4	9.7	27.5	38.5	22.0	44.8	71.8	11.3	94.7
지 방 채	2.4	25.9	-	-	-	-	-	1.1	-	2.7	4.7	0.3	-

자료 : 강원도(2011.11월),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15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부문별 보고서(제2권) 제14편 재원조달의 다양화 및 효율화 참조

15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SOC 지출비중은 2004년 13.8%에서 2012년 8.0로 크게 낮아졌고 비전 2030(2006)의 전망에 의하면 2030년 복지예산은 GDP의 40% 수준으로 전망

○ 『강원도종합계획(2012~2020)』의 총 투자소요 산정¹⁵²⁾

- 동계올림픽 관련비용을 제외한 투자소요는 121조 2840억원으로서, 2007년에 수립한 수정계획상 투자계획과 유사하게 추정(동계 관련 10조원 별도 추정)

총투자소요 산정 및 분담계획

(단위 : 10억원)

시책부문		총사업비		주 체 별 투 자 내 역		
			%	국 비	지방비	민자/기타
계 (올림픽 제외)		121,284	100.0	67,056 (55.3)	36,111 (29.8)	18,117 (14.9)
계 (올림픽 포함)		131,284	-			
동계올림픽 혁신기반화		10,000	-			
고속물류·교통망 확충		56,677	47.0	39,674 (70.0)	17,003 (30.0)	-
네트워크형 공간경쟁력 제고		12,656	10.4	5,062 (40.0)	2,532 (20.0)	5,062 (40.0)
지속성장 산업기반 형성	R&D·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2,607	10.4	5,043 (40.0)	5,043 (40.0)	2,521 (20.0)
	기존산업의 융복합 신산업화	13,555	11.2	2,711 (20.0)	4,067 (30.0)	6,777 (50.0)
생명다양성 환경기반 확충		5,481	4.5	3,289 (60.0)	1,644 (30.0)	548 (10.0)
스마트·문화공간 조성		5,834	4.8	1,750 (30.0)	1,750 (30.0)	2,334 (40.0)
저출산·고령화 대응사회형성		11,450	9.4	8,015 (70.0)	2,862 (25.0)	573 (5.0)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형성		3,024	2.4	1,512 (50.0)	1,210 (40.0)	302 (10.0)

* 동계올림픽 혁신기반화 사업에 대한 투자비 분담은 구분하지 않음

○ 중기재정계획을 감안 투자소요의 자금 배분율은 국비 67조 560억원(55.3%), 지방비 36조 1,110억원(29.8%), 민자 및 기타가 18조 1,170억원(14.9%)

152) 본 계획은 지침적 방향제시 성격의 종합계획으로서 다양한 부문과 많은 사업을 포괄하고 사업에 따라 발굴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5년 내외 길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특성으로 추진과정에서 규모, 국비지원 수준, 민자동원 등 변수가 많아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을 가능하기 위한 큰 틀에서 국비확보 등 계획달성 효과를 위한 방향을 제시 목적의 한계

○ 연차별 소요는 전반기에 47%, 후반기에 53% 부담으로 전·후반기의 비중조정

연차별 투자비 소요추정

(단위 : 10억원)

시책부문		총 계	연 차 별 투 자 계 획					2016 ~ 2020	
			소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동계올림픽 제외)		121,284	57,125	4,636	10,775	13,877	13,958	13,876	64,157
		100.0	47.1	3.8	8.9	11.4	11.5	11.4	52.9
계 (동계올림픽 포함)		131,284	62,625	4,636	11,775	15,377	15,458	15,376	68,657
		100.0	47.7	3.5	9.0	11.7	11.8	11.7	52.3
동계올림픽 성장동력화		10,000	5,500	-	1,000	1,500	1,500	1,500	4,500
		100.0	55.0	-	10.0	15.0	15.0	15.0	45.0
고속물류·교통 망 확충		56,677	24,258	1,927	4,647	6,178	5,838	5,668	32,419
		100.0	42.8	3.4	8.2	10.9	10.3	10.0	57.2
네트워크형 공 간경쟁력 제고		12,656	6,454	253	1,265	1,645	1,645	1,645	6,201
		100.0	51.0	2.0	10.0	13.0	13.0	13.0	49.0
지속 성장 산업 기반 형성	R&D·신성 장동력산 업 육성	12,607	5,610	315	630	1,260	1,513	1,891	6,997
		100.0	44.5	2.5	5.0	10.0	12.0	15.0	55.5
	기존산업 융복합신 산업화	13,555	7,631	718	1,708	1,925	1,898	1,383	5,923
		100.0	56.3	5.3	12.6	14.2	14.0	10.2	43.7
생명다양성 환 경기반 확충		5,481	2,466	137	417	493	597	822	3,015
		100.0	45.0	2.5	7.6	9.0	10.9	15.0	55.0
스마트·문화 공간 조성		5,834	2,888	204	583	700	700	700	2,946
		100.0	49.5	3.5	10.0	12.0	12.0	12.0	50.5
저출산·고령화 대응사회 형성		11,450	6,469	973	1,374	1,374	1,374	1,374	4,981
		100.0	56.5	8.5	12.0	12.0	12.0	12.0	43.5
재난재해에 강한 커뮤니티 형성		3,024	1,349	109	151	302	393	393	1,675
		100.0	44.6	3.6	5.0	10.0	13.0	13.0	55.4

2. 투자 자원(사업비) 확보 방안

☐ 도 및 시군 재정규모를 감안한 투자소요액의 적정성 판단

- 2011-2020 동안 도 본청과 시군의 총 재정규모는 108조, 사업비 95조 수준
 - 동 기간 도 본청의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는 약 40조, 사업비는 35조 규모
 - 18개 시군의 재정규모가 도 본청 예산의 1.7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추정하면 총 재정 68조, 사업비는 약 60조 규모로 추정
- 동계올림픽을 포함하여 131조원의 본 계획 투자에 있어서 국가부담이 큰 교통물류체계 구축비용이 56조원 포함
- 국가의 교통부문 투자, 도 및 시군의 전체 투자가능 재정규모를 고려해 볼 때, 본 투자계획규모는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
 - 개별사업별 당위성을 가지고 국비 등을 확보하면 충분히 추진 가능

☐ 사업비의 효율적 확보 체계 구축

-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사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단계부터 기준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의 효율화 도모
- 우선순위 사업의 선정기준
 - 중앙정부 추진 및 지원사업 :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강원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 중앙정부에서 부문별 계획을 확정고시하거나 승인한 도단위 계획에 반영된 주요사업
 - 도 추진 및 지원사업 :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도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도의 지원이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
 - 광역적 효과가 예상되는 기초자치단체 사업 : 기초단체가 제시 또는 추진할 사업중 도 전체의 지역발전 방향과 인접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접 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 계획목표의 달성도 :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제시한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상위계획의 구체화·보완사업
- 지역개발 파급효과 : 고용창출, 지역개발의 선도효과 및 타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지역개발효과가 큰 사업, 자치단체 재정수입 기여사업
- 지역간 협력 및 연계사업 : 자원조달이 용이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 기능적 연계성이 높거나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사업, 지역간 협력에 따른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 등

< 중점 추진사업 분야 >

- | | |
|-------------------------|-----------------|
|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 ▪ R&D·과학기술기반 확충 |
|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 | ▪ 강원경제자유구역 조성 |
| ▪ 동해안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체계의 구축 | ▪ 목자형 철도망 구축 |
| ▪ 탄광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성지화 추진 | ▪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화 |
| ▪ 관광 패러다임 혁신사업 | ▪ 생명다양성 확보 |

□ 국고지원 확보방안¹⁵³⁾

○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업 추진

- 동계올림픽특별법 제정 등과 연계하여 국고확보를 통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올림픽 개최 및 개최 이후까지 최소화

○ 국가부문별 계획에 반영된 고속국도, 철도망, 공항, 항만 등 SOC사업분야 예산의 적기 확보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도 현안사항의 국가계획 반영 지속 추진

○ 국고지원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부문별 계획에 반영되고 정부 정책과 정합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정책입안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정부 정책의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의 촉진으로 타 시·도와 연계·협력하는 사업 발굴하여 사업추진 필요성 등 논리 개발
- 2010년말 현재 12개 부처·청이 49개 법률에 의하여 110여종의 지역개발계획을 소관(기능)별로 수립·시행 중이므로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 확보

153)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지원의 한계가 있어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사업을 제외하면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의 큰폭 증가기대는 어려움

- 산업단지, 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간 중복·경쟁으로 효율성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지역 특화도가 높은 강원도만의 전략을 마련 추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접경지원발전종합계획 수립)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수계기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 주민지원 사업 예산 확보
-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시한 연장을 통하여 폐광지역의 재생 및 새로운 에너지 성지화에 필요한 국비재원 확보
- 정부 출연·출자기관 사업유치 촉진 및 각종 기금 등 범정부 예산 확보 강화¹⁵⁴⁾
 -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광해공단 등 지역사업 강화
 -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재정 확보방안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단위 연동으로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재정 목표 설정, 재정전망, 가용재원의 투자계획 등)
- 재정운용의 제도적 사전 심사기능 활성화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
 - 각종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예방으로 낭비 요인 제거 등 효율적 재정 운영
 - 재정운영에 주민참여 확대와 투명성·신뢰성 제고(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재원 확보
 -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매칭펀드 비율 조정)
 - 국세, 지방세 체계를 지방자치제에 적합하도록 타시도와 연계 조정 추진
 - 국세의 지방세 이양유도,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공동세제 설치 등 추진
 - 지방소비세 활성화를 위한 내수기반의 확충 및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내수기반화 전략 마련 시행

154) 2009년말 기준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은 1,733개, 10조 4,073억원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10년 결산 및 ’11년 운용계획)

○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신규세원 발굴

- 민간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의 수익분야 발굴로 세수 증대
- 국공(軍)유지의 교환 및 세원화 방안 검토 추진
- 개인적 서비스 기능이 강한 무료서비스는 유료화,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 민간섹터의 활용 및 지방채의 효율적 활용

○ 지방재정의 지출관리의 효율화

-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예산일몰제(Sunset-Law),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
-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운용, 기금의 효율적 관리
- 재정상황, 채무규모, 상환능력을 감안한 효율적인 지방채 운용·관리
- 행정조직의 기구개편, 행정정보화 활용 경상경비의 축소
- 총액임금제,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제도 정착
- 도 및 시군간 공동사업 추진 활성화로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화 추진
- 민간위탁 및 민영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선심성 재정지출의 배제
- 기업가적 예산제도와 투자사업 모니터링 제도 운용 확행

□ 민자유치 활성화¹⁵⁵⁾

○ 민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시설의 운영방식, 부대사업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제고기법 개발

- 초기단계부터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도입(경쟁제도 확립)
- 제3섹터방식을 비롯하여 민자유치방안의 다양성을 확보
- 사업특성에 따른 지원과 사업추진
- 민자유치 전담기구의 강화 및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활성화

○ 강원도의 글로벌 기업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투자여건 및 유치시스템 개선

- 외자유치환경의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사용료와 매각대금 감면
-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등 간접투자 유치, 브리지론의 조달
- 자치단체, 중소기업, 민간,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공동출자한 지역신용보증기금조합의 활용

155) 국공과 지방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역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단으로 민간의 활력활용을 통하여 민간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선순환의 정책으로 강원도는 기업유치만이 아니라 관광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의 건설이나 환경투자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전략 필요

민자유치 마케팅 전략



투자여건 및 유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



□ 민간운영 성격의 공공재원 확보 추진

- 공단, 공사, 투자기금 등 공공자금이지만 민간방식의 운영을 지향하는 재원의 유치 및 개발
 - 강원도의 개발목표에 맞춰 정부의 공사 등 사업유치
 - 관광공사 등 강원도 혁신도시에 입지하게 될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촉진
-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체육진흥공단 등 자금유입 활성화
 - 필요시 이들 기금이나 자금,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하는 제3섹터 투자 방식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



제5편 시군별 특성화 발전방향

시군별 비전의 경과

시군	강원의 비전 21 (1996 수립)	제3차강원도종합 계획(2000-2020)	강원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08-2020)	강원도종합계획 (2012-2020)
춘천	문화예술·관광·교육 도시	문화·국제도시	교육·문화, 첨단지식산업, 레저·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수도권 첨단산업 · 레저관광 휴양도시
원주	청정산업·전원도시	물류·유통·산업도시	물류·유통·교통중심 「국토 중부내륙거점도시」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 경제도시
강릉	관광·문화·교육도시	전통문화 시범도시	첨단과학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단오문화· 창조도시」	단오문화와 올림픽 창조도시, 『세계 속의 중심도시 제일 강릉』
동해	환동해권 물류유통 및 생산의 중심도시	환동해 물류유통 산업 도시	환동해권 「산업·물류도시」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 특구 동해
태백	4계절 체류형 종합 관광 휴양도시	고원레저스포츠 메카도시	사계절 휴양·레포츠산업 중심의 「고원관광휴양도시」	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도시 태백
속초	국제관광·교류거점 도시	국제관광 시범도시	환동해권 「국제관광 거점 도시」	환동해권 국제관광 · 물류 중심 도시
삼척	해양 · 고원 문화 관광도시	동굴관광·문화도시	해양·동굴·산악관광이 어우러진 「방재산업도시」	해양·역사·문화자원·동굴관광이 어우러진 북핵에너지거점도시
홍천	산림·과학·휴양도시	산업·휴양 복합도시 전통발효·의료건강 산업	무궁화 고장, 「생명건강 산업도시」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 홍천
횡성	강원내륙의 새로운 관광·산업지대	산업·휴양 복합도시	한우의 고장, 「전원휴양 복합도시」	청정녹색도시, 미래의 땅 횡성
영월	전통과 역사를 접목 하는 4계절 종합 휴양지대	문화관광도시	역사문화, 생태, 감성이 함께하는 「생태문화감성 도시」	전통과 자연, 인간이 함께하는 창조도시 영월
평창	레저·스포츠·산림중심 지로서 휴식공간이 구비된 전원지대	리조트·산림 휴양거점	세계적 동계스포츠의 메카 「HAPPY 700 도시」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
정선	풍요롭고 활기찬 고원리조트 관광지대	카지노 리조트·관광 도시	아리랑의 고장 「사계절 테마복합휴양도시」	세계 속의 레포츠·문화콘텐츠 도시 정선
철원	통일관광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	남북교류시대 신기능 도시	통일한국의 중심지, 한민족 평화 생태도시	평화·생명·생태의 국토중심 철원
화천	호반과 산림이 조화된 전원 휴양지대	호반휴양 전원도시	물과 얼음의 나라 「수상생태도시」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
양구	청정환경과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금강산 내륙관문	생태환경도시	생태·문화예술·안보자원이 어우러진 「국토정중앙 테마도시」	생태·문화예술·안보자원이 어우 러진 「국토정중앙테마도시」
인제	전지역 4계절 자연 관광 · 휴양지	청정·평화생태도시	하늘이 내린 생태·청정 지역 「모험레포츠도시」	청정, 친환경의 목적지형 테마 관광도시 인제
고성	통일관광과 금강산 길목으로서의 남북교류· 관광지	남북교류시범도시	남북평화관광의 관문 「통일관광특구도시」	녹색성장 통일고성
양양	해양전원 관광휴양지	공항·컨벤션도시	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물 류중심 「지역국제관문도시」	환동해권 관문 관광레저 휴양 도시 양양

제1장 춘천시

비전 : 수도권 첨단산업 · 레저관광휴양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276,232(18.77%), 가구수 : 103,815(18.51%), 주택수 : 85,479(15.93%)
경제실태	GRDP : 3,702,798(14.07%), 농림·어업 : 2.68%, 광업·제조업 : 4.60%,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92.72%
토지현황	면적 : 1,116.56km ² (6.62%),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9.90%, 임야 : 75.90%, 대지 : 1.58%,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43%, 도로·철도용지 : 1.75%,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9.3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41%,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66%
행정구역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고속교통망의 구축과 더불어 인구 및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지역거점도시
 - 1995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춘천시와 춘천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시 구성
 - 시계의 면적은 53.3km²(전체 통합시 면적의 4.8%)에 불과하여 현재 기존 동(洞)지역의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추세
 - 화천, 양구, 인제, 홍천 및 경기도의 가평군까지 포함하는 거점권 형성
 - 춘천의 대학에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수도권 대학생 입학
- 캠프페이지 이전 등 도심지 내 유휴 공지가 남아 도시발전 잠재력 보유
 - 캠프페이지 부지는 기존 도심내부와 연계되는 중심지 입지
 - 의암호반과 중도 등 공유지와 연계되는 장점 보유
- 풍부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강원도 수부도시로서 교육, 문화와 관광레저 및 지식기반산업의 발달기대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총 저수량 31억3천만톤, 발전량 30만2600kw
관광자원	국민관광지(춘천호반, 남이섬, 구곡폭포, 청평사) 자연휴양림, 경춘선 폐철도구간, 리조트 확충(강촌, 라데나, 무릉도원, 위도, 신안박, 한원)	연간 900만명이 찾는 강촌 청소년 MT 코스 등 가족단위 관광지 분포
광산	춘천옥광산	옥 관련제품 생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명음식	닭갈비, 막국수, 민물고기 관련 음식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브랜드 형성
교육기반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송곡대, 폴리텍III대학, 강원체육고	지식자원의 집적
산업기반	바이오(BT)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SCRIPPS 연구소 유치	200여개의 바이오업체 입지(거두농공단지 집적) 산업단지 조성 중(8개단지)
	영상문화(ICT)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더존 IT그룹,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NHN연구단지	동북아 최대의 창작산업단지(서면 19만여 m ²)

2. 공간발전 방향

○ 동북부 교통 요충지로서의 공간체계 형성

- 강원내륙(화천, 양구, 인제, 홍천)과 경기 동부(가평)를 광역적 기능 연계축으로 설정하고 춘천시를 광역권 중심 기반으로 발전
- 남부(춘천~철원)축, 동서(춘천~양양)축 고속도로의 조기완공과 동서(춘천~속초)축 철도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남춘천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공영차고지와 물류유통 센터를 건설하여 중동부 내륙지역의 교통, 산업, 물류,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광역적 기능을 연계 구축

○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공간 창출

- 춘천의 도시공간체계는 후평공단 일대와 중도지역, 호반지구 등 잠재력을 갖춘 공간과 반환공여구역(캠프페이지) 및 낙후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종합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하여, 도시골격을 형성
- 도심지역내 중도일대, 공지천, 약사천 등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이미지 제고
-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통하여 내부밀도 고도화

3. 산업발전 방향

- 춘천의 5대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 정보, 문화, 관광·레저 환경산업 등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원천적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수요 창출

- 수도권 시대 기업입지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 2010월드레저경기대회의 주 개최지인 송암스포츠타운을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 중심단지로 육성
- 지역의 우수한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 저탄소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

제2장 원주시

비전 :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 경제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311,449(21.17%), 가구수 : 114,787(20.47%), 주택수 : 105,988(19.75%)
경제실태	GRDP : 5,131,168(19.50%), 농림·어업 : 1.64%, 광업·제조업 : 23.6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74.70%
토지현황	면적 : 867.48km ² (5.1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15.29%, 임야 : 72.31%, 대지 : 2.34%,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90%, 도로·철도용지 : 2.78%,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4.49%,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63%,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1.26%
행정구역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중앙동, 원인동,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강원도에서 가장 큰 인구규모의 물류·유통·교통중심 국토중부내륙 거점도시
 - 도내 유일의 인구 30만 도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추진
 -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조적 레저관광 산업기반 및 정주기반 확충 추세
- 원주공항이 입지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 중앙선 철도가 통과하는 입지적 우위성으로 산업·유통의 거점으로 성장
 - 국토의 중앙에서 동서 및 남북 국토축이 교차하는 결절점에 발달한 도시
 - 광역고속교통망 구축에 따른 국토중부내륙 물류·유통·산업 거점 요청
 - 북원문화·산업관광권 거점으로 문화·리조트 관광 활성화
-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발달
 - 강원도에서 제조업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단일 수출품목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발달
 - 높은 자동차부품 등 기계산업의 집적도
- 원주~강릉간 철도 부설 등 교통기반의 확충으로 산업집적도 증대 전망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원주~강릉간 철도부설 및 제2영동고속도로 추진
 - 도시내부 군 사령부 등 향후이전을 고려할 때 개발 잠재력이 높은 토지보유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관광자원	치악산 국립공원, 간현관광지, 관음사, 칠봉, 흥호리, 오크밸리 리조트 등	횡성, 영월, 제천, 여주 등지로 연결되는 산림과 하천 연계자원이 풍부
산업기반	문막산업단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세대학교 의료공학연구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강원도의 대표적 산업도시
문화자원	강원감영터, 생명사상, 옷 산업, 한지산업 등 전통문화산업, 박경리 토지문학관	북원문화권의 중심도시
교육기반	연세대, 상지대, 한라대, 상지영서대, 강릉원주대(원주캠퍼스), 과학고등학교	지식기반 집적

2. 공간발전 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푸른 도시 조성을 통한 수도권 배후타운 기능 수행
- 문막(동화)지구, 부론(노림)지구 등 자족형도시(산업단지) 조성
- 자전거 전용도로, 다목적체육관, 시민골프장조성 등 생활체육·여가시설 확충
- 문막도시 재정비 및 농촌도시 환경 정비
- 고속도로 IC 및 전철 역세권 개발

○ 교통망 구상

- 원주공항 활성화, 원주~강릉간 철도부설, 중앙선(덕소~원주,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 철도망(춘천~원주~청주), 수도권 제2순환철도망 연결, 성남~여주간 전철구간 원주까지 연장, 영동고속도로(여주~원주) 6차선화, 제2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원주) 조기 구축 등
- 국도19호, 42호 확충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원주권 외곽 순환도로 건설(지방도),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건설 추진

3. 산업발전 방향

○ 산업구상

-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러스터 구축(춘천~홍천~횡성~원주)
- 연구개발 및 상품화 중심, 지역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옷, 한지산업 등 연계)

○ 창조적 레저관광산업기반 확대

- 복원문화·산업관광권 거점으로서 향토역사문화 복원, 문화·리조트 관광활성화
- 레포츠·리조트밸리 특성화축 활성화 및 리조트 연계 컨벤션산업 육성
- 레저관광산업기반 확충(의료기기 및 전통산업, 농특작물 생산 연계)

-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 복원문화권 조성 및 문화관광지 개발
- 500년 강원강령복원사업 및 원주 얼 선양사업 추진
- 첨단 양·한방의료관광지 등 의료기기산업의 관광자원화
- 지역축제 활성화(강원강령제 등), 레포츠·리조트밸리 관광 조망점 조성

제3장 강릉시

비전 : 단오문화와 올림픽 창조도시, 「세계 속의 중심도시 제일강릉」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218,471(14.85%), 가구수 : 84,511(15.07%), 주택수 : 74,115(13.81%)
경제실태	GRDP : 2,961,768(11.26%), 농림·어업 : 2.46%, 광업·제조업 : 10.8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6.70%
토지현황	면적 : 1,039.71km ² (6.16%),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10.48%, 임야 : 80.90%, 대지 : 1.55%,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53%, 도로·철도용지 : 2.37%,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2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16%,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74%
행정구역	주문진읍,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백두대간과 동해안을 앞뒤에 둔 전형적 배산임수의 동해안 거점도시
 - 동해안 6개 시군과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강원도 거점도시 역할
 - 거점권역 내 각 시군 개발과 관광지역 쇠퇴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인구감소 추세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관광휴양자원 보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새로운 전기 마련
 - 동계올림픽의 스케이팅 경기 예정도시
 - 2017년까지 원주~강릉간 철도개설로 서울 1시간권, 인천국제공항에서 90분 이내 접근권 구축
-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옥계·동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시화 전망
 - KIST강릉분원에 이어 포스코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설립(2011년 6월 결정),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해수리튬연구센터 설치 등 R&D기능 확충 추진
 - 녹색소재 부품산업과 포스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강릉의 산업발전이 기대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문화유산	강릉 단오제(세계문화유산 지정), 청학동 소금강(국가명승 1호), 경포대(관동팔경의 으뜸), 오죽헌, 선교장, 임영루 등 다수	강원도내 국가지정문화재의 1/4 소유, 전통문화도시,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지정
국도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기타 대관령	백두대간의 산림자원을 대표
해수욕장	경포, 옥계, 연곡, 주문진, 안목 등, 기타 송림	청정 푸른 바다 자원을 대표
산업기반	과학산업단지, 관광산업, 교육산업,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이 높고 제조업이 취약한 구조
교육기반	강릉원주대, 관동대, 영동대, 강원도립대, 강원예술고	지식자원 집적

2. 공간발전 방향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창조도시』 조성

- 창조산업(문화콘텐츠)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고품격 문화 인프라 구축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구건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의 전면적 재구조화 추진
- 경포지역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 → 강릉시 전체 공간의 녹색도시화 추진
- 남부권은 경제자유구역 조성하고 연계하여 재정비 추진

○ 교통망 구상

-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추진
- 전철, 역세권 및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하고 연계, 강릉시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 녹색화, 네트워킹화, 대중교통 중심
- 양양국제공항과 알펜시아 리조트와 연계망 확충

3. 산업발전 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하고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환경산업 육성
- 강릉과학산업단지 활성화
- 초경량 회소금속 소재 산업단지 조성(경제자유구역 조성하고 연계)
- 농산어촌 산업의 6차산업화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 2012강릉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추진, 강릉 예술창작인촌 운영, 강릉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속 육성

○ 관광 구상

- 환경과 경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지 조성
- 강릉 단오제 등 강릉시 문화자원의 국제적 관광상품화
- 오대산 국립공원지구와 경포 저탄소녹색시범도시를 연계하여 생태관광상품 개발
- 동해안 요트 리조트 건설추진, 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지화 추진
-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추진

제4장 동해시

비전 :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 특구 동해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90,574(6.16%), 가구수 : 334,180(6.09%), 주택수 : 33,872(6.31%)
경제실태	GRDP : 2,164,574(8.23%), 농림·어업 : 0.70%, 광업·제조업 : 23.51%,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75.79%
토지현황	면적 : 180.13km ² (1.07%),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8.58%, 임야 : 75.55%, 대지 : 3.56%,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2.53%, 도로·철도용지 : 3.97%,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00%,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27%,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2.53%
행정구역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삼화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동해항과 묵호항을 기반으로 강원도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관광과 교역 및 산업도시
- 동북아 지중해시대를 선도하는 첨단산업·물류 경제협력 거점도시로 발전 전망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 동해·묵호항과 동해자유무역지역, 북평·송정산업단지 등 입지
 - 한·러·일 국제 크루즈페리, 한·러 컨테이너선 정기운항
 - 비철금속 특화단지 조성 추진 등
 - 수도권, 남과 북,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결되는 연결망 확충 등 순환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영동지역의 교통·물류 중심지 도약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두타산, 청옥산과 무릉계곡, 추암, 천곡동굴	자연관광자원 풍부
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전 지역에 해수욕장 분포
산업기반	북평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동해항, 묵호항, 석회석 자원과 시멘트 회사, 비철금속, 해저케이블 생산단지 집적, 화력발전, 국가산업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시멘트 산지, 울릉도 항로 운영
교육기반	한중대학교	강원대(삼척캠퍼스) 인접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동해항, 묵호항, 산업단지 등 산업·물류거점 확충
 - 묵호항 수산+상업+관광레저 기능 워터프런트 개발, 묵호항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 활성화
 - 녹색생태도시(Green eco-city)기반 형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 초록봉 일원 및 전천 생태하천 시민 여가공간 조성, 동해 천연가스 시범도시 조성, Blue Ocean사업, 승마장 조성 등 체육기반 확충
 - 동해·묵호항 개발(컨테이너 전용부두 조성, 배후 물류유통단지 조성, 부두 야적장 확장, 국도·철도 등 기간교통망과 동해항 연결사업 등)

○ 교통망 구상

- 망상~옥계간 7번국도 확장, 달방댐~임계 42번 국도개설,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 동해 중부선 철도(포항~삼척) 건설에 따른 철도요충지 도약
-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동해항 연장으로 해양·내륙 교통망 전략 수립 및 동해항을 동계올림픽과 북극항로의 거점항만으로 지정 추진
- 국제항로 연장 등 해양 실크로드 구축
 - 크루즈페리 항로연장(쓰루가항), 울릉도 여객선 특성화(위그선, 크루즈 등)
 - 동해항과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등의 주요도시와 항로 개설 확대
-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정비, 도시내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확충
- 주요관광지 순환연계 버스체계 구축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3대권역 성장동력 강화전략 추진
 - 동해항 권 : 동해항 3단계 확장 본격 시행으로 환동해권 해양 물류 허브항 육성
 - 묵호항 권 : 묵호항 재개발 본격화로 해상관광 중심항만 개발
 - 산업단지권 : 북평·송정산업단지를 첨단, 신소재 중심의 전략산업 단지로 육성
- 비철금속 특화단지 조성전략 추진
 - 페로망간, 페로니켈, 페로실리콘, 페로알로이 등 비철금속산업 클러스터 조성
 - LME(런던금속거래소) 항만 지정 추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수산물 가공 특성화, 목재가구산업 등 육성

○ 관광 구상

- 건강을 테마로 한 환동해 국제해양관광거점 육성
 - 무릉계곡 석회석 폐광지 일원 대체산업 육성(건강생명체험단지)
 -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조성, 의료관광 활성화, 해안탐방로 조성
 - 관광 벨트화 전략 : 망상~무릉계 벨트, 해양벨트, 백두대간 벨트
- 해오름 리조트, 한섬유원지,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등 해양레저지구 개발
-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 및 문화·웰빙 등 관광코스 개발
 - 마리나 항만 지정 육성, 산악형 레포츠 산업,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 지역 대표브랜드 자원개발 : 묵호 관광명소화, 묵호 북어 향토자원화

제5장 태백시

비전 : 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도시 태백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51,558(3.50%), 가구수 : 20,158(3.59%), 주택수 : 20,249(3.77%)
경제실태	GRDP : 714,623(2.72%), 농림·어업 : 1.18%, 광업·제조업 : 16.2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2.55%
토지현황	면적 : 303.53km ² (1.80%),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5.31%, 임야 : 88.96%, 대지 : 1.19%,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30%, 도로·철도용지 : 1.62%,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1.7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13%,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73%
행정구역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장성동, 철암동, 구문소동, 문곡소도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 국토 중동부 백두대간의 중심도시
- 강원 남부 탄광지역 산업도시로 번영을 누렸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침체
 - 1987년 12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 인구센서스 상 5만명 정도 감소
 -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지역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 인프라 재구축 및 대체산업 조성 프로그램 진행 중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검룡소, 황지, 태백산 도립공원, 용연동굴 등	태백산 정기를 쫓아 무속인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자연환경자원이 풍부
문화관광자원	산림자연자원, 석탄산업문화 자원, 오투리조트	백두대간의 중심, 정선 카지노의 배후도시
산업기반	석탄자원, 고원 농업기반, 서비스기반	산업기반이 취약
교육기반	강원관광대학	삼척 도계 강원대 캠퍼스가 인접

- 강원도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잠재력 보유
 - 중앙고속도로와 38번 국도를 통하여 서해안 도시 및 국토남부 대도시권과 90분대 접근권
 - 31번 국도가 개선되면 경상북도 북부권을 통하여 대구, 부산 등 대도시권과 획기적 접근도 개선
 -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를 이용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 700M 고원지대에 도시가 입지하여 여름철 경쟁력 있는 휴양도시 발전가능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도시재생을 위한 발전축 설정

공간발전축	지역간 균형개발 및 미래지향 축으로 지속적 개발 유도
산업발전축	스포츠 산업단지·박람회, 태백한우 명품화 등 연계한 산업 개발
관리보전축	태백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개발유보축	산악·구릉지역의 보전위주 개발로 향후 여건 변화에 탄력성 부여

- 장성권역, 화전권역, 소도권역, 철암·통리·백산권역, 상·하사미권역 부도심의 개발
- 황지 중심 시가지와 주변생활권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개발
- 생활공간구조와 기능의 재편성을 통해 정주기반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도모

○ 교통망 구상

- 동서4축 고속도로(안동~삼척), 태백·영동선 복선화 등
- 미래형 신도시 기준에 맞는 도시교통망 구축
- 도심~부도심 연계체계 구축 및 항공교통망 구축(경비행장) 등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청정 석탄기술 산업을 토대로 '대한민국 에너지 성지'화 전략 추진
- 발효·건강식품산업, 고원약초산업, 고랭지 채소, 태백한우, 산림자원개발 등 지식 기반형 농·임업 및 축산업 육성
- 카지노 관련 기계부품산업, 장성농공단지의 전문기업 지구화 및 철암농공단지 활성화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대체산업 육성

○ 관광 구상

-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 축제 재평가 및 신규축제개발 등 사계절 축제 육성 발전
 - 탄광문화에 걸맞는 석탄테마파크 조성
 - 건강휴양타운 스파 단지 등 웰빙관광휴양지 개발
 - 물의 여행, 전설여행, 생태체험 등 테마형 관광코스개발
- 서학레저단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강원랜드 2단계사업, 여가 위락형 숙박테마 단지 정비, 스포츠산업 육성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
- 태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적 계승발전
-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 청소년의 도시(Youthpia) 조성
- 도시 전역 공원화, 하천경관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

제6장 속초시

비전 : 환동해권 국제관광·물류중심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80,791(5.49%), 가구수 : 31,466(5.61%), 주택수 : 31,143(5.80%)
경제실태	GRDP : 940,593(3.57%), 농림·어업 : 2.51%, 광업·제조업 : 2.5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94.95%
토지현황	면적 : 105.31km ² (0.62%),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8.92%, 임야 : 74.77%, 대지 : 5.52%,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93%, 도로·철도용지 : 3.32%, 하천·제방·구가·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69%,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1.28%,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1.56%
행정구역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환동해권 국제물류 중심도시로의 가능성 잠재

- 중국의 동해 진출과 북극항로시대를 맞아 속초항은 ‘백두산 항로와 동북아 국제해리 항로’를 통해 북한은 물론 극동러시아, 중국동북 3성, 일본 중북부지역을 잇는 환동해권 해상교통망의 시발점 역할 수행 기대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면 직접적인 수혜지역
- 속초시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양양국제공항 및 대륙횡단철도(TSR)와 연계 등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로의 발전 잠재력 보유

○ 설악권의 대표적인 관광·수산 중심도시

- 설악~금강 연계 관광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높음
- 접경지역 및 동해안 남북교류의 배후중심도시
- 최근 국민여행패턴이 글로벌화하고 타 지역 관광개발이 가속화되었으며, 또한 설악권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좁은 행정구역과 국립공원 지역 비중이 높아 개발 여유부지가 적고 수자원 부족

- 6·25 당시 북한 피난민의 급증, 명태 및 오징어잡이 계절의 대규모 유동인구로 인하여 비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관광도시 이미지 부족
- 토지 및 수자원 부족으로 대규모 개발행위 제약
-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본격화될 경우 설악권의 통합으로 발전시너지 확충 잠재력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설악산 국립공원, 석호(청초호, 영랑호), 척산온천지구, 바다, 청정해변 등	국립공원의 대표지구(설악동)
문화관광자원	사찰문화(신흥사), 아바이 마을 등 북한 이주민 문화, 등산문화, 수산어업문화 등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북한 이주민 등 다양한 지역배경이 얹힌 복합지역문화 형성
산업기반	수산업, 속초항, 동명항, 대포농공단지, 리조트 등	관광 서비스산업과 수산업 기반이 충실
교육기반	동우대학, 경동대학(고성군) 인접	동우대학 이전계획 추진 중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고품격 호텔 중심의 숙박시설 확충, 청정교통 인프라 및 순환교통망 구축
- 도시개발사업 추진 : 영랑동 친환경사업, 노학동 복합형 주거·관광개발 진흥지구 지정, 설악동 재개발 및 모노레일 설치, 중앙동·조양동 주택재개발 사업,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

○ 교통망 구상

-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추진, 동해고속도로 하조대~속초구간 조기개통, 동해북부선 철도연장 조기추진, 국도46호선 4차로 확포장 등
- 국제크루즈·컨테이너 전용항만 건설, 러시아·북한산 수산물 수입전용 항구육성, 국제항로(중국, 러시아, 일본) 활성화 추진 등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대포 제2·3농공단지,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 HACCP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속초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RIS) 등 해양·수산가공 산업 육성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산업기반 구축 및 관광자원화
 - 「수입수산물 물류유통」, 「사계절해수체험관광단지」 조성
 - 수산물 축양시설, 휴양·의학분야, 관광형 바다목장화, 경제성 있는 어패류 종묘 방류,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 관광 구상

-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속초권역 등 「한·중·러 관광특구」 지정·추진
-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확충 : 척산휴양촌 온천리조트,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 영랑호 주변 관광지 개발, 속초 아쿠아리움 건설, 청초호내 마리나항구 개설, 도심지 「설악로테오 거리」 조성, 자생식물단지 조성 등
-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 건립
- 트레일관광 테마코스 조성 : 해파랑길, 산소(O₂)길, 동해안 낭만가도 등
- 친환경·문화 관광기반 조성 : 청초호 해상공원, 통일관광 신흥민문화타운 등

제7장 삼척시

비전 : 해양·역사·문화자원·동굴관광이 어우러진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67,454(4.58%), 가구수 : 24,471(4.90%), 주택수 : 27,673(5.15%)
경제실태	GRDP : 1,364,113(5.18%), 농림·어업 : 3.41%, 광업·제조업 : 33.8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62.72%
토지현황	면적 : 1,186.15km ² (7.0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6.23%, 임야 : 88.32%, 대지 : 0.61%,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7%, 도로·철도용지 : 1.52%,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2.71%,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18%,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26%
행정구역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강원도의 대표적 광공업도시로서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갖춘 동해 남부 관문 도시
 - 도계읍의 탄광과 삼척항 및 철도를 통한 석탄, 석회석 물류체계 발달
 - 삼척항은 동해안의 어항으로서도 중요한 역할
 - 풍부한 석회암 동굴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휴양림, 해수욕장, 문화재 등 보유
-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접근망의 취약성으로 상대적인 낙후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 신소재·방재산업, 천연가스 및 발전단지 등 전략산업 잠재력 보유
 - 해양, 동굴,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종합관광 휴양지로 관광·리조트산업의 높은 잠재력
 - 동해고속도로의 삼척연장, 7번국도의 고속화, 삼척~포항 철도의 부설, 38번 국도의 확충 등으로 남부 관문거점기능 전망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오십천, 가곡천, 호산천, 대이동굴지대(환선굴, 대금굴 등), 자연휴양림, 삼척, 맹방 등 해수욕장, 미인폭포, 이천폭포, 용추폭포 등	풍부한 동굴지대와 계곡 및 해변자원
문화관광자원	죽서루, 실직국왕릉, 준경묘, 영은사 팔상전, 해신당, 너와집, 삼척읍성, 두타산성, 광덕정 등	예전의 왕조 및 산간해양의 역사문화 자원 산재
산업기반	삼척항, 덕산항, 장호항, 호산항, 산업단지	천연가스인수기지 조성 중
교육기반	강원대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이공계열의 교육기반 집적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 공간구성
 -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복합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 환동해권 물류수송을 위한 세계적 종합 물류항인 호산항 건설
 - 정주테마마을 및 세계 동굴 문화마을 조성
 - 정라진 매립지 공원화 및 해상먹거리센터 조성, 심포지구 종합개발
 - 생활권별 도계지역 등 도시환경 정비

○ 교통망 등 구상

- 수도권 등 연계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 동서 4축(안중~음성~제천~태백~삼척)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망 구축
 - 동해고속도로(삼척 근덕 상맹방~동해 용정동 18.6km) 조기 확충
- 국도 38호선(태백 통리~삼척 미로 4차로 45.1km) 확충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복합에너지거점도시 육성 : 원자력, 종합발전단지, LNG생산기지, 클린에너지 콤플렉스 산업단지 등
- 소방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소방방재산업단지 및 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 소방방재산업 R&D단지, 재해정보과학센터, 기술연구센터, 방재산업 비즈니스센터, 소방방재 교육시설 등
- 소방방재산업진흥원을 통한 기업지원과 방재관련 기업유치, 기술개발지원, 고부가가치제품 양산체제 구축
- 지역연고산업육성 : 폐석탄신소재 원료생산 집적화, 첨단유리소재 특성화사업
- 세계유기농수산물연구센터, 국제유기농교육원 설립 등 유기농·교육특화지구 조성

○ 관광 구상

- 삼척 관아(죽서루) 복원, 이승휴, 이사부장군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화 복원
-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등 신규관광지 조성
- 환선굴·대금굴 연계개발 및 동굴관련 이벤트 정례화
- 해상 케이블카 및 해안레일바이크 연계한 해양관광자원조성, 관광미항 개발
- 블랙벨리 골프장, 맹방 골프장, 파인밸리 골프장 등 대중골프장 조성
- 삼척동해왕 이사부장군 문화유적 및 성역화사업 : 사당, 동상, 진동루, 사자공원 등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육백산화쇄 휴양단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 복합에너지거점도시 이미지구축을 위한 'New-Energy Park 조성' 관광 자원화

제8장 홍천군

비전 :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 홍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62,888(4.27%), 가구수 : 23,870(4.25%), 주택수 : 25,483(4.74%)
경제실태	GRDP : 1,338,712(5.09%), 농림·어업 : 13.03%, 광업·제조업 : 11.81%,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75.16%
토지현황	면적 : 1,818.89km ² (10.78%),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9.92%, 임야 : 84.64%, 대지 : 0.66%,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4%, 도로·철도용지 : 0.98%,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2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15%,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23%
행정구역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중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44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 결절지역
 - 춘천~원주를 잇는 내륙 산업벨트 중심의 교통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
 - 청정자연환경과 400리 홍천강을 활용한 관광, 건강, 휴양, 레저기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1,817.923km² : 제주도 면적과 비슷)과 다양한 내륙 자연환경 및 R&D기반을 토대로 첨단산업 잠재력 보유
 - 서울대 시스템면역 의학연구소, 첨단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주)삼성메디슨,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한 생명건강 기반산업의 가능성 보유
 - 전국 제일의 산림 군으로서 늘푸름 홍천한우, 6년근 인삼, 잣, 수라쌀, 찰옥수수, 단호박 등 농·특산물 명품 육성과 생명·건강산업의 자원여건이 풍부함
 - 주력산업은 농업과 (주)하이트 진로, (주)삼성 메디슨 등 제조업 입지
 - 온천, 리조트, 사찰 등 지역에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보유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팔봉산 국민관광지, 가리산 자연휴양림, 서석미악골, 금학산, 가령폭포, 수타사, 용소계곡, 살둔계곡, 삼봉약수, 400리 홍천강 등	넓은 면적에 풍부한 산림과 하천 등 천혜의 자원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 2011.1.월삼봉약수가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관광자원	수타사 동종 등 국가지정보물 11점, 남궁억선생유적, 무용가 최승희 선생 생가, 홍천온천, 대명비발디리조트, 동학전적지 등	전국 무궁화의 메카로서, 지역 곳곳에 문화유산 산재
산업기반	(주)삼성메디슨,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힐리언스 등 바이오메디컬 기반, 철광석 광산, 상오안·양덕원·화전 농공단지 등	춘천~원주 바이오메디 클러스터 축의 연계점에 위치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홍천읍 도심부 재정비, 교통시설정비, 상가로 및 오픈 스페이스 조성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 농촌 생활권 중심의 정주기반 강화, 마을 및 취락지역개선 등 주거환경 정비
 - 전원생태 주거단지 조성 및 ‘쉴거리+먹거리+놀거리’가 있는 농촌지역 개발

○ 교통망 구상

- 동서고속도로 건설, 춘천~홍천간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 용문~홍천간 철도연장 조기 추진
- 국도 56호선,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403호선 등 10개노선 확·포장 추진
- 사람과 자전거 통행에 편리한 거리조성, 편리한 대중 교통기반 조기구축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생명·건강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전략산업화

- 홍천생명건강연구단지 내에 생명건강과학관, 메디칼허브연구소, 생명건강 연구센터 등 지식 기반산업 인프라 구축
- (주)삼성 메디슨,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강원대, 한림대 등과 인접시군 춘천, 원주를 연계한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상오안농공단지, 화전농공단지 및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
-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추진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향토식품, 관광공예, 축제·회의, 목재·건강자재, 한방·약초산업 육성
- 특색 있는 장터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

○ 건강과 휴양·레포츠의 도시 홍천 조성

- 레포츠 천국조성 : 국민여가캠핑장 및 관광산림레포츠체험장 조성, 인공암벽등반 경기장 건립, 짚라인 설치, 수상아카데미 운영 등
- 홍천강을 활용한 물축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화
- 산악MTB, 핀수영, 카야킹, 단풍트래킹, 어드벤처 레이스, 터프가이 챌린지,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 레저카약산업 집중육성
- 권역별 특성화 및 네트워크화

- 중부권(주민휴양권 : 홍천읍, 북방면, 동면지역), 서남권(수변레포츠권 : 남면, 서면지역), 중북부권(역사문화권 : 화촌, 두촌, 내촌면지역), 동부권(청정녹색권 : 서석, 내면지역)

- 역사문화탐방, 수상레포츠, 수변경관체험, 산악체험, 가족동반형 음식관광, 친환경 농업체험, 그린투어리즘 관광루트 적극 개발

제9장 횡성군

비전 : 청정녹색도시, 미래의 땅 횡성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37,798(2.57%), 가구수 : 14,508(2.58%), 주택수 : 15,827(2.95%)
경제실태	GRDP : 1,008,896(3.83%), 농림·어업 : 19.11%, 광업·제조업 : 20.1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60.74%
토지현황	면적 : 997.68km ² (5.9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15.38%, 임야 : 77.21%, 대지 : 0.88%,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31%, 도로·철도용지 : 1.60%,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4.00%,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41%,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22%
행정구역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서울 ~강릉, 춘천~ 원주를 연결하는 중요 산업·관광도시
 - 상대적으로 농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 영서 내륙권의 전원주거 및 수도권 기업이전 희망지역
 - 공항과 중앙 및 영동 고속도로, 향후 건설될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중심지로 준수도권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
- 동남북 3면이 높은 산악지대로 형성된 분지로 횡성한우 지역브랜드 확보
 - 표고 200~400m 43%, 400~800m 45%, 800m 이상 8%인 고원지대
 - 풍부한 초지에 방목지와 축산기반을 구축
 - 더덕, 산약초 등 산악지대를 활용한 특산물 풍부
 - 횡성댐이 건설되어 풍부한 용수원 확보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치악산 국립공원, 둔내 및 청태산 자연휴양림, 태기산, 횡성댐, 계곡, 하천 유원지 발달	자연자원 풍부
문화관광자원	풍수원 성당, 성우리조트, 횡성온천, 한우 및 안흥찐빵 등 지역브랜드	상품 브랜드 보유
산업기반	축산기반, 목계, 우천농공단지 등 제조업 기반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제조업 기반 구축
교육기반	민족사관고등학교, 송호대학, 골프대학	군 지역으로는 교육기반이 튼튼한 지역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수도권 귀촌 및 이도향촌(移都向村)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
 - 송호대, 민족사관고, 한국골프대학 등 지역의 우수교육기관을 지역자원화, 평생학습 도시 평생교육기반 확충
 - 원주시 등과 연계하여 도농복합 문화기반 확충
 - 수도권 이전기업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 단지기반 형성
 - 우천일반산업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둔방산업단지 조성

○ 교통망 구상

- 원주~강릉간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새말 ~ 원주, 새말 ~ 안흥간(국도42호선) 확·포장, 도계 ~ 횡성간(국도 6호선) 용량 보강
- 지구 ~ 월현, 신대 ~ 삼교간 도로 확·포장, 치악산 고둔치터널 개설 등 지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 자전거 도로 확충 등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홈 보급, 바이오순환림 조성, 생태하천, 산촌생태마을 등 녹색 공간 조성,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녹색성장 산업 육성
- 한우산업 특성화, 우량혈통보전 및 개량, 횡성한우생산 기반구축, 양축농가 자생력 강화(축사시설 현대화 등), 횡성한우유통 시스템 구축 등 녹색 축산산업(우분의 연료·자원화)
- 한약재, 산채류 등 특용작물재배 확대, 친환경농업시범 단지조성, 농업생산비용 지원(경운비, 비료, 농기계, 방제비 등) 등 특화농업 육성

○ 관광 구상

- 다시 찾고 싶은 녹색체험 관광도시 구현

- 테마형 정주마을, 자연순환형 생태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등 고부가가치 대표축제 육성

-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관광자원 개발

- 태기산성, 봉복사지구 등 역사문화 유적자원 발굴
- 스포츠랜드, 골프장, 휴양림 등 으뜸 관광네트워크 구축

- 천혜의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휴식·체험·치유’의 맞춤형 관광도시 조성

- 유현문화 관광지, 어답산 관광지 등

제10장 영월군

비전 : 전통과 자연, 인간이 함께하는 창조도시 영월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35,050(2.38%), 가구수 : 14,668(2.61%), 주택수 : 15,681(2.92%)
경제실태	GRDP : 813,758(3.09%), 농림·어업 : 6.87%, 광업·제조업 : 24.9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68.16%
토지현황	면적 : 1,127.50km ² (6.68%),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8.99%, 임야 : 85.21%, 대지 : 0.67%,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21%, 도로·철도용지 : 1.10%,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53%,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04%,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25%
행정구역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중앙고속도로, 38번국도 개선 등으로 수도권 및 기타지역들과 접근도 향상
 - 강릉 생활권에서 원주 생활권으로, 최근에는 충북 제천의 영향력 증가 추세
 - 동계올림픽 개최의 배후지역으로 문화브랜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도래
- 폐광지역에 속하여 침체를 겪고 있으나 상동철광의 재조명과 함께 농업 및 레저관광산업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지역 특성
 - 근래에는 박물관 고을사업 등 문화창조산업의 적극적 추진
 - 동강 시스타 등 취약한 리조트 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추세
- 단종장릉과 함께 동강 등 자연자원과 천연기념물, 문화재, 박물관 등이 분포되어 전통과 문화가 계승, 발전되고 있는 지역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어라연(명승 14호), 청룡포(명승 50호), 고씨동굴(천연기념물 219호), 한반도 지형, 선돌, 스트로마톨라이트(천연기념물 413호), 요선암/요선정, 백덕산, 태화산, 봉래산, 금강공원, 연하폭포, 연하계곡, 칠랑이계곡, 동강생태공원 등	석회암지대로 동굴과 자연하천인 동강의 절경을 간직한 청정지대
문화관광자원	단종역사관, 별마로 천문대, 김삿갓 문화관, 영월책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등 20여개 박물관, 단종장릉(사적 196호), 법흥사, 보덕사, 김삿갓유적지, 아트미로공원, 김종길 가옥 등	단종과 김삿갓을 테마로 하여 독특한 지역적 특징
레저/휴양자원	동강시스타, 동강레프팅, 고씨동굴 레프팅, 동강 오토캠핑장, 상동온천, 영월온천 등	동강을 중심으로 레저/휴양에 대한 인지도가 확보되
산업기반	광공업, 상동광산, 문곡농공단지, 농업기반	고추, 포도 등 석회암지대의 토질적성에 적합한 특화농산물 생산기반이 확충되는 추세
교육기반	세경대학, 제천의 세명대학교도 인접	영월공고의 전통과 함께 교육기반이 양호

2. 공간 발전방향

- 미래지향적이고 공간특성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 | | |
|----------------|-------------|--------------|
| · 소도읍 육성 | · 전원마을 조성 | · 주거환경 개선 |
| · 도시 근로자 주택 건설 | · 농촌마을 종합개발 |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 교통망 구상

- 제천~영월~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충청 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국도 31호선(영월~방림간) 확·포장, 국지도 82호선(제천-영월-평창)확·포장, 지방도 413호선(문곡~창리) 확·포장, 국지도 28호선 확·포장, 국지도 88호선(중앙고속도로 신림IC~영월군 남면) 도로 확장 등
- 태백선(제천~쌍용~백산간)복선 전철 조기 건설
-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등 지역내 도로망 정비(미연결 구간 보완)
 - 군도 1호선(광전~판운간) 국지도 82~88호선 연결
 - 군도 13호선 국지도 88호선 연결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확충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신재생에너지 소재산업 기반구축 :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단지 조성, 제3농공단지 조성, 주천산업단지 규모 확대 및 활성화, 태양광 발전단지(30MW) 조성, 페로니켈 제조공정 슬래그의 유용자원화, 초고순도 탄화규소 분말제조 상용화, 규석품위 향상 및 금속실리콘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 메탈실리콘, 인 제거필터 기술개발
- 영월 도시가스 조기 공급,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등
- 지역연고산업 육성 : 광물자원, 숯, 곤충, 화훼산업, 곤충산업육성 지원센터 및 청정 소재산업육성 지원센터 운영, 직동리 산채 클러스터 조성
- 동계올림픽 연계 배후지역 활성화 : 영월 농·특산물 식재료 납품, 동강 산머루와인의 영월 대표 브랜드 창출, 루지(LUGE)체험장, 전국최대 자연스케이트장 조성 등

○ 관광 구상

- 지붕없는 박물관 고을의 고도화 : 박물관 고을 C-클러스터화 사업 추진
- 지역 보유자원의 특화, 자원·정서의 관광 상품화 : 장릉 유네스코 등재, 단종, 김삿갓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겨울축제, 동강길, 영월발전소 폐열온수 활용과 지역우수기술 연계 인공온천시설 운영, 연계상품, 웰빙 칩국수 명품화
- 4계절 체류형 관광, 레포츠·체육 인프라 확충

- | | | |
|------------------|----------------|--------------|
| · 상동 숲 마을 조성 사업 | · 청령포 유원지 조성 | · 산촌 생태마을 조성 |
| · 망경대산 자연 휴양림 조성 | · 도시 산림공원 조성 | · 상동 테마파크 조성 |
| · 동강시스타 활성화 | · 숲 관광 메가시티 조성 | · 세계문화체험관 조성 |

제11장 평창군

비전 :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37,522(2.55%), 가구수 : 15,375(2.74%), 주택수 : 18,272(3.40%)
경제실태	GRDP : 933,790(3.55%), 농림·어업 : 10.39%, 광업·제조업 : 9.7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79.87%
토지현황	면적 : 1,464.06km ² (8.68%),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10.84%, 임야 : 83.79%, 대지 : 0.66%,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1%, 도로·철도용지 : 1.19%,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2.9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31%,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14%
행정구역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중부내륙 고원산간 도시
 -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평창발전의 100년 대계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
 - 원주~강릉 철도부설로 인한 물류체계의 획기적 변화예상
 - 강원발전의 구심점 및 세계 속의 평창으로 새로운 축 형성 기대
- 표고 500m 이상의 면적이 69%에 달하는 중부내륙의 산간 고랭지 지역
 - 리조트가 밀집되어 관광서비스업과 고랭지 채소, 축산 등 1차산업 발달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오대산 국립공원, 대관령, 발왕산, 청옥산, 역사적 한강 발원지인 우통수, 약수(방아다리 등), 금당계곡 등 비지정관광지, 동강, 백룡동굴	백두대간 줄기의 중허리에 해당, 자연 및 기상자원 풍부
문화관광자원	용평, 휘닉스파크, 알펜시아 등 리조트 밀집, 월정사, 상원사 등 사찰, 사찰과 관련된 역사유물, 이승복 기념관 등 반공유적, 자생식물원, 이효석 생가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집적. 동계올림픽 중심 도시로써 올림픽을 함께 치루는 강릉시와 인접하여 산악과 해양의 조화로운 리조트 자원형성
산업기반	스키리조트 등 동계스포츠 기반, 연수시설 등 관광기반, 평창방림농공단지 등 제조업기반	설악권과 함께 강원도 관광리조트 산업의 양대산맥 형성
교육기반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고려지시험장, 축산위생 시험소	축산 및 고랭지 바이오연구시설 집적기대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동계올림픽특구를 조성하여 동계올림픽 시설 설치 및 관련산업 유치
 - 원주~강릉간 철도 신설에 따른 역세권 연계 도시 조성
 - 아시아의 알프스 경관조성으로 세계적 관광도시로 부상
 -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 도시 조성
 - 친환경 관광자원 조성으로 생태·문화 관광 도시 조성
 - 읍면소재지 종합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 교통망 구상

- 원주~강릉간 철도 개설 및 역세권 개발 등 동계올림픽 접근 교통망 확충
- 31번 국도 4차선 확충, 국도 42호선, 국도59호선 확충 및 4차선화, 정선군 구절리~평창군 횡계리간 관광철도 개설 등 광역기간 교통망 구축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정비, 관광지 및 내부순환 교통체계 확립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R&D 및 관련 용품산업 육성
-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권역 내 축산, 고냉지 시험장 등을 활용한 바이오 R&D산업 육성
- 스포츠R&D·용품산업 육성, 연구 및 훈련기능, 용품조립·가공 체험산업 육성
- 강원생약단지 및 한방의료 관광산업 육성
- 암 전문병원, 보건대학과 위락 및 편의시설을 구비한 의료관광단지 유치
- 평창사과, 멜론, 화훼 등 기후토양조건에 맞는 명품 개발 및 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 입맛에 맞는 식자재산업 개발
- 산림수도에 걸 맞는 목재산업 육성(마이크로웨이브 기술 활용 등)

○ 관광 구상

- 동계올림픽을 통한 평창관광의 세계화를 목표
- 주민의식의 세계화, 관광기반의 세계화, 관광문화의 세계화 추진
 - 지속적인 주민아카데미 사업, 자원봉사 동아리사업, 외국어·외국문화에 대한 학습과정,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외국문화 이해하기 사업 추진
- 월정사 천년의 숲길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도보 순례길 조성
- 이효석 문학공원의 스토리 등 콘텐츠 강화
- 백두대간과 동강 등 자연생태, 지질을 활용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자연생태와 과학기술을 연계한 치유·의료관광 개발
- 농축임업 환경을 이용한 농산촌 체험상품 개발
-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생태지리 체험벨트 조성, 문학 생태마을 조성 및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지역자원을 토대로 평창만의 특성을 살린 테마축제 육성, 리조트와 관광요소별 융합 시스템 운영

제12장 정선군

비전 : 세계속의 레포츠·문화콘텐츠 도시 정선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35,980(2.45%), 가구수 : 14,811(2.64%), 주택수 : 16,223(3.02%)
경제실태	GRDP : 1,143,869(4.35%), 농림·어업 : 7.47%, 광업·제조업 : 9.58%,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2.95%
토지현황	면적 : 1,219.54km ² (7.2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8.94%, 임야 : 85.72%, 대지 : 0.54%,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2%, 도로·철도용지 : 1.17%,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31%,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03%,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15%
행정구역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남부 내륙의 관광지향 ‘정선 아리랑’의 도시

- 석탄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던 중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침체
- 전체 주민들의 고용상태로 보면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 비중이 큼
- 정선 카지노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카지노를 제외하면 큰 사업체가 없고 관광레저부문도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정선부흥의 새로운 기회 도래

- 가리왕산 중봉 및 하봉지구에 활강경기장 건설
- 정선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 온 접근망이 대폭 개선될 전망
- 영동고속도로에서 중봉~정선읍~카지노까지 연계망 확충 예상
 - * 알펜시아에서 정선 카지노까지 40분대 접근가능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석회암 지대로서 카르스트 지형을 보이고 있는 동강, 화암동굴, 가리왕산, 함백산, 민둥산 등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악계곡자원 보유
문화관광자원	정선 아리랑을 비롯하여 정암사(적멸보궁, 수마노탑) 등 사찰자원,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동강 래프팅 등	문화관광자원은 풍부
산업기반	강원랜드 카지노, 정선선 철도, 고랭지 농업, 증산 및 함백농공단지 등	고랭지 농업과 카지노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산업기반은 취약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동계올림픽과 카지노 배후도시로 휴양타운형 주거환경 및 테마마을 조성
- 정선아리랑 고장으로로서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 프로그램 개발
- 도로 등 SOC중심의 개발로 군민의 이용편의성에 기초한 인프라 구축
- 중봉 활강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휴양리조트 건설
-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휴양도시」 조성
- 구절~여량~봉양 생태체험공원, 정선읍 재정비 및 고한·사북·남면 재개발
-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교통망 구상

- 광역기간교통망 구축
 - 국도 38호선, 42호선, 35호선, 59호선 조기 확·포장
 - 동해~임계~하진부간 산업도로 개설
 - 구절리~횡계(또는 진부)간 관광철도 개설 및 경비행장 건설
- 내부순환교통체계 개선
 -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충·정비와 주요관광지 순환버스체계 확립
 - 도시내 자전거 및 보행도로 체계 정비·확충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정선 카지노와 연계하여 게임콘텐츠산업의 육성
-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 및 특화된 농·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기반구축
- 산업용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 임대공장, 신동읍 농공단지 조성
- 증산농공단지의 카지노 배후도시 기능으로 개편, 함백농공단지 조성
- 한방수목원 조성, 오르골·초콜릿 산업유치,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 물류 절감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 종합 휴양의료 복합단지 조성(진규폐환자 요양시설·도박중독치유 재활센터), 정선 아리랑 전시공연문화센터 조성 등

○ 관광 구상

- 정선아리랑 테마와 접목한 문화관광추진 및 정선5일장 활성화
- 하이원리조트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환경·문화관광 코스 개발
- 정선아리랑 전시공연문화센터, 강원카지노리조트, 새골 위락시설, 화절령 관광레저, 백운밸리, 강원하이랜드레저, 레일바이크 등
- 철도관광사업 확장, 산악트레킹코스 개발, 민동산 허브랜드 조성
-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숙암레저단지 조성, 정선아카데미 운영, 에코랜드 조성사업
-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유천리 농업체험학습형 관광단지 조성 등

제13장 철원군

비전 : 평화 / 생명 / 생태의 국토중심 철원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43,271(2.94%), 가구수 : 15,519(2.76%), 주택수 : 16,563(3.08%)
경제실태	GRDP : 877,519(3.34%), 농림·어업 : 16.20%, 광업·제조업 : 3.9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79.84%
토지현황	면적 : 898.14km ² (5.32%),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23.78%, 임야 : 56.95%, 대지 : 0.87%,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6%, 도로·철도용지 : 1.40%,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4.0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11%,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12.67%
행정구역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근북면, 서면, 근남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강원도와 경기도, 북한의 삼각구도에 둘러싸인 중북부 대표적 평야 도시
 - 강원도에서 임야면적이 유일하게 56%대인 평야지대로 위치상 강원도 접경지역의 최서단이면서, 수도권 관문지역
 - 남북분단 이전까지 경원선, 금강산선 등 철도가 발달하였던 교통의 요충지로서 일제 시대에 중부내륙 제1의 도시
 -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될 정도로 군(軍) 관련산업과 농업이 주종인 지역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사업을 많이 추진하였음에도 충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입지적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
 - 수도권에 근접한 넓은 개발용지(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약)를 보유
 - 전 지역에 분포된 문화, 안보, 군사시설유적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DMZ 자연, 한탄강, 샘통, 철새 도래지	넓은 평야지대와 한탄강을 비롯한 계곡자원
문화관광자원	DMZ내 태봉국 유적, 도피안사, 제2땅굴과 노동당사, 백마고지, 전망대 등 안보유적지, 민통선 마을, 고석정 국민관광지, 한탄강 래프팅, 소설가 이태준 생가	안보관광자원이 폭 넓게 집적, 전국에서 이주한 마을문화의 특성
산업기반	농업 및 축산업 기반, 플라즈마 연구소, 김화 및 갈말 농공단지	쌀 및 양돈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업 발달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갈말읍 군청거리 조성, 동송읍, 김화권 시가지 정비 등 가로환경 조성
 - 시니어계층 유입을 위한 정주 공간 조성
 - 철원 그린웨이 네트워크 조성, 내륙산악형 위락단지 조성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환경 인프라 확충

○ 교통망 구상

- 중앙고속도로(춘천~철원) 연장,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철원연장 및 경기북부 고속도로 계획과 연계한 철원~고성 고속도로 추진
- 의정부~철원 국철연장, 원주~춘천~철원간 국철건설, 경원선·금강산선 복원
- 국도 3, 5, 47, 87호선 4차선 확포장, 지방도 463호, 포천~신철원 군도 확충
- DMZ평화자전거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DMZ생태평화 관광도로 조성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차별화된 고품질 농업국제 브랜드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 철원군 농업타운 건립, 오대쌀의 고품질화, 유통·물류단지 조성, 그린평화 쌀 문화촌 조성, DMZ그린평화 농촌체험학교, 물고추냉이 특성화단지 조성, 지역특화작물 지원(원예단지 조성) 등 농업 육성
- 산지유통센터(APC), 기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공간 조성
- 축산분뇨의 고급유기자원 생산·지원·공급, 갈말 포크타운 조성
- 국제기구 유치(UN 평화대학), 내륙 컨테이너기지(ICD) 구축, 평화빌리지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

○ 플라즈마 첨단산업단지 조성

-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및 중부내륙권 첨단신소재 부품단지 조성
- 나노소재 공정사업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 관광 구상

- 수요자 중심의 3대 관광자원(생태, 역사문화, DMZ)의 리뉴얼
- 생태가치 창출을 위한 산소길 조성
- 한탄강 및 화강 수변 공간의 재구성
- 이태준 열 선양사업 및 문학 트레일 조성
- DMZ생태관광거점 조성 및 테마의 다변화 추구
- 관광특성을 고려한 상품개발 및 축제를 통한 지역관광 제고
- 철원에코피스리조트 조성

제14장 화천군

비전 :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22,119(1.50%), 가구수 : 7,396(1.31%), 주택수 : 8,467(1.57%)
경제실태	GRDP : 597,554(2.27%), 농림·어업 : 7.69%, 광업·제조업 : 1.1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91.15%
토지현황	면적 : 908.06km ² (5.38%),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7.13%, 임야 : 84.79%, 대지 : 0.43%,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08%, 도로·철도용지 : 1.15%,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5.09%,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01%,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1.31%
행정구역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풍부한 수자원 등 청정자연을 보유한 접경도시
 - 춘천댐, 화천댐, 평화의 댐 등을 보유한 호반지역이면서 계곡, 산림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제약성으로 관광산업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기반도 약하여 주로 군(軍)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주 산업인 접경지역으로 휴전선과 직선거리 22km에 위치
 - 춘천시와 수도권 등 인접지역과 내수권역을 확보하여 산업기반 확충전략 필요
- 인접지역인 춘천시의 교통망 개선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으며 청정자원을 토대로 한 농업기반과 산천어 축제 등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증가하는 추세
 - 인구가 적어 춘천시와 연계한 생활권 발전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
 - 철원권 및 경기권과 연계하는 중개지점으로서 교통기반 강화가 과제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DMZ 자연, 춘천댐, 화천댐, 평화의 댐, 광덕계곡, 백암산, 화악산, 용화산, 비수구미계곡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도 문제로 덜 알려져 있음. 청정 자연상태
문화관광자원	평화의 종 공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감성마을(이외수), 원천유원지, 아쿠아리조트, 산천어 축제, 수달연구센터	경기도와 교통망이 연계되는 접경지역으로서 군사문화자원이 풍부
산업기반	원천농공단지, 농업기반, 군인 서비스기반	산업기반이 취약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춘천~철원 연계 발전축 설정, 경기도와 연계망 등 개방적 공간의 형성
 - 인접지역과 유기적 연계로 쾌적한 도시공간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융합
 - 도시내 녹지축 형성, 그린에너지 보급, 그린 홈 공급, 자전거도로망 구축
 - 화천 Bike-Station 조성, 생태자원 개발 및 확충
 - 특화단지의 구상 등 산업기반 확충으로 자족적 경제활성화 모색

-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유입 유도
- 청정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특화산업단지 개발, 목재가공 R&D 연구소 건립, 강원 스키리조트

○ 교통망 구상

- 교통망 확충을 통한 균형적 교통 서비스체계 구축
- 중앙고속도로 연장 및 춘천~화천~철원 철도 연장
- 한묵령(군도 7호선)선형개량 및 군도 10호(용담~계성)도로 확·포장
- 춘천~화천간 모노레일 건설 및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추진
-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 관내 위험도로(파로호 권역 등)의 개선 추진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농·특산물 가공 농공단지 조성, 화천시장 활성화
- 원천리 목재산업단지 조성, 바이오매스 산업화
- 특화품목 육성 및 명품과수단지 조성
- 유통기업 및 농업·농촌 공동체 회사 설립
- 임산물 특화, 농산물 브랜드 강화, 친환경농업 활성화
- 서화산 도시휴양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관광 구상

- 축제관련 관광자원의 확충 및 활용
- 자원의 문화적 해석을 통한 관광자원화
 - 워터레포츠파크 조성, 월드비타민센터 건립, 사방거리군인문화촌, 한옥경관 숙박지구, 파로호선상유람지 등
- 농촌관광 테마마을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 농촌마을별 이색상품 개발, 로컬푸드센터 추진, 한방테라피존 조성, 우드크래프트센터건립, 쌀 갤러리 조성
- 복합관광트레일, DMZ생태관광 트레일 개발, 순환형 산길, 물길 조성, 산천어 참단양식단지 조성 등

제15장 양구군

비전 : 생태·문화·예술·안보자원이 어우러진 「국토정중앙테마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19,363(1.32%), 가구수 : 6,945(1.23%), 주택수 : 7,219(1.34%)
경제실태	GRDP : 475,249(1.81%), 농림·어업 : 12.89%, 광업·제조업 : 2.9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4.15%
토지현황	면적 : 701.29km ² (4.16%),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10.94%, 임야 : 73.80%, 대지 : 0.47%,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0%, 도로·철도용지 : 1.16%,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4.3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02%,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9.15%
행정구역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강원도 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과 인구이나 자연환경과 농업기반이 강한 도시
 - 산간지방이지만 농지비중이 상대적 높은 편이며, 농업기반이 강하여 고냉지 채소 및 수박, 파프리카 등 특용작물 특산품화가 진행
 - 박수근미술관을 비롯하여 양구백자, 방짜수저 등 전통문화자원, 군사안보자원 등이 매우 풍부하게 분포
- 춘천~양구간 46번 국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춘천 뿐 아니라 경기도 및 서울로 부터 접근성이 좋아져 교류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현재 주 간선도로가 31번, 46번 국도로 교통기반이 취약
 - * 31번 국도는 내금강으로 진입하는 내륙관문
- 춘천을 거점도시로 수도권 구매력을 끌어들이는 개방공간 전략 필요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국도정중앙점, 소양호, 파로호, 평화의 댐, 사명산, 봉화산, 대암산 등 산악, 두타연, 광치굴 등 계곡, 후곡약수, 대암산 용늪, 펀치볼 지형	한반도의 정중앙점으로 800m 이상의 고산이 많고 민통선 내 숨겨진 비경이 많은 자연환경 풍부
문화관광자원	제4땅굴, 을자가칠봉 전망대 등 안보자원, 선사유적지, 박수근, 이해인수녀, 방산백자, 금강산 가는 길(31 폐국도), 산양복원센터, 방짜수저	군사 및 역사적 문화유적지도 많이 보유
산업기반	농업특산물, 관광서비스 기반	오대쌀을 비롯 양구수박, 멜론, 파프리카, 사과단지, 인삼단지 등 특화
교육기반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로 외국어고등학교 운영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강원외고 명문고 육성 등 중·고등학교 학력향상으로 쾌적한 교육도시 조성
 - 파로호 인공습지 명소화, 생명의 숲마을 등 생태환경도시 조성

- 박수근 한옥타운 조성, 동글봉 뉴타운(경관마을) 조성, 민군 평화누리타운 조성 등 전원 휴양 문화도시
- 자연치유센터 마을조성(치유센터, 숙박동, 치유프로그램 운영), 한방건강타운 조성, 수상레저단지 조성 등 스포츠 마케팅 추진
-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 교통망 구상

- 국도 46호선(춘천~양구) 직선화 조기 완공, 동서1축(인천~서울~화천~양구~간성) 조기 구축, 남북 6축(양구~영천 309.5km 확장), 춘천~양구~인제~속초간 철도 개설, 지방도 403·460·453호선 확·포장 추진
- 국도 46호선의 소양댐쪽 폐도구간을 호수관광도로로 활용, 서부순환도로 개설(양구 학조리~정림리~공수리), 북부순환도로 개설(동면 덕곡2리~임당2리), 공수~월명간(지방도 403호) 터널 설치, 고대~군량간 도로개설 사업, 편치볼 순환도로 개설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대우산 풍력단지 조성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 산양 등 희귀동식물 증식 등 생태자원 증양 사업
- 수박 멜론 등 과채류 명품화 사업 육성
- 산채·한방약초의 가공 및 제조, 건강식품 연구 및 가공산업 육성
- 백자마을 조성을 중심으로 도요산업 육성

○ 관광 구상

- 국토정중앙 테마파크 조성, 두타연지구 안보관광지 개발, 수변생태공원 조성
- 생태하이킹도로, 두타연 및 금강산 가는 길 일대에 자연생태 동·식물원 조성
- 한민족 평화·생태지대 조성(평화생명교류모델)
- 봉화산 관광리조트 개발, 서천지구 수변공원화, 담수어 생태관 및 생태공원
- 밀리터리월드 조성, 선사문화공원, 박수근 문화도시로의 확대발전 및 육성
- 전국 및 도단위 각종 문화예술·체육대회의 적극 유치
- 도자기마을, 한방건강마을 등 테마별 민속 농촌체험마을 조성
- 박수근 예술타운 및 방산백자 백토체험마을 조성, 이해인 문학관건립 및 명소화 사업, 평화ZONE 사업(평화의 문 건립, PLC체험센터, 휴전선 야간전망대)

제16장 인제군

비전 : 청정, 친환경의 목적지형 테마관광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28,765(1.95%), 가구수 : 10,511(1.87%), 주택수 : 11,126(2.07%)
경제실태	GRDP : 859,307(3.27%), 농림·어업 : 7.75%, 광업·제조업 : 2.89%,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9.36%
토지현황	면적 : 1,646.24km ² (9.76%),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4.93%, 임야 : 88.27%, 대지 : 0.35%,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06%, 도로·철도용지 : 0.85%,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56%,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02%,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1.95%
행정구역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읍, 서화면, 상남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산림면적 88%의 우리나라 백두대간 대표지역
 - 설악산 국립공원, 원시 활엽수림대의 점봉산, 대암산 용늪, 내린천 계곡 등 풍부한 자연 보유
 -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황태 생산지
 - 44번/46번 국도를 따라 좁고 길게 발달한 도시구조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 여지가 매우 부족한 지역
- 인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지(기존 도시지역) 지역의 고도화, 산간지역의 활용이 필요하며 청정 산악문화도시로서 잠재력 보유
 - 서울~춘천 접근도 개선에 따라 동시에 접근도가 개선되는 효과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설악산국립공원, 대암산 용늪, 점봉산, 방태산, 진동계곡, 개인약수, 방동필레갈천약수, 아미산 국립공원, 곰배령, 소양댐	2011.1. 개인약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문화관광자원	만해 한용운, 청마 유치환, 백담사 등 사찰자원, 내린천 래프팅, 등반문화, 군사문화, 군 첨단전술훈련장, 평화생명동산	내설악의 관문. 우리나라 등반문화의 메카로서 래프팅 등 다양한 자연체험이 가능
산업기반	황태산업, 산채 등 특화산업기반, 서비스산업	산업기반이 취약하지만 브랜드 상품 보유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지역의 생활과 문화가 숨 쉬는 테마화된 도시 공간 조성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택개발 정비 및 디자인 있는 맞춤형 특색경관 조성
 - 생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하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 개선
 - 읍면 명품거리 조성,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 상남·서화상수도시설 확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탁수저감 받 기반 정비
 -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문화복지타운 건립
 - 생활체육공원조성, 서화운동장 조성 등

○ 교통망 구상

- 기본방향 : 광역기간교통망 구축, 내부순환교통체계 개선
-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개설, 31번국도 확포장 및 선형개선
- 군도3호선, 군도 6호선, 군도13호선, 군도2호선 및 5호선 확장,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 백담사 케이블카설치, 자전거도로 개설, 녹색명품길 조성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기본방향 : 청정을 테마로 한 친환경산업 육성 및 지역산물의 브랜드화
- 친환경농업재배 확대, 고품질 원예작물, 한우브랜드 가치 사업, 산림특화사업 등 신개념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테마 농·산촌 실현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 생태마을 조성
- 레포츠를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 및 모험레저 연계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
- 원통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신재생에너지 설치,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시설 등 청정을 테마로 한 친환경산업육성
-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특산물 위상 마련

○ 관광 구상

- 기본방향 : 모험레포츠 및 생물 종의 신성장동력화
- 모험레포츠의 신성장 동력 마련 및 세계적 위치 선점
- 지역정체성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 확립
- 지역특색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추진
- 내린천 신규모험레포츠 확충, 오토테마파크 조성, 모험레포츠 민간투자 유치
- 역대대통령 테마공원, 한국시집박물관 건립
- 우제류증식복원센터, 토종민물고기부화장, 토종민물고기 생태공원, 평화빌리지 조성
- 행복한 농촌테마마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누리길 조성, 녹색평화도로, DMZ 트레킹, DMZ병영체험장, 금강산가는 길 조성
- 소양호생태습지공원 조성, 인제앞강개발 사업 추진

비전 : 녹색성장, 통일고성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26,753(1.82%), 가구수 : 10,217(1.82%), 주택수 : 11,151(2.07%)
경제실태	GRDP : 620,940(2.36%), 농림·어업 : 7.50%, 광업·제조업 : 2.93%,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9.57%
토지현황	면적 : 664.34km ² (3.9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9.10%, 임야 : 71.75%, 대지 : 0.79%,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요소용지·창고용지 : 0.15%, 도로·철도용지 : 1.45%,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69%,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35%,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12.73%
행정구역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백두대간 동측, 영동지방 최북단에 위치한 남북교류의 거점 지역
 - 접경권 초광역개발 구상에서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하는 국제수준의 거점 조성지로서 관광형 교류협력지구 중심으로 부각
 - 우리나라 대표적 명태의 주산지에서 근래에는 금강산 관광의 출발거점 지역으로 발전 하다가 금강산관광 중단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 최북단의 통일전망대와 김일성·이승만 등 별장이 모여 있는 화진포, 금강산 사찰 중 하나인 건봉사 등 남북연계 관광자원이 가장 많은 접경지역
 -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저진(제진)까지 부설
- 국도 7번과 46번에 의존하는 단순한 접근로 형성. 광역적으로 수도권, 강릉권, 춘천권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인접 거점도시인 속초시의 규모가 작아서 내수기반 취약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쪽 관광 및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 기대
 -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국도 중심지대로 환동해권 경제 및 문화교역, 국제 교류협력의 중심적 입지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설악산 국립공원, DMZ 자연, 향로봉, 동해바다, 백사장, 백두대간, 원암 온천지대, 고니도래지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
문화관광자원	금강산 철도, CIQ시설, 건봉사, 화진포, DMZ 박물관, 통일전망대, 관동팔경(청간정), 리조트	북쪽으로 가는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산업기반	수산항만, 농업기반, 서비스산업기반	인제 황태덕장과 연계된 명태가공 특산화
교육기반	경동대학교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한민족 평화생태지대로서 계획적 지역개발 유도
 - 북부금강권(현내, 거진생활권), 중부중심권(간성, 죽왕생활권), 남부생활권(토성생활권)

- 남북교류타운 조성(국제평화통일 관광도시건설) 등 한민족적 평화·생태지대 조성
- 관광레저 지역으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 지역간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적 지역발전 및 접근성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
- 어항(국가, 지방, 정주어항) 기반시설 확충

○ 교통망 구상

- 동해고속도로(속초~현내), 동서녹색평화도로 건설, 국도 46호선 확포장 추진
- 철도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동서고속화 철도 추진
- 군도(12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79개 노선) 지속적 확·포장 추진
- 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 캐리어 버스 보급
- 관광형 시내버스 노선 구축, 저탄소 대중교통 수단 보급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미래녹색산업 발굴 및 확대
- 지역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해양심층수 실용화지원 R&DB센터 조성
 -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의 CDM사업화
 - 체험관광과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 태양광 발전소,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 거진항 기능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어항개발, 수산업기능지원시설, 마리나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 관광 구상

- 화진포를 중심으로 설악금강 연계관광 거점지구 추진
 -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에코타운(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 리조트, 전원마을, 한민족 역사테마 파크조성 등
- 지역자원을 활용 지속가능한 녹색 관광기반 구축
 - 진부령 미술관 리모델링, 건봉사·청간정 복원, 왕곡마을 및 관동별곡 8백리길 조성
 - 북천하구 공원화(생태체험장), 지정관광지 개발(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백도마을 형 해변 조성, DMZ체험관광(명파 DMZ평화마을 조성)

제18장 양양군

비전 : 환동해권 관문 관광·레저 휴양도시

[지역개황]

(단위 : 명, 호, 백만원)

인구/가구/주택	인구수 : 25,475(1.73%), 가구수 : 10,381(1.85%), 주택수 : 11,954(2.22%)
경제실태	GRDP : 661,350(2.51%), 농림·어업 : 7.84%, 광업·제조업 : 9.0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 83.11%
토지현황	면적 : 629.32km ² (3.7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 8.69%, 임야 : 84.27%, 대지 : 0.91%,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 0.15%, 도로·철도용지 : 1.94%, 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 : 3.30%, 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 0.03%, 광천지·묘지·잡종지·미복구용지 : 0.71%
행정구역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주) ()안의 %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비중

자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강원통계연보(2009년자료)



1. 여건과 전망

- ‘해 돋는 땅(襄陽)’이라는 지명만큼이나 임산배수의 아름다운 고장
 - 한계령을 주 고개로 백두대간의 애환과 전설, 자원을 간직한 곳
 -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와 바다경관이 아름다운 곳
- 침체된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동서고속도로 개설,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등 교통망 개선의 경우 잠재력이 매우 높음
 - 서울에서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동해안 최단거리 지역으로 원주~강릉축 영동고속도로와 춘천-양양축 동서고속도로의 투톱체제로 형성될 전망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될 전망
 - 올림픽거점공항 지정을 통하여 국내외 항공노선 개발 활성화 기대
 - 항공을 통한 강원권 진출입 거점을 형성하여 배후도시 개발 등 기대
 - 양양신항만까지 건설 추진시 동북아 물동량의 전초기지로 발전가능

주요자원 현황

구 분	주요자원	특 성
자연자원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약수(천연기념물), 미천골 자연휴양림, 관동팔경(낙산사), 남대천(연어), 한계령, 구룡령, 동해바다, 낙산 및 하조대 해수욕장 등	연어가 회귀하는 남대천과 천연기념물인 오색약수, 남설악, 해수욕장 등이 유명
문화관광자원	낙산사, 오산리 선사유적지, 리조트(솔비치, 오색지구)	낙산사, 솔비치 리조트, 오색 관광지구 등 풍부한 관광자원 분포
산업기반	양양국제공항, 양수발전소, 포월농공단지, 농수산 및 서비스산업 등	설악권 군 지역들 중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높은 곳

2.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공간 구상
 - 남대천 친수공간 등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 녹색테마가로 조성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자전거도로 개설과 도심 공원화 및 녹지대 조성
 - 공공시설 확충 및 교통시스템 개선으로 도시 재정비, 신규 주거지역 개발, 아름다운 간판 및 거리 만들기 사업 확대

○ 교통망 구상

- 환동해권 항로 시대를 대비한 양양 신항만 건설 재추진
- 공항 이용 외국인의 설악권 체류 및 서울 이동의 복합 환승 교통체계 구축
- 동서·동해고속도로와 연결한 국·지방도 확충(국도 5호선 확장, 국도 44호선 오색케이블카 진입연결도로)
- 개발 촉진지구(여운포~송전간) 도로 확·포장 추진, 송현~가평간 제방도로 개설, 동호~상운간 경관도로 개설 등

3.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차세대 성장동력 지역전략산업 육성
- 북방교류 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북방교역의 전초기지 육성
- 그린 농공단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
-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
- 양양국제공항 배후 물류유통단지 조성

○ 관광 구상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동해안 탐방로, 자전거도로 조성
-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 오색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 진전사지 주변지역 불교 성지 조성
- 양양송이밸리,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 오토캠핑장 조성
- 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휴양 및 레포츠 산업육성
- 요트마리나 시설을 활용한 해상레포츠 육성
- 동산항 해양리조트 및 오산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

○ 연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 지역자원인 연어를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연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화
- 양양 연어특구 지정과 연어 자원증강, 가공 및 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

계 획 수립 의 경 과

2011. 3. 30	: 국토해양부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시달
2011. 4월	: 강원도종합계획(2011-2020) 수립 착수
2011. 4월 ~ 9월	: 부문별 구상 및 연구기획단 내부회의(15회)
2011. 10월	: 도 실국 및 시군 의견수렴(서면)
2011. 10. 24.	: 강원도종합계획(2011-2020) 시안 보고회 개최
2011. 10. 27. ~ 11. 25.	: 시군 순회방문 의견수렴(18시군)
2011. 10. 26. / 11. 9.	: 전문가(전략환경평가 포함) 자문회의(2회)
2011. 11. 10.	: 도민공청회 개최(전략환경평가 포함)
2011. 11. 15.	: 강원도의회 의견수렴
2011. 12. 22.	: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략환경평가 포함)
2011. 12. 27.	: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
2012. 1. 31.	: 각 부처 의견 수신
2012. 2. 20.	: 각 부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회신
2012. 2. 28.	: 국토해양부 승인완료
2012. 3. 8.	: 강원도지사 공고

■ 계획수립 총괄 : 강원발전연구원(원장 : 김종민)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 염돈민 선임연구위원

· 총괄간사 : 김재진 부연구위원(교통물류) · 조명호 부연구위원(지역·도시)

· 집필참여 : 김경남 부연구위원(방재), 김석중 연구위원(산업)
 김승희 부연구위원(주택), 김은숙 부연구위원(복지)
 김점수 선임연구위원(산림), 김충재 부연구위원(수산)
 이봉희 선임연구위원(관광), 이원학 부연구위원(과학·R&D)
 전만식 연구위원(환경 · 수자원), 한영한 부연구위원(환경·수자원)

■ 계획자문 :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 이영길 연구1본부장, 김인중 연구2본부장

■ 행정자문

· 배진환(강원도 기획관리실장)

· 최광철(강원도 기획관)

· 이계석(강원도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 김영철(강원도 기획관실 주무관)